

대상품 「용은별사(龍隱別墅)를 지나며」 - 용은별사(龍隱別墅) : 용은 별도의 농민(農夫)에 속하였다는 뜻. 세상의 바늘을 미더하고 근거하여 조종의 생명을 지나고서 흰 채취된 인성의 심경을 위하여 비성(非聲)대동(大同)을 이루게

龍隱別墅를 지나며

은서
용별



용은별사(龍隱別墅)는 용은별도의 농민(農夫)에 속하였다는 뜻. 세상의 바늘을 미더하고 근거하여 조종의 생명을 지나고서 흰 채취된 인성의 심경을 위하여 비성(非聲)대동(大同)을 이루게





책을 펴내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표적 문화예술 행사의 하나인 제9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훌륭한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여 영예롭게 입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뛰어난 작품만을 엄선하여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문예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1998년부터 공무원 문예대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금년에는 바쁜 일상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빛어낸 주옥같은 작품들이 4,500여편이나 출품되었습니다.

문학은 국가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귀중한 자산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은 천부적 재능을 지닌 작가에 의해 탄생했지만, 이는 문학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퇴고를 거듭하며 땀과 슬기와 열정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소중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은 문학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문학작품은 글을 쓰는 사람에겐 지식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학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며, 공무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공직과 국민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혼과 정신이 녹아 있는 작품들은 읽는 이에게 무한한 감동이 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은 비록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공직자들의 생각과 정서를 담은 우리 100만 공무원들의 소중한 자서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딱딱한 법규와 규정이 아닌 가슴으로 함께 하는, 그래서 화합과 사랑을 베푸는 다정한 공직자상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주옥같은 작품집인 「제9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과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2006년 8월
행정자치부장관

이 용 되



제9회 공무원 문예대전 입선 작품집에 부쳐



돈도 중요하고, 문명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물질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고, 기술·기계 문명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향수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삶은 죄가 아니지만, 정신적인 황폐 현상은 죄가 될 수 있다. 인간이 기계 문명을 믿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 혜택 때문에 인간 기체가 되어 기계의 노예노릇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신 보약이 그만이다. 인간 기체가 되어 사는 현대인에게 문화적인 예술 감각 치료제가 참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 세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밝혀주는 예술 감각 세계는 훨씬 더 부드러운 '국민의 일꾼'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주장한다. '문화의 꽃은 예술, 예술의 꽃은 문학'이라고.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한다.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그 민족을 인류 역사상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에서 한국문인협회와 공동으로 '공무원문예대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행사가 이 방면의 최고의 행사로 발전했다.



문인으로 등단한 최우수(대통령상:대상·총리상) 출신만 해도 30여 명이 넘는다. 최우수 작품은 ‘月刊文學’에 게재함과 동시 즉각 한국 문협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전국 공무원들이나 독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었다. 공무원들의 문화 예술 감각이 이 정도면, 앞으로의 공무원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의 아픔을 치료하는 기초 예술의 보약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중 예술과 잡기들이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까지는, 기초 예술인 문학의 바닷물이 배를 띄워줬기 망정이다.

이 행사를 빛내준 관계 부서의 힘이 컸다. 작품집의 수준이 행정자치부의 수준을 말해준다. 공무원들의 문화예술 감각이 돋보여 무엇보다 기쁘다. 한없이 박수를 치고 싶다.

제9회 공무원 문예 대전 심사 위원장 申 世 薰
 〈시인·文協 이사장〉



최치원의 은거지(隱居址)인 옹은별서 계곡 아래에서 올려다 본 하늘
천년 전에 선생이 본 하늘도 그랬을까? 비는 개었지만 하늘이 흐리다. -편집자註-

2 0 0 6

제9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제 9 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용은별서(龍隱別墅)를 지나며

초판인쇄 | 2006년 8월 18일

초판발행 | 2006년 8월 21일

엮은이 | 행정자치부(연금복지팀)

지은이 | 권지현외 56명

펴낸곳 | 에스케이 02-516-2366

이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9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제9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차례



- 격려사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축하 **신세훈** 심사위원장
- 대상 시 **옹은벌서(甯隱別墅)**를 지나며 | **권지현** | 서울 백산초등학교 교사 | 15
- 최우수상 시조 어떤 고도 | **이우식** | 강원도 평창군 지방행정주사 | 21
 수필 아름다운 원시 | **김영식** |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경사 | 23
 단편소설 신주연에 대한 추억 | **유소영** | 서울 국사봉중학교 교사 | 29
 동시 수태골에서 | **안영선** | 대구 지산초등학교 교사 | 53
 동화 눈사람 만들기 | **장영옥** | 서울 용마초등학교 지방기능직 | 55
 희곡 선(線) | **조영석** | 안산 초지고등학교 교사 | 67
- 우수상 시 모퉁이에서 피다, 지다 | **박일만** | 경기도청 지방행정주사 | 89
 시 날아라 붕어 떼 | **손현승**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 93
 시 썩레질 | **이종백** | 경북 경주시 지방농업주사 | 97
 시조 콩나물을 다듬으며 | **정영화** | 경북도청 지방보건주사보 | 101
 시조 거미 | **이명식** | 충북 옥천군 지방축산주사보 | 103

차례



- 우수상 수필 아버지의 도장 | **김덕준** | 서울 북부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 105
- 수필 마루의 미학 | **정승윤** | 광주 과학고등학교 교사 | 111
- 단편소설 필살기 | **조영석** | 안산 초지고등학교 교사 | 117
- 단편소설 알빈 토플러 권력이동 82쪽 | **홍길선** | 수원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 143
- 동시 계단을 오르며 | **배산영** | 안산 경일초등학교 교사 | 171
- 동시 새벽에 다녀간 마법사 | **김현욱** | 포항 구룡포초등학교 교사 | 173
- 동화 새싹 도둑 | **권영품** | 서울 용답초등학교 교사 | 177
- 동화 딱새가 누고 간 똥에서 | **김대조** | 대구 장동초등학교 교사 | 189
-
- 장려상 시 궁평리에서 | **김홍엽** | 방위사업청 화공주사 | 207
- 시 전시장의 쪽배 | **김정임** | 서울 지양초등학교 교사 | 211
- 시 겨울, 구룡마을 | **임정윤** | 서울 신명초등학교 교사 | 215
- 시 소호리 물안개 | **김동선** | 경기도 안성시 지방행정주사 | 219
- 시 본가 순두부 | **김영식** |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경사 | 221
- 시 사막을 건너갈 때 | **하상만** | 연천 대광중학교 교사 | 223
- 시조 제재소 풍경 | **노희석** | 영등포구치소 교회사 | 227
- 시조 허수아비 | **윤명진** | 서천 장항중학교 교사 | 229
- 시조 망덕 바닷가 폐선 | **이옥근** | 여수 안산중학교 교사 | 233
- 시조 교단 1 | **서관호** | 경주 황남초등학교 교사 | 237
- 시조 분재 | **문근식** | 충북 음성군 지방환경주사 | 241

차례



- 시조 인감을 새기며 | **김영기** | (前)제주 남광초등학교 교장 | 245
- 수필 이름모를 꽃 | **박미영** | 당진 서정초등학교 교사 | 247
- 수필 겨우살이와 가지미 | **남궁중** | 강원도 태백시 지방행정주사 | 253
- 수필 어머니, 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 **정재학** | 영암 삼호서중학교 교사 | 259
- 수필 은어와 춤을 | **김미광** |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교사 | 265
- 수필 동그라미 이야기 | **천동성** | 천안소년교도소 교위 | 271
- 수필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여성성의 미학 | **강효승** | 외교통상부 외무관 | 277
- 수필 파리 | **허동욱** | 강원도 강릉시 지방행정주사보 | 283
- 단편소설 화이트크리스마스 | **김현우** | 전남 광양교육청 지방기능직 | 291
- 단편소설 4°C |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지방행정주사 | 319
- 단편소설 A4와 로즈마리 | **안성두** | 울산 울주경찰서 경장 | 343
- 단편소설 재즈댄스 | **김은주** | 강원도 태백시 지방기능직 | 363
- 단편소설 비상 | **이인규** | 국방부 해군군수사령부 제1보급창 행정군무주사보 | 383
- 단편소설 새야, 새야 | **임종훈** | 대구 성산중학교 교사 | 411
- 단편소설 종점 | **심옥주** |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 교사 | 439
- 동시 시골아이 | **전세중**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지방소방령 | 467
- 동시 엄마의 사랑찾기 | **남정숙** | 영주 부석초등학교 교사 | 469
- 동시 못생긴 모과 | **배순아** | 여수 시전초등학교 보건교사 | 471
- 동시 도서관 | **송명숙** | 울산 동백초등학교 교사 | 473
- 동시 사월의 밤 | **류선경** | 구미 형남초등학교 교사 | 477

차례



- 장려상** 동화 다시 찾은 형 | 이수배 | 서울 한국우진학교 교사 | 479
동화 소금밭 아이들 | 김경희 | 해남 동초등학교 교사 | 491
동화 강아지 어머니 | 문제술 | 부천 고강초등학교 교감 | 501
동화 보람이의 방패연 | 정재형 | 전북 김제시 지방기능직 | 509
동화 채송화의 꽃물결 | 김정숙 | 광주고등법원 기능직 | 519
희곡 파브르 2세의 하룻밤 | 이윤정 | 성남 대원여자중학교 교사 | 529

- 부문별 심사평** 심사 총평 | 555
시부문 심사평 | 558
시조부문 심사평 | 560
수필부문 심사평 | 561
단편소설부문 심사평 | 562
동시부문 심사평 | 564
동화부문 심사평 | 568
희곡부문 심사평 | 569



대상 수상작

권지현

용은별서(龍隱別墅)를 지나며



권지현 서울 백산초등학교 교사

지지난해 봄, 모교의 문예창작대학원에서 떠난 문학기행 장소 중의 하나가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용연마을로 시 '용연별서를 지나며'를 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 여부를 떠나서도 태문장가인 최치원이 은거했던 집 '용연별서'를 상상하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은거지 근처에 있는 개울의 암벽에 마애 금석문이 천 년 세월을 넘어서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유한성과 무한성에 대하여 생황하게 되었습니다.

장곡면월계

두 물줄기 마을로 흘러들다 합쳐지는
월계리 용못 건너다 본다
물뱀 한 마리, 저 혼자 꼬리 흔들며 나아간다

천 년 흐른 바위벽에 雙磎, 楓嶽 새겨진 글씨 남아
‘崔孤雲書’ 손끝으로 훑으며 따라간다
청룡되어 굽어보았을까?

사방 물소리
돌아보면 숲속 드문드문 선명한 보라빛
오동 그늘에 ‘용은별서’ (龍隱別墅) 짓고 은거한 최치원
절레향이 바람에 실려와 머무는 동안
흙빛배인 투박한 보라빛 감자꽃은
촌로의 호미질 옆에서 내내 피었고

산새도 없는 적막
흙돌 부딪는 물소리만 귀에 높아
바위벽, 나아갈 데 없는 곳에 서서
마에 금석문 새기는 저녁
바람에 실린 절레향만 두 팔 가득하였으리

충남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 용연마을은 최치원이 한동안 은거했던 곳으로 월계계곡 서쪽 암벽에 그가 새긴 마애금석문이 천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최우수상 수상작

시조부문	이우식	어떤 고도
수필부문	김영식	아름다운 원시
단편소설	유소영	신주연에 대한 추억
동시부문	안영선	수태골에서
동화부문	장영옥	눈사람 만들기
희곡부문	조영석	선(線)



이우식 강원 평창군 지방행정주사

어떤 고도(孤島)

빛 바랜 주민등록증 뒷면 한구석에
굽이치는 등고선 돈을새김의 낙관
현기증 기쁜 호흡이 정체성을 묻고 있다

물씬 풍겨오는 끈적한 살 내음에
뜨겁게 부대끼는 갈등과 모순의 縮圖
혼자서 행선지도 없이 우두커니 섰는 나

默音의 소리같은 미로 속의 길같은
내 안의 나를 찾아 표류하는 그 목마름
그대 곁 언제나 숨어 떠오르는 섬 하나.



김영식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경사

‘치’라는 술잔이 있다고 한다. 가득 차면 기울고 비면 곧바로 선다는,
나이가 들 다는 건 조금씩 세상의 가치들을 비우는 과정이 아닐까?
‘치’라는 술잔처럼.

아름다운 원시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지면서 책읽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가까운 것들은 자꾸 흐릿해지는데 눈을 들면 그러나 먼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무슨 큰일인가 싶어 황급히 안경점을 찾았으나 자연스런 노화현상이니 너무 걱정 말라는 것이었다. 순간 마음이 울적해졌다. 싱그러웠던 내 젊은 날이 늦가을 낙엽처럼 천천히 나를 떠나고 있었다. 매양 봄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가을의 꼬트머리에 서있었던 것! 이다. 시간을 붙잡을 순 없을까? 눈이 더 흐려지기 전에 서둘러 안경을 맞추어야겠다고 걱정했다.

눈이 차츰 희미해진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는가? 더욱 그것이 노화현상이라니. '세월 앞에선 아무 것도 무한한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잠시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더러는 비 내리고 바람 불기도 했지만 눈이 밝았던 것처럼 모든 일이 확신에 차있어 쾌기만만했던 시절이었다.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이카루스처럼 세상을 다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젠 가만히 무릎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니. 가슴 한구석에 웅하니 동굴 같은 구멍 하나 뚫리고 그 곳으로 시린 바람이 간단없이 드나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한편으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음이 지

나간다는 건 아쉽고 견딜 수 없이 우울한 일이지만 젊음이 부질없이 거머쥐려 했던 욕망들이 흐릿해졌다는 건 일견 고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돌이켜보면 가까이 두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부와 권력, 명예, 자식, 의미 없는 잡다한 일상 등. 집착은 또 다른 집착을 낳고 한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희구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허만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것을 새삼 기억한다.

원시는 그러나 이처럼 부질없는 것들을 희구했던 젊은 날의 나를 반성케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저녁, 여러가지 욕심들을 내려놓은 빈자리로 먼 것들이 고요하게 건너온다. 오후의 교실을 울리는 맑은 풍금소리처럼 심금으로 전해져오는 것들. 아내가 덮인 먼 산, 노을을 떠밀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한 척의 배, 아득한 허공을 저으며 날아가는 새의 푸른 몸짓. 그리워서 언제나 안타까웠던 것들이 따스하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먼 것들은 내가 얼마나 안스러웠을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가치를 부여하려했던 내가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못마땅했던 주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졌다. 잔소리 많은 아내도, 공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아이들도 상대방 입장에서 수궁이 되어지는 것이었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잘 행해지지 않았던 노후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횡수가 많아진 것도 이때쯤이다.

중국의 송대(宋代)때 유학자인 주돈이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은 가까이서 만지거나 희롱할 수 없고 멀리서 조망할 수 있어 좋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 '향은 멀리까지 풍기며 멀수록 향기가 맑다' 라고 연(蓮)을 사랑하는 변(辯)을 말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연꽃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연못 가운데에 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선명해지는 원시처럼 감상하는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못이라는 그 일정한 틈이 객체인 꽃과 꽃을 바라보는 주체 간에 그리움을 형성하는 것이다. 소유하지 못해 못내 안타까운, 가만한 그리움의 거리가 연꽃을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처럼 가까운 사람과도 일정한 간격을 두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이든 친구든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서 곧 관계가 시들해지는 것을 왕왕 보게 된다. 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해 가졌던 애초의 신비감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을 종종 경험했던 것이다. 수평선, 먼 산, 허공이라 말하면 그것들의 풍경은 너무 멀어 아득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아득해서 언제나 그림고 은은한 것이다. 조선시대 때 화가 최북은 심미안(審美眼)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했다. 사물의 표피적인 현상만 보는 눈의 한계와 경도(傾倒)를 경계함이었으리라.

이젠 소중한 것일수록 조금 거리를 두고 보려한다. 그러면 그 가치들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리라. 마음으로 보는 눈, 내면의 것들을 읽어내는 혜안을 가진다면 좀 더 세상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이 원시현상도 그리 울적해 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육체의 눈이 멀어지는 대신 마음의 눈을 뜬 것이 여간 고맙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다.

가까이 놓여 있던 책을 저 만큼 밀어놓고 본다. 행간마다 희미하게 걸쳐져있던 글씨들이 순간 뚜렷해지면서 그 의미들이 제대로 이해되어 갔다. 살아가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들이, 그리고 조금씩

내 안에서 밀어내야 할 것들이 어디 책뿐이겠는가. 한 생각 덜어내니
마음은 땃잎 우듬지를 스치고 가는 가을바람처럼 가벼워진다.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지게 된 지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용
서가 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도 이즈음엔 나와 조금씩 화해를 시작하
는 것이었다. 원시로 얻은 심안(心眼)이 내게 준 아름다운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안경을 맞추는 일은 그래서 당분간 보류해보기로 한다. ⅢⅢⅢ



원시는 그러나 이처럼 부질없는 것들을
회고했던 젊은 날의 나를
반성케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저녁, 여러가지
욕심들을 내려놓은
빈자리로 먼 것들이 고요하게 건너온다.

-본문중에서-



유소영 서울 국사봉중학교 교사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중에 날마다 꼭 해야 하는 일 이면서 즐겁게 기다려지는 유일한 일이 '먹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먹음'이 기쁨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신주연에게 대한 추억>은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먹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들에게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침부터 정말 덥죠?"라는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약한 우리 이웃들.

내 옆에는 누가 그런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신주연에 대한 추억

그녀가 어제 새벽에 죽었다.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크게 나 현장에서 곧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었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는 빗길, 차선이 희미해진 좁은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었고, 그 차는 그녀의 작은 차를 들이받았다. 빗길이었고, 차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커브 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차가 계속 불안하게 다가오는 모양이 곧게 뻗은 길에서 보였고, 그녀가 대처할 시간은 비교적 충분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보험사는 그녀의 부분적인 과실을 지적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거나, 전화를 받고 있었거나, 아무튼 운전이 열중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고가 빈번해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들 모르는 거죠... 하면서 경찰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녀는 운전 중 전화 따위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차를 몰면서 나른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좀 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그녀, 신주연... 새벽에 무슨 일로였는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서까지 그녀는 급하게 무엇인가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먹어야 했기 때문에, 운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배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번 사고는 예정된 파국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죽은 어제 새벽, 나는 친구들과 광화문 어름에서 음식 가운데서도 그녀가 몹서리치게 싫어하는 육회를 먹으며 실없는 농담을 하며 취해가고 있었다. 죽음이 그녀를 삼킬 때, 나는 몇십 여 년간 그래왔듯이, 우적우적 내 뭍이라 하기에는 아무래도 과한 '먹을거리'를 감흥없이 삼켰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모양새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 잠시 멍해 있다가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곤 끄 돌아누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으며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쓸쓸한 생각에 잠시 몸을 떨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내가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이러다가 오래 못 가지……하는, 이제 나는 또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텐가, 하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곱씹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침에 가까운 새벽이었고, 나는 잠깐 아찔해하고 있었다.

……형이다, 처제가 조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다. ……여기 전주야. 잠깐이지만 함께 지낸 정이 있으니 너도 왔으면 좋겠어.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처제 아는 친구들이 누구 누구인지, 수첩이야 있지만 누구한테 알리고 누구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처갓집 식구들이랑 나뿐이다. 잡지사 일 그렇게 급하지만 않으면 너도 와. 뭐? 너 지금 알아듣고는 있는 거야? 그래, 주연씨 말이다. 사고였어. 교통사고. 전주 쪽으론 그 새벽에 왜 내려갔는지……. 병원은 찾기가 쉬울 거야. 차는 몰 수 없는 상탠 거야? 너 술 했니? 그럼 고속버스타. 터미널에서 가까워. 가능하면 빨리 떠나라. 첫 차를 타라구.

형은 무서울 정도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고, 형의 목소리 사이 사이로 누군가 고함 치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병원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

아이 울음소리 등이 복잡하게 섞여 들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세계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다음 순간 달력을 보고, 또 시계를 보았다. 4월 17일 새벽 5시. 봄의 한 가운데였고, 전주 쪽은 온화하고 아름다웠을 터였다. 맨 처음엔 화가 났고, 다음 순간 나는 헛구역질이 올라와 그 새벽에 밀어 넣은 육회를 다 게워냈다. 텅 빈 속으로 그 때서야 슬픔이 차올라왔고, 나는 그녀에게 웬일인지 용서를 빌고 있었다.

신주연. 그녀는 나와 사돈지간이었다. 그녀는 형수와 쌍둥이처럼 닮은 형의 처제였고, 내가 자리를 잡고 독립할 때까지 두 해 정도를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녀로 말하자면,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와 지나칠 정도로 밀착되어 있어, 언니 없는 생활을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건 형수도 마찬가지인 모양으로, 그녀가 단출한 짐보통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형수는 이십여 일의 이별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를 오래 껴안고 울었다. 그녀의 집은 내 형수와 그녀, 그리고 형의 처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돈어른은 서울 토박이로 대대로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나로 말하자면, 실은 무척이나 후줄근한 이유로 사실 기식하고 있다고나 해야 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형과 내가 전부로, 형도 나도 모두 서울로 진학하는 바람에 경남 밀양에서 농사꾼으로 사는 부모님을 떠나 오랜 세월 함께 자취를 해왔었다. 형이 장가를 갔다고는 하지만, 나는 홀로 나와 따로 방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그 때는 마침 졸업 후 바로 들어간 신문에 일 년 여만에 사표를 쓰고 속수무책 이런 저런 일들에 기웃거리고 다닐 때였던 것이다. 그녀와 나는 그렇게 만났다. 스물일곱 동갑이었고, 그녀는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아랫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웃었다. 무언가 참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 그녀를 계속 보았었는데, 그녀를 내 시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거실을 빙빙 돌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전주행 첫 차표를 끊고 차에 오르다가, 나는 운전기사의 눈을 보았다. 슬프게 충혈된 눈이었고, 나는 사고 당시 입을 잔뜩 부풀린 채 어찌면 울고 있었을 지도 모를 그녀를 생각했다. 차는 반 이상 비어 있었고, 그 곳에 자주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몇몇이 일찌감치 차창에 얼굴을 찡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 머리 속을 통째로 들어내고 싶을 만큼, 순간 강한 두통이 몰려왔다. 사는 일이 좇또 아무 것도 아니었네, 하고 탄식했던 어느 시인의 시구가 머리 속을 휩 지나갔다. 나는 지금 그녀의 죽음에 분향하러 가는 길이다, 하고 소리내어 말했고, 그래도 두통은 여전했다. 이른 아침, 서울은 푸른빛이었고, 그것은 낮선 죽음의 빛깔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녀를 조금 사랑했던 것 같다. 그 무렵은 오래 좋아했던 여인과 어처구니없이 갈라서고 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전체에 넋더리를 내고 있었다. 어찌면 그녀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결혼하거나 할 수 없을 그녀를, 그 불가능성이 가져다주는 묘한 안도감과 평화 속에서 나는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얼마 후 나는 형의 처제와 맺어지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형의 결혼으로 인해 그녀를 알게 되면서 애초에 내가 느낀, 형의 처가

식구로서의 그녀에 대한 거리감까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를, 어쩌면 많이 좋아했으면서도 말이다.

그녀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나는 아직도 모른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내게 웃어준 그 첫 만남 이후, 어떻게든 계속 알고 지내야 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내게는 또 다른 나와 마찬가지로 언니의 시동생이니 나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용한 듯, 친절하고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었고, 그러나 그 친절 속에는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었다. 내가, 언제나 변함없는 그녀의 친절과 깃들임이 자주 꺾끄럽고 싫었던 걸 보면 말이다. 형수는 얼마쯤 지나 내가 많이 편했던 모양으로, 가끔 내게 소리도 지르고 장난도 걸어왔지만, 그녀는 우리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언니가 저래도 돼나 하는 겁먹은 표정으로 억지로 웃곤 했다.

그녀와 내가,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것은 어느 밤, 그녀의 치부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후였다. 여름이었다. 식구들이, 식구들이라 해봐야 아직 형 부부에겐 아이가 없어 네 식구가 전부였지만, 오랜만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 하고 달디단 수박을 한 통 깨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아마도 제일 많이 먹었던 모양으로, 나는 중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 눈을 반쯤 뜨고 엉금엉금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냉장고 근처에 희미한 물체가 어른거렸지만 그게 그녀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혹시 그녀라고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목이 말라 나왔겠거니, 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잘 보이는 줄 아는 모양으로, 낮고 어딘가 화가 난 듯한 음성으로 -못 본 척 해요,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라고 빠르게 말했다. 나는 그제야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자세히 살폈는데, 그녀의 손에는 사흘 전엔가 형의 생일에

사 두었다가 모두들 시큰둥해하는 바람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생크림 케익이 들려 있었다. 나는 상황 파악이 안되어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가 머쓱해져서는 다시 잠을 청하러 들어왔고, 쉽사리 다시 잠들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은 빨래 내놓으세요, 라거나 식사하세요 따위의 말이 아니고는 그녀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고, 나는 그 말이 잘 해독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병명은 폭식증이었다. 폭식증……. 거식증이나,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대식증이라는 단어는 내게 꽤 익숙한 것이었지만, 폭식증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폭식증은 말하자면, 거식증의 요소와 대식증의 요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더 슬프고 괴로운 병이었다. 증상은 이렇다. 그 증상을 가진 사람과 아주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저렇게 먹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먹는다. 그런 점에서 거식증과 비슷하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음식을 구겨 넣는다. 그런 점에서 대식증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즉시 먹은 것을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대식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폭식증 환자들은 먹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거식증 환자와는 달리 내부에 숨겨진 식탐은 있어서, 몰래 먹는 것이다.

폭식증……. 남몰래 무엇인가 빠르게 입 속으로 구겨 넣기. 우리가 함께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녀는 계속 그런 슬프고 아픈 모양새를 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 세월이, 이미 너무 늦어 버린 것 같은 청춘에 먹히는 기분이었다. 1년 반 정도의 건달 생활을 지나, 내가 사표를 던진 신문사와 아무 것도 다를 것이 없는 월간지에 취직이 되어 얼마 후 그

곳을 빠져 나오기까지 나도 그녀처럼 무엇인가 빠르게 구겨 넣어왔다는 느낌이다.

그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나와 비슷하게 한 반년쯤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강서구 어름의 제법 규모가 큰 보습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기업 사원이었던 형과 영어교사였던 형수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생활을 했던 반면, 그녀는 늘 세 시쯤 집에서 나가 여덟 시쯤 돌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하는 법은 없어서, 나는 늘 그녀가 내는 작은 소음들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잠귀가 밝거나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런 저런 일에 넌더리를 내곤 그 무렵 나는 주로 잠을 잤기 때문에, 언젠고 깊이 잠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녀는 나와는 생활이 무척 불편했을 것이다. 폭식증 환자들은 음식에 있어서만 먹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몰래 먹는 것은 아니었다. 음식에 관한 증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지독한 내성성을 갖고 있었다. 내가 집에 있는 동안 그녀는 발소리도 죽였고, 욕실에서 나올 때는 샤워를 하고 나온 건지 세수를 하고 나온 건지 욕실 청소를 하고 나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언제나 작은 목소리로 양해를 구했고, 한 여름에도 반바지 따위는 입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숨쉬어야 하고 가끔 씻기도 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작고 작은 여인이었다. 그녀가 학원에서 그 말 안 듣는 중학생들을 향해 소리치는 것을 나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짧고 서먹한, 아슬아슬하고 상큼한, 대략 내가 일어

나는 열 시로부터 오후 세 시에 이르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존 콜트레인의 색소폰 연주와 그 한밤의 생크림 케이크와 푸생의 소설로…….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무심히 틀어놓는 존 콜트레인의 연주곡은 한참 마음이 어려웠던 신문사 초창기 시절, 신문사 동료가 내게 툭 던져준 것으로 그 무렵 반복해서 듣던 곡들이었고, 그녀가 새의 밥상 같은 애처로운 아침을 먹은 뒤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놓은 푸생의 소설은 내가 대학 때 아껴서 읽던 몇 안 되는 소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나는 지나가는 말로 콜트레인이거나 푸생에 대한 내 느낌을 던졌고, 그녀는 나를 다시금 물끄러미 새기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비밀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밤 이후, 그녀는 나에 대해 적어도 경계하는 듯하던 눈길은 보이지 않았고, 전에는 기를 쓰고 감추던 그 공포스런 소화제 멍치들도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다. 폭식증은 흔히, 끔찍한 소화불량과 변비를 동반한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녀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그 밤의 생크림 케이크 조각과 샛노란 색이었던 그 소화제 알약들이었다.

죽음의 순간, 그녀가 무언가 급히 삼키고 있지 않았기를 나는 바란다. 운전 부주의라고 했지만, 무언가 삼키기 위해 운전이 재울렀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먹기 시작하기 위해 그녀의 한 손이 핸들을 떠나있었기를 나는 간절히 빌어 보는 것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슈크림 빵의 봉지를 뜯는 중이었거나,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중이었거나 음료수 캔을 따는 중이었기를 나는 온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다. 맞은편 차가 정면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으로 건너갔다는 그녀에게, 마지막 순간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낼 여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만약 그랬다면 살아오는 순간, 내내 그토록 기를 쓰고 보존
해온 그녀의 ‘안 먹는 모습’이 마지막 순간, 보란 듯이 일그러졌을 것이
므로. 그것은 그녀에게 참혹한 모욕이므로. 그녀가 입 안 가득 빵이나
과자를 문 채 당혹스런 죽음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을 나는 상상
하기 힘들기에. 그녀의 ‘저 먼 곳’이, ‘저 건너 편’이 평안하지 않을 것
이기에. 아니, 무엇보다 그녀가 입 안에 무언가 물고 죽었다면 남은 날
들, 나는 단 한 순간도 편하게 먹을 수 없을 것이기에… 날은 완전히 밤
았고, 버스는 어느 작은 휴게소로 들어갔다. 잠에서 부스스 깨어난 사
람들은 무언가 따뜻한 것을 먹기 위해 내렸고, 나는 그 무엇도 먹고 싶
지 않았다. 남으로 내려올수록 봄빛은 찬란했다. 그녀는 왜 전주로 내
려간 것일까.

어느 가을이었다. 그 날 따라 그녀는 폭음을 하고 늦게 귀가했고, 내
가 일어난 시간까지 아무런 기척을 내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다. 가을
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바람이 많고 춥
고 흐린 날이었다. 나는 약국에서 약을 사들고 들어와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술이 텅 깎거나 기운이 없어서인지 쓸쓸한 눈으로 가
만히 웃어주었다. 나는 학원에 전화할까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몇 시
죠? 하더니 가만히 쫓그리다가 가야돼요, 아무렴요, 가야죠, 하면서 한
숨을 쉬었다. 그 날이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늦은 아침을 함께 먹었
고, 그녀는 내게 많은 얘기를 해주었다. 먹는 일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의 작은 방 안에 가만
히 슈크림 빵이나 인절미, 시루떡이나 구운 감자 같은 먹을거리들을 놓
아두곤 했다.

“그렇게 조금 먹고 어떻게 지내요?”

“저 그렇게 조금 먹지 않아요. 그 때 봤잖아요.”

“그 땐 정말 미안했어요. 난 그냥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거였는데…….”

“미안하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그런 거예요?”

“…….”

“아니에요, 말 안 해도 돼요.”

“보셨는 걸요, 뭘. 죽을 병은 아니니까 말하고 안하고도 없어요. 폭식 증이래요.”

그때 처음 들었다. 폭식증, 폭식증이라는 말…….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했더니 의사가 나를 물끄러미 보더군요. 그러더니, 여기서 치료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신과 소관이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어요. 병명도 그 때 들었구요. 내가 겁에 질린 것 같은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으니까 그가 그러더군요. 우리 문화에 정신과라는 게 무슨 큰 이상이 있는 사람만 드나드는 곳인 줄 알지만 실은 아니라고요. 어떤 병에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이 다 개입한다면 그 신체적인 원인을 내과나 외과에서 다루듯이 그렇게 치료하는 것뿐이라고, ……마치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는 그냥 폭식증, 폭식증이라는 말만 계속 웅얼웅얼거리면서 병원을 나왔구요.”

“다들 알아요?”

“친한 친구 두었, 그리고 언니랑 엄마만 알죠.”

“왜 그래요?”

“.....”

“미안해요. 난 그냥 뭐.....”

“말하기 곤란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뭐라 말하기 힘든 거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제게 폭식증이라는 말을 던져준 이후로, 저도 제 나름대로 내가 왜 이러나, 싫어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책에 보면 이런 저런 계기로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렇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런 저런 계기’ 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만 성적 인 것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정도였어요.”

“짐작 가는 건 있을 테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먹긴 했어요. 제가 언니랑 얼굴 생김만 많이 닮았지 체형은 완전 판판이잖아요. 자신의 체형을 의식하게 되는 나이부터는 아마 의식적으로 조금 먹었을 거예요. 조그맣게 보이고 싶어서요.”

“조그맣게 보이고 싶어서요?”

“그래요. 언니랑 단짝처럼 친해서 어릴 적부터 늘 붙어 다녔었는데, 밖에 나가면 다들 그랬거든요. 둘 다 이쁜데, 둘째는 애가 너무 꺼꾸정 하니 머슴애 같다고요.”

그랬다. 그녀는 컸다. 173이나 174센티쯤 되는 키로 그녀는 우뚝했다. 그렇다고 해서 날씬하다거나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날씬하지도 않았고, 어깨는 남자처럼 넓었다. 게다가 큰 키에 비해 다리는 그리 길지 않아서 옷 맵시 가 나지 않는 체형이었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이라는 걸 나중에 그녀로부터 들어서 알았지만, 아랫배가 많이 나왔으며 털 자란 파과기의 중학생처럼 작은 가슴을 갖고 있었고, 다리는,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O자형이었다. 그녀는 그저 ‘큰 여인’ 일 뿐이었다. 손도 크고 발도 크고 팔도 길었다. 다만 그녀의 이목구비가 조용하고 깊은 느낌을 주는 흐린 선을 갖고 있는 것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부조화라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목구비가 것처럼 흐리면서도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말하자면 그것은 그윽하고 지적인 품모였다.

“내가 크다는 사실이 참 싫었었어요. 조금 먹으면 이제 더는 자라지 않겠지, 싶었죠. 그게 일차적인 이유라면 이유예요. 그래서 제 걷는 폼도 약간 어색하잖아요. 어깨는 늘 굽어져 있고…….”

“…….”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다니 우습네요.”

가장 낮은 목소리로, 가장 흐릿한 인상으로 살아가는 ‘큰 사람’, 다만 커다란 사람, 신주연…….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진 건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봄에 신체검사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젊은 남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그 때 우리 반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키며, 몸무게며 가슴둘레를 잰데, 난 그 때 가슴에 작은 몽오리가 생겨 있었죠. …… 그 상황이 저주스럽더군요. 애써 옷을 끌어내리려는 나와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담임 선생님이 마주 서있던 그 어두운 교실의 풍경은 가끔 발작처럼 머리 속에 떠오르곤 하는 장면이죠. 그 때 이후 더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자라는 존재라는 게 싫고, 더군다나 키만 크는 게 아니라

큰 애들보다 훨씬 빨리 몸이 변하면서 어른처럼 자라나는 존재라는 게 끔찍하구요.”

그녀는 이마를 찌푸리다가 가만히 배를 만졌다.

“속 괜찮아요? 아침에 형수가 콩나물국 끓였던 데 조금 드려요?”

“그래요, 주세요. 밥은 됐어요.”

그녀는 늘 조금 먹었다. 식구들과 좀처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같이 먹자고 하면 늘 먼저 먹었다고 하는 적이 많았다. 휴일에 어쩌다 모두 다같이 집에 있게 되는 바람에 식탁에 함께 둘러앉게 되면 그녀는 언제나 식탁 한 귀퉁이에 앉아 식탁 위에 올려진 상치나 씻은 배추를 조금 뜯어 천천히 장을 발라먹거나, 국만 한 숟갈 씹 떠먹었다. 누군가 음식을 더 청하거나 하면 자신이 식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얼굴로 얼른 일어나서 움직였으며, 다른 사람이 먹기 좋도록 갈치 같은 걸 발라내는 일거리가 주어지는 밥상을 편하게 생각했다. 형의 큰 아이가 태어나자 그녀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는데, 나는 그녀가 조카라는 존재를 기뻐하는 것일까 모두들 식사할 때 아이를 도맡아 챙김으로써 식탁을 당당하게 떠날 수 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일까 생각해보곤 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챙기느라 가끔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 건네지 않아요?”

“예. 가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먹어야죠. 학원에서, 다른 동료 선생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것도 뵈하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 꾸역꾸역 밥 먹는다는 건 더 그렇고,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저만의 공간이란 게 학원엔 없으니까요.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 최대한으로 높여서 수업하고 나면 사실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 여인의 안타까움.

“난 사실 잘 먹어요. 잠깐동안, 아주 잠깐동안 돼지고길 입에 안 댄 적은 있지만요. 막내삼촌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땀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돼지 잡는 걸 바로 코 앞에서 보고 말았어요. 돼지는 죽겠다고 꺽꺽거리고, 돼지 잡는 아저씨는 그 돼지한테 무슨 원수라도 진 사람처럼 막 신경질을 부려가면서 죽이고, 동네 아저씨들은 아마 바쁜 사람 빼곤 다 모였지 싶을 정도로 주위를 뺨 둘러서 서는 침을 삼키고, 그러다가 돼지 배가 갈라지자마자 아직도 김이 나는 돼지간을 소금장에 찍어 한 점씩 우물거리며 웃어대고……. 한동안 못 먹겠더라고요. 뭐 물론 금방 잊어버리고는 없어서 못 먹었지만. 어, 표정이 왜 그래요? 국 먹는 데 내가 괜한 얘길 꺼낸 거군요. 내가 원래 이렇다니까…….”

“아니에요. 국 다 먹었어요. 그리고 비위가 상해서 음식 조금씩 먹는 건 아니에요.”

“머리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콜트레인 들을까요?”

“좋죠.”

가을, 늦은 아침, 바람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베란다 밖으로 무심히 내다본 주택가 거리는 고요하고 고요했다. 그녀와 무엇이든 양껏 먹고 싶은 아침이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맛있게 무언가 먹고 있는 걸 보면 어

편 느낌이죠?”

“요즘엔 그냥 부러움일 뿐이에요. 나도 저러면 좋을 텐데, 나도 저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한뼨 역겹게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게 옳은데, 저게 참 좋은 건데……. 우선은 그래야 제가 좀 살 것 같거든요. 폭식도 폭식이지만, 소화불량이 이미 만성을 넘었어요. 일단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젠 저 소화제 알약들 보면 공포스러워요. 저들이 이제 내 몸을 구성하고, 결국 나를 다 잡아먹을 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나은 거나 다름없네요, 뭐. 난 주연씨가 행여 내가 무언가 맛있게 먹는 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끔찍하게 보였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방금 했거든요. 내가 주연씨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싫기도 하구요, 또 만일 그러면 주연씨 상태가 심각한 거니까 앞으로 많이 걱정할 테구요…….”

그녀가 나를 향해 희미하게 웃는다. 이제 너는 내 편이야, 그런 웃음이다. 아슬아슬한, 닿으면 바스러질 것 같은 이 가을.

“근데……뭐 잘 드세요?”

“그건 왜요?”

“시간 있을 때 만들어 드리게요. 제 상태를 걱정해 주는 사람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내가 잘 못 먹어서 그렇지 나 음식 꽤 잘해요.”

나도 안다. 그녀는 음식을 잘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청소며 다림질이며 화초 가꾸기며 그 모든 일들을. 그녀는 잔손질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거의 도맡아 했는데, 그럴 때 그녀는 마치 수도(修道)라도 하는 사람처럼 집중된 모습이었다. 형수는 그녀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진 것 역시 기뻐했었다.

“뭘, 새삼스럽게……. 사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들, 형수 흥 잡힐까봐 살짝살짝 해놓아서 그렇지 대부분 주연씨가 만드는 거라 다 알고요.”

“어머…….”

“뭘요. 입맛에 딱 맞는 걸요. 형수하고만 있을 때보다 살이 다 쪼어 요. 워낙 안 찌는 체질인데두요. ……형수한테는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녀는 생강차를 끓여와 앞에 두고 빙글빙글 웃고 있다. 그녀의 저서글픈 폭식증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내성성까지를 마저 벗고 밝고 환한 여인으로 자랐을 것이었다.

“한때 먹는 문제 때문에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

“내가 그랬잖아요. 의사가 ‘이런 저런 계기로’ 먹는 걸 부끄러워하게 된 증상이라고 말한 이후로 내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대구요. 크는 게 싫어서 조금 먹은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니 아주 어렸을 때 기억 하나가 오롯이 떠오르더군요. 그게 엄마랑 관련된 거예요. ……혹시 남들이 못 먹는 거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뱀탕이나 개구리, 보신탕 같은 거요? 아니지, 그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잘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잡초나 벌레 같은 거 말예요? 식성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은데요.”

“어릴 때 개미를 좋아했었어요. 화단이 있는 단층 양옥집에 살았는데, 우리 집 벽을 타고 늘 개미들이 줄을 지어 귀엽게 행진하곤 했죠. 나

는 벽에 딱 붙어서는 한 마리씩 입에 썩썩 집어넣었었구요. 그게 끔찍한 일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들리기 전까지는 다행히 배탈 같은 것도 없었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우연히 내가 개미를 집어먹는 걸 보셨었죠. 벼락이라도 맞은 얼굴로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 입 안에 손을 넣어 이리저리 휘젓고 입을 행구게 하고 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엉덩이를 여러 대 때리셨어요. 그 때는 무척 부당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엄마가 너무 하기는 했죠. 때리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딴 걸 입에 넣기 시작한 거야? 니가 짐승이니?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왔어? 너 정말 짐승이로구나.”

“.....”

“아마 그 때부터 본격화된 것 같아요. 나빠지려고 그랬는지, 나중엔 키까지 너무 자랐던 거구요.”

“그리고 보니 나도 돼지사건 말고도 한때 먹는 게 슬프게 느껴진 적은 있네요. 물론, 꽤 유치한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마음으로 무척 좋아했던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지역은 아직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사립 명문이었죠. 그 학교 방침이었는데 어쨌는지 아무튼 학교에 여선생님이라고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입학하던 해 대학을 졸업하고 갓 부임한 젊은 사회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쁜 아니라 모두들 그 선생님을 따랐는데, 다만 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척이나 기품있고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먹는 게 잘못 되었는지 배가 많이 아파서 5교시가 끝나고는 양호실에 갔는데, 양호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 선생님이 한 구석에서 점

심 도시락을 급하게 드시고 있었어요. 아마 무슨 바쁜 일로 점심시간을 놓치고 늦게 식사하시는 모양이었죠. 급하게 드시면서도 무척 맛있다는 식으로 열심히 드시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무안할까봐 문을 살짝 밀어 닫고 나와버렸죠. 쉬는 시간이어서 꽤 소란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애초에 내가 문을 여고 들어서는 소릴 못 들으신 것 같았거든요. ……한 동안 식욕이 없었어요.”

“누구나 그런 적 있을 거예요. 하나도 안 유치해요.”

“좀 이상하더군요. 저이도 허기를 느끼겠지. 저이도 가끔 배앓이를 하겠지. 설사를 하겠지. 또 가끔은 변비에 걸려 반 시간이고 한 시간이고 끽끽거리겠지. 저이도 맛있는 걸 보면 못 참겠지. 과식도 하고 트림도 하겠지……. 며칠 동안 점심 시간에 의욕없이 앉아서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는데 반 아이들은 이 자식 요즘 이상해졌다고 깔깔거리면서 덕분에 내 도시락은 신나게 잘들 먹어냈죠.”

우리는 음악을 바꿔 듣고, 친구들이 이사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별 일이 없어도 꼭꼭 학교에 나오고, 주로 공부를 하고 가끔 학교 앞 단골 카페에 내려가 늦게까지 음악을 듣는 게 전부였다던 그녀의 대학 생활과 좌충우돌, 이른바 ‘인간 선언’과 ‘폐학 선언’이라는 걸 번갈아 선포하며 이리저리 늘 쏘다녔다는 기억만이 가득한 내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미래의 계획도 자신 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몇 년만 더 중학생들과 씨름한 뒤 외국에 나가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크게 부대끼는 일없이 밥벌이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만 말하면서 힘없이 웃었던 것 같다. 그녀는 깜빡 학원시간을 놓치고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는 급하게 머리를 빗고 택시를 잡으러 뛰어나갔으며 나는 그녀가 행하게 빠져나간 거실을 한 한 시간쯤 괜히 서성거렸던 것 같다.

그 뒤 우리는 많이 편안해지고 그녀는 가끔 날 위한 특식을 만들어주어 형수나 형의 눈흘김을 받곤 했다. 대학로에 나가 힘들게 들어온 유럽의 명화들을 가끔 챙겨보았고, 그녀는 늘 조금 먹었으므로 가까운 제과점에 들어가 몇 조각의 빵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저녁식사로 인해 건달 생활의 내 주머니는 안심할 수 있었다. …… 그 얼마 후, 나는 직장을 얻었고, 다시 그 얼마 후 그 집을 떠나왔다. 늘 바람이 많고 뽀뽀하여 창이 잘 닫히지 않던 오래된 연립주택을 나는 등지고 나왔던 것이다. 그녀를 떠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직장을 얻었고, 처음부터 사돈 처녀와의 생활을 당신이 먼저 미안해하고, 그에 비례하여 그런 생활을 불가피하게 만든 나의 건달 신세를 틈날 때마다 비난해온 아버지는 나의 명분 없는 ‘그 집 생활’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가끔, 떠나온 그 집으로 전화를 걸 때 그녀가 먼저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색한 몇 마디를 나누었다. 그리고 어린 조카가 첫 돌을 맞아 그 집에서 어딘지 피로해 보이는 그녀와 잠깐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만남이었다.

언젠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형의 장인과 장모, 그리고 형 부부, 그리고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는 몇몇 얼굴들, 그녀 또래로 보이는 핏기 없는 얼굴의 여인들 몇몇이 둔중한 무기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사람들 처럼 여기저기 산만하게 앉았거나 서 있었다. 형 부부가 힘없이 걸어 나와 나를 맞았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 그녀는, 사진을 속에 흐릿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찍는 작은 크기의 사진을 급히 확대한 모양으로 그녀의 모습은 무척 흐릿했고

그 웃음은 비웃음과 슬픔과 견딜이 섞인 이상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슬퍼 보이는 사람은 형수로, 그녀는 빨간 눈으로 목이 잠겨 있었다. 무슨 얘기를 꺼내면 한참 지난 후에 알아들었고, 자주자주, 그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나와버렸다는 듯이, 이젠 차라리 성가시다는 듯이 땀 났듯 눈물을 닦아 내었다. 그녀의 부모는 나를 알아보고 그녀 생전에 따뜻하게 대해주어 고맙다고, 그녀에게 얘기 많이 들었노라고, 이렇게 먼길까지 내려와 주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쥐었다. 그 때서야 나는 조금 울었고, 형의 장모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며, 나보다 조금 더 울었다. 쓸쓸하고 있기 괴로운 자리였다.

형의 장모의 손에 이끌려 나는 그 곳을 빠져 나왔다. 급하게 장만한 듯 간도 잘 맞지 않고 건더기도 별로 없는 약식 육개장을 병원 옆 건물에서 나는 우겨 넣었고, 술을 털어 넣었다.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다. 창밖엔 봄벌이 완연했지만, 이 봄 빛깔을 구경하려고, 봄을 냄새 맡고 조금은 생기로와 지려고 그녀가 이 곳으로 무작정 내려왔으려니 생각하자니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연두색일 뿐이었다. 나는 일을 핑계로 급하게 그 곳을 빠져 나왔고, 형은 내가 갈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

형의 부탁으로 나는 그녀의 차를 폐차장으로 넘기는 일을 도맡았다. 그녀의 차는 무슨 값비싼 외제차나 연예인들이 타는 차인 양 짙은 색으로 유리를 프린팅시켜 놓았었고, 그것은 그녀의 소형차에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였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폐차장에서 본 그 짙은 프린팅 유리는 더 생경스럽고 무언가 섬뜩했다. 혼자 있는 장소에서 먹기 위해 차를 택했고, 또 완전하게 혼자이기 위해 유리를 칠해놓은 것이지

만 결과적으로 그 색깔 입힌 우리가 그녀를 암흑으로 몰고 갔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다른 물건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이리저리 훑어본 그녀의 차 속에는 작은 가위 하나만이 나왔다. 본 적 있는 가위였다. 운전 중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봉지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빵이나 과자를 먹을 때 그녀가 손쉽게 사용하는,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를 닮은 작고 윤이 나는 가위였다. 그녀의 작은 가위는 그녀의 차와 함께 폐차 처리되었다. 그녀의 차임을 드러내는, 그녀 차의 일부이기에 나는 그것을 따로 챙기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형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부탁했을까. 어쩌면 형은 내가 그녀에 대해 품고 있던 그 불가능의 연정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하여, 그 거대한 폐허의 구렁 속에서, 흥측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차 앞에서 그 모든 검은 빛깔들을 다 떠나보내기를 바랬던 것인지 모른다. 그 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얼마 후, 형은 내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화장시켰음을 뒤늦게 알려왔다. 굳이 연락 안 했다. 그냥, 그러는 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형은 아무런 설명없이 그렇게만 말했다. 피로한 음성이고, 형의 음성 위로 나는 거대한 불길의 환영을 떠올리고 있었다. 폭식증에 걸린 듯, 주로 조용히 타오르기만 하다가 가끔 무언가 공포소리 집어삼키는 불길은 때를 만난 듯 그녀를 아귀아귀 집어삼켰을 것이고, 이제 그 어떤 계절스런 식욕도 나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었다.

* * * *

이제 두 돌이 가까운 내 조카는 내 형수를 빼다 박은 듯 했고, 그러므로 그녀를 많이 닮은 셈이었다. 그 애는 눈이 무척이나 맑고 아이답지

않게 깊은 인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문득 한 곳을 오래 응시 하곤 했다. 어느 날, 형 식구들이 동네 근처 유원지로 소풍을 나갔을 때 녀석은 무심코 개미를 입에 넣었다고 했다. 그녀가 떠날 때 처럼이나 밝디 밝은 봄날이었고, 녀석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바위틈에 줄지어가 던 개미를 속속 입으로 가져갔다고 했다. 형수는, 그녀가 떠난 뒤 한꺼 번에 늙어버린 내 형수는 녀석의 엉덩이를 때리는 대신 다만 서럽게 울 었다고 한다. ⅣⅣ



형수는
그녀가 떠난 뒤 한꺼번에 늙어버린
내 형수는
녀석의 영당을 때리는 대신
다만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본문중에서-



안영선 대구 지산초등학교 교사

우리의 무관심으로 하루가 타르게 파괴되어 가는 자연은
잠시 후손에게 빌려 이용하는 것이기에
자연 그대로 물려 주어야 한다.



동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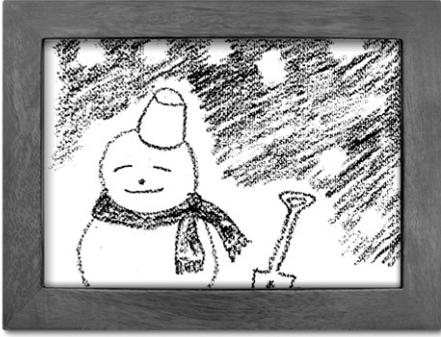
수태골에서

날도래야
강도래야
미안해
난 너희들이 사는 줄 몰랐어.

각다귀야
깎다귀야
미안해
난 너희들의 집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사 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살아
비누로 손 안 씻을께.

수태골은 대구시 북쪽에 있는 팔공산 계곡으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 수서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다. 경치가 아름다워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여름에는 피서 인파로 지금의 수태골은 몸살을 앓고 있다.



장영옥 서울 용마초등학교 지방기능직

첫 눈이 내립니다.

세명의 남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힘을 합쳐 눈사람을 만듭니다.

그 눈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눈사람 만들기

K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난 이렇게 큰 병원에는 처음 와 본다.”

태현이가 하얀 장미꽃을 조심스럽게 안은 채 말합니다.

“그래? 난 예전에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었어. 있잖냐… 그 흔한 맹장 수술 말이다.”

금테 안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리며 여느 때처럼 선민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습니다.

“몇 호라고 그랬지?”

“503호. 바로 여기야.”

선민이는 대답과 동시에 503호 문을 푹푹 두드립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병문안을 괜히 온 게 아닐까 하는 후회감이 문을 통해 슬며시 밀려옵니다.

“뭘해? 빨리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떠미는 태현이와 함께 덩달아 선민이도 병실 안에 들어갑니다. 503호에는 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창가 쪽에 놓여진 침대 위에 긴 곱슬머리 소녀가 누워있습니다. 왼쪽 다리는 무릎까지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너희들 왔구나!”

누워 있던 소녀는 상체를 구부리며 일어나 침대에 살짝 기대앉았습니다.

“왜 혼자 있는 거야? 수아야.”

태현이가 주변을 둘러본 후 물어봅니다.

“엄마는 방금 전에 집으로 가셨어. 밤새 병원에 계셔서 힘드시잖아. 내가 혼자 있어도 되니까 오후에 다시 와달라고 말씀드렸어.”

“네가 좋아하는 하얀 장미야. 선민이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샀어.”

태현이가 백장미 한 다발을 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태현아. 그리고 선민이도...”

선민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몇 초 후,

“수아야, 미안하다.”

“미안하긴... 그냥 사고였는걸.”

지난 달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민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세 명의 남학생들은 운동장 한 쪽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신재찬, 김선민, 박태현. 4-2반에서 가장 유명한 삼총사들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선생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녀석들은 재찬이의 말솜씨를 이기지 못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베드민턴의 도사예요. 일주일 동안 이미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셋은 그냥 축구할래요.”

태현이도 재찬이에게 질세라 외쳐댁니다.

“우휴, 저 녀석들.”

머리를 흔들면서도 선생님은 그 세 명이 밋지 않은가 봅니다. 지난 시간 베드민턴 평가에서 세 학생 모두 만 점을 받았습니다.

‘평가가 끝났으니 자유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지.’

선생님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장 한 편에 쌓아둔 목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강당을 만들려고 잠시 쌓아둔 목재가 무너지고 그 옆에는 신재찬이 있는 힘껏 발로 찬 축구공이 뒹굴었습니다.

“선생님, 수아가…민수아가 다쳤어요. 수아 다리가 둥그런 나무 기둥에 깔렸어요!”

503호 병실 창가로 햇살이 비칩니다. 유리병에 꽂아둔 백장미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투명하게 보입니다.

“재찬이는 같이 오지 않았니?”

수아가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응, 그 녀석 말이야. 같이 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굳이 싫다고 그러더라.”

“그래?”

수아의 얼굴빛이 흐려집니다. 태현이와 선민이는 당황해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제 곧 퇴원이지, 수아야? 나흘 뒤에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나 다행이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힘들었지?”

“겨울인데 눈이 내리지를 않네. 창 밖을 봐도 그냥 쓸쓸하기만 해.”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아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꺼냅니다.

“눈이 왔으면 좋겠어.”

12월도 중순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 첫눈이 내리지를 앓았습니다. 내일은 수아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눈이다! 눈이 온다.”

교실은 순간 이수라장이 됩니다. 커다란 눈송이가 띄엄띄엄 내려오더니 이내 온 하늘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조용히’를 외치던 선생님도 단념을 했는지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눈을 맞으며 깔깔거립니다. 커다란 눈몽치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아도 병원에서 눈 오는 걸 보고 있겠네.”

태현이가 재찬이에게 눈몽치를 힘껏 던지며 말합니다.

“오늘 남아서 눈사람을 만들자. 마침 수요일이니 수업도 4교시면 끝나잖아. 퇴원기념으로 내일 수아에게 눈사람을 선물하는 거야.”

“신재찬, 너는 수아가 눈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니?”

선민이가 안경 아래로 눈을 기늘게 뜨며 물어봅니다.

“예전에 같이 눈사람을 만든 적이 있어. 유치원 다닐 때 말이야. 민수아는 그 때부터 하얀 눈을 좋아했지. 아이스크림도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좋아해. 요새 여자아이들은 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말이야. 아이스크림도 초록색보다는 하얀 색이 좋단나?”

세 남학생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눈사람이 내일까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김선민. 일기예보에 내일까지 눈가루

가 펄펄 날리고 기온은 영하 7도로 푹 떨어진다고 나왔거든.”

재찬이는 자신있는 표정을 지으며 손에 브이자를 그립니다.

“좋았어! 수업 끝난 후 근사한 눈사람을 만들자.”

새하얀 눈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토색 모래벌판 위로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고 아이들의 발소리에 쿵쿵거렸던 운동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운동장 주변에는 야트막한 산이 빙 둘러서 병청처럼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발자국을 콧콧 찍으며 눈 위를 사뿐히 걸어갑니다.

하얗게 펼쳐진 공간을 누비며 세 명의 소년들이 눈뭉치를 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찬이, 선민이, 태현이가 따로따로 눈을 뭉쳐 손으로 둥근 공을 만들었습니다. 세 명의 소년들은 눈덩이를 힘껏 굴립니다. 살금살금 발을 움직이던 비둘기가 이번에는 부리로 눈을 툭툭 찌어댑니다. 눈덩이는 점점 커져서 산 속 깊숙이 박혀 있는 바윗돌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눈덩이를 하나로 모아 눈사람 몸체를 완성시키자.”

재찬이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팔로 쓱 닦으면서 말합니다.

“삼총사 합체!”

선민이와 태현이는 각각의 눈덩이를 굴려 재찬이의 눈덩이에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영차, 영차.”

울퉁불퉁 굴곡이 있는 커다란 눈덩이를 반들반들하게 만들려고 세 명의 소년들은 팔을 쭉 뻗어서 눈덩이를 함께 굴립니다. 듬직한 몸체가 완성되자 눈사람 머리도 만들었습니다. 소년들은 동그란 머리를 몸체

위에 올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야호, 완성이다.”

“짜식, 꽤 멋있는걸. 나보다 더 멋진데…”

선민이가 눈사람 얼굴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워 합니다.

“음… 이 눈사람은 여자 눈사람이야.”

재찬이가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눈사람이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선민이와 태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재찬이를 바라봅니다.

“애들아, 우리는 지금 재미삼아 눈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 눈사람은 바로 수아야. 그러니까 여자 눈사람이지.”

“이 눈사람이 수이라고?”

태현이는 새삼스러운 표정으로 눈사람을 올려봅니다.

“예쁘게 꾸며야 해. 솔잎으로 눈썹도 붙이고 몸에 꽃을 장식하는 거야. 그리고 눈사람이 춥지 않게 목도리를 휘휘 감아줘야 하지.”

재찬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신나게 떠들어댁니다.

“그렇다면 남자 눈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선민이는 안경을 쓴 남자 눈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며 의견을 내놓았 습니다.

“뭐? 남자 눈사람? 눈사람을 하나 또 만들지는 거야? 난 더 이상 눈사 람을 만들 힘이 없어. 지쳤단 말이야.”

태현이가 투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그럼 나 혼자 만들게. 안경 쓴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어.”

선민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눈뭉치를 새롭게 굴립니다.

투덜거리던 태현이도 선민이가 혼자서 눈을 굴리는 게 안쓰러운지 같

이 눈을 굴려댁니다.

“야, 신재찬. 넌 뭐하는 거냐? 선민이가 ‘안경 쓴 눈사람’이란 불후의 명작을 남기려고 하는데 너도 좀 거들여라.”

재찬이는 여자 눈사람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귀찮다는 듯이 팔을 휙 내저을 뿐입니다. 방금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눈사람 몸체 양 옆에 꽂았습니다. 근사한 팔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푸르스름한 솔잎을 눈사람 얼굴에 붙였습니다. 아치형의 귀여운 눈썹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쁜 화관을 씌우면 좋을 텐데. 꽃이 없으니 나무이파리를 이용해 볼까? 그런데 나무라고는 소나무 밖에 없으니…’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재찬이의 침묵을 깨뜨리는 소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엄마, 너 끝까지 그럴 거냐? 나랑 같이 만들었잖아.”

“처음부터 말했지, 이건 내 눈사람이라고… 난 꼭 안경을 만들어 눈사람 얼굴에 걸쳐놓겠다고 말했잖아.”

선민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안경을 걸치라고! 누가 뭐라고 그랬냐? 하지만 나도 같이 만들었으니까 이 콜라깡통을 꽂아서 눈사람 귀를 표현할거란 말이다.”

귀가 유난히 당나귀처럼 벌어진 태현이는 남자 눈사람의 귀를 크게 나타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안돼! 콜라깡통은 고상한 안경 눈사람 모습을 다 망쳐버린단 말야.”

선민이는 완성된 남자 눈사람 앞에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태현이를 막았습니다. 콜라깡통 두 개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태현이는

갑자기 깡통을 공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선민이에게 마구 달려듭니다.

“비켜! 이 놈의 눈사람 내가 다 망가뜨릴 거다.”

태현이는 선민이를 확 밀치고 남자 눈사람 몸뚱이의 일부를 손으로 파냈습니다. 또 선민이가 미술시간에 사용하고 남은 철사를 엮어 어렵게 만든 안경을 눈사람 얼굴에서 껌싸게 빼내어 발로 콧 밭 밟았습니다. “너…너……이 자식… 박태현.”

선민이의 얼굴은 눈사람보다도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재찬이 옆으로 다가갑니다.

“여자 눈사람 만들기는 잘 진행되고 있냐?”

“물론이지. 태현아, 너도 옆에서 날 좀 도와줘. 안경 쓴 눈사람처럼 엉뚱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녀석들이… 다들 뭐라는 거야?”

입으로 가늘게 중얼거리던 선민이는 재찬이가 정성껏 다듬고 있는 여자 눈사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사람 머리부분을 손으로 내리치자 얼굴 한 쪽이 보기 싫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발로 눈사람 몸체도 걷어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재찬이가 선민이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놔! 다함께 만든 눈사람 따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신재찬, 사실 수가 다친 건 모두 너 때문이잖아. 네가 수업 시간에 축구를 하자고 먼저 말했어. 또 네가 발로 찬 축구공에 잘못 맞아서 쌓아둔 나무더미가 무너진 거야. 다 네 잘못이라고!”

“뭐라고?”

선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찬이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선민이의 안경이 얼굴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세 명의 소년들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운동장에는 몸이 씩씩 씩씩 패인 눈사람 두 개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재찬이는 밥도 먹지 않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몰래 꺼내온 당근을 소중히 안은 채 어둑어둑한 아침 길을 걸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은 내 것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눈사람은 찹지 않을 테지.’

그것보다도 빨리 눈사람을 원상복귀 시키는 일이 다급합니다. 재찬이는 밤새 눈사람한테 별 일이 없었는지 궁금해 하며 학교로 뛰어갑니다. 혈레벌떡 운동장에 들어섰는데 벌써 누군가가 와 있습니다. 선민이가 남자 눈사람을 다시 잘 다듬고 있습니다. 잘려져 나간 부분에 새 눈을 붙여서 손으로 열심히 두드립니다. 집에서 가져온 빈 깡통 두 개를 남자 눈사람 머리에 꼭 집어넣었습니다.

“여,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학교에 나왔냐?”

“엄마, 너랑 같은 이유겠지.”

재찬이와 선민이는 한동안 마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 너희들 언제 온 거야?”

내가 학교에 제일 먼저 나온 줄 알았는데...

멀리서 태현이가 혈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칩니다. 손에는 금색노끈으로 어설픈게 만든 장난감 안경테를 들고 있습니다.

“빨리 눈사람을 꾸미자. 수아 눈사람이랑 우리들 눈사람. 콜라깡통은

내 귀, 금테안경은 선민이 안경을 말하지. 재찬아, 너는 남자 눈사람에 네 목도리라도 동여매라.”

태현이는 재찬이를 향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재찬이는 어제처럼 여자 눈사람 옆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자 눈사람 얼굴 위에 주황색 당근을 올려놓아 코를 만들었습니다. 솔잎으로 눈썹을 붙이고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양쪽 팔 끝에 장갑도 끼웠습니다. 누나 모자에 장식된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장미꽃을 몰래 떼어와 눈사람 몸에 붙였습니다. 마침내 예쁜 여자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반 선생님이 세 명의 소년들에게 다가갑니다.

“너희들 교실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는 거니? 오늘은 눈싸움 안한다. 바로 수업할 거야.”

“우리는 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아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잖아요. 수아에게 선물하려고 어제부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태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앗, 저기 수아가 온다.”

선민이는 교문 쪽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어느 새 눈사람 근처에 모여든 4-2반 학생들은 침을 꼴깍 삼킵니다. 멀리서 수아가 조심스럽게 운동장을 걸어옵니다. 아직도 다리는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하얀 코트를 입은 수아가 살며시 웃으며 친구들 앞에 섭니다.

“괜찮아?”

수아에게 가까이 다가간 재찬이가 조용히 묻습니다.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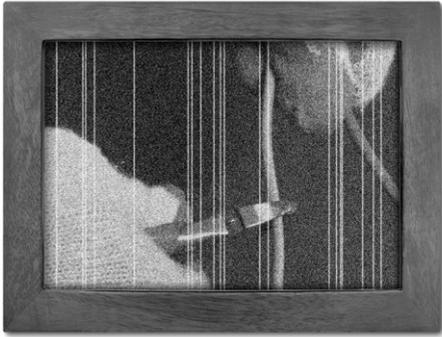
“미안해.”

“.....”

“퇴원 축하해, 수아야. 나랑 선민이, 태현이 셋이서 너한테 보여줄려고 눈사람을 만들었어.”

수아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눈처럼 포근한 12월의 아침입니다. ⅢⅢⅢ





뭐어? 이거 참 기가 막히는군 그래.
사내 세 놈 중에 두 놈이 색맹이야? 잘났군, 잘났어!
색도 못 보는 것들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수컷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 만들기를!
그러게 내 진작부터 여자들 좀 뽑자고 했잖아!
여자들을! 이미련한 놈들아!

-본문중에서-



조영석 안산 초지고등학교 교사

선(線)

등장인물

박해철(50세, 남) : 폭발물 처리 1반, 최 연장자

최수재(30세, 남) : 폭발물 처리 1반, 신임반장

경찰청장(52세, 남) : 극중에서는 목소리로만 등장

기자(26세, 여) : 이슈방송국 신입기자

카메라맨(28세, 남) : 이슈방송국 카메라맨

막이 오르면, 무대 중앙에 거대한 기둥이 서 있다. 기둥 앞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목재 상자에만 붉은 조명이 떨어진 다. 잠시 후 무대 전체가 점차 밝아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경찰청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극중 등장인물과 경찰청장 사이의 대화는 무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경찰청장의 말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인물에게만 들린다.

경찰청장 : (목소리만 들린다). 알린다! 전 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라. 폭발물 소재가 파악되었다. 장소는 최신빌딩 지하창고다. 다시 한 번 알린다. 폭발물 소재가 파악되었다. 최신빌딩 지하창고다. 폭발물 처리는 1반이 맡고, 나머지는 빌딩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한다. 이상 상황실이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무대 왼편으로부터 폭발물 처리반 두 명이 두리번거리며 들어온다. 해철과 수재다. 해철은 반백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배가 다소 나온 체형으로 회색 상의와 검정색 방탄조끼의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걸치고만 있다. 해철은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무대중앙에 설 때까지 머리를 굽적이다. 허리에는 무전기를 차고 있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다. 한편 수재는 단정한 머리에 썩 잘 빠진 몸매를 갖고 있다. 회색 작업복은 물론 그 위에 입은 검정색 방탄조끼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서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해철을 따라 무대 중앙까지 와서 선다.

해철 :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나무상자를 훑듯 한 번 보면서) 반장님, 여긴가 본데요. 저어기 저 상자가 폭탄인 것 같습니다만….

수재 :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발 좀 박경위님! 말씀 놓으시라니까요. 엇그제 회식 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반장이긴 하지만 경위님 조카뻘 아닙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해철 : (진심어린 표정으로) 허허, 어디 그럴 수야 있나요. 저 같은 말단 반원이… 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반장님이야 폭발물 처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엘리트시니까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드려야죠.

수재 : 아니 말단 반원이라뇨? 경위계급이 어떻게 말단입니까?

해철 : (어깨에 단 견장을 툭툭 치며) 아, 이거야 개근상 아닙니까? 개근상!

수재 : (간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그러지 마시고 제발요! 예?

해철 : 허허 그럼 그래볼까요? 반장님께서 정 불편하시다면야 하는 수 없으니… 그런데 이게 당최 습관이 돼 나서 그런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구만요. (약간 망설이며) 어이, 최, 최반장! 흐흠, 그것 참 어색하네.

수재 : 하하, 그것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최반장, 최반장 좋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이신데 그 때까지 많이 좀 가르쳐 주시구요. 그런데, 저 상자가 폭탄이 확실한가요?

해철 : 아 그럼 새로 지은 건물 창고에 저런 나무상자가 뭣 때문에 있겠나? 폭탄이 아니면 개집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수재 :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음 역시.

해철 : (가방을 열어 설계도면을 꺼내며) 허 참 이 사람 정색은... 자, 어디 봐 볼까? 청장이 말한 곳이 지하 창고니까...(설계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이곳저곳 짚어보다가) 옳지! 여기야, 여기. 지하창고. 그럼 저 놈을 일단 열어 보고 나서...(상자로 다가가 뚜껑을 열기 위해 이리저리 매만진다).

수재 : (해철이 놓고 간 설계도면을 바라보며) 확실히 여기가 맞나 봅시다, 경위님.

해철 : (뚜껑을 열어 한 쪽에 치워 놓으며) 아이구, 이거 아주 큰 놈으로 다 심어 놓으셨군 그래. 하긴 뭐 이 정도는 싸질러 놔야 테러가 되지, 암 그렇고 말고.

수재 : (폭탄 쪽으로 다가서며) 시한폭탄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해철 : 어디 보자... 한 40분 정도 남았군. 그것 참, 이거 설치한 놈도 어지간히 똥줄이 탔던 모양이야. 아니면 아주 초짜거나. 40분이 나 남겨 놓고 출행량을 놓다니... 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40분이면 이런 폭탄 쯤 열 개는 조립했다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말이야. 최반장도 학교에서 그런 실습 많이 했지? 어쨌거나 여유는 좀 있겠는 걸.

수재 : (진정으로 분노하는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그나저나 박경 위님! 어떤 놈들이기에 이런 흉악한 짓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최신빌딩 개관식 행사를 노리고 한 짓 같은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썩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건지 원. 이 놈의 테러범들은 죄다 씨를 말려버려야 하는데….

해철 : (다시 무대 전면으로 나오며) 허허, 엘리트 반장님께서 꽤나 험한 말을 입에 담으시는군. 아주 쌤님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닌 모양이지? 그래, 최반장은 세상을 갈아엎고 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 하긴 젊은 나이에 그 만한 지위까지 얻었으니 불만 따위야 있을 턱이 없겠지만 서도, 이해하네, 이해해.

수재 :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다 압니다만, 전 저만 잘되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디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불특정 다수를 말이죠. 무슨 개인적 복수에 얽힌 것도 아니고…. 이 빌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일 겁니다. 저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약 저 폭탄이 터지기라도 해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게 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해철 :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도 그렇지. 최반장 말도 맞아. 알고 보면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말이야, 테러범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게 아니거든. 정확히 말하자면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을 죽이는 것이지.

수재 :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 모임을 죽이는 게 뭐가 다르죠? 죄로 치자면 오히려 후자가 더 한 건데…….

해철 : 그래, 그래. 허허, 최반장은 아직 정의의 피가 온 몸을 흐를 때니

까. 하긴 나도 잘 모르겠어. (전선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그냥 이것거리를 20년쯤 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인데. 어느 때부턴가 폭탄을 보면 말이야, 가끔 그 속에 전선이나 화약 같은 게 아니라 이글이글대는 울화가 들어있지 않았나? 그제 눈에 보일 때면 아! 내가 명색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중생들의 울화를 풀어주기는 커녕 죄다 흠어버리는구나 싶은 게... 한 건 처리하고 나면 개운함 보다는 오히려 짹짹한 느낌이 들더라 말이야.

수재 :

해철 : 아! 내 정신 좀 보게. 이거 사실이 길어도 너무 길었군 그래. 이쯤 하고 폭탄을 제거해야 하겠지?

수재 : (깜짝 놀라며) 아! 그렇군요. 저도 낮을 놓고 있었네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겠는데요. 그런데 폭탄 종류는 어떤 겁니까?

해철 : (가방을 열어 여러 가지 공구를 꺼내며)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때?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디 좀 봐 볼까? ㅎㅎ. 아무리 수석졸업생이라도 단박에 알 순 없을 거야. 어찌먼 최반장은 처음 보는 놈 일지도 모르고, 암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고 말고.

수재 : (폭탄 쪽으로 가면서) 너무 애송이 취급하지 마세요. 이래 봐도 지난 4년 동안 최신 폭탄에 관한 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했던 말입니다.

해철 : 그래? 그거 대단하군. 난 폭탄에 관련된 책은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말이야. 역시 엘리트는 뭐가 달라도 다르군!

수재 : (잠시 폭탄이 담긴 상자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이, 이거 혹시 메두사 아납니까? 몇 년형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저것 끼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해철 : (고개를 가우뚱하며) 메두사? 그 폭탄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
나? 소시적 우리들 사이에서는 미친년의 머리카락이라고 불렸
던 건데. 메두사? 메두사라... 참, 그럴 듯 하게도 이름을 갖다
붙였군. 그래, 그 메두산가 하는 폭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

수재 : (머리를 긁적이며) 사, 사실은... (갑자기 통명스럽게) 아! 저건
30년 전에나 유행하던 거 아닙니까? 단순한 작동방법에다가 위
력도 최신식 폭탄에 비하면 턱없이 약한 거구. 폭탄을 감싸고 있
는 형형색색의 선들이 특징이며...에...또...

해철 : 아, 이 친구... 그런 거 말고, 4년 동안 배운 것 중에 저 미친년
의 진정방법 정도는 들어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수재 : (다시 머리를 긁적이며) 저, 그계... 시험공부 때 보기는 했었는
데... 그림으로 는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시험문제에도 잘 나
오지 않을뿐더러 최근의 테러리스트들은 거들떠도 안보는 거라
고 교관도 그랬었고...

해철 : (놀리듯) 허허, 그래? 아 그림, 저 미친년한테 물어뜯기는 수밖에
없겠군. 이 정도 거리에서 저 년한테 당하면 시체가 하도 너덜너
덜 해져서 신원조회도 안되는데, 이거 아주 사단이 났군. 청장한
테 무전 넣어서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 모두 대피시키라고 해.
이 시간이라면 최소한 반 정도는 빼낼 수 있을 거야.

수재 : (해철의 팔을 붙잡으며) 아, 이거 웨이러십니까 박경위님. 경위
님께서 활약하실 때 폭탄인데, 설마 모르신다고는 하지 않겠죠?
게다가 이 최신빌딩엔 대통령 각하도 와 계신단 말이예요! 또
사람들을 무사히 대피시킨다고 해도 이 빌딩은요? 예? 백층짜리
빌딩이 어디 흔하십니까? 세계 최초라구요. 최초! 국가의 자존심

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 날인데 이런 날 그 난리를 피우란 말
입니까? 망신이죠, 망신! 그러지 마시고...메두사 해체방법, 알
고..... 계시죠? 예?

해철 : 이제야 청장이 옷 벗을 날 만 기다리고 있는 중늬은이를 여기 집
어넣은 이유가 좀 보이는군. 고얀 놈 같으니. 그러게 나이 좀 있
다고 죄다 옷을 벗기면 어찌란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구! 하긴 청장 제 놈이 만든 대통령을 제 손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말이야. 마음까지 편하게 해주는 서
비스라 이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아주 타고난 게 분명해.

수재 : 예? 그건 무슨 말씀이죠?

해철 : 아, 아닐세. 그건 저 미친년을 진정시키고 나서 얘기하지. 내 옷
벗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에 관한 거거든. 이 봐, 최반장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쳐. 자, 그럼 어디 한번 진정제를 투여해 볼까.
(공구를 몇 개 챙겨들고 폭탄 쪽으로 간다).

해철과 수재가 상자를 둘러싸고 폭탄 해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기자와 카
메라맨이 무대 왼 편에서 등장한다. 뒤를 돌아다보는 행동을 반복하며 살금살금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기자 :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오케이. 카메라, 카메라 켜요.

카메라맨은 객석을 등지고 기자를 찍는다. 기자는 객석을 향해 선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옷매무새를 바로잡는다. 해철과 수재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

기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속보입니다. 여기는 긴박한 상
황이 진행되고 있는 폭발물 제거 현장입니다. 저희 이슈방송에

서는 지금부터 독점으로 최신빌딩 폭탄테러가 해결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시청자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빌딩에서는 대통령 각하 내외분과……

해철 : (뒤를 휩 돌아다보며) 뭐야!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최반장 저 것들 빨리 붙잡아. 빨리! 카메라부터 막아! 카메라!

수재 : (카메라 앞을 손으로 막으며) 카메라 치워요! 당장!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나 있는 겁니까?

기자 와 카메라맨 수재는 잠시 몸싸움을 벌인다. 결국 수재는 기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다. 해철도 뛰쳐나와 카메라맨의 목살을 잡고 씹씩거리고 있다.

기자 : 좋아요. 자아……. 휴우. 알았어요, 알았어. 촬영 중단 할 테니까 그 손 좀, 그 손 좀 이제 놓으세요. (카메라를 붙잡으며) 이게 지금 얼마짜리 카메라인데…….

카메라맨 : (어깨에 뒹겨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제 됐죠? 아, 이거 너무 뻑뻑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기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요?

해철 : (다소 진정된 목소리로) 당신들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고, 어? 대답해 어서! 허튼 소리 들 하면 바로 즉심으로 넘겨버릴 테니까.

기자 : (아주 새침하게) 좋아요. 대답하죠. 그러니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흠흠. 경찰 무전을 좀 엿들었을 뿐이에요. 전 이슈방송 신참

기잔데, 특종 한 번 잡아보려고 경찰서 옆에서 내내 죽치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 무전내용을 엿들어 보니까 최신빌딩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기에... (어깨를 한 번 올렸다 내리며) 정말이에요. 이 정도가 뭐 큰 죄가 되나요? 아무튼 이거다 싶었죠. 게다가 이 빌딩에 있는 축하객들도 모르는 일이니 아주 큰 건이다 생각했고.

수재 : 참, 여기자 양반이 담 한 번 크군. 아님 미쳤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로 당신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어. 국민 혼란 조장 죄까지 더 하면 사형이야 사형! 알아?

기자 : 몰라요! 그 딴 거 몰라요! 오히려 당신들이 미친 거 아닌가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지금 무슨 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해철 : 허 참, 당황스러운 여자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소. 그나저나 카메라 양반 이거 미안하게 됐소. 이런 일이 내 평생 처음이라 순간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그래, 얼마나 방송에 나간 거요?

카메라맨 : (목을 어루만지며) 뭐 괜찮습니다. 일단 방송국에 송신이 된 다음에야 전파를 타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부에서는 방송사고 쪽으로 치부됐을 수도 있구요.

수재 : (타이르듯이) 어이 기자양반, 여자가 무섭지도 않아요? 저 폭탄이 터지더라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걸레가 되요 걸레가.

기자 :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 한 몸 걸레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해철 : 대단한 투사 한 명 나셨군. 아무튼 우린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

니 방해하지 말고 저기 한 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일단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 내 이번엔 진짜 특종하나 전해 줄 테니. (폭탄을 해체하러 무대 뒤편으로 간다).

기자과 카메라맨은 무대 오른 쪽으로 가서 앉는다. 둘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수재가 해철을 도우러 가려는 순간 무전기 신호음이 울린다.

수재 : (기자과 카메라맨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아, 예. 폭발물 처리 1반장 최수재입니다

경찰청장 : (목소리로만) 이봐 최반장! 폭탄은 어떻게 되었나? 해체는 완료했어? 뭐가 이리 오래 걸려.

수재 : 지금 한창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박경위님이 아, 아니 박경위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 그래, 박경위라면 믿을 만 하군. 윗분들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조용히 잘 처리하라고. 수천 명 되는 민간인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그런데 폭탄 종류는 어떤 것인가?

수재 : 예! 구형 메두사로 추정됩니다만.

경찰청장 : 메두사? 허허, 그것 참. 경기가 불황이라더니 요즘은 테러범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가보군. 알았네. 여하튼 잘 처리 하도록 하게.

수재 : (객석을 향해 절도 있게 거수 경례 하며) 예, 알겠습니다. 충성!

해철 : (상자 안에 얼굴을 들이민 채로) 청장이 뭐라고 하나?

수재 : 아 예, 다 되었느냐구요.

조용한 가운데 시계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커진다. 갑자기 소리가 그치고 상자 속에서 수증기가 분사된다.

해철 :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진다). 아악!

수재와 기자, 카메라맨 모두 해철에게 달려간다.

수재 : (해철을 일으키며) 무슨 일이에요? 예? 박경위님, 박경위님!

기자 : (조용한 목소리로 채근하듯) 카메라 켜요! 카메라.

카메라맨이 무대 오른 편으로 달려가 카메라를 들고, 쓰러져 있는 해철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수재를 찍는다.

수재 : (두 눈을 양손으로 감싸며) 이, 이런 방심했어. 놈이 트랩을 설치했을 줄이야. 저런 정도의 미친년 머리는 수도 없이 해 치웠었는데. 빌어먹을. 아, 아악!

수재 : 눈, 눈이 안 보이세요?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괜찮으세요? 어서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그래, 무전기, 무, 무전기.

해철 : (다소 안정을 찾은 듯) 이봐, 최반장. 꽤 괜찮아.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지금 구급차 부르고 뭐하고 하면 폭발해. 늦는다구. 난 견딜 수 있으니까. 자네가, 자네가 해. 다 처리하고 몇 가닥 안 남았어. 상자 속을 보면 여섯 가닥의 전선이 보일 거야. 단순해, 단순한 일이야. 나머지 전선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돼. 알았지? 모든 문제가 그렇듯 폭탄도 단순한거야. 이것저것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건 몇 가닥 선 뿐이지. 그걸 자르면 문제는 해결 돼. 자 어서, 어서 가라고! 빨간 색, 빨간 색 선을 자르면 끝이야. 알았지? 빨간 색이라고! 엘리트라니까 선을 자르는 방법 같은 건 알지?

수재가 폭탄을 해제하려 간 사이 카메라맨은 눈이 보이지 않는 해철을 찍는다. 해철은 누워서 괴로워한다.

기자 : 전송하고 있지? 사운드는 나중에 입히면 되니까. 무조건 전송해. 알려야 해. 이 사람만 찍지 말고, 저기 저 반장인가 하는 사람도 찍고

카메라맨은 해철과 수재를 번갈아 가며 찍는다.

수재 : 제기랄. 이런 제기랄. (해철에게 다가온다).

해철 : 무슨 일이야? 문제가 생겼어?

수재 : (저의 울먹이며) 어떡해요? 박경위님. 흐흐흐.

해철 : 왜? 선이 없어? 내가 뭘 잘 못 말했나?

수재 :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사, 사실은…….

해철 : 말해봐. 사실은 뭐? 어서, 시간 없어!

수재 : 사실은, 사실은, (해철 옆에 주저앉으며) 저…색약이에요. 적록 색맹이라구요. 어느 것이 빨간 색인지, 초록색인지… 젠장 분간이 안가요.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검정색과 흰색은 알겠는데…나머지 네, 네 가닥이 모두 같은 선처럼 보여요. 흐흐
흑! 이젠 어떡하죠?

해철 : (벌떡 일어서며) 뭐, 뭐라고. 뭐라고 이 놈아! 폭발물 학교를 나온 놈이 색맹이란 말이나?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시험은, 그럼 시험은… 어떻게 학교에 입학한거냐고, 어떻게?

수재 : 외, 외워서요. 간단한 색약검사는 모두 외우면 통과할 수 있거든요. 폭발물 대학에 꼭 가고 싶어서 그만….

해철 : (잠시 낫나간 표정을 짓다가) 잘했군, 아주 잘했어. 머리만 좋으면 죄다 엘리트구만 그래! 무전기, 무전기를 쥐어줘! 빨리! 알려야 돼! 알려야 된다고! 아직 5분은 넘게 남았을 거야.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다고. (수재가 무전기를 쥐어준다).

청장! 청장! 이봐 청장! 좀 받아봐! 제발!

경찰청장 : …….

해철 : 나야! 나라고 박해철이!

경찰청장 : 박경위? 어처구니가 없군. 이것 봐 경위가 치안의 총수를 그
따위로 불러도 되는 거야 지금?

해철 : 그래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구!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
야. 알려! 사람들에게 알려! 폭발물 처리가 불가능해졌어!

경찰청장 :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그래? 박경위도 나이를 먹으
니 할 수 없군. 그런데 어떡하지? 지금 사람들을 대피시킬
순 없어. 혼란이 일어나 서로 깔려 죽는다는 것쯤은 노련한
박경위님도 알고 있을 테니 긴 말은 않겠어. 거기서 끝을
봐! 해결하라고. 너희들의 실수로 전 경찰의 명예를 실추 시
킬 순 없는 일 아닌가?

해철 : 이봐! 청장!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젠 정말 끝이야!

경찰청장 : 그래?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10초면 되니까.

해철 :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대답해!

경찰청장 : …….

해철 : 대답하라니까!

잠시 뒤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다. 수재와 해철은 소리가 나는 무대
왼편을 바라본다. 기자와 카메라맨은 촬영에만 열중하고 있다.

해철 : (떠지지 않는 눈을 치뜨며) 이게 무슨 소리지? 청장! 무슨 일을
한 거야?

경찰청장 : 나라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거지.

해철 : 뭐라고!

경찰청장 : 천한 것들은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 제 일을 한
다니까. ㅎㅎㅎ. 이제 되로는 없어! 거기서 폭탄을 해제하던
지, 아니면 폭탄과 함께 산화하라고. 내 각하께 잘 말씀드려
주지. 너희들의 멸사봉공을 말아야. 잘 하면 훈장을 받을 수
도 있을 거야. 아 참! 국립묘지에서도 가장 좋은 터를 마련
해 주도록 하지. 후손들이 길이길이 기리도록 말아야! 박해
철이, 널 너무 오래 살려둔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정년은 보
장해주려고 했지만, 이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하진 말고 일이 잘 해결되면 보자고.

수재가 무대 왼 편으로 달려 나간다.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온 수재
는 당황하는 모습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기자와 카메라맨은 상황을 깨닫지 못하
고 계속 촬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철 : 훈장? 국립묘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야 다 죽는다고. 이 빌딩에 있는 사람 다 죽어. 다아 죽는다구!

경찰청장 : 허허, 이 사람 안 본 사이 새가슴이 다되었군. 하긴 지난 20년
동안 술타령만 하며 보낸 중늬은이가 세상 돌아가는 걸 어찌
알겠어? 최반장 말로는 메두사라던데, 알잖아? 그 정도 폭탄
으로 이 빌딩 안 무너져. 이미 출동한 반원들은 거의 다 관할
서로 돌아갔어. 박경위와 최반장, 너희 둘 만 남은 거야.

해철 : 20년간 술타령만 했다구? 오냐, 그래. 잘도 20년이라는 숫자를
꺼냈군. 개자식! 난 알고 있어! 전부 알고 있다고!

수재 : (폭탄을 확인하고 뛰어와서) 경위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해철 : (아랑곳 하지 않으며) 지금의 대통령, 결국 자네가 세운 거 아닌가? 난 봤어. 난 그 때 네 놈 앞에서 다 봤다구!

기자 :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 저 사람 얼굴 클로즈업해서 찍어 봐요. 자체 사운드 최대한 높이고!

경찰청장 : 난 또 무슨 말이라고. 지금 공소시효도 끝났을 옛날 얘기를 하지는 말인가? 흠흠,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군. 몇 분 안 남았다며? 그냥 죽기로 결심했나? 잘했군, 한 시름 덜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그럼 잘 가게.

해철 : 이봐 그러지 말고 문 열어! 사람들 대피시키라고. 자네 이 건물 설계도를 단 한 번이라도 보고 하는 말인가? 폭탄이 놓여 있는 저 기둥, 저 기둥이 백층 높이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이라도 뿌리가 흔들리면 그걸로 끝이야! 이봐 그걸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경찰청장 : …….

해철 : 이봐! 대답해! 대답 좀 하라구!

경찰청장 : 그래,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야. 하지만 이 빌딩은 최신식 설계로 지어진 백층짜리 건물이야. 내진 설계가 아주 철저하게 된 건물이란 말이지. 미친년의 몸부림쯤으로 무너지진 않아!

해철 : 그래. 미친년은 고작 단층 집 한 채를 날릴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저 기둥, 저 기둥이 이 건물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설계도가 있으면 좀 보란 말이야! 이봐, 내 다시 한 번 말하지. 창고 문 열어! 그리고 각 소방서에

연락하고 사람들 대피시켜! 이 일만 해준다면, 내 지난 일을 지금
까지처럼 가슴에 묻고 가지. 정말이야!

무전이 끊긴다.

해철 : 이봐! 청장! 청장! 이 개자식이!

해철은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주저앉는다.

수재 : (떨리는 목소리로) 박경위님! 경위님?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나
요?

해철 : 쟤장. 그냥 다 죽으라는데. 개자식!

수재 :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예?

해철 : 최반장, 거기 그러고 싶지 말고 남은 시간이나 보고 와.

수재는 상자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시계를 본다.

수재 : (떨리는 목소리로) 6분 남았…… 아니 5분 59초, 58초 57초 ㅎㅎ
흑. (해철 옆으로 비틀비틀 걸어와 주저앉는다).

기자 :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요? 폭탄 처리 안하시고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6분 남았다면서요?

수재 : …….

해철 : …….

기자 : (카메라맨에게) 우리 나가요!

해철 : (별안간 생각 난 듯이 고개를 무대 오른 편으로 돌리며) 그래! 그
래! 이봐 기자양반! 기자양반! 아직 거기 있소? 카메라맨도?

기자 : (무대 왼 편으로 황급히 뛰어나려다가) 왜, 왜요?

카메라맨 : (해철 쪽을 돌아보며)…….

해철 :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겠어. 쉬, 쉬운 일이니까 겁내지 말고. 어서 이리, 이리 좀 와봐요! 어서!

기자와 카메라맨이 주춤주춤 해철에게 다가간다.

기자 : (해철 옆에 앉으며) 그게 무슨 말이죠?

해철 : 최반장! 그가 위 이 사람 좀 쥐어줘!

수재 : …….

해철 : 최반장! 그가 위 좀 이 사람 주라니까! 뭐해! 정신 차려!

수재 : 예? 아, 예!

수재 급히 뛰어와 어리둥절해 하는 기자의 손에 기위를 쥐어준다.

기자 : (화들짝 놀라며) 이게 뭐예요? 예?

해철 : 가서 빨간 색 선을 잘라! 그래야 우리 모두 살 수가 있어!

기자 : (손을 벌벌 떨며) 뭐, 뭐라구요! 맥들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해철 : (손을 더듬어 기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으며) 당신 손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 어차피 우린 여기서 나갈 수조차 없어.

카메라맨이 황급히 무대 왼 편으로 뛰어 나간다.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

카메라맨 : (목소리만) 문 열어! 문 좀 열란 말이야! 문 열어! 살려줘!

해철 : 자! 들었지? 상황이 안 좋아. 아주 안 좋다구. 난 눈이 안 보이고, 저 최반장은 색맹이야. 빌어먹을. 빨간 색, 빨간 색 선만 자르면 되는데…하필이면, 부탁이야. 설마 여기서 같이 죽고 싶진 않겠

지. 살아서 좋은 방송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야? 안 그래?

기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니죠? 지금 농담하는 거죠? 설마요. 폭탄을 처리할 수 없다니.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아악!

해철: (기자를 흔들며) 젠장! 이 양반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선 목숨도 버릴 수 있다면서!

시계초침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커진다. 기자는 시계소리에 정신을 빼앗긴 채 가위를 놓치고 발작을 일으킨다. 카메라맨이 돌아와 기자를 진정시키려 애쓴다.

해철: (표정 없는 얼굴로) 이봐! 카메라맨! 그럼 자네가……

카메라맨: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못, 못해요. 저도 색맹이라……

해철: (허탈한 목소리로) 뭐어? 이 거 참 기가 막히는군 그래. 사내 세 نوم 중에 두 نوم이 색맹이야? 잘났군, 잘났어! 색도 못 보는 것들이 뭐가 그리 잘 낫다고… 수컷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 만들기를! 그러게 내 진작부터 여자들 좀 뽑자고 했잖아! 여자들을! 이 미련한 놈들이!

시계초침 소리 조용하게 들리는 가운데 네 명 모두 잠시 동안 말없이 있다.

해철: 어쩔 수 없지. 그 수밖에는. 이봐, 카메라맨! 이리 와서 남은 시간 촬영이나 좀 하지. 내 아까 특종을 준다고 하지 않았나? 설마 이 부탁도 못 들어 준다는 건 아니겠지?

수재는 냇 나간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챙기러 가는 사이 기자는 울부짖으며 무대 왼편으로 뛰어간다. 철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기자 : (목소리만) 누구!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살려 주세요!

카메라맨 : (표정 없는 얼굴로) 도대체 어떤 촬영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 판국에 특종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해철 : 지금 촬영하면 생방송으로 바로 나가긴 하는 건가?

카메라맨 : 그렇긴 합니다만... 방송국에서 자르지만 않으면요. 선이 필요 없는 최신식 카메라거든요.

해철 : 최신식이 좋을 때도 다 있군. 물론 그것도 나사 하나 빠지면 불구가 되겠지만. 마이크를 이리 주게. 자 그리고 내 얼굴이 좀 잘 나오게 하고.

카메라맨이 객석을 등지고 해철을 찍는다. 초침소리 급박하게 들려온다.

해철 : 흠흠. 저, 저는 서울 시경 폭발물 처리 1반 소속 박해철 경위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물론 이 빌딩에 모인 수천의 사람들도 곧 죽을 겁니다만 (눈물이 흐른다). 죽기 전 꼭 알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빌딩이 무너지는 건 폭탄 때문도 저의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경찰청장, 경찰청장 때문이지요.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라는 저의 보고를 무시했어요. 아마 그는 지금쯤 건물을 빠져나가 안전한 곳에 있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치안을 맡고 있다는 자는. 20년 전 국립묘지 폭발 사건, 다들 기억 하고 계실 겁니다. 어찌 잊을 수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처음으로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때를 말이지요. 최초로 민간인 대통령이 탄생한 지 막 6개월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통령은 각료들을 이끌고 국립묘지에 참배를 갔었지요. 저와 경찰청장은 그 때 같이 폭발물 처리 반 대원이었습니다. 그

날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기 30분 전, 공원 지하창고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범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저와 지금의 청장은 조용히 폭탄을 제거할 목적으로 공원 지하창고로 갔습니다. 간단한 폭탄이었습니다. 빨간 색이나 파란 색 둘 중 하나를 끊으면 해결되는 일이었지요. 그 때 청장은 빨간 색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파란 색을 잘랐습니다. 폭탄의 시계는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알려야 한다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저의 말에 그는 그냥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감정에 북받친다) 흑흑, 이제야 이 일을 제, 제가…흑흑. 그 후 지금의 대통령이 군부를 이끌고 정권을 차지했고, 그 때 말단 경찰이었던 지금의 청장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흑흑! 부디 여러분!

말을 마친 해철은 주저앉는다. 수재가 놀란 표정으로 해철에게 다가간다.

카메라맨 :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죽기 직전에 좋은 사실 하나 알고 가네요. 젠장.

수재 : (해철을 얼싸안으며) 경위님……. 박경위님!

카메라맨이 무대 오른 편으로 가 앉는다. 무대 중앙에서 수재는 해철을 안고 있다. 기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철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시계의 초침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커진다. 점차 어두워지면서 빨간 조명이 폭탄위에 떨어진다. 어느 순간 초침소리가 똑 그치고 잠시 뒤 무대의 조명이 꺼진다. 막이 내린다.

IIII



우수상 수상작

시부문	박일만	모퉁이에서 피다, 지다
시부문	손현승	날아라붕어 떼
시부문	이종백	썩레질
시조부문	정영화	콩나물을 다듬으며
시조부문	이명식	거미
수필부문	김덕준	아버지의 도장
수필부문	정승윤	마루의 미학
단편소설	조영석	필살기
단편소설	홍길선	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82쪽
동시부문	배산영	계단을 오르며
동시부문	김현욱	새벽에 다녀간 마법사
동화부문	권영품	새싹도둑
동화부문	김대조	딱새가 누고 간 똥에서



박일만 경기도청 지방행정주사

아침, 저녁 오가는 길목에 반평 남짓 콘레이나 박스
그 속에서 새내는 헤진 구두를 수선하고 닦는다.

살은 늘 고단하지만 백여명같은 희망을 품고 산다. 지친 일상이 때문에
그만 두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키지만 끝내 포기하지 못한다.

중년들의 삶을 태연하듯 습관처럼 중얼거린다.

소시민적 생활상이 펼쳐지는 거리. 그렇듯 사람들이 부러지며 살아가는

확장한 거리이지만 해와 달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뜨고 진다.

아주 (생관적)으로 맑이다.

모퉁이에서 피다, 지다

김정 칠을 하고도 희게 웃는 사내,
 목발 세워 둔 한 쪽 발을 길게 밖으로 걸쳤다
 희망을 켜 놓은 듯 백열등 밝혀 둔 좁은 공간
 피곤한 구두를 벗어 수선을 맡기는 저녁 무렵
 골목은 늘 객관적이다
 바닥까지 검정물든 손을 탁, 탁 치며, 이제 그만 해야죠
 그만되어야죠, 습관처럼 중얼거린다 초로의 사내
 십 수 년인 듯 굵어진 손마디가 고집스럽다
 내 구두는 이제 항해를 끝낸 폐선처럼 어둡다
 좀처럼 광택이 살아나지 못할 거죽으로 찌그러져,
 능동적이지 못한 내 성품을 비웃듯 손 빠른 사내
 헤진 일상을 기우고 봉긋한 광택을 생산 한다
 허리춤을 꾸욱 찌르고 견고한 실로 혈관을 심고
 벌겋게 온몸을 지지고 닦아 환하게 빛을 복사해 낸다
 속내를 보이진 않지만 손에 친친 광목을 감으며 말하겠지
 자, 다시 한 번 가면을 쓰고 살아 보세요
 그래도 세상은 적당히 가리면 살만 하잖아요

구석에 앉아 왁스에 취해 밖을 바라본다
이 거리에서 오래오래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들과 나
그만 뒤야지, 이제 정말 쉬어야지 하면서도
끝끝내 꽃피고 싶은 무화과나무 척박하게 웃는 거리 모퉁이
천천히 천천히 아주 객관적으로 어두워 간다.





손현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서기

영등포 허름한 골목길에 붕어빵을 굽는 벙어리 부부가 산다.
벙어리 부부나 그들이 굽는 붕어빵이나 그 안에서 붕어빵을 사먹는
사람이나 골목보다 더 허름한 얼굴에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인생의 지문이
잔뜩 묻어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상력으로 붕어빵을 살려주는 일뿐이다.
상처난 지느러미를 가지고 허공으로 펼쳐 뛰어오르는.
그들만이 지나면 이제 곧 만월로 빙글을 채운.

날아라 붕어 떼

그 골목길에 들어서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주머니에서 풀죽은 지느러미를 꺼내는 것이다
 짹짹한 불내가 묻어있는 골목길
 더러는 손바닥 가득 거친 별이 자라고
 더러는 눈 밑에 굵은 상처를 키우는 우리는
 병어리 부부가 불 속에서 낚아 올리는 손짓 발짓의 붕어떼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성한 지느러미 하나 없이
 가슴 속 고인 말들이 꺾꺾 놀려
 피멍같은 팔양금으로 자리잡는 동안
 붕어떼는 골목 끝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돌아오고는 한다
 우리도 모두 저 뜨거운 불길 어디쯤에서 뛰쳐나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
 비밀의 옛 文字들이 갓 구워낸 붕어 위에 덮여
 돌아가야할 길의 지도처럼 우리들 두 눈에 일렁거리고 있지만
 아무도 제 눈을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애초부터 성한 놈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상한 몸이라고 물 속을 못 걸어가겠는가
아픈 몸이라고 절벽인들 못 오르겠는가
지금은 온몸의 가시를 모아 상처를 구워내는 시간
병어리 부부도
귀통이 시커멓게 타버린 붕어떼도
붕어 눈깔만한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우리도
한데 엉켜
골목길 가득 흐느적거리는 저녁
잉크병처럼 엎어지는 어둠을 뚫고 붕어 한마리
등을 잔뜩 흰 채 하늘로 펄쩍 뛰어오른다
그믐달이다.





이종백 경북 경주시 지방농업주사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날 밤씨를 뿌릴 못자리를 만든다.
은과 더불어 사는 농부 진흥을 라독 거린다. 진갈래꽃물 들인 산자락이
논거울속으로 들어온다.

씨레질

질퍽한 눈, 물 가두고 못자리 무논 씨레질한다
 경운기 지날 적마다 황토빛으로 비벼지는 눈물
 좌우로 비켜서면서 진주꾸러미 같은
 물방울 만든다 흰 비닐 앞치마에 누런 장화
 허벅지까지 끌어올린 농부 그 뒤를 치고 따른다
 아직 살아있는 물방울들 긴 꼬리 내며
 농부 뒤에서 동그랗게 사라진다
 반듯한 수면 위에 반사되는 햇살
 피하려는 듯 눈 지그시 감았으나 그 눈
 모자챙 그늘에서 빛난다 물레방아처럼 도는
 경운기 철바퀴에 곡예사같이 달라붙었다가 곤두박질
 흙탕물 속으로 떨어지는 진흙
 헛바닥 같은 장화밑바닥이 깊숙이 논바닥 훑고 올라오더니
 한 발 앞에서 다시 박혀든다
 사계절 한번 그들 세상이 온 듯 마구 설치며
 새로 뽑아낸 벼틀 북 같은 발자국 속으로
 깔깔거리며 파고드는 흙탕물들

빙빙 그들 달래며 논바닥 돌아 나오는 농부 이마에
벼알 같은 땀방울 흐르는데 앞산이
진달래꽃물 들이고 논바닥으로 슬땀 들어선다.





고향과 어머니라는 본원적 그리움은
 가장 소박하고도 절실한 본능이 아닌가 싶다.
 세월의 이만큼에서,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리움을
 한 줄 시에 엮어 본다.

정영화 경북도청 지방보건주사보

콩나물을 다듬으며

콩나물의 키 높이로 저녁을 다듬다가
이슬이듯 손에 닿는 두리床의 고향생각
어머니 갈라진 손길이 눈물 속에 스칩니다

열 두 식구 키들 따라 말라버린 세월마다
당신의 젓 가슴도 관절처럼 퇴화하여
먹이고 또 입히고도 못 다 주어 한숨 터니

세월은 가는 가요 꽃은 갈아 다시 피고
봉숭아로 곱던 손톱 지금은 흙이 되어
이 자식 어이 다 잊고 어느 하늘 계시는지

이제는 어디에도 어머니 당신 없는
다듬을 것 별로 없는 이 시대 콩나물에
못 다한 회한의 情만 마디마디 키웁니다.



거미의 생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인생과도 같다.
정교하게 엮어놓은 거미줄,
손자에게 이끌려 놀이러게 나온 노파는
추억을 캐기에 이른다.
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명식 충북 옥천군 지방축산주사보

거미

피약벌 한풀 꺾인 삼복더위 해거름에
미물들 날아드는 길목을 지키고서
분주한
거미의 길쌈
인생사를 읊는다.

현을 스친 바람소리 숨죽이고 들어보면
미물들 전신공양 그 높은 뜻 펼치는데
땅거미
그네를 밀며
옛 추억에 잠긴다.

아기자기 엮어놓은 씨줄날줄 그물망에
찬이슬 끌어다가 밤 지새운 담금질로
영롱한
아침을 열며
희망가를 읊는다.



암을 앓던 지난날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 기억의 중심에서 계셨던
아버지! 유품인 도장을 개내들자 그림이
미물처럼 다가왔다. 受賞의 영광도 아버지께서
베푸신 恩情이 아닐지?

김덕준 서울 북부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아버지의 도장

중학생인 딸애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내민다. 성적표를 훑어보는 사 이 딸아이의 얼굴에는 불안이 번져나간다. 지난번에 비해 성적이 다소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면서 '보호자'란 에 도장을 찍었다. 딸애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30여 년 전의 슬픈 기억 이 이른 봄철의 산불처럼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1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이 기대 이하였다.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내 자신을 후회했다. 이제 통지표에 아버지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 지의 유일한 도장은 고방(庫房)속 귀좌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무로 된 상자 안에는 얼마 안 되는 논밭 문서와 함께 아버지가 아끼는 소중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상자는 아버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손이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보물상자'였다.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 다가 나는 모험을하기로 생각을 바꿨다.

토요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도둑고양이처럼 어둠이 깔린 고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빠른 동작으로 도장을 꺼 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통지표에 도장을 막 찍으려하는데 갑자기 마 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다급한 나머지 나는 도장을 얼른 책상서랍 속

에 넣었다. 이내 방문이 열리면서 친구들이 몰려왔고, 나는 그들을 따라 한참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재미나게 놀다보니 하루해가 기울었다. 불안감에 집으로 가려했으나 친구들이 붙드는 바람에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다.

다음날 친구 집에서 아침을 먹고 집으로 왔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집에 있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낯선 아저씨 두 명이 서류뭉치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무언가 중요한 계약을 하러 온 것 같았다. 아버지는 도장을 가지러 고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아버지의 화난 얼굴을 본 나는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 했으나 가슴은 새 가슴처럼 마구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몇 번을 고방 안으로 들락날락하시다가 결국 아저씨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긴 한숨과 함께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허탈해 하는 모습! 나는 그 때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관자놀이엔 경련이 일었고, 콧날 위에는 적지 않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었다.

오후가 되자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다. 방안을 지키고 있던 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통지포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고방으로 들어가 도장을 원래대로 상자 속에 살짝 넣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그 참 알 수 없는 일이네. 엇그제만 해도 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을 당신 말고 누가 만지겠소?” 어머니가 고방으로 들어가서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상자 뚜껑을 열자 도장은 쉽게 어머니 눈에 발견되었다. “여기 도장이 있는데, 그 동안 뭘 찾았소?” 아버지는 놀란 모습으로 도장을 확인하고는 “그 참, 희한한 일이네.” 다소 못 마땅한 듯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은 매우 밝았다. 옆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

본 내 등허리에는 안도의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안타깝게도 도장사건이 있은 후, 2년이 채 안되어 아버지는 마흔넷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두 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교육열은 마을의 누구보다도 강했다. 임종 달포 전, 아버지는 병색이 완연한 몸으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섯 시간이 넘는 힘든 여행을 감수하시면서 내가 입학한 부산의 P공고를 방문하셨다. 학교가 보고 싶어 오셨다고 했지만 내심은 마지막으로 아들이 보고 싶어 오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웅장한 학교시설에 매우 감탄을 하시면서 기뻐했다. 기숙사를 걸어 나와 개나리가 만개한 벤치에 앉아 삼부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못 배운 한을 토로하셨고, 평소 지론대로 '자식이 출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당신이 자식을 공부시키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못 배웠다는 이유로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라고 했다.

형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기숙사 내리막길을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나는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시한부 삶! 아버지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힘겹게 손을 흔들었다. 그 뒷모습에는 쓸쓸함과 함께 슬픔이 가득 차있었다. 황색 점퍼에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흩날리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을 때, 내 두 볼에는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주쯔칭의 '아버지의 뒷모습' 을 자주 읽는 애독자가 되었다.

삼우제가 있었던 그 날 저녁, 마을 어귀 밭두렁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을 불태웠다. 병고에 시달린 탓에 아버지와 함께 했

던 모든 물건들은 가급적 소각하기로 했다.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나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보물상자’를 던졌다. 던져진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서 상자 속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왔다. 불빛에 비친 낯익은 물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도장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얼른 도장을 끄집어냈다. 다행히 도장은 약간의 그을음만 끼였을 뿐 다른 손상은 없었다. 그날 이후 이때껏 나는 아버지의 도장을 소중히 보관해 왔다. 누런색의 나무재질에 양조장의 술독을 연상케 하는 뚜껑이 있는 도장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나는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도장을 꺼내 화장지로 닦는다. 그리고 하얀 백지 위에 도장을 찍어본다. 거울 속의 아버지를 대하듯 붉은 도장 자국을 들여다본다. ‘榮’자 ‘冪’자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죄책감이 나를 에워싼다. 도장을 흠친 일, 용서를 구하지 못한 비겁한 태도,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불효가 두고두고 가슴 한구석에 회한(悔恨)으로 남아돈다.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여덟 식구가 여름철 살평상 위에서 도란도란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지난날들이 눈물이 나도록 그립다.

또 다시 봄풀이 푸르러온다. 봄풀이 푸르러오면 아버지가 계시는 ‘반쫄골’의 산기슭에도 진달래, 철쭉꽃이 만개할 것이다. 그때(忌日)가 오면,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싶다. “아버지, 당신의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그때 그 도장은 분명히 그 께짝 속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장을 흠친 놈은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둘째 놈입니다.”

어느덧 내 나이 사십 중반을 넘었고, 내 딸아이도 그 때의 내 나이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더더욱 그립다. 비록 나는 고향 사람들 숲에서 공명(功名)을 얻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염려했던 것처럼 남들로부

터 못 배웠다는 사유로 무시를 당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이것 하나로 나는 아버지의 유혼을 지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도장이 있는 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어 큰 욕심 없는 소박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버지의 도장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정승운 광주 과학고등학교 교사

집을 짓는다면 꼭 나무로 만든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서까래까지 제비가 둥지를 틀고

태성마루엔 구름이 어리는 그런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엔 거의 손님이 찾아오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집 뒷마루에 앉았다가곤 했습니다.

마루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입니다.



마루의 미학

아파트의 공간이 답답해지면 문득 어린 시절에 살던 한옥이 그리워진다. 어느 한 구석 추억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있을까마는 특히 마루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 부자집의 커다란 대청보다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툇마루가 더욱 그립다.

지붕이 기와이든 초가이든간에 마당이 있는 집은 대개 마루가 있었다. 집의 규모에 따라 마루의 크기도 달랐다. 웬만한 허드렛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마루도 있었고 겨우 뒤를 붙일 만한 좁아터진 마루도 있었다.

마당이 집안과 밖을 연결하는 공간이라면 마루는 방의 안팎을 연결하는 공간이었다. 현대식 주거공간은 안과 밖을 무거운 철재로 차단하여 사람과 사람을 엄격히 분리한다. 그러나 마당과 마루는 부드러운 흙과 나무로 안과 밖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의 공간을 마련해준다.

대개의 방문객들은 마당까지는 거침없이 들어왔다. 마당 가운데서 기척을 하면 그만이었다. 마당은 주인이 따로 없는 공유의 공간이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늘과 같은 문전박대는 거의 없었다.

주인이 잘 아는 사람이면 스스로없이 마루에 앉았다. 긴한 이야기가

아닐 경우에는 마루에 앉아 몇 마디 주고 받다가 돌아갔다. 마루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주인은 방안에서 머물러도 별 허물은 되지 않았다. 마루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긴 한담이 되기도 하고 주인은 다른 일을 하고 동네 사람끼리 왁짜지껄 이야기판을 벌이기도 했다.

동네 어른이나 남자 손님들은 대개 방안으로 맞이했다. 안주인들은 대개 마루를 이용했다. 남녀가 각별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마루는 그만큼 안주인들의 공간이기도 했다. 여자들은 그 곳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손님을 맞기가 수월했던 것이다. 명주옷을 방망이질 하기도 했고 인두로 두루마기의 동정을 다리기도 했다. 마늘을 까거나 채소를 다듬을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자연스레 함께 거들기도 했다.

그 당시엔 유독 다라이 장사들이 많았다. 큰 양철 다라이에 제철의 과일들이나 생선들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았다. 어머니는 대개 단골을 정해놓고 물건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의 별명이 '뽕뽕이 아줌마'였다. 말을 속사포처럼 쏘아대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 '뽕뽕이 아줌마'가 다라이를 마루에 내려놓으면 마루는 작은 과일 전도 되고 어물전도 되었다. 어머니로써는 거래는 뒷전이고 그 '뽕뽕이 아줌마'의 걸진 입담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큰 재미였던 것 같다.

마루는 그 집의 관문이기도 했고 또한 그 집의 인상이기도 했다. 마루가 유난히 환하고 밝은 집이 있었고 어둑신하게 내려앉아 보이는 집도 있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마루도 있었고 투박한 생나무 모양의 마루도 있었다. 마루가 유독 맑은 물이 흐를 정도로 정갈한 집이 있는가 하면 사개가 뒤틀리거나 이가 빠진 집들도 있었다.

우리집 마루는 사람이 그득할 때도 있었고 고적하고 조용할 때도 많았다. 대개는 엄마가 계실 때는 마루가 그득한 느낌이었고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을 때는 조용히 그늘지고 가리앉은 느낌이었다. 학교갔다가 돌아올 때 대문을 여는 순간 마루를 보면 엄마가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학교길에는 마루에 앉아계시는 엄마를 머릿속에 그리며 돌아오곤 했다. 그러다가 마루가 비어있을 때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마루는 그 집의 생명력을 그대로 전한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집은 그 마루도 살아있다. 마루에는 사람들의 운기와 손때가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마루의 생명력도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쉽게 퇴락한다. 기둥이 쭈뼛고 벽이 허물어진다. 모든 것이 마르고 버석버석해진다. 마지막까지 운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 마루다. 그러다가 마루까지 그 운기를 잃으면 드디어 집이 무너지고 주춧돌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마루는 사람의 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들기름 따위로 윤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다운 것은 사람의 기운이나 손때가 오래 스며있는 마루장이다.

어릴 때는 마루장 위가 작은 놀이터였다. 마루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기둥을 잡고 돌기도 하고 안채 마루에서 바깥채 마루로 성큼 뛰어 건너기도 했다. 어른들의 지청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맨발로 마루장을 구르는 소리는 집안에 온통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우리 고장은 마루를 '말래' 라고 불렀다. 뭔가 좀 더 포근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다. 한가할 때 '말래' 에 누우면 잠이 저절로 오곤 했었다. 덮개나 베게 없이도 한 나절 곤히 잘 때가 많았다. 그 '말래' 에서 잠이 깨면 해는 이슬처럼 지고 주위 세상의 색조가 달라보였다. 아마도 '일장춘몽' 이라는 고어도 마루에서의 깨달음이 아닐까 싶다.

마루에 누우면 처마에 반쯤 가린 하늘이 보였다. 여름 봉우리에 걸린 하운이 그 중 장하다고 하지만 처마 끝에 새파랗게 밀려가는 흰구름의 형상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상 중의 하나다. 유독히 마루에 누워서 바라보는 구름은 사람의 얼굴처럼 가까워 보였다. 그는 한참을 나를 내려다 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는 사라지곤 했다.

그 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지금은 노인 병원의 침대에 누워 계신다. 지금 생각해도 새파랗게 젊었던 어머니. 그 머리에 붙어있던 실밥같은 것들, 그 마루에 놓여있던 다듬이돌이라든가 빨래 같은 것들. 다시는 돌아가 볼 수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것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어찌면 그 마루에서 한 나절을 잘 보내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다. 어찌면 평생을 다시는 마루 있는 집에서 살아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평생을 마루에서만 살다가 간 느낌이 들런지도 모른다. ⅣⅣ



마루에 누우면 처마에 반쯤 가린 하늘이 보였다.

(중략)

마루에 누워서 바라보는 구름은 사람의 얼굴처럼 가까워 보였다. 그는 한참을 나를 내려다 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는 사라지곤 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포스터중에서

필살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나

'전세 역전의 결정타'쯤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본문중에서 -



조영석 안산 초지고등학교 교사

필살기

필살기라는 것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나 '전세 역전의 결정타'쯤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무협 영화에서 곧잘 등장하는 필살기는 무림의 고수라면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 기술이다. 물론 필살기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 고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고수가 필살기를 지니고 있다는 말은 맞지만 필살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고수는 아닌 것이다. 필살기에도 나름의 서열이 있다고 보면 된다.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필살기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위기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꼼수 역시 필살기라 부를 만 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필살기는 싸움을 끝장내는 데 쓰이는 '단 한 방'이라 할 수 있다.

코흘리개 시절, 추석이나 설에 단골로 방영되던 무협 영화는 제목만 달랐을 뿐 거의가 같은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필살기가 등장하는 부분은 대개 영화의 결말. 맛보기로 잠깐 소개 하면 이렇다.

사부가 자객에게 죽임을 당한 후, 미완이었던 필살기를 스스로 완성한 주인공은 원수의 줄개들을 하나 씩 처치, 마침내 원수가 있는 요새

의 방으로 들어간다. 원수는 점쟁이라도 되는 양 주인공이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다고 뇌까린다. 이글거리는 주인공의 눈동자 클로즈업. 아무리 조무래기들이라도 무술인은 무술인. 주인공은 원수의 줄개들을 해치우느라 피범벅이 되어 있다. 자신의 피와 줄개의 피로 칠감한 주인공.

바닥난 체력을 고려할 때 속전속결이 주인공에게 유리할 법도 한데, 주인공은 그 순간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 왔는지를 주저리주저리 주절댄다. 폭포수 아래서 가부좌를 틀고 있거나 뜨겁게 달궜진 모래에 단수를 단련하는 주인공의 험난한 과거가 오버랩 되고, 그럴 경우 대략 원수는 주인공이 아직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돌아가라고 조용히 충고한다. 가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주인공을 타이르는 주제 넘는 원수도 있다. 주인공은 닭살이 우후죽순처럼 돋을 듯이 진부한,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안다는 대사를 날리며 원수를 향해 돌진한다. 대략 십 분 쯤 되는 라스트 신에서 주인공은 거의 8분 정도를 얻어터진다. 뼈가 꺾이고, 얼굴이 뭉개진다. 바다에 내팽개쳐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신음한다. 이를 뿌드득 가는 주인공. 기침 몇 번에 한 사발의 피를 토한다. 결벽증 환자처럼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씨늘하게 웃는 원수. 그 순간, 주인공은 죽은 아버지의 환영을 본다. 아버지는 주인공의 테스트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필살기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너털너털한 무술 책이 좌르륵 넘어가는 장면 오버랩 되고, 비장한 음악 깔린다.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주인공.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본 원수는 자신의 출연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잠시 움찔한다. 주인공은 단숨에 날아올라 원수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원수의 가슴팍에

꽃히는 무수한 발길질. 주인공의 공격에 꿈쩍도 하지 않던 원수는 어이 없게도 몇 번의 발길질에 피를 토하며 절명한다.

필살기는 전투력이 약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자신을 짓밟는 고수에 대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일격이 고수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몸이 간지러울 정도로 매력적이다. 고수가 하수의 필살기에 대해 짐작조차 못하고 있을 경우, 하수는 맞으면서도 히죽덜 정도로 즐겁다. 그래, 그래.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라. 한 방이다. 한 방만 걸리면 넌 죽는다. 물론 필살기 중에는 간혹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것도 있다. 허나 뺨박받는 하수가 어찌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라. ‘고수와 함께 죽음을’ 이라면야. 이런 생각을 하며 대부분의 하수들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견딘다. 당연히, 나는 멀고도 가까운 한 민족, 게다가 국제 사회에서 그야말로 하수 중에 하수인 북한이 그토록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진심으로, 핵은 북한의 필살기니까, 그야말로. 아마도 북한은 미국의 끈질긴 괴롭힘 따위는 웃으면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까짓것 배가 좀 고프면 어떤가? 어느 순간 수틀리면 핵을 쏘아 올리면 그뿐, 하수가 지구의 운명 따위를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렇고 역시나, 미국이 볼 때도 그럴 것이란 생각이다.

미국은 북한이 필살기를 구사하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히고 있다. 고통 판의 고수가 판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따는 것처럼. 고통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라도 있는 것인가, 아무튼, 절묘하게 괴롭힘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미국은 고수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역시나 그들은 고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의 홈런, 씨름의 뒤집기, 권투의 카운터블로, 바둑이나 고스톱의 판엮기 따위에 열광한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수들이기 때문이며, 역전의 가능성이 실재 존재한다는 것을 홈런과 뒤집기와 카운터블로, 가장 통쾌한 판엮기가 똑똑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나는 딱히 신체적 장애라고 못 박기는 어정쩡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궁극의 필살기를 연마하며 살아왔다. 아무쪼록 그랬다는 느낌이다. 나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북한이었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북한이었으므로 핵이 필요했고, 핵이 필요했으므로 늘 배고팠다.

사실 목숨을 건 한 방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보다 훨씬 강력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야생에도 목숨을 건 한 방은 존재한다. 또한 심심풀이 전자오락에도 필살기는 존재한다. 물론 필살기가 없는 야생생물, 전자오락 따위들도 있다. 그런 건 자연히 도태되기 마련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무렵이었다. 산으로 피서를 갔다가 벌에게 쏘인 적이 있다. 벌은 전투력이 약한 나 같은 인간보다 백배 아니 천배나 약한 생명체다. 물론 벌이 때를 지어 물려들면 나 같은 인간 하나 째은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다. 벌이 나보다 백배 약한 생명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맞장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얘기다. 예컨대, 레퍼리가 있는 사각의 링에 나와 벌 단 둘이 붙었을 경우의 결과라는 말이다. 아무튼, 운동화를 벗어 놓고 돛자리에서 낮잠을 한 숨자고 일어난 나는 무심결에 운동화에 발을 집어넣었다. 순간 발바닥을 담배 불로 지지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운동화 끈을 꼭 묶어 놓아 나는 신발을 부여잡고 어정쩡한 자세로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극심

한 고통으로 인해 거품을 물기 직전이었다. 시간이 얼마간 흘러 운동화를 벗고 찬찬히 들여다 본 발바닥에는 벌의 몸통이 짓이겨져 있었다. 벌은 죽으면서 침을 쏘았던 것이다. 약간의 냄새가 나는 동굴, 편안한 안식처라고 들어가 앉은 곳에서 갑자기 형태와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적이 다가올 때 벌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그 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 순간 벌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필살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으리라.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야 한다는 전설의 필살기, 침 쏘기 초식을 펼침과 동시에 그의 몸은 터졌으리라. 그날 나는 산산이 부서진 벌의 유해를 수습해 고이 묻어 주었다. 목숨을 건 필살기를 구사한 하수의 비장함을 추모하며.

이제는 추억의 전자오락쯤으로 불릴 너구리와 트윈 코브라. 둘 다 숲 어린이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오락이다. 1980년 대 전반 무렵, 주로 문구사 앞에서 활약하던 두 오락은 코흘리개들의 십원짜리 동전들을 씹 없이 삼킬 만큼 분주했다. 똑같이 높은 인기를 끌었으나 사실 그들은 매우 다른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오락이다. 너구리에는 없고, 트윈 코브라에는 있는 것. 그건 바로 필살기다. 너구리는 쇠꼬챙이와 허방을 뛰어 넘어 과일을 먹어대기만 하면 끝이 나는 오락이다. 극적 스토리가 없는 아주 단순한 오락이다. 쇠꼬챙이에 꽂혀 피를 흘리던 너구리가 당근을 먹고 기사화생해서 쇠꼬챙이를 몽땅 뿔아버리는 기적 따위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너구리는 맥주를 먹어도, 레몬을 먹어도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고양이 녀석의 코털조차 뽑을 수 없다. 반면 트윈 코브라는 다르다. 시작과 동시에 화면 하단에는 B라고 적힌 미사일 모양의 아이콘 세 개가 뜬다. 코브라 헬리콥터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적들의 포격. 지상에서건 공중에서건 눈송이처럼 생긴 적의 포탄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쏟아진다. 코흘리개 어린 이 조종사는 투지한 십원짜리의 양만큼 노련하게 총알들을 피해나간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적들은 집요해지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적들은 비상식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쏘아댄다. 화면 전체가 미사일이고 총알이다. 이제 곧 추락해야하는 코브라의 운명. 깜빡거리며 다가오는 오렌지색 총알과 미사일. 바로 그 순간, 조종사는 미사일 B를 발사한다. 거대한 섬광이 번쩍하고, 화면의 적들과 미사일은 모조리 사라진다. 단 몇 초 만에 위기 상황은 종료된다. 물론 그 후에도 적들은 계속 다가오지만 말이다. 내가 어떤 오락을 더 좋아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필살기에 집착하게 된 것은 태생적인 유약함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이 내가 싸움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검도와 유도와 태권도가 각각 4단인 내가 싸움을 모를 리는 없다. 적어도 자세만은 잡을 수가 있다. 고수는 자세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하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태생적인 유약함이란 무엇인가. 나는 고통을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인간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칼을 맞아야만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깨를 툭 쳐도 극심한 아픔에 비명을 지르는 인간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나와 같은 인간은 절대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고통으로 죽을지도 몰랐으니까. 이런 저주 받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무술을 연마했다. 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인간이라면 알겠지만, 그 소년기라는 게 거의 아마존의 정글과 같다.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세계. 하수를 짓이겨 놓아도 엄마 손을 붙잡고 가 죄송하다고 용

서만 구하면 아무 별도 받지 않는 세계. 성인들의 세계는 적어도 깨물고 때리지는 않는다. 더 비겁한 암수를 쓰기는 해도 때리지는 않는다. 게다가 법이라는 게 있어서 미친 척 하고 하수를 때린 놈은 곧장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다.

실제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난 나만의 정글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웠다. 아니 배워야만 했다. 살기 위해, 아프지 않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때문에 그 무렵 나는 소나기와 서시를 읽기보다 쿵푸소년 용소야와 권법소년을 탐독했다. 그 만화책에는 무수히 많은 권법들과 필살기가 들어 있었다. 유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으므로 나는 튼나는 대로 용소야와 한주먹의 권법을 훑내 내며 필살기를 연마했다. 어떠한 창칼로도 죽일 수 없는 강철 사나이가 되기를 희망하며, 필살기를 하나 익혔다는 생각이 들면 일부러 또래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필살기를 완벽히 습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실전경험이 필요했으므로 이 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필살기를 날리는 주인공들처럼 상대를 한 방에 보낼 장면을 상상하며 나는 싸움에 나섰다. 짐작하겠지만, 현실은 만화가 아니었다. 현실이 만화 같다면 만화 따위를 누가 볼 것이냐는 생각조차 못하던 어린 시절이었다. 상대는 내가 필살기를 구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준비 동작을 취해야 필살기가 들어가는 데, 상대는 항상 준비동작에 있는 내 몸을 잡고 바닥을 텅굴었다. 나는 흠바닥에 드러누운 채, 온 얼굴로 고스란히 주먹을 받아내야 했다. 상대의 분이 풀릴 때까지 나는 짐승 같이 울부짖었다.

왜, 왜 안 되는 거야.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 주먹을 내밀어 가격하는 선풍권, 명주실로 상대의 팔이나 손가

락을 끊어내는 예혈권 등은 도대체가 실전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만화 속 고수들처럼 내가 사용하는 권법의 이름을 또박또박 외치면서 달려들어도 언제나 나뒹구는 건 나였다. 현실의 적들은 만화 속의 적들보다 훨씬 강했다.

그 무렵 동네 오락실에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대련 오락게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등장 캐릭터들은 각자 빛나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내가 집착했던 기술은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상대의 턱을 치는 것이었다. 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턱치기' 나 '워리우겐' 으로 불리는 기술. 그 기술을 구사하는 캐릭터가 그런 기합을 외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오락실에서 그 기술을 본 나는 몇 날 며칠을 연습했고, 나를 괴롭혔던 상대들을 하나씩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놈들의 턱을 박살내고 팔짱을 낀 채 음하하하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물론 워리우겐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또 다시 워우우우 하고 울부짖어야 했다. 워리우겐 역시 몸을 잡고 바닥을 뒹구는 싸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매일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망할 놈의 통증이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진작에 깨달았어야 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점점 통증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나만의 실전 없는 수련을 하며 정글을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왜 이런 감각체계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부모도 모르고 의사도 모른다. 의사가 모르므로 나도 모른다. 다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내 쌍둥이 동생 진영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지만.

집에서 사라진지 정확히 백일이 되는 날 진영은 전화를 걸어왔다. 방안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온몸으로 떨어졌다. 스포츠 타월로 땀을 닦으며 낯선 번호가 찍혀 있는 폴더를 열었다.

“나 나왔다.”

“진영이냐?”

“어.”

“휴가냐?”

“어.”

“집으로 오지, 왜 전화냐?”

“좀 보자. 술 좀 먹고 싶은 데 돈도 없고”

“어던데?”

“동네 입구 호프집, 노인네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하긴 어차피 신경도 안 쓰겠지만”

진영은 용건을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다. 평일이었고 퇴근 시간 전이어서 그런지 호프집은 한산했다. 진영은 구석자리에 앉은 채로 손짓을 했다. 나는 진영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섰다. 진영의 몸은 더욱 탄탄해져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각진 턱선이 고수의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가일이라는 캐릭터처럼. 가일은 미 해병대 상사 혹은 중사 쯤 되는 인물이며, 반달 돌려차기라는 가공의 필살기를 지니고 있다. 물론 반달 돌려차기에서 나오는 섬광도 워리우겐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지만.

나는 진영이 금방이라도 의자에서 뛰어올라 반달 돌려차기를 날릴 것 같아 잠시 거리를 유지했다. 쌍꺼풀이 깊게 진 진영의 눈에서는 혈육을 만난 반가움보다는 하수에 대한 경멸의 빛이 풍겨 나왔다. 진영의 눈빛은 복한을 대하는 부시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여전했다.

“뒤편? 앉아. 오랜 만이네.”

진영은 내 잔에 맥주를 채우며 말했다. 검게 그을린 팔뚝에는 무수한 칼자국들이 나 있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상처들은 뱀장어처럼 꿈틀거렸다.

“힘들지 않았어?”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진영은 잔을 부딪친 후 단숨에 들이켰다.

“힘들긴, 알잖아? 내가 어디 힘든 거 아는 놈인가?”

“하긴”

진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건 단지 2분이라는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그는 내가 먼저 어머니 뱃속을 빠져 나간 것이 반칙이었다고 했다. 열 살 무렵이던가, 내가 내 몸의 상태를 깨닫기 시작해서 무술을 연마하는데 여념이 없던 여름 방학 중 어느 날이었다. 방바닥에 나란히 엎드려 탐구생활을 풀고 있을 때 뜬금없이, 진영은 원래 자기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였다고 했다. 더위만큼이나 심드렁한 말투였다. 그 무렵 이미 진영은 동네에서 최고의 싸움꾼으로 불리고 있었다. 싸움꾼이라고 불리게 된 건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울지 않았던 것이다. 소년들의 세계에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이 최고 고수의 증표였다. 아무리 쥐어 터져도 진영은 울지 않았다. 입술이 터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며 집에 들어와 어머니를 화들짝 놀라게 해도 정작 그 자신은 태연했다. 휴지로 피를 쓱 한 번 닦으면 그만이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경악했다. 어떻게 저런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아무튼, 난 진영의 그 심드렁한 발언에 바로 대꾸하지 못했다. 인간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의 일을 기억한다는 말인가. 나는 진영의 말을 무시하며 탐구생활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쿡푸 교본에 나와 있는 자세를 따라했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맞아 뒤지겠다. 진영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듯이 말했다. 상관 마. 그래, 상관 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 말은 사실이야. 네가 반칙을 했었다고. 내가 입구에 먼저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네가 나를 잡아끌더니 쭈욱 빠져 나가 버리더군. 내가 운 건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너무 억울했거든. 이제 알겠지. 난 너를 형이라고 부를 수 없어. 진영의 말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한 번도 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그가 울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었으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체에서 분할되기 때문에 매우 흡사한 존재가 된다. 지문을 제외하고는 피부색깔, 이목구비, 털의 양과 방향 등등 거의 모든 것이 같다. 간혹 호사가들은 쌍둥이들 간에 어떤 텔레파시가 오고 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거의 사실이다. 좋아하는 이상형, 음식, 색깔 등등 쌍둥이는 한 몸처럼 행동하기가 쉽다. 물론 일반적인 쌍둥이 형제, 자매들 경우의 이야기다. 진영과 나는 외모를 제외하고는 전혀 닮은 곳이 없다. 무엇보다 싸움의 측면에서.

진영이 가족들을 놀래 키기 시작한 것은 대략 내가 아버지의 사소한 꿀밤에도 비명을 지르던 무렵부터다. 아버지는 동네의 자그마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급 기술자는 못되어도 며칠만 똑딱하면 집 한 채는 거뜬히 지을 정도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도 신망이 꽤 높았다. 우리 집은 목공소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작업장의 자리가 부족할 때는 집 마당에 까지 공구와 나무들을 들여놓곤 했다. 진영과 나는 톱밥과 나무를 가지고 장난치며 놀기를 즐겼다. 하루는 식구들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조린 고등어가 비린 거라며 음식타박을 했고,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연신 고등어를 뒤집어 보았다. 그때 나는 발바닥이 축축해짐을 느꼈고, 바닥을 내려다 본 나는 경기를 일으키며 나뒹굴고 말았다. 진영이 앉은 의자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급하게 와서 진영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진영은 엉덩이에 송곳을 박은 채로 밥을 먹고 있었다.

진영은 아버지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도 밥숟가락을 놓지 않은 채 왜, 왜 그래 아빠? 밥 먹다 어디가 아빠? 라고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어린 시절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들었던 의사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감각이 있기는 있는데 무디다는, 신경과 의사가 아닌 안중근 의사도 말할 수 있는 진단 같지도 않은 진단이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저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진영과 내가 세포분열 할 때 통각세포가 한쪽으로 쏠린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이었으므로 당연히 의학적 근거 따위는 없지만, 아무튼 그 후로 아버지는 집안에서 날카로운 물건들은 모조리 목공소로 옮기고 진영은

절대로 목공소로 들이지 않았다. 식탁과 문의 모서리, 텔레비전, 옷걸이 등등 모든 물건들의 귀퉁이를 스펀지로 둘러쌌다. 마당의 잔들도 모조리 숨아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부모의 그런 노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진영은 자신의 능력 아닌 능력을 깨달은 후 점점 대담해 졌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중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맞아도 맞아도 울지 않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초등학생을 보며 코밑이 거뭇거뭇한 중학생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기 일쑤였다.

진영이 실전의 싸움을 치러가는 동안 나는 나만의 수행을 계속했다. 싸움은 싫었다. 너무 아팠으므로, 대신 태권도와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관장들에게 말했다. 싸우지 않고 단증을 딸 수는 없나요? 관장들은 각자 자신들의 무술이 천박한 싸움기술과는 다르다며 염려말고 맡겨달라고 했고, 나는 맡겨졌다. 그들의 말대로 나는 그 흔한 대련 없이 품세와 본을 연마하며 급수를 올려갔고 중학 무렵 단증을 손에 넣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과 수강료로 판 단증에 불과했다. 같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수백 장 아니 수천 장은 더 만들 수 있었을 단증. 방안에서 단증을 들여다보며 나만의 성과에 흐뭇해하고 있을 때면, 진영이 먼지투성이가 되어 들어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진영은 교복을 벗어 팽개치면서 히죽거렸다. 그거 뭐하게? 단증 말아 쥐고 싸우려고? 그거 맞는다고 아프겠냐? 싸움은 멧집이야 멧집. 맞아도 맞아도 안 쓰러지면 이기게 되어 있어. 난 맞는 게 두렵지 않다고. 너 나한테 이길 수 있겠냐? 어디 태권도 유단자의 주먹 맛

좀 볼까? 진영은 피가 말라 붙어 있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말했다. 난 단증을 고이 책상서랍에 집어넣고는 방에서 나와 버릴 수밖에 없었다. 놈은 싸움의 신이었고, 소년들의 세계에서 미국이었다. 어떻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놈에게 이긴다는 말인가?

물론 나만이 아는 진영의 약점은 있었다. 진영의 싸움 상대들은 절대로 알 수 없을 약점. 그 약점을 알게 된 것은 여전히 무협만화와 전자오락에 몰두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진영과 나는 학교가 파하면 동네 오락실에 달려가 스트리트 파이터나 스카이 솔져, 윈터 보이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오락실에 들락거리는 것을 참아내지 못했다. 오락실에서 나오는 것이 걸리거나, 동네 친구들이 우리 형제가 오락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그날 저녁은 회초리 세례를 받기 일쑤였다. 물론 회초리는 금방 거둬졌고 장시간의 훈계만 들었지만. 하기가 그도 그럴 것이 한 놈은 아무리 회초리를 때려도 천정만 멀뚱멀뚱 불 뿐이고, 또 한 놈은 회초리를 대기가 무섭게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고 마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는 진영과 내가 트윈 코브라 2인용에 몰두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오락실에 직접 들이닥쳤다. 나는 화면 가득히 드리운 어머니의 그림자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종사를 잃은 내 코브라는 당연히 적기와 충돌해 폭발 해버렸다. 진영은 B형 폭탄을 투하하며 갑작스럽게 아군이 사라진 위기를 타개했다. 엄마, 좀 만 더하면 끝판이야. 이번에는 꼭 작살 낼 거라고. 하지만 작살 난 건 진영과 나였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몰아세우더니 동네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에 태웠다. 봉고차 안에는 우리 형제와 매일 붙어 다니던 소년들이 어딘가로 팔려가는 노예처럼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차에 타지 않고, 운전사에게 잘 부탁한다고만 말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던 그 때, 그 의문의 봉고차가 여섯 명의 소년들을 태우고 간 곳은 허름한 산부인과 건물이었다.

봉고에서 내린 소년들은 열을 맞춰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아유 요 귀여운 것들. 필시 무허가 의사의 작품일 쌍꺼풀 진 눈으로 느끼한 웃음을 지으며 간호사가 우리들의 볼을 툭툭 건드렸다. 아예 몸서리를 쳤다. 우리는 나란히 병원 의자에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접수 대 아래 아크릴 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보고야 우리가 어떤 곳에 왔는지를 깨달았다. 포경수술 전문. 나는 거의 오줌을 쌀 지경이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포경수술은 미지의 땅에 있는 괴물과 마찬가지로 존재였다. 당연히 아이들은 괴물에 대한 소문 정도는 이미 오래 전에 섭렵한 상태. 소문은 입에 오르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부풀려졌고, 그럴수록 괴물의 실체는 사라진 채 공포감은 더욱 커지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소년들에게 포경수술은 공포, 그 자체였다. 어떤 병원에서서는 마취도 안 한다며? 잘못하면 고추가 아예 몽땅 잘린다는데? 말도 마, 의사가 아예 떼어 먹기도 한다더라, 정력에 좋다고. 나는 포경수술에 대해 들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다. 아니 그러한 말들이 저절로 떠올랐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아무튼 나는 부들부들 떨며 진영을 보았다. 진영은 역시나 태연한 표정이었다.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놈. 나는 진정으로 진영이 부러웠다.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소년들은 차례대로 호명 되었고, 병원이 꽤 컸던 곳이었는지 여섯 명이 동시에 수술대에 눕게 되었다. 커튼 너머로 비명들이 울려 퍼졌다. 흡사 워리우겐 소리 같았다. 수술 후 여섯 명의 소년들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종이컵을 하

나씩 차고 봉고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그날 난 진영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영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아픈 기색을 내지 않았지만 나와 같이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밤새 끄끙 앓고 있었다. 아, 내 고추, 내 고추 하면서. 진영이 아파하는 모습을 본 건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킬레스라는 영웅도 약점이 있었다더니 난 진영의 약점을 안 기쁨으로 내 고추의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난 형제의 의리로 진영의 적들에게 진영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진영 스스로도 싸움에 임하기 전에는 항상 보호대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무렵에도 나는 더욱더 혼자만의 수련에 몰두했다. 구분동작을 철저히 연습해, 연속동작으로 이어지는 쿵푸의 수련. 상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유도의 유연한 자세, 단 일격으로 상대의 정수리를 쪼갤 수 있는 검도의 집중력, 나는 공부 이외의 시간에는 오로지 무술만 연습했다. 물론 여전히 싸움이 될 만한 일들은 애초에 피해 다녔다. 무협영화의 고수들도 여간해서는 싸움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을 본받았던 것이다. 빵집에 가서도 떡볶이 집에 가서도 언제나 혼자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시켜먹고 나왔다. 그 때의 장면은 대략 이렇다. 식탁 위에는 유도복이나 목검을 올려두고 묵묵히 만두와 떡을 씹어 먹는다. 그러면 옆 자리에 앉은 한 무더기의 불량배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린다. 이 거리를 혼자 다니다니, 고수임이 분명하다. 저 가방 안에는 필시 학원 수강료나 독서실 등록비가 들어 있을 테지만, 선불리 나설 순 없다. 우두머리적인 놈은 슬쩍 내 옆을 지나며 식탁을 건드린다. 물 컵이 달그락거리며 떨어진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컵을

받는다. 물은 컵 안에서 찰랑거리기만 할 뿐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소리 없는 감탄, 오! 역시. 나는 천원짜리 두 장을 식탁에 올려놓고 유유히 분식집을 나간다. 이렇듯 엄밀히 말하면 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싸움이 나를 피해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 무렵 진영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야말로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처럼 살고 있었다. 고수가 있다는 도장만 찾아다니며 싸움을 거는 떠돌이 무사. 족보에도 없는 무술을 사용하는 진영 앞에서 정파의 고수들은 당황한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다.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켜오던 짱의 자리를 뿌리도 알 수 없는 놈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각 학교의 고수들은 진영과 싸움을 벌이고 때려도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진영 앞에서 결국은 무릎 꿇고 만다. 진영은 고수의 어깨에 발을 걸치고 앞으로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라고 충고한 후, 다음 목적지로 떠난다.

진영은 며칠간의 투어가 끝나면 누더기가 된 교복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와 잠깐 눈만 붙이고 나갔다. 아버지가 잡아다가 각목으로 패대도 어머니가 앓아 누워도 진영의 질주는 계속되었다. 나는 진영이 나간 우리 집에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공부를 착실히 했고, 아버지 일도 거들었으며, 어머니의 병간호도 도맡았다. 어머니는 진영과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거의 출퇴근을 해야 했고, 몸이 좋지 않을 시에는 아버지가 대신 출근을 했다. 그 해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에 가져다 바친 박카스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한 병씩 나눠줄 수 있을 분량이었다. 나 역시 내 담임보다 진영의 담임과 상담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러는 사이 십대의 마지막 해가 밝아왔고, 나는 가지고 있던 무술 서적의

모든 장을 마스터 했다. 검도와 유도가 3단, 태권도는 2단이였다.

필살기를 섭렵하기 전까지 몸을 사리던 한 집안의 적자는 그동안 버려두었던 권위를 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 나는 아버지에게 진영의 버릇을 고쳐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비장하게 말한다. 진영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죄, 불법적인 폭력을 휘두른 죄, 무엇보다 집안의 재산을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해 간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당연히, 아버지는 '장하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역시나, '네가 가능하겠느냐? 진영이 높은 고수다'라고 걱정스런 투로 한숨을 쉰다.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진영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필살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고 3을 앞둔 봄방학, 이때가 아니면 진영에게 형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진영은 역시나 며칠 째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저녁이면 뻗뻗한 도복에 검점 띠를 동여매고 동네 입구로 나가 진영을 기다렸다. 이때 중요한 건 꼭 맨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터로서의 강렬함은 바로 맨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무술 교본에 나오는 사범들도 항상 맨발이었다. 나는 진영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가로등 빛이 닿지 못하는 담벼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하며 근육을 달군다. 내 몸은 이미 유리덩어리가 아니다. 물론 여전히 고통은 극심하게 느끼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기절하기까지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 어느덧 5분에 가까워졌다. 그 5분 사이, 단 한 방에 진영을 쓰러뜨리면 된다. 원자력 로봇 메칸더 브이처럼. 메칸더 브이는 외계군단의 로봇을 물리치는 정의의 로봇이다. 강력한 파워와 최첨단의 무기를 자랑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으로 움직이는 메칸더 브이는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적을 물리쳐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5분

안에 반드시 엔진을 꺼야한다. 나는 바로 그 메칸더 브이다. 고통이 최고조로 올라 거품을 물기 전에 진영을 눕혀야 한다. 일주일 째 되던 날 자정, 진영은 누더기 교복을 입고 동네 입구로 걸어왔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도둑고양이 한마리 돌아다니지 않는 적막함. 쌀쌀한 초봄의 날씨에 소름이 돋았지만, 전혀 춥지 않았다. 난 무술의 고수, 상대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가로등 아래로 들어선다. 잠깐 당황하는 진영. 곧 진정을 되찾는다. 뭐냐? 그 복장은, 너를 응징하려고 내가 왔다. 진영은 피식 웃으며 가방을 던져 놓는다. 너 미쳤구나.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느끼며 자세를 잡는다. 필살기.

필살기를 떠올린다.

진영은 역시 떠돌이의 자세다. 공세와 수세, 어느 쪽으로도 틀이 잡히지 않은 잡스러운 사파의 무술. 진영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나를 자극한다.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안 오면 내가 간다. 진영이 천천히 걸어온다. 나는 움찔거리며 물러서려는 다리에 힘을 준다. 점점 진영이 다가온다. 조금 더. 조금 더. 나는 호흡을 가다듬는다. 진영이 갑자기 빠르게 달려오며 주먹을 날린다. 나는 가볍게 진영의 주먹을 귀 옆으로 흘리며 드디어 몸을 진영에게로 밀착시킨다. 그의 허리춤을 붙든다. 진영은 팔꿈치로 내 등을 찌는다. 한 번, 두 번. 난 이를 악물며 비명을 참는다. 진영의 바지를 뜯어 내린다. 보호대의 끈을 잡아 뜯는다. 진영의 무릎이 복부에 박힌다. 아직이야. 아직은 참을 만 해. 보호대를 벗겨 던져 버리자 진영의 때에 전 팬티가 보인다. 이 새끼가 지금 뭐하자는 거야. 조금만 더. 나는 달궈진 모래로 단련한 오른 주먹을 쥘다. 이제 한 방이다. 순간, 눈앞이 까마득하며 나는 쓰러진다. 원자력

발전이 끝났습니다. 작동 불능. 필살기가 실패한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음 날 눈을 떠 보니 방안이었고, 가권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침통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약초를 캐러 나갔으리라.

마지막 싸움이 끝난 후, 나는 모든 무술을 작파하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놈은 놈이고 나는 나다. 아버지는 어차피 힘쓰는 놈은 머리 좋은 놈들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면서 내 힘을 북돋아 주었다. 나는 몸을 추스르고 공부에 전념했다. 십 대의 마지막 해는 빨리 흘러갔다. 나는 곧 스무 살이 되었고, 원하는 대학의 법대에 합격했다. 진영은 십 대의 마지막 해에도 여전히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달라진 건 어머니 아버지가 출퇴근 하는 곳이 학교에서 경찰서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었다. 세월이 좋았던 건지 어쩐건지 모르지만, 진영은 출석일수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강호의 세계로 뛰어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 아버지, 어머니, 나 누구도 진영을 말할 수 없었다. 강남 유흥가에서 진영을 봤다는 말도 있었고, 정선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문들이야 어쨌건 진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나와 아버지, 어머니는 진영을 찾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 년 인가 지난 봄날, 진영은 집에 돌아와 대뜸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바로 입대 전날 통보했던 것이다.

진영은 여느 군인들처럼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군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나 역시 집안 사정이나 대학생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침묵했고, 술만 훌쩍였다. 마치 서로의 힘

을 기נם해보려는 고수들의 기 싸움처럼. 두 고수들은 이미 한 차례 싸워 본 적이 있었고, 승패도 갈린 상태. 패자의 입장인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강호의 도리였다. 사실 궁금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갑자기 군대 간 이유가 뭐냐?”

“갑자기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게 어때?”

“그게 그 말이야.”

“지겨워서.”

“지겨워?”

“그래. 넌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

“미친 놈.”

진영은 상의를 바지춤에서 빼내 걷어 올렸다. 탄탄한 복부에 송충이 같은 흉터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한 번 흉터를 쓰다듬더니 이내 옷을 내렸다.

“뭐 같냐?”

“글쎸다. 네 몸에 흉터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진영은 맥주잔을 들어 들이키고는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어진 진영의 말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다. 진영은 인근 십 대들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싸움을 이긴 다음 그가 느낀 건 환희가 아니라 어떤 허탈함이었다. 싸움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는 허탈함을 맛보게 되었다. 어떤 주먹도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상대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싸움판에 몸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고 그 길로 고등학교 때부

터 자신을 스카우트 하려던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대형 나이트클럽을 두고 다른 조직과 집단 싸움을 벌였을 때도 그는 아무런 무서움도 없이 선두에 나서 적들을 때려눕혀 나갔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진짜 싸움에서도 그는 최후까지 살아남아 주먹을 휘둘렀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조직의 두목에게까지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날, 그는 자신이 사시미를 배에 박고 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가 줄줄 흘렀는데도 그는 전혀 아픈 줄을 몰랐다. 싸움에 잔뼈가 굵었을 두목도 식은땀을 흘리며 진영에게 행동대장의 자리를 약속했다. 정작 가장 놀랐던 것은 진영이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시미가 자신의 배에 박혔는지도 몰랐던 자신이 괴물 같이 느껴졌다. 진영은 두목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길로 그 세계에서 발을 뺐다. 그리고 입대를 지원했다.

“놀랍지 않냐?”

진영은 별로 놀랍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프지 않았던 거냐? 참았던 게 아니고.”

“그럼 넌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거냐?”

하긴 나 역시 일부러 아픈 척 한 적은 없다. 이 사회에서 남자로 태어나 사소한 자극에도 아프다고 나자빠지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정도는 나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자빠지는 건 진짜 아프기 때문이다. 아마 진영도 그럴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영과 내가 쌍둥이로서 같이 공유하는 게 하나는 있었던 셈이다. 아픈 걸 아프다고, 아프지 않은 걸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처세.

“넌 좀 어때 아직도 우리 근육이냐?”

“여전하지.”

“넌 군대 오지 마라. 너 같은 놈이 오면 하루도 못 견디고 비명 지를 거야.”

“그러려고. 아마 정신병 정도로 처리되겠지.”

“난, 이제 내 몸을 내 몸이라 생각 안하기로 했다. 아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 옛 같은 상태를. 그나저나 그 필살기라는 거 여전하냐?”

“필살기는 무슨.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오락이나 한 판 할까?”

“우리가 할 만 한 게 아직 있나?”

“가자. 동네 오락실에 아직 스트리트 파이터 있거든. 거기서라면 내 얼마든지 필살기를 보여주지.”

동네는 어둑했다.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진영이 각 학교 짱들과 싸움을 벌이던 때보다 많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번두리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우리 둘은 오락실을 향해 어둑한 골목길을 걸었다. 비가 내리려는 지 하늘에 구름이 자욱했다. 별은 커녕 달도 보이지 않았다. 진영이 오랜만에 마신 술이 과했는지 담벼락 그늘로 인해 한층 어두워진 골목으로 들어가 토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강철의 몸을 가진 남자가 토하고 있었다. 토하는 고통은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이지 궁금했다. 순간 골목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 왔다. 나는 쭈그리고 앉은 채로 빛이 없는 길의 안쪽을 주시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렵풋했지만 세 사람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돈은 있는 대로 다 드릴 테니 그냥 보내 주세요, 네?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리 와봐. 누가 돈 달라 그랬어? 오빠들이 재미있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만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봐 어서. 껍! 여자의 비명소리가 낮지만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슬그

머니 일어섰다. 진영은 속엿 것을 모두 토한 다음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뭐 하나? 저, 저기. 진영 역시 곧바로 사태를 눈치 챘다. 안쪽의 두 사내도 우리 둘을 눈치 챈 모양이었다. 어이, 형씨들. 그냥 가던 길 가지? 뱃가죽 성하고 싶으면, 어둠 속에서 사내가 쥔 물체가 희번덕거렸다. 이 새끼들이. 진영은 여전히 파이터였다. 저 사내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이다. 하지만 진영은 군인 신분의 파이터였다. 새로 마음잡고 살아보기 위해 입대 했을 진영이 다시 한 번 번거로운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가만 있어봐. 나는 한 손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진영을 제지했다. 넌 가만있어. 군인이 폭행사태에 연루되면 골치 아프거든. 그냥 가자고? 아니. 나는 이십여 년 간 갈고 닦아온 무술이 오늘을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담벼락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피브이씨 파이프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순식간이었다.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몸은 어둠 속에서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사내의 칼이 날아갔다. 파이프의 끝에서 연달아 타격의 진동이 전해졌다. 여자는 골목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진영이 붙잡아서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다. 적의 저항은 없었지만 내 파이프는 미친 듯이 춤을 춰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두 사내가 바닥에 쓰러진 후였다. 구름이 걷히면서 달빛이 골목을 비쳤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진영이 다가와 내 손에서 파이프를 빼내 한 구석으로 던졌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길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사내 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조용히 쓰러진 사내들의 경동맥에 차례대로 손가락 끝을 대보았다. 칼을 들었던 사내의 맥을 확인하던 진영이 고개를 쳐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손바닥에서부터 가느다란 떨림이 전해져 왔다. 필살기였나. 이것이.

진영이 내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느 집에선가 개 짖는 소리가 달밤에 울려 퍼졌다. 마치 길고 긴 장단으로 워리우젠이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ⅢⅢ



영화 <싸움의 기술> 포스터중에서



나는 지금 절대자가 내 인생에 조기 진입한
것을 이리쿵저리쿵 말하고 싶지 않다.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82쪽에는
24억원이 잠자고 있다. 그것도 세금을
제하고 24억! 살아있을 때는 머리에 그 숫자가
떠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남이 있는 식구들을 위해
그돈의 저처는 알려주고 싶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 본문중에서 -



옛날에는 칼이 세상의 주인이었다.
한 때는 군뚝 경제를 통해 은은 경제였지.
그리고 지금은 정보지식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여전히 사람이 권력의 주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애한다.

홍길선 수원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82쪽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운명치고는 비참하고 기구하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기어이 당하고야 말았다. 하필 나여야 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다. 중국에 가서 디밀어야 하는 히든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자는 너무 일찍 그 카드를 내게 불쑥 내밀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온전히 내 몫인 그것을 나는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만 했다.

나는 지금 절대자가 내 인생에 조기 진입한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다.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82쪽에는 24억 원이 잠자고 있다. 그것도 세금을 제하고 24억! 살아있을 때는 머리에 그 숫자가 떠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 그 돈의 거처는 알려주고 싶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사 내에 냉기가 돈다. 감원은 이미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고 그 인원의 조정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노조는 일반직 대 공장 노동자의 비율을 30대 70으로 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일반직의 지나친 감원은 오히려 회사의 운할성을 해치고 조직의 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0대 80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24일 노조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회사측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회사측은 약간의 성과만 있다면 노조의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상호 양보한 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령 25 대 75 정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예상하건대 당분간 이런 관행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과 사측이 벌여온 협상의 관례대로 본다면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대상이 나여도 상관없다.

미소가 만면에 번지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참자.

김 과장 요즘 좋은 일 있습니까?

음의 높낮이가 없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좋은 일이 있는가본데. 그런데…….

순간 긴장이 된다. 그의 말줄임표에는 언어로 늘어놓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숨어있다. 그러나 내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김 과장님! 이거 보세요.

나는 그가 검토하고 있는 서류를 보려고 그의 책상 옆에 섰다. 그저께 기인한 것인데 이제야 검토 중인가 보다. 급하다고 서두르라던 서류였다. 이래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쯤에서 나는 벌써 식은땀을 주체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내 몸은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밤을 새서라도 마치시고 내일 아침에 내 책상에 놓아주세요. 아, 그리고 김현숙 씨도 같이 고생 좀 해줘요.

나는 뜨끔했다. 사실 전에도 김현숙 씨와 조를 이루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엉뚱한데서 뜬금없는 일을 치르고 말았다. 그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자고 했고 나는 근무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녀는 스물여덟이었고 지나치게 예뻐다. 그녀는 오아시스라는 영화에서 기가 막힌 장애인기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탄 그 여배우가 주연한 신작영화라고 했다. 제목조차도 도발적인 어느 여교수의 은밀한 유혹이었다. 나아말로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마치 그 영화의 줄거리를 실제에서 요약하듯이 나를 유혹했고 나는 한나절은 죽히 그녀의 따뜻한 자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짐승처럼 지낸 한나절이었다.

그녀는 왜 느닷없이 내게 몸을 허락했을까. 그냥? 아니면 나에게 호감? 내가 봐도 나는 글썽, 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이면 어땠고 호감이면 어떠냐. 결과는 내가 그녀의 몸을 한동안 누린 것만은 사실인데.

정말 좋은 일이 있는가 봅니다.

냉소에 가까운 그의 미소, 참을 수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갈겨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곧죽어도 십오 년차였지만 그 앞에만 서면 신입사원처럼 덜덜거렸었다.

김현숙 씨.

그는 앞 테이블에 옆얼굴이 보이는 그녀를 저음으로 부른다. 저음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사람, 먼 곳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그와 그녀를 번갈아 본다.

나는 그 말이 꼭 그녀도 책임을 공감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리고 야릇한 흥분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그녀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를 유혹할까.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나, 결과만 내 의향대로 되면 그만이지.

부장! 나에게서는 당신이 생전에 이루지 못할 것들을 다 이루고도 남을 만한 여력이 있어. 그걸 알기나 한가, 이 개아들아. 나는 밤을 새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김현숙 씨와 밤을 지새우는 것은 나쁘지 않다. 부장은 나에게 복을 떠밀고 정처 없이 떠나가는 떠돌이 중 같다. 그 복을 왜 걸어차고 이미 폐경에 다다른 마누라 걸로 가느냔 말이나. 수도승이라고 해야 맞겠지, 이 개아들아!

그만 일하죠?

나는 그만 그녀의 손을 잡을 뻔했다. 일을 한다? 어떤 일? 그때 그 일? 나는 끈적끈적한 웃음을 그녀의 가슴에 보냈지만 그녀는 흠하며 코로 모든 기운을 빼내버린다. 순간 나는 무안해졌다. 그녀는 나를 달래는 손위 누이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앞에 앉는다.

부르세요. 숫자맞추기 게임을 해보아야지요.

이것은 순전히 숫자놀이이다. 회사에서는 매출 보고를 하라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매출이 올라갈 리가 없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유통구조를 조금만 변경하면 회사는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나는 전에 생산관리부 김 과장으로부터 그 내막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 일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다 대학을 같은 해에 졸업한 사내의 둘도 없는 후배면서 친구인 사이다.

내가 다닌 회사에서는 바닥도장, 굴뚝 도장, 철구조물, 배관 및 기계류 외부 도장, 탱크도장, 교량도장, 수력 발전소 도장 등 산업 부분 전반에 쓰이는 페인트를 만들었다. 세 곳에 자회사가 있었는데 경쟁관계

처럼 회사 조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속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불황에는 오히려 그 조직이 야금야금 영업이익을 갉아먹고 말았다. 그 결과 회사는 조직의 비대성이 결코 영업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내 감원을 결정한 것이다.

본사의 영업부는 전에는 자회사의 판매실적을 통계를 내고 자회사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밥값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익을 내야만 했다. 자회사 제품을 대리점에 납품하던 기존의 구조를 변경하여 자회사의 제품을 일단 본사로 납품하고 본사는 다시 대리점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테면 자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순이익 100원을 포함하여 1,000원에 대리점에 납품하던 유통구조를 변경하여 자회사의 제품을 950원에 본사에서 납품받아서 다시 대리점에 1,000원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본사는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납품받고 납품하는 수고로 고스란히 5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품질관리, 애프터서비스, 대리점 관리 등은 여전히 자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자회사에서의 푸념이 본사로 올라오고는 했지만 본사의 어지간한 직책이면 그 불만을 누를 힘은 충분히 있었다.

이거 재밌는데, 부장이 비자금 구성에 너무 충성하는 거 아냐. 이리다가 다시 해오라고 하면 어찌지.

나는 새벽 한 시에 일을 끝내면서 못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금세 그녀와 헤어져야한다는 생각만이 자욱하게 안개가 낀 도로 위에 나뒹굴었다. 슬며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나와 같은 아쉬움이 전혀 없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 밤을 달굴 수 있을까?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녀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에 미치자 말문이 터지지 않았다.

김현숙 씨, 저녁참이라도 먹고 가는 게 어때?

그러죠.

순순히 제의에 수락하는 그녀가 밍지는 않다. 그러나 순순히 수락하는 것도 두렵다.

한 달 후에도 김현숙 씨는 여전히 매력이 있을까? 지금 나는 그녀의 허리에 걸린 느슨한 허리띠의 버클이 중심을 향하듯 나 또한 그녀의 중심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이 전부는 아닐까? 그래도 좋았다. 아내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싱싱함이 그곳에는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운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다가온 행운 중의 하나일 뿐이야. 그 행운들은 내 주위를 부유하면서 내가 손으로 채가기만을 기다린다. 지상에서 떠도는 그것이 특별히 나를 선택했을 때는 내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도 내게 다가올 행운의 즐거운 상상이 없었다면 나는 부장이 힘차게 내리누르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비싸고 공간만 차지하는 그의 파스텔 책상만큼이나 밋밋하고 버석한 그의 마음 씹셈이. 세상에 짝할 것도 없이 교활한 여우같은 늙은이 같으니라구. 그러나 이 시간만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물론 내 행운에 의해서 그녀는 나에게 온 것이나 일을 만들어 준 것은 부장이 아닌가. 그가 지금 이 자리에 그녀와 함께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행운인가? 그리고 집에 있는 그 행운은? 생각만 해도 비극, 비극 그런 비극은 없다.

이런 바보, 나는 정말 요기를 할 양으로 우동집을 들어갔다. 바투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하는 좁은 탁자와 엉덩이만 걸치는 의자, 약간은 도발적인 불그스름한 실내등은 마음에 들었지만 우동집이라니. 아마도 나는 상상의 즐거움 때문에 몸시도 배가 고팠나 보다. 내 몸의 상태를 잊어버릴 만큼 나는 행복하다. 더군다나 그녀의 무릎이 내 무릎사이

를 파고드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희열이다. 그녀의 그런 자세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교환의 자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가 오늘은 더욱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건너편 자리를 보니까 거기도 우리와 같은 무릎 자세가 있다. 여긴 우동을 먹는 곳이 아니라 몸의 열을 서서히 가열하는 곳인가 보다. 식욕과 색욕이 동시에 만족되는 세상. 그런 곳이 가까운데 있었군. ㅎㅎ.

뭐가 웃기세요, 과장님.

그냥.

사람 앉혀놓고 겨우 우동을 먹는 것이 재미있나요. 아니면 제 무릎이 과장님을 괴롭히나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뻘히 쳐다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없었다. 느끼한 말투만이 잠시 테이블 위에 머물다 사라졌다. 갓등이 코 높이까지 내려와 그런 탓도 있지만 순간 나는 눈이 멀고 말았다. 그녀가 펼쳐 줄 이 밤의 즐거움이 내 눈의 시각기능을 한두 시간 앞으로 밀어놓았고 나는 그 시간에 머물면서 쾌락의 절정에서 망막을 달아버렸다.

그, 또는 그녀는 아니, 중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자 해도 할 수 없었던 영혼은 그 무엇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었다. 형체가 인간과 같으리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형체가 없다. 아니 있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다만 주변에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본다, 듣는다, 느낀다 등의 감각은 전혀 소용이 없었고 그것 자체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 듣는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을 하지 않

아도 알 수 있었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고, 저쪽에서 말이 없어도 나는 알아들었다. 듣는 행위는 분명 아닌데도 들을 수 있다.

가 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중성이 말했다. 영혼이 미련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일단 죽음은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고 저승의 간섭은 이승에 닿지 못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으레 그럴 줄 알고 지냈다. 그런데도 나는 집착을 끊을 수가 없었다. 영혼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엘빈토플러 권력이동 82쪽의 그 24억원!

당신은 그 돈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승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다 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그게 그리 대단한가? 네가 사랑했던 가족들의 안부보다도 더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도 값지다고 판단되는 가족의 안위보다도 죽음은 더 값진 것이다. 그것들의 속박에서 훨훨 날개를 펴고 빠져 나올 수 있다. 이것보다 자유로운 것이 있나. 사랑과 돈에서 자유로운 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종이 꿈꾸던 세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니다. 나는 비록 이 지경이 되었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그것의 소재를 알리고 싶다. 그래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 다음에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네가 도와 줄 수 있는가. 있다면 꼭 나를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줘, 부탁이다.

그걸 다 쓰고 이리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흠.

절대규칙 일, 창문 앞으로 지나가지 말 것. 네 모습이 보일 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형체도 없다. 그러나 태초의

습성을 유전적인 변형 없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느낌이라는 아주 고약한 감지 능력이 있다. 형체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은 아마도 신이 모든 동물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준 특권일 것िया. 그러나 그것은 관념화해서 귀신이다, 영혼이다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의 애물단지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저기를 보라고 어제까지 개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 영혼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러나 인간만은 안 그래. 꼭 이승의 자투리를 끌고 들어오지. 자네가 벌써 천년 사이에 두 번째야. 아주 많아 그런 사례가.

절대규칙 이, 희로애락은 금물. 자네처럼 이승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영혼은 대개 이승에 집착을 갖는 영혼이야. 그 영혼들은 비록 이승의 기억은 전멸하지만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강렬한 생명성을 가진 기억은 대부분 희로애락을 낳게 마련이지. 그것은 이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या. 그런 감정을 지니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지나다 해도 그것을 분출할 수 있는 출구는 없어. 그게 문제지. 더 이상 이곳에서의 죽음은 있을 수 없어. 영혼 상태가 윤회의 끝이거든. 해결책은 딱 한 가지, 스스로 소멸하는 거야. 영혼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지.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멸임을 명심해야 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승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 이것을 어길 때에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승의 역사를 만들 수 없다.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나는 언제든지 자네를 원하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지. 하지만 명심해. 소멸이야, 소멸.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은 이 곳에 사는 영혼들은 몰라. 이승에서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완전 소멸이라는 정도만 알아도 돼. 특히 세 번째 규칙은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집착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나는 잠깐 사이에 부유의 상태가 되었고, 이내 내가 예전에 보았던 세계로 내려와 있었다.

아내는 예전보다 잠자는 시간이 늦었다. 전에는 11시가 되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웬만한 연속극이 다 끝나갈 무렵이면 잠자리에 드는 예비동작을 수시로 했다. 하품은 소리가 없었지만 모양새는 보기에도 참 답답했다. 지금은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내는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해 깨어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지들끼리 자고 먹고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학원에 가고는 했다. 큰 딸애는 고2이고 동생은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다.

아내는 입속으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면서 침대 밑에 앉았다. 시선이 결혼사진에 머문다. 아직도 저것을 치우지 않았구나. 아내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고개를 아래로 푹 꺾는다. 나는 문득 아내를 쓰다듬고 싶은 생각이 퍼뜩 일었지만 나는 형체가 없었다.

창문을 비껴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몸이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뿐이오. 권력이동을 펼쳐보고 확인해 보시오. 그러나 울림도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아내의 등 뒤로 갔다. 어깨가 들썩인다. 폭풍이 곧 닥칠 기세다. 그러나 아내는 잘 참아낸다.

나는 아내를 뒤로하고 예전에 내방이었던 곳으로 갔다. 내가 죽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았건만 방에는 잠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집안에

있던 내 물건들은 모조리 이곳에 옮겨놓았고, 더러는 아이들 것까지 널려 있었다. 아내는 게으르기는 해도 지저분한 여자는 아니었다. 일이 더디고 기민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 지저분 맞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방의 풍경은 한번도 보지 못한 낯선 것이었다. 어찌면 아내는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 방 출입을 하지 않은 모양이다. 물건들의 배열이 아내의 숨씨가 아니었다. 아마도 아이들이 엄마의 심부름을 건성으로 했던 듯 싶었다.

아직도 권력이동은 4개 기둥으로 된 고풍스런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그 책꽂이는 고풍스런 질감이 좋다고 아내가 고른 것이었다. 4단으로 된 책꽂이기는 하지만 1단과 2단에는 오디오 시설이 있었고, 3단과 4단에 책이 있었는데 3단에는 대학교 때 교재가 몇 권이, 4단에는 최근에 산 책들이 꽂혀 있었다. 4단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권력이동이 삐딱하게 꽂혀 있었다. 사장이 읽어 보라고 권해서 마지못해 산 책이었다. 아마 중간쯤 읽다가 그만두었을지 싶다. 내가 사라지고 난 방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 냄새가 빠진 내방은 나와 같이 죽어 있었다.

저 책을 열어볼 수 있다면, 나는 책꽂이 주변을 기웃거렸고, 권력이동은 열하루 전과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거만하게 꽂혀 있었다. 진작에 저것을 꺼내서 기쁨을 누리봤다면 나는 지금 아마도 다른 영혼들처럼 안식의 쾌락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역사적인 가정을 자꾸 하게 된다.

나는 큰아이의 꿈속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순간순간 질주하는 경주용 차처럼 이곳저곳을 난폭하게 돌아다녔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정장을 한 건장한 사내가 팔애를 안고 어디론가 사라지는가 싶더

니 금세 아내의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딸아이의 얼굴을 덮쳤다. 아이는 몸을 뒤척이더니 옆으로 눕는다. 그래도 방향은 끝나지 않았다. 숲과 아내의 얼굴, 그리고 학교를 번갈아 돌아다니더니 바다에 다다라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서글펐다.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없었다. 딸애가 요구했던 것 중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 요구만 빼놓고, 디지털카메라는 권력이동이 열리기 전에 사주려고 했다. 그것은 더욱 서글픈 일이었다.

둘째의 꿈속에는 소품도 없이 그저 여자만 왔다갔다 했다. 들어가 있기가 민망했다. 서둘러 빠져 나오니 아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가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폴짝 가라앉아 버렸다. 아이들을 보고 나니 권력 이동의 갈피에 숨어 있는 24억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다. 저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에는 금전적인 바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직무유기도 여간 아니다.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울음을 그치고 방금 잠이 든 듯했다. 나는 그녀의 속으로도 들어가 보았다. 온통 회색뿐이었다. 지적을 알 수 없는 회색의 안개. 저 멀리 걸어가는 것은 나였다. 깊은 수렁으로 한발한발 빠져들면서도 가는 길을 멈추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나였다.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를 부르는 소리만 들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이 막혀도 수렁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말았다. 비명이 들렸고, 나는 성급하게 그녀의 의식에서 빠져나왔다. 아내는 스탠드 등을 켜다. 어찌된 일인지 땀이 흥건한 그녀의 이마에는 야릇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죽음을 보고도 흥분을 하는 것은 인간의 야수성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그마만큼 아내에게 불필요한 존재였던가. 아내의 등을 껴안으려고 했지만 불능이었다. 아내의 어깨는 열흘 전보다 훨씬

슬퍼 보였다. 그때 아내는 있는 힘껏 눈물을 밖으로 내 쏟았다. 이것을 끝으로 나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듯이 며칠동안 줄기차게 슬픔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침대에 걸터앉은 아내는 그때의 그 모습보다 더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여보, 민경이, 나야, 수미 아버지.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미동도 않는다. 살아생전에 아내의 머리칼이라도 한번 손으로 쓸어 넘겨 줄 것을, 그리고 두 손을 가볍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귓가에 대고 은밀한 속삭임이나 한번 해줄 것을.

나는 아내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그래 창문!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형체도 없는 나를 둔한 아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방법은 그뿐이다. 거리의 가로등 때문에 아파트 3층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내가 제발 나를 느껴주었으면, 아내는 아까의 그 자세를 풀지 않았다. 저렇게 있다가는 몸이 굳어버리고 말 거야 할 무렵 아내는 옆으로 누워 버렸다. 잠이 든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눈이 퐁퐁 부은 채로 사물을 윤곽을 더듬고 있었다.

당신이 정말 보고 싶어요.

그녀는 침대를 쓰다듬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어깨가 좁다고 타박하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무슨 남자의 어깨가 여자만도 못해. 그 말에 당신은 며칠동안 푸쉬엿을 하면서 어깨를 벌려보려고 했지만 사흘 만에 덮어버리고 말했지요. 마음이 몸을 다스려야지, 몸이 마음을 다스리면 쓰나. 나는 그때 당신의 말투에 웃을 뻔했지만 의미만은 잔잔하고 깊었어요. 당신 마음씨는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보는 눈이 항상 내 몸 밖에서 걸돌기만 하는 것이 불만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예요. 내

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모를 거예요.

아내의 생각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나를 기억함으로써 나의 부재를 의식으로나마 존재로 인식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당신 이거 알아요.

뭘?

내가 당신의 양말과 내의를 빨 때 제일 즐거워한다는 것어요.

하필이면?

그것은 내가 당신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당신의 빨래는 세탁을 끝내고 다시 또 꺼내 물에 행구고 손으로 비벼 빨 적도 있어요. 아시나요?

뭘?

당신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전에 없이 내의가 젖어 있었고 팬티에는 정액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따지려고 여러 번 별렀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왜 그리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과 이혼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렇다는 것이죠. 당신은 왜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되묻고 싶겠죠. 아이들 문제도 그렇지만 그것은 아마 핑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두려웠어요. 20년 가량을 같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의 정체를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이 회사에 나가고 아이들도 제각기 학교로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당신과 아이들의 체취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시간을 아무 움직임도 없이 호흡을 하다보면 마음이 가리앉고 하루가

유쾌하게 시작되고는 했어요. 만약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 정적만이 맴도는 거실에 앉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생각해 봤어요. 텔레비를 보는 것? 아마 그것은 더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눈은 즐겁게 해 줄지언정 마음은 안정시키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정적이 주는 두려움을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그런 것을 경험할 기회가 적을 테니까. 오히려 당신은 일요일에 휴일에 그런 정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당신 알아요?

또 뭘?

요즘 나는 새벽까지 당신과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는 당신이 일터에 나가 나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당신이 가고 난 다음 도리어 당신이 온전히 내것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루종일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해도 물리지도 않고 마음은 차분해요. 비록 가끔 당신의 몸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아직은 참을 만합니다. 벌써 날이 썰 것 같군요. 아이들을 위해서 잠을 자야겠어요.

아내가 잠든 후 나는 김현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나와 마지막 밤을 보낸 여자였다. 그날 나는 그녀와 저녁을 먹고 깨끗한 모텔을 찾아들었다. 그녀는 전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것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나를 안았다. 무언에 쫓기는 사람처럼 나를 원했고 나는 그녀의 저돌적인 행동에 열에 들떠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한번의 정사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나의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나의 그것은 그녀의 성의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나이 사십 이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룻밤

에 무려 세 번이나 일어섰다. 그녀는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를 불사르려 했지만 더 이상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즐거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한때의 즐거움을 찾는 행위로서 만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응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 대답이 두려웠다.

그날 나는 그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딸애의 디지털 카메라를 조만간 사주기로 결심했다. 딸애의 표정은 오랜만에 밝게 빛날 것이다. 나는, 예전에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를 해줄 때마다 수혜자보다도 시혜자가 누렸던 기쁨을 다시 느껴볼 것이다. 마음이 어느새 모든 일들의 중심점이 아이들이었던 그 젊은 아버지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기분을 느끼기도 전에 얼토당토않게 폭주족의 오토바이에 목숨을 내주고 말았다. 그때 나는 딸애를 생각하며 웃고 있었는데 아니면 24억 때문에 억울한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죽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느낀 것 같았다.

그녀를 한 번 보고 싶다. 나를 사랑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녀는 한때 내 존재의 조그만 의미가 된 적이 있지 않았던가. 영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곳저곳을 나다닐 수 있었다. 내가 찾자 하는 사람의 행방도 그냥 원하면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18평 정도 하는 오피스텔에 있었다. 그녀와 어울리지 않게 몽크의 '절규'가 식탁이 맞닿은 벽에 걸려 있었고, 침대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만한 팬더곰 인형과 커다란 해바라기 꽃무늬가 있는 베개가 놓여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지나치다 싶은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늦은 저녁을 마쳤는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이 몹시 피곤해 보였고, 어깨에서 발뒤꿈치까지의 선이 흔들거렸다. 다시 한번 안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나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쾌락의 순간이 떠올랐고, 나는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저주했다.

절대규칙 이, 기억하라.

휴대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은 첼로 연주였는데 들은 기억은 나는데 곡명은 떠오르지 않는다.

여보세요.

네. 알아요. 금방 나갈게요.

그녀는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응했다.

지겹다.

그녀는 속으로 읊조리면서 거울 앞으로 갔다. 머리를 묶고 로션을 얼굴에 발랐다. 가벼운 옷을 골라 입고 휴대폰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에 붙어 그녀의 행선지에 동행했다.

자주색 리오를 타고 그녀는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을 넘어 명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 시종 무거운 얼굴이어서 괜히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전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빛이 없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도 마지막 정사를 제외하고는, 초기종착과 중간동작에는 수동적인 자세였다가 종착역에 다다라서 이성의 통제를 벗어날 때에야 정사에 몸을 던졌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불만일 수는 없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녀의 태도가 어떻든 아들 아들한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푸석푸석한 집사람의 엉덩이를 더듬는 것보다는 훨씬 감촉이 좋았고 그것에 나는 만족했다.

그녀가 발을 멈춘 곳은 심연(深淵)이라는 카페였다. 문을 들어서자 말 그대로 심연이었다. 구두의 코만 간신히 보일 정도의 어둠이 깔려 있었다. 젊은 웨이터가 그녀를 안내했고 비티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룸 앞에 멈추어 섰다. 다른 방의 이름도 챌린저, 트리에스테 등인 것으로 보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룸 이름으로 붙인 듯했다. 카페 주인이 어지간히 바다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룸 안에도 대형의 그림 두 점이 있었는데 바다와 배가 주제인 그림이었다. 우람한 범선이 파도를 가르는 그림 아래에 최 부장이 앉아 있었다.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는 벌써 몇 잔을 들이킨 얼굴이었다.

손님 접대가 있었어. 자잘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2차는 싫다고 하더군. 그래 시간이 남아서 불렀어. 이렇게 호젓하게 만난 지도 오래되기도 하고.

그녀가 듣기에는 아주 불쾌한 소리였다. 그가 시간이 남을 때 부르는 여자가 그녀라면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겠지. 그런데도 그녀는 그의 곁으로 가서 가볍게 그의 얼굴에 키스를 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당겼고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다.

후우! 역시 좋아. 당신을 이런데서 안아보는 것도 오랜만이군.

너도 이제는 몸이 다됐구나. 뒤로 물러나는 맛이 없어. 하두 굴려 먹어서 그런가 보군.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 하지만 오늘날만은 내 너를 탐닉해 주마.

나는 최 부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을 소용으로만 여기는 인간이었다. 예전부터 그 조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다.

상무님, 저번에…….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최 부장이 상무가 되었군.

그녀는 그에게 한뼉한 지사의 발령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 속에는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생각의 무리들이 엉켜 있었다. 나로서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들. 그녀는 오늘 내게 측은한 옆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내게 몸이 있다면, 아니 형상만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그녀 앞에 나타나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녀를 향한 마음의 일부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공이 크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글썄, 회사 사정이 하도 안 좋아서. 당분간만이라도 참고 지내지. 조만간 기회를 봐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 주지.

공(功)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머리 속에서는 내 이름과 80명의 해고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것이 왜 그의 머리 속에 나타났는지 명멸했을까? 그 내막을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80명의 해고는 이미 내가 살았을 때 일의 진척도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내 이름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이 되는데 나도 제자 명단에 있었던 말이 된다. 어느 정도 그것도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것과 그녀의 관계는 무엇이랄 말인가?

그들은 마음을 담은 채 술병을 비워나갔다. 그녀는 잔을 비울 때마다 쓴 얼굴을 지었는데 단지 술이 써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수심을 얼굴에 잔뜩 묻힌 그녀의 모습은 영 낯설었다. 나와의 관계를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표정을 본 적은 없었다.

그들의 방까지는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아모르 모텔 밖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두서없

이 떠올랐다. 시름시름 사라졌다.

그는 거의 한 시간 후에 모텔 뒷문을 열고 나왔고 뒤이어 밖을 살피며 그녀가 나왔다. 행인들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먼 곳까지 사람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가장 치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니 별안간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나는 그 울음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미안해요, 과장님. 나는 당신이 진짜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상무한테 질타를 당할 때 나의 적에 맞서는 사람은 아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꼭 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사랑의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저는 좋았어요. 내가 의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경우도 많지 않던가요. 당신은 지금 어느 하늘에 계신가요. 정말 미안해요. 만약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용서를 구할 게요.

왜 그런 얘기를?

실은 저는 상무의 수족이었어요. 그가 부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4년 전부터 나는 그의 노리개였어요. 그가 왜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탓이겠지요. 단호하게 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제가 허영에 들떠서 그것이 가장 빠르게 이 사회에 적응하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은 정말 함정이었어요. 나 같은 년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 저는 그 함정에 스스로 빠졌던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자책하게 만드는가?

회사에서 명퇴를 신청하라고 했을 때 부장은 당신에게 명퇴를 권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좀더 재미있고 안전한 방법으로 당신을 제

거하기로 했어요. 나와 당신이 비도덕적인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당신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내막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명퇴금도 줄여보자는 속셈이었는데 그만 당신이 가고 만 것이었어요.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저는 그런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죽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 소용 가치가 없어진 여자였어요. 나와 당신을 동시에 내보낼 수 있는 절회의 기회였는데 당신 때문에 그나마 저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무에게 한적한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군요. 상무는 오늘 이미 소용이 다한 나의 몸에 한 스푼의 정액을 마지막으로 쏟아냈어요. 죽음은 그런 사람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하필 당신이. 이렇게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뜻하지 않은 임신을 엄마와 같이 증절하러 갔을 때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정말 당신에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조만간 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의 한 가닥 위로가 되는군요.

나는 내 존재의 무형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하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발 넘어지지 말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그렇게 곁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아탔다. 가로등이 죽은 인가 골목을 지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4.5인용 엘리베이터였지만 그녀에게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져 한참을 뒤척이다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승의 삶이었다.

나는 슬픔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생각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육신을 갖고 싶다는 헛된 욕망이 솟구쳤지만 불가능한 염원이었다.

나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최 상무의 아파트로 갔다.

그의 집은 화초가 가득했다. 잎이 넓은 인도고무나무가 베란다에 두 그루가 있었고, 그보다 잎이 작은 소철이 한 그루가 인도고무나무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밖에도 그 아래로 조그만 화분에 담긴 선인장과 풍란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최 상무의 취미는 아닌 듯했다. 벽에는 추상화 두 점과 동양화 석 점이 걸려있었는데 추상화는 사람의 얼굴을 지나게 변형했기 때문에 보는 이에게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영혼인 나조차도 거실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림이었다.

수조에는 레드스워드 테일이 노닐고 있었다. 자라면서 수컷끼리 목숨을 건 사투가 많고 암컷은 나중에 성전환을 하여 수컷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아주 묘한 물고기였다. 카멜레온의 변색보다도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물고기였다.

전에 본 최 부장의 아내는 눈에 야릇한 광기를 담고 있는 듯이 보였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작렬하는 여름날의 햇빛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저 여자가 정말 최 부장의 아내인가 하고 의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동료들에게 물어도 확실히 그녀가 최 부장의 아내라고 했다. 그러나 최 부장은 회사내에서 알려진 대로 회사의 굵은일을 사전 정리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세의 정확한 판단, 교활할 정도로 일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안목, 그리고 과감성이 그의 특기였다. 그런 그에게 예술가의 눈을 가진 그녀는 어울리지 않았다. 언뜻 그녀가 미대 출신이라는 것은 들은 듯도

했다. 그러나 당시 그녀가 그림을 그린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아마도 최 부장의 성격이 그녀의 자유분방한 예술활동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끝으로 그녀의 첫인상의 감상을 접은 적이 있었다.

오늘 본 최 상무의 거실은 그녀의 화실이었고, 그녀의 작품이었고, 그녀의 성격이었다.

최 상무는 어느 틈에 들어와 그의 아내와 늦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50대인데도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커다란 방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거기에 맞게 원숙한 경지를 넘어선 그녀의 반응은 30대 초반의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놀랄만한 일을 목격한 것처럼 그들의 동물적인 교합을 외면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다섯 시였다.

출근 안 해요?

휴가 냈어. 이번 일이 그런 대로 마무리 됐어. 한 삼일 바람이나 쉴까 하구.

김 과장 일은 안 됐어요.

기분 좋은데 괜히 망치지 말아. 그 사람 제 복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어쩔 짓은 아냐.

신경질적이면서도 단호한 말투다. 그의 주둥이를 뭉개버리고 싶다.

나하고 같이 갈 거는 아니죠. 나 내일부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아이들 돕기로 했어요.

아이들?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삼일 전에 아내가 아침 밥상머리에서 고아원 아이들 어찌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해 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녀는 모성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자연 그녀의 지금 관심은 모성애를 한번만이라도 발휘해 보는 것이었다. 그림에 대한 열정도 막히고 아이에 대한 모성도 막힌 그녀는 세상 살이의 완충지대가 없었다. 그 탓은 그에게 있었다. 그는 무정자였다.

미안하군.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 해요. 나도 나름대로 사는 법을 익힐 테니까.

그렇게 하지.

그녀는 일단 됐다 싶었다. 남편은 아이 얘기에 유독 약했다. 겉으로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가 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작년부터 만난 그 청년을 내일 또 만나는 환락에 깊이 젖어들어 갔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때였다. 그날 저녁은 유달리 바람이 불었고 로또 열풍도 불고 있었다. 로또의 열풍은 거세게 사무실까지 침투했고, 의기소침한 동료들은 인생역전을 꿈꾸며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로또를 한 장씩 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가장 은밀한 비밀을 가슴에 품듯이, 온갖 기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눈빛으로 바위를 뚫을 듯이 하나하나 번호를 체크하고 각자의 운이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로또 판매소에서 번호를 출력했다. 그 때만큼은 부장의 그늘도 회사의 안위도 이미 머리 속을 떠난 뒤였다. 오직 공상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면 그만이었다. 이보다 더한 공상이 있으랴. 가슴이 쿵닥거리는 이만한 즐거움이 세상에 있으랴. 아마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조합해서 했는데 일곱 자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수는 많았다. 그 중 가장 부드럽게 읽히는 수를 선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삼일 후 토요일 오후 여덟 시 사십 분 경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잠이 들었는가보다. 깨어나 보니 내가 잠 자리에 버젓이 누워 있었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골몰해 있었다. 새벽 왜 일어나서 그러냐고, 꿈아 떨어져 잘 때는 언젠데 그러고 앉았냐고, 어서 자라고 아내는 잠이 묻은 소리를 비몽사몽간에 했다.

어떻게?

나는 아내에게도 숨기고 한 달 있다가 돈을 찾기로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를 일이었다. 갑자기 삶이 변하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로또대박이 로또쪽박이라는 부정적인 소문을 들어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여하튼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에 모셨다. 그리고 나니 새벽 네 시였다. 해가 뜨는 모습을 온전히 그날 처음으로 봤다. 오늘은 나의 태양이 뜨는구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아내 몰래 아침을 지었다.

조금은 바쁘게 아이들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지. 24억으로 당신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그런데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다. 서재를 정리할 모양이었다.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재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갔다. 아내의 시선이 책꽂이에 머물렀다. 맨 윗단 책부터 내려서 책을 짹짹 열어보고 차곡차곡 쌓았다. 권력이동에 다다를 즈음 나는 그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권력이동이 방바닥에 떨어졌고 로또복권이 끼워져 있던 부분이 펼쳐졌다. 그리고 로또복권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뻗뻗하게 앞면을 드러낸 채 방바닥에 떨어

진 로또복권. 나는 아내를 막았다. 아내가 주춤 멈추어 섰다.

그때 중성이 내 앞에 나타났고 나는 힘없이 그에게 끌려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안돼, 안돼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발 아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려야 할 텐데.

너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승의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소멸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끝도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고,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ⅢⅢⅢ



나무의 처음은 작은 씨앗
동그라미의 처음은 한점
그 한점을 마지막점과 닮아있다.
시작은 곧 끝이다.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새롭게이다.

배산영 안산 경일초등학교 교사



동 시

계단을 오르며

한 계단, 두 계단

열 계단

스무 계단

한참 오르다

뒤를 돌아보았어

한참 밑의

첫 계단

오르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르지 못했을

첫 계단



김현욱 포항 구룡포초등학교 교사

잠꾸러기 친구들은 잘 모를꺼예요.
 밤새 쌓여 있던 쓰레기들을 누가 깨끗하게 치우실까요?
 먼 나라 소식까지 꼼꼼하게 담은 신문들 누가 가져다 놓을까요?
 영양간정의 신선한 우유를 누가 문앞에 가져다 놓을까요?
 잠꾸러기 친구들은 잘 모를꺼예요. 새벽마다 착한 마법사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나간다는 건
 그 마법사들이 우리들의 상쾌한 아침까지 몰고 온다는 건

새벽에 다녀간 마법사

마법사가 다녀간 게 틀림없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니?

골목골목 마다
쌓여 있던 쓰레기들
감쪽같이 사라지고

젖소에게서 갓 짜 낸
신선한 우유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먼 나라 소식까지
꼼꼼히 적어 놓은 신문이
돌돌 말아 담겨져 있고
마법사가 다녀가는 게 틀림없어
망토를 두르고

요슬 지팡이 휘, 휘 저으면서
새벽마다 마법사가 다녀가는 게 틀림없어

너무 부지런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밤새 닫혀 있던 아침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는
착한 마법사들이 다녀가는 게 틀림없어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포스터 중에서



수사반장도 아니면서 참 많은 사건들을 수사했고,
판사도 아니면서 검정이 판결도 많이 내렸습니다.
실은 부끄럽게도 '새싹도둑'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사건이 일조각이 되어 동화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권영품 서울 용담초등학교 교사

새싹도둑

‘봄 가져오기? 뭐 이런 숙제가 다 있어? 봄이 강아지인가?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가져간 단 말이야? 쳇.’

나는 어떻게 숙제를 해야 할지 몰라 왈각 짜증이 났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4학년이 숙제도 스스로 못하냐며 잔소리를 퍼붓고는,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이다.

“씨앗이 뭐 봄인가요? 그리고 꽃씨도 아니고 상추씨가 뭐예요? 촌스럽게.”

“어머, 애는. 상추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러니? 이거 가져가면 아마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하실 걸. 교실 화분에도 심어봐. 상추는 싹이 잘 나니까.”

나는 상추씨앗을 가방에 넣을까 말까 망설였다. 아이들이 촌스럽다고 놀리면 어찌지? 가뜩이나 천일리와 사귄다는 소문도 있는데….

천일리는 3월 중간쯤에 전학 와서 내 짝꿍이 되었다.

“지는 이, 천일이라고 갱상도에서 올라왔습디. 잘 부탁드립니다.”

천일리는 내가 앉은 맨 뒷자리까지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그 바람에 우리들은 깜짝 놀라 얼떨결에 박수도 쳤다.

천일이는 많은 것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하면 우리들은 눈길을 피하느라고 책 보는 척, 공책에 필기하는 척 하는데 천일이만 혼자서 손을 번쩍 드는 것이다.

“지는 이래 생각합니다.”

“쥘래, 자기보고 쥘란다. 히히.”

아이들은 천일이가 발표할 때 마다 웃음보를 터뜨렸고, 천일이 말투를 흉내 내며 놀리곤 했다.

천일이가 급식당번이 되었을 땐, 배식시간이 다른 날보다 두 배 걸리기도 했다. 천일이가 김치를 듬뿍 집어 아이들 식판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씨, 너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줘?”

“김치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아이가.”

“너나 많이 먹고 건강해라. 이거 빨리 안 덜어?”

“됐다 고마. 퍼뜩 가그라. 뒷사람 기다린데이.”

남자 아이들은 김치를 먹느라고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했다며 두고두고 천일이를 욕해댔다.

아무리 놀리고 수군거리도 천일이가 신경 쓰지 않자, 아이들은 점점 더 심하게 천일이를 괴롭혀 댔다.

“야, 촌일. 촌에서 일이나 하지 서울은 왜 왔냐?”

“나는 촌일이 아니라 천일이데이. 이천일.” “웃이 그게 뭐냐? 촌스럽게. 니가 촌일이냐?”

이런 말을 천일이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했지만, 천일이는 뒤에서 하는 말에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참다못해 천일이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쏘아대고 말았다.

“야, 니들 사람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니? 그리고 촌스러운 게 뭐가 나쁜데? 뭐가 나쁘냐고?”

그 때 강민이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나에게 손가락질 해댔다.

“흐흐, 강슬기. 니들 서로 사귀냐? 어쩐지 너도 요즘 촌스러워지더라. 머리가 그게 뭐냐? 촌스럽게.”

나는 강민이의 말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뿌러진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뭐?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한바탕 붙어서 싸우고 싶었지만 강민이는 저만치 도망가 버렸다.

“니가 참그라. 저카다 그만 두겠지 뭐. 내는 개인타.”

“참내. 너는 화도 안 나니? 성질도 없냐고? 어쩔 그렇게 속 편할 수 있니?”

그런 일이 있을 뒤로 나와 천일이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져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결국 나는 상추씨를 가지고 학교에 갔다. 다른 아이들은 봄옷, 봄꽃, 봄나물 등을 가져왔고, 천일이는 고추모종을 가져왔다.

“고추는 봄에 모종으로 심어가 여름땡벌에 쭉쭉 자라고, 가실에 탄다 아임니까. 우리 집 옥상에 심고 남은 겁니다.”

선생님은 고추모종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다.

“우와! 천일이가 멋진 봄을 가져왔네. 솔직히 고추모종은 처음 보는 길.”

“선생님, 이 고추모종이랑, 슬기 상추씨앗이랑 교실에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좋은 생각인데…”

“선생님! 제 화분도 엄마가 교실에서 키우래요.”

강민이가 선생님 말에 끼어들었다. 강민이는 꽃봉오리가 여러 개 달린 멋진 철쭉화분을 가져왔다.

“그래, 그래. 우리 반이 멋진 꽃 화분도 키워보고, 고추랑 상추도 키워서 씹도 먹어보자. 대신 신경 많이 써야 한다. 죽이면 안 돼요. 알겠지?”

“네.”

아이들이 모두 큰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내 상추씨앗까지 챙겨준 천일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천일아, 있잖아,…….”

그 때 2분단 여자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재네 둘은 정말 사귀나봐. 숙제 해온 것도 상추, 고추야. 아예 시골 밭을 옮겨놓지 그래. 킁킁.”

“맞아. 촌스럽지 않니? 슬기도 촌일이 닳아가는 게 분명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휴, 천일이는 왜 하필 고추를 가져와서 나까지 놀림 받게 만들어.’

나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다 심은 화분을 교실 창턱에 올려놓았다. 바로 내 자리 옆이었다.

“선생님 상추씨에서 정말 상추가 나와요?”

내가 선생님께 여쭙보았다. “상추씨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싹이 나오겠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천일이가 귓속말로 나한테 속삭이는 것이다.

“슬기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데이. 그까튼 썩는다 아이가.”

“.....”

나는 상추화분에 물을 얼마나 줘야할지, 언제쯤 상추가 날지, 천일이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우리 둘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길이 느껴져 그만 됐다.

‘당분간 너랑 말 안 할 거야. 난 소문 같은 건 싫어.’

화분을 심은 뒤로 내 자리 주변이 아주 복잡해졌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내 자리 옆, 그러니까 창가에 달려가 화분을 들여다보고 물도 주었다. 벌이 잘 들어오는 자리를 찾아 화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뿐이었다. 1주일쯤 지나니 창가 쪽으로 모여들던 아이들도 차츰차츰 발걸음이 뜸해졌다. 천일이만 빼고 말이다. 천일이는 학교 오자마자 먼저 화분을 들여다보며, 흙이 말라있으면 물을 뿌려 주기도 했다. 점심시간 남자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천일이는 식물에게 말을 하면서 잎사귀를 어루만져 주었다.

“고추모종아, 퍼뜨 자라거래이. 상추씨앗아 퍼뜨 싹을 내 온나. 예쁜 꽃아, 너는 언제 나올래? 퍼뜨 나오그라.”

화분에 씨앗과 모종을 심은 지 2주일쯤 지났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시끌벅적한 시장골목 같았다. 몇몇 아이들은 창가에 모여 있었다.

“선생님 상추에서 싹이 났어요. 이거 보세요. 아휴, 새끼손톱 보다 작아요.”

“와, 정말 싹이 나왔네. 선생님 씨앗이 살아있었나 봐요.”

“슬기야, 빨리 와봐. 상추씨앗에서 싹이 났어.”

나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화분 있는 데로 달려갔다. 상추잎사귀를 닦아 끄트머리가 꼬불꼬불한 새싹이 올망졸망 나 있었다.

“우와. 신기하다. 정말 상추를 닦았어.”

그때부터 아이들은 다시 창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실에 들어오면 선생님께 인사는 하는 등 마는 등하고 창가로 먼저 뛰어갔다. 아이들 모두가 전기 줄에 앉은 참새마냥 창턱에 붙어서 화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천일이는 오히려 화분 옆에 잘 가지 않았다. 아니 못간 것이 정확하다. 천일이가 가까이 가면 아이들이 어깨로 밀어냈고, 비집고 들어가려 하면 틈을 메워 못 들어가게 했다. 천일이는 머리만 굽적이며 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상추새싹이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가 좋아, 덩달아 내 인기도 올라갔다. 쉬는 시간이면 여자아이들은 내 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한 아름 피웠다.

“슬기야, 네 상추 만져 봐도 돼?”

“살살 만져.”

“슬기야, 상추 크면 나쌘싸 먹게 해 줄 거지?”

“알았어. 딱 한장만이다.”

그러다 보니 천일리와 나는 일부러 피하지 않아도 이야기 할 틈이 안 생겼다. 천일리는 쉬는 시간이면 책만 읽고, 화장실 갈 때도 혼자, 집에 갈 때도 혼자였다. 천일리는 물과 기름처럼 우리 반에서 걸도는 아이가 되어 갔다.

상추새싹이 내 새끼손가락 두 마디쯤 자랐을 때였다. 나는 새싹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면서 교실 문을 ‘드르륵’ 열었다. 상추 싹이 난 뒤로

늘 상추가 커다랗게 큰 모습을 상상하면서 교실 문을 여는 버릇이 생긴 때문이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상추 새싹이 움쭉움쭉 뽑혔어요.”

지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 화분 있는 데로 달려갔다. 화분을 가득 메웠던 상추 새싹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여섯 개만 달랑 남아 있는 것이다.

“엄마야, 난 몰라. 누구야? 누가 그랬어?”

소중한 상추 싹을 뽑다니,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핑 돌았다.

“어? 이상하다. 누가 싹을 뽑아갔지?”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셨다.

“새싹 도둑이 훔쳐간 거예요.”

갑자기 교실에 찬물을 뿌리는 듯 강민이가 큰소리로 말했다.

“누가 새싹을 훔쳐가? 그냥 장난으로 했겠지. 가만, 가만있어보자. 장난으로 한 것 치곤 너무 많이 뽑혔잖아. 누가 그랬을까? 설마 우리 반은 아니겠지?”

“아니예요, 선생님. 어제 집에 갈 때 천일이가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강민이는 천일이가 범인인 듯 말했다. 조금 있다가 범식이까지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맞아, 나도 봤어. 천일이가 화분을 만지는 것 같던데…”

‘에이, 설마 천일이가…….’

그 때까지 천일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갑자기 천일이를 욕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천일이네요, 내가 화분에 물 줬는데, 또 물을 줬어요. 뿌리 썩으라고요.”

“천일이가요, 강민이 화분에 있는 꽃 만지다가 떨어뜨렸어요.”

“천일이가 빛이 잘 드는 자리로 자기 고추 화분 옮겨놨어요.”

“천일이가 새싹도둑이야.”

“맞아, 맞아.”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심각한 얼굴로 변하셨다. 나도 어느새 천일이가 새싹도둑인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안 놀아줬다고 새싹을 뽑은 거야. 치사하게.’

드디어 천일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천일이에게 남자 아이들이 몇 명이 우르르 몰려가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다. 천일이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손과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서 천일이를 부르셨다.

“천일아, 네가 상추 새싹 뽑은 것 맞니?”

“아 예, 그게, 그러니까…….”

천일이가 머리를 굽적이며 히죽 웃는 것이다.

“웃지 말고 똑똑히 말해! 왜 그랬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선생님 천일이가 뽑은 게 맞지요? 천일이 혼내주세요.”

강민이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네, 천일이 혼나야 되요. 천일이는 새싹도둑이에요.”

나도 일어서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도둑 아이다. 도둑이 아이다카이.”

천일이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보며 손을 내 저었다.

“무슨 소리아. 네가 그랬잖아.”

“지가 했으면서 변명하는 것 봐.”

아이들이 모두 화난 목소리로 천일이에게 한마디씩 했다. 천일이는 무슨 말을 하는 듯 입을 오물오물하였지만 아이들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천일이는 새싹도둑!”

누군가 시작한 말에 반 아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외쳤다.

“천일이는 새싹도둑!”

“.....”

그 때, 갑자기 천일이의 눈자위가 붉어지면서 눈물이 한가득 고이더니 포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흠칫 놀랐다. 아무리 아이들이 놀려도 웃어넘기던 천일이였는데. 아이들도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천일이는 두 주먹으로 눈을 세계 비비고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상추 싹 지가 뽑았심디.”

아이들이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천일이를 가까이 끌어당기셨다.

“조용히 해봐. 천일이 말이 안 들리잖아. 천일아, 왜 상추 새싹을 뽑은 거지?”

“우리 아버지가예, 상추 싹이 너무 배면 안 자란다고 숨아 주라캐서 숨은 김니다.”

“뭐라고? 숨아 준 거라고?”

“선생님 숨는 게 뭐예요?”

교탁 앞에 앉은 소라가 얼른 질문했다. 우리는 영문을 몰라 눈만 멀뚱뚱거렸다.

“으응, 싹이 너무 많으면 잘 자라지도 않고 결국 모두 죽으니까 건강한 것 몇 개 남겨두고, 나머지는 뽑아주는 걸 말해. 슬기 상추 싹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상태로 모두 키웠다가는 제대로 된 상추를 얻지 못하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힐끗 천일이를 보니 선생님 앞에서 계속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눈물이 고이면 쓱 문질러 닦고, 또 고이면 문질러 닦았다. 우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한참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 바람에 선생님이 천일이를 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도 다 들렸다.

“천일아, 미안해. 너를 오해해서…”

‘강슬기, 너도 어서 천일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빨리 일어나.’

마음속에서 나를 꾸짖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ⅣⅣ



"천일이 는 새싹도둑!"
누군가 시작한 말에 반 아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외쳤다.

"천일이 는 새싹도둑!"

<중략>

"우리 아버지가야, 상추 싹이 너무 바면 안 자란다고
숨어 주라해서 숨은 겁니다."

<중략>

힐끗 천일을 보니
선생님 앞에서 계속 단 무를 닦아내고 있었다.
단 무가 이 고이면 싹이 문질러 닦고,
또 고이면 문질러 닦았다.
우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한참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천일이야, 미안해. 너를 오해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인연의 끈을 하나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딱새가 누고 간 뜯어에서 시작되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만남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김대조 대구 장동초등학교 교사

딱새가 누고 간 똥에서

추운 겨울날, 딱새 한 마리가 텃밭 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있었을까요? 갑자기 딱새가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텃밭 한쪽 귀퉁이에 똥을 누고는 푸득거리며 날아갔습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야? 온통 하얀색이잖아? 아이 추워.”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바로 어젯밤 딱새가 먹었던 새끼만 꽃씨였습니다. 꽃씨는 자기가 딱새의 먹이가 되었던 것도 모르고 갑자기 밝아진 세상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나 봅니다. 딱새가 누고 간 똥은 눈 속에 파묻혀 여러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새끼만 꽃씨와 함께 말이죠.

‘졸졸졸~, 졸졸졸~.’

어느새 눈이 녹고, 텃밭 옆 개울에도 얼음이 걷히며 물소리가 정답게 들려옵니다. 사르르 눈이 녹으며 딱새의 똥은 흙 속으로 씻겨갔지만 새끼만 꽃씨는 아직도 추운지 땅속으로 쏘옥 기어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봄기운이 따스합니다.

“아~ 잘 잤다. 너무 오랫동안 이 속에 갇혀 있었더니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아.”

텃밭 옆에 쌓인 낙엽 덩불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춥더니 이제야 좀 따뜻해지는구나.”

덤불 옆으로 살며시 다가가 귀를 기울여보니, 그건 바로 번데기였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낙엽 덩불 속으로 들어갔던 삐죽삐죽 못생긴 번데기입니다.

“이야! 개울물 소리를 들으니 봄이 온 것이 틀림없어! 드디어 봄이 왔어!” 낙엽을 돌돌 말은 것처럼 못생긴 번데기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 나도 이제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어! 지겨운 껍질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번데기는 버섯한 낙엽 같은 껍질을 벗으려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마치 겨우내 입던 더러운 옷가지를 벗어던지거나 하듯이 말입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꽃샘추위가 다 가지지 않았는데, 어찌나 힘을 썼던지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휴~ 드디어 다 벗었구나!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네. 조금만 쉬었다가 날개를 펼쳐 봐야지.”

졸졸졸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의 못생긴 번데기는 어디로 갔는지 텃밭 가 낙엽 덩불에는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야호~ 신난다. 이제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나비는 너무나 신이 나서 가벼운 날개를 팔랑거리며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나비가 떠나고 여러 날이 지나, 이제는 텃밭에도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텃밭의 푸성귀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텃밭 위를 팔랑팔랑 춤추며 날고 있습니다. 한참동안 텃밭을 맴돌던 하얀 나비는 지친 날개를 잠시 쉬어 가려고 텃밭 가장자리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깜짝이야! 뭐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지?”

잠시 쉬려던 하얀 나비는 발밑에서 무언가 간질이는 것이 있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하얀 나비는 다시 땅위로 내려와 앉았죠.

“어머나! 뭐가 자꾸 이렇지? 이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얀 나비는 옆으로 살짝 물러나 자기가 앉았던 땅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눈부셔!”

꼼틀꼼틀 흙이 움직이더니 작고 앙증스러운 새싹이 고개를 쏘옥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나비는 깜짝 놀라 멈칫했지만, 앙증맞게 작은 새싹의 모습이 신기해 그저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나? 나는 나비지. 그런데 너는 누구니?”

“저 말이에요? 저는 음…….”

하얀 나비는 새싹의 말이 귀엽다는 듯이 곰살궂게 대꾸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싹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기억나지 않나 봅니다.

“지난 겨울에 아주 킁킁한 곳에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하얀 눈 속이었어요. 네 맞아요. 킁킁한 곳에서 눈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계속 땅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얀 나비와 새싹은 서로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신기하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 아이고 배야.”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알을 낳으려고 그러는 거야. 마침 이 텃밭에 좋은 풀들

이 많아서 여기로 온 거지. 이제 나는 알을 낳으러 가야겠구나. 저기 저 어린 배춧잎이 좋겠네. 새싹아,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 줄 수 있겠니?”

“네 아주머니,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아주머니 부탁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배춧잎에 알을 낳거든 그 알이 깨어날 때까지 좀 지켜봐 주겠니?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거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렴.”

“네, 꼭 약속할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나요?”

“그래. 나는 이제 먼 곳으로 가야한단다. 겨우내 단단한 번데기 껍질에서 추위를 견디며 살아왔지. 봄이 오고 껍질을 벗어 나비가 되었던 거야. 근데 이제 알을 낳고 나는 떠나야 해.”

“어디로 떠나시는데요?”

“아주아주 먼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란단다. 그러니 네가 우리 알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겠니?”

“네, 약속할게요. 알이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게요.”

“고맙다. 새싹아. 너도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거라.”

이야기를 끝낸 하얀 나비는 힘없는 날갯짓으로 배춧잎 위로 올라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랄랄라~ 으음~ 랄라아~”

하얀 나비 아주머니가 사라지고 며칠 후, 알속에서 귀엽게 생긴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 나왔습니다. 애벌레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은 채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알껍데기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애, 너는 왜 그렇게 악을 쓰며 노래를 부르니?”

늦은 봄, 햇볕에 졸던 새싹은 갑자기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깬습니다.

“그냥 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 노래를 불렀어. 눈을 떠보아도 온통 딱 막혀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무서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 악을 쓰며 노래 부르던 애벌레는 갑자기 들려오는 새싹의 물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처음 자신에게 말을 건네준 새싹이 고마워 그제야 눈을 뜨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하! 네가 바로 애벌레구나. 정말 넌 엄마랑 모습이 많이 다르구나. 너희 엄마 참 예쁜 분이셨는데.”

“뭘! 네가 우리 엄마를 봤단 말이야? 우리 엄마 어디 계셔?”

아무 것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는 애벌레가 가엾어 한동안 대답 없이 바라만 보던 새싹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참 예쁜 분이셨지. 은빛으로 빛나는 새하얀 날개를 펼터이며 날아오를 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밝고 아름다우셨어.”

“정말? 와! 나도 빨리 엄마를 보고 싶다.”

애벌레의 대답을 들은 새싹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짙끔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얀 나비 아주머니가 해주신 나비의 일생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눈치 채지 못하게 이내 눈물을 훔치고는 화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희 엄마 지금 여기 오실 수 없어. 왜냐하면 아주 먼 곳에 계시기 때문이지.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마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른이 된 후? 그럼 그때까지 엄마를 만날 수 없단 말이야? 아양~.”
애벌레는 새싹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섭고 슬퍼져 울음을 터트리
고 말았습니다.

“애, 울지 말고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아까 네가 그랬잖아? 무섭고
힘들 땐 노래를 부른다고. 나랑 같이 불러보자.”

“탈탈탈라~ 음 으음 라랄라~.”

새싹과 애벌레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습니다.

“멤 매엠 멤 매엠 매엠~.”

매미가 우렁차게 울어댁니다. 그 사이 텃밭의 친구들도 몰라보게 많
이 자랐습니다. 새싹은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는 튼튼한 과꽃 한 포기
가 보입니다.

“새싹아, 내 몸이 이상해. 그렇게 맛있던 배춧잎도 이제는 먹고 싶지
않고, 이것 봐. 내 몸 색깔이 이상해지고 있잖아.”

애벌레는 아직도 과꽃을 새싹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아무래도
부르기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애벌레의 몸이 아픕니다.

“음. 때가 되었나 보다. 애벌레 너도 이제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
는 거야.”

“뉘라고? 엄마의 모습? 하지만 난 너무 아픈 걸?”

“예전에 너희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이제 곧 너는 몸을 움직
일 수 없을 거야. 온몸이 굳은 채로 한참을 견뎌야해.”

“새싹아,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겠어. 나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 네 스스로 이겨내야 할 아

플이란다. 너희 엄마도 그렇게 힘든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었어. 애벌레야 안타깝게도 난 네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너희 엄마가 부탁한 것처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구나.”

“무서워. 새싹아, 꼭 내 곁에 있어 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애벌레의 몸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양증맞은 애벌레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딱딱하게 굳은 번데기 하나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힘내.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얀 나비 아주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툴툴툴루~ 랄랄랄라~.’

어느새 과꽃은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섭고 힘들 때 애벌레가 힘껏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과꽃이 붉게 피었습니다. 가끔 벌들이 날아와 함께 놀자고 말을 건네지만, 과꽃의 시선은 항상 번데기가 된 친구에게 가 있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하얀 나비 아주머니와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함초롬히 이슬을 머금은 새벽입니다. 희부연 안개가 낀 텃밭 주위는 아직 고요한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과꽃도 제 얼굴을 간질이는 이슬방울이 시원했지만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싫은가 봅니다.

“히히.”

어디서 왔는지 나비 한 마리가 꽃잎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나비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과꽃을 해죽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아암~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을 보니 날씨가 맑을 모양

이네.”

나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는지 과꽃은 가물거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 누구니 너?”

“헤~. 나야나. 나 모르겠어? 오랜 친구를 몰라보다니 서운한걸.”

“오랜 친구?”

오랜 친구란 말에 과꽃은 재빨리 눈을 돌려 번데기가 있던 곳을 쳐다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어젯밤까지 움직이지 않던 번데기가 빈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과꽃은 깜짝 놀라 나비를 바라보며,

“네가 정말…….”

과꽃은 믿어지지 않는 듯이 나비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야나. 네 오랜 친구 애벌레. 이제 애벌레가 아니지만 말이야.”

아침햇살이 내리쬐는 그곳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 과꽃은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죠. 붉은 꽃잎 위로 눈물 방울이 푹푹 떨어졌습니다.

“맞아. 예전에 본 하얀 나비 아주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랬어. 이제 네가 너의 엄마 모습을 찾았어. 엄마처럼 너도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이었니? 새싹아,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힘들어 살 수 없었을 거야.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건 너 뿐이었어.”

“아니야. 다 너 혼자 한 일이야. 난 그냥 여기서 바라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걸. 넌 처음부터 혼자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어. 틀림없어.”

“새싹아, 근데 너도 이제는 새싹이 아니구나! 빨강게 핀 꽃이 참 예뻐. 이것 봐. 이 텃밭에서 가장 예쁜 꽃은 너야.”

“고마워. 역시 넌 나의 소중한 친구야.”

“오히려 내겐 새싹이 네가 엄마 같은걸?”

“뭐 엄마?”

“그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쪽 나를 위해 지켜봐 주었잖아. 그러니까 엄마지?”

“이제야 약속을 지킨 것 같아. 오히려 난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텃밭 구석에서 외롭지 않게 꽃을 피울 수 있었어.”

둘은 서로에게 고마워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비는 과꽃 주위를 빙빙 돌아도 보고 꽃잎 위에 앉아도 보며, 또 과꽃은 그런 나비에 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꽃잎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점점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

어느새 붉은 빛이 바래기 시작한 과꽃이 쌀쌀한 아침 날씨를 견디기 힘든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나도 더 이상 꿀을 빨아먹기 힘들겠어.”

꿀을 찾아 이리 저리 날아다닌 나비는 시들해진 과꽃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얘, 어디 아프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응, 추워.”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나도 으스스한걸.”

“내 꽃잎 좀 봐. 점점 검어지고 있잖아. 자꾸만 힘이 없어지고, 잠만 오는데. 난 이제 어떻게 될까? 자꾸만 잠이 온다.”

찬바람이 온 뒷밭을 덮어 무성하던 친구들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
니다.

“나도 알을 낳아야겠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걸 보니 더 오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나비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니깐 슬퍼져. 무섭기도 하고 말이야. 우린
이제 어떻게 될까? 나비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무슨 부탁? 새싹이 네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지. 말
만 해봐.”

“내 앞에 너의 알을 낳아줄 수 있겠니?”

“하지만 너도 힘들 텐데. 이것 봐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니야. 꼭 그러고 싶어. 너의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 부탁을 한 것처
럼, 나도 너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어.”

“새싹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슬퍼.”

“넌 참 고마운 친구야. 언제나 내 얼굴에 날아와서 볼을 간질여주고,
나보다 먼저 일어나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 있게 해 주었어. 고마워 친
구야.”

“.....”

과꽃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비는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
고 있었습니다.

“난 참 행복했어. 눈발에 굴러 떨어진 외로운 씨앗이었는데, 땅속에서
싹이 트는 순간에 하얀 나비 아줌마를 만났지. 하얀 나비 아줌마 덕
분에 내 가장 소중한 친구인 너를 만난 거야. 너 같은 친구를 항상 곁에

두고 있어서 난 참 행복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

과꽃은 잠이 들었습니다. 나비는 과꽃의 몸을 꼭 붙잡고 안간힘을 쓰며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참이나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붙어 있었습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 둘을 흔들어도 보았지만, 두 친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람 따라 몸이 흔들렸습니다.

졸졸졸~, 졸졸졸~

개울물 녹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텃밭의 친구들도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난 해 과꽃이 있던 곳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꽃은 어디로 갔는지, 나비는 어디로 갔는지 거짓말처럼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텃밭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봄바람의 손길에 텃밭의 친구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디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얀 나비는 과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꼼지락 꼼지락’

“어? 왜 갑자기 땅이 움직이지?”

하얀 나비는 의아하여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물물루~ 랄랄라~”

조그맣고 양증맞은 새싹하나가 땅위로 고개를 쏘옥 내밀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땅위로 올라왔습니다.

“얘, 너 지금 뭐하니?”

“아! 드디어 나왔구나. 그동안 땅 속에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계속 노래를 불렀지. 노래를 부르면 무서운 생각이 사라지거

든. 이제 됐다. 이젠 하나도 무섭지 않아.”

하얀 나비와 예쁜 새싹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이 들은 한참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텃밭에는 오늘도 여러 친구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ⅣⅣⅣ



조그맣고 양중맞은 새싹하나가
땅위로 고개를 쏘옥 내밀었습니다





장려상 수상작

시부문	김홍엽	궁평리에서
시부문	김정임	전시장의 쪽배
시부문	임정윤	겨울, 구룡마을
시부문	김동선	소호리 물안개
시부문	김영식	본가순두부
시부문	하상만	사막을 건너갈 때
시조부문	노희석	제재소 풍경
시조부문	윤명진	허수아비
시조부문	이옥근	망덕바닷가 폐선
시조부문	서관호	교단1
시조부문	문근식	분재
시조부문	김영기	인감을 새기며



장려상 수상작

수필부문	박미영	이름모를꽃
수필부문	남궁증	겨우살이와가자미
수필부문	정재학	어머니,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수필부문	김미광	은어와 춤을
수필부문	천동성	동그라미 이야기
수필부문	강효승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여성성의 미학
수필부문	허동욱	파리
단편소설	김현우	화이트 크리스마스
단편소설	허문정	4℃
단편소설	안성두	A4와 로즈마리
단편소설	김은주	재즈댄스
단편소설	이인규	비상(飛上)



장려상 수상작

단편소설	임종훈	새야, 새야
단편소설	심옥주	종점
동시부문	전세중	시골아이
동시부문	남정숙	엄마의 사랑찾기
동시부문	배순아	못생긴 모과
동시부문	송명숙	도서관
동시부문	류선경	사월의 밤
동화부문	이수배	다시찾은 형
동화부문	김경희	소금밭의 아이들
동화부문	문제술	강아지의 어머니
동화부문	정재형	보람이의 방패연
동화부문	김정숙	채송화의 꽃물결
희곡부문	이윤정	파브르 2세의 하룻밤



휴학하고 군대가기 전에 미완성된 작품을
정제했다.

경기도 서해의 작은 어촌마을 궁평리,
그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싶었다.

김흥엽 방위사업청 회공주사

공평리에서

바람이 분다 어둠이 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바다는 파도의 골진 상처마다
 연신 하얀 소독 솜을 짝어 댈다
 파도를 가르던 목선은 개펄에 드러눕고
 떼 서리 치던 갈매기는 어둠을 몰아냈다
 방파제 옆 수은등은 노오랑게 쫓고 있고
 함석 지붕 사람들은
 허기진 소주잔을 입가에 툭툭 털어 놓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마침내 떠났다
 우리는 희미한 알 전구 아래서
 난수표 같은 분수를 풀어야 했고
 어머니는 행한 부뚱가 난간에서
 바다 나간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다
 입 벌어진 비닐처럼 바람에 날렸다
 그 밤 하염없이 내리던 폭우는
 파도의 흰 뼈를 밤새도록 들썩였고
 비 들이치는 창가에

제대로 된 꿈 하나 걸리지 않은 채
희망은 끝끝내 빛소리에 섞이고 있었다
가끔씩 스치는 질문들
진실은 서걱거리는 밤의 관절에서도
집을 짓는가
방과제 난장에는 삐걱거리는
어둠의 그림자만이 하염없이 지워지고
그러한 바다 위 별빛 뿌리들만은
더욱 세차게 뻗어나는 실핏줄로
궁평리 꿈의 언저리 물 어린 그리움을
바다에 가득 쏟아놓고 있었다





김정임 서울 자양초등학교 교사

현재 어머니의 시간이 나에게 오고,
나는 어머니의 짧은 시간을 자꾸만 뒤돌아보다.
짧은 어머니가 가졌을 생의 갈등과 고단함^함에 대해서
아주 늦은 나이에 다시 되짚어 본다.





시

전시장의 쪽배

학교제 전시장의 흰 고무신 그림
쪽배처럼 벽에 걸려 있다
문득 어머니의 젊은 시간을 신고 내게로 온다

어머니는 더 이상 허리가 굽지 않으시다
섬돌에 놓인 하얀 고무신을 신고
저녁 무렵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신
장바구니엔 노을이 꽃잎처럼 지고 있다

자유를 꿈꾸다 오신 것 같다
화덕위에서 간고등어가 몸을 뒤집을 때마다
슬픔이 함께 뒤척이며 익어갔다

어머니가 다 비우지 못한 고무신 바닥의 슬픔
개암나무 가지 사이 반달로 뜬다

전시장 관람 인파의 물결 속에서
어머니의 시간이 가볍게 떨미를 하며
쪽배에 실려 떠난다
어머니의 젊은 시간이 강을 건너간다.



어머니의 짧은 시간이 강을 건너간다



임정윤 | 서울 신명초등학교 교사

서울시강남태모산기슭에기난한사람들이 모여
번지없이사는구룡마을이있습니다.

돈이 없어 정착하지 못한 처지인들은 산기슭에 허술하고 나지막한
판자집을 짓고 폐품을 수집하거나 나뭇잎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그 마을의 쓸쓸한 풍경을 통해 삶의 의미를 한번 조명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겨울, 구룡마을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포개 얹은 산기슭
 수레 가득 버려진 사연들을 싣고
 한 노인이 재활용수거공터로 들어선다
 거미발 같은 집게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잠깐 운전수가 한숨을 말아 피우는 사이
 비좁은 골목은 잠시 정적에 휩싸인다
 키 낮은 전봇대의 가느다란 전선들이
 빛바랜 함석지붕 아래로 축 늘어져
 찢긴 거미줄과 함께 함부로 뒤엉켜 있다
 거적때기 둘둘 휘감아 추위를 막고
 좁다란 골목 굳게 지키고 선 허술한 집들
 그 처마 밑에 시래기와 무말랭이 매달려
 시린 바람에 제 몸 바싹 말리고 있다
 노인의 수레에선 달그락 달그락
 주워온 사연들이 한껏 푸념을 주절대고
 골목길에 내다 놓은 연탄 부스러기들만
 식어가는 온기를 힘없이 붙들고 있다



촉촉이 젖은 바람만 무겁게 짓누르는 집
다시 집계차가 고물들을 움켜쥐고
공터 한 귀퉁이에 차르르 쏟아 붓는다
듬성듬성 내걸린 현수막들은 목이 신 채
재건축, 이주권 낫선 말들만 부르짖고 있다
언덕 위 고철 수거장엔 노인이 부러놓고 간
수북이 쌓인 눈먼 고물들,
생선가시 같은 나뭇가지 끝에는
어느새 초저녁 별들이
하나 둘 등불처럼 와서 걸리고 있다





김동선 | 경기도 안성시 지방행정주사

늦은 사진작가가 어둔 밤 호숫가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남아채려는 순간입니다.

안개의 흐리고 여린 소멸의 이미지 속에 숨어 있는 복고 강렬한 새 생명.
태양이 떠오르려는 탄생을 순간을 스틸사진처럼 그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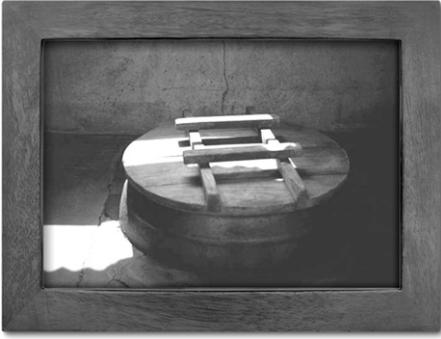
늦어 사그라지는 순간, 또 다른 생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그런,
환한 풍경사진을 출력해 보고 싶었습니다.

소호리 물안개

소호리 물안개는 따듯한 햇살에 씨늘한 그리움을 풀어 넣고 성큼성큼
 동쪽 굽은 산 그림자를 넘어 어두운 평온을 노략질하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 스산한 풍경을 광학렌즈 촘촘한 그물망 속으로 잡아당겨
 후줄근한 불면의 밤하늘을 출렁한다.

구부정한 포즈로 살찐 둔부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늙은
 사진작가의 흐릿한 시력을 밀어 내며 명울진 환부를 사각사각
 탈수하고 어둠 속에 숨어 수런거리는 빛의 소립자를 먹어 치운다.
 과거 어느 시점, 불륜의 섬을 잉태한 기억을 우려내 부풀려진 풍문들을
 건어내고 또 다시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자궁 깊숙이 숨겨 두었던
 태양의 미숙아를 해산한다.

축축한 울음을 흔적 없이 지워낸 소호리 물안개가 늙은 사진작가의
 시선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와 기우러진 세상의 한구석에 환하게
 풍경사진 한 장을 내 걸었다.



몇 대째 순두부를 만드는 집이 있었다.
배대있는 본가의 정지 알에게 쪼그리고 앉아
눈 내리는 소리와 순두부 익어가 는 소리와
뚜렷뚜렷 그의 선친들 말쑥을 오래 들곤 했다.

김영식 |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경사

본가 순두부

모락모락 김 오르는 가마솥, 저으면 후후 구름 피어난다
 뭉게구름 양떼구름 흩어졌다 모였다
 희희낙락 늦은 눈발들 찾아오고
 굵은 소금가마가 짜낸 간수 몇 손갈 파란만장 섞인다
 정지 가득 퍼지는 굴참나무 향,
 동학 때 숨어들어 대대로 눌러 살았다는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구시렁거리며 아궁이 곁에 쪼그려 앉는다
 뒤란 대숲엔 타닥타닥 눈내리는 소리
 위풍당당 구름가게 스며들고
 팝콘 같은 구릿대꽃 몽오리 뒤척이며 몸 여는 소리 가마솥에
 봄비는 멧새소리 골바랍소리
 본가란, 손 때 묻은 대들보가
 세상 속에 내력 있는 집 한 채 우뚝 세우는 일
 그을음 환한 부뚜막 위로 온,고,지,신(溫故知新)부풀어 오르고
 흐음! 지켜보던 선한 선친들 고개 끄덕이며 일어선다
 처마 끝 소금 같은 별 뜨고 목숨 수(壽) 새겨진 투가리,
 소복이 담아내놓는 순한 그의 가문家門 물경한 본가 한 그릇



하상만 연천 대광중학교 교사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전²에서 내려³는데 새락⁴이었어.
지금도 여행⁵ 중⁶인 친구⁷는 생⁸의 끈⁹을 잠시¹⁰ 떠¹¹모¹²르게 했다.
안과¹³에서 안구¹⁴건조¹⁵증¹⁶이라¹⁷는 이야기¹⁸를 듣고¹⁹ 나오²⁰면서 내 눈²¹이 새락²²으로
변해²³가는 상²⁴상을 했다.
지난 세²⁵월²⁶을 떠²⁷돌리²⁸며 눈물²⁹이 흥³⁰공³¹하³²던 노³³인,
결³⁴국³⁵ 내 몸³⁶ 여기³⁷저³⁸기³⁹서도 즐⁴⁰기⁴¹었⁴²이⁴³꽃⁴⁴이⁴⁵피⁴⁶리⁴⁷라.

사막을 건너갈 때

텔레비전이 사막을 보여 준다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고비 사막의 브리나리아는
 뿌리에서 바로 꽃을 밀어 올렸다
 노인의 몸에 여기 저기 피는 저승꽃
 꽃만 있을 뿐 줄기가 없다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길래
 뿌리는 줄기를 버렸는가
 나는 여러 번 노인이 우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마다 눈물은 없었다
 물이 나올 곳이 없는 몸이라는 생각이
 노인은 사막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파고다 공원이나 종묘 공원에 모인 노인들이
 서로의 줄기를 보여주고 있을 때
 그들이 줄기라고 말하는 것은
 한 줌 움켜쥐기도 쉽고
 가볍게 들어올리기도 쉽고

스르르 손을 빠져 나가기도 쉬운
모래였다
종로에 갈 때마다 나는
몇 정거장 먼저 내려 노인들을 건너갔다
그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다
진짜 사막을 건너갈 때도 이렇게
쓸쓸한 느낌인가를





나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세월, 문득 마주친
제재소 풍경 안에 삶과 죽음이 있었다.
밀동 잘려 나뒀군다. 태평산에 들춰지는 나무들의
속살은 꽃보다 향기롭았다.
태평보를 꿰꾸는 미소도 보이고.

노희석 영등포구치소 교회사

제재소 풍경

주먹 손 감아쥐고 나이트로 쌓은 세월
밑둥치 잘린 채로 앞마당에 나뒹굴면
햇살이 등허리 타고 경충경충 뛰놀고.

대팻날 지나가자 무늬목 고운 빛깔
한 겹씩 들춰지는 등고선 환한 속살
얼마를 기다리다가 피워 올린 꽃이었다.

결마다 스민 향기 꽃잎보다 눈부신데
양다문 그 입가로 스미는 미소 하나
뼈마디 곧추 세우고 대들보를 꿈꾼다.



인생생활에 쫓기듯 허둥대며 살아오다가
문득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사색(思索)을 통한 자아성찰(自我省察)의
정화(淨化)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윤명진 서천 장항중학교 교사

허수아비

가을을 떠나보낸
시린 어깨너머로

세월도 풍화된 탓
무서리로 내려앉고

내 깊은 영혼의 뿌리
땅속 고요 젖어 들 때...

참새야, 넌 모르지
뼈마디 아위는 속을

깨금발로 버텨서며
눈물 마른 몸짓인데

빈 깡통 흔들어대는
이 공허(空虛)를 모르지.

먼 지평 저어가는 바람소리 들리나니...

그저 무위(無爲)인 채로
버릴 것도 없는 마음

하늘을 한 자락 쥐고
남루함은 내 분이라





광양의 어느 바닷가 마을을 지나다가
만남 풍경이다.

바다에서 일생을 마친 폐선이
침묵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시조라는 그릇에 담아 보았다.

이옥근 여수 안산중학교 교사

망덕 바닷가 폐선

열어둘 문도 없고 닫아걸 고리도 없는
 흩바람 몰아치는 바닷가 철공소 앞
 기우똥 가라앉을 듯 폐선 한 척 떠있다.

길 건너 푸른 바다 물빛 저리 싱싱한데
 페인트칠 벗겨진 지 오래된 양철간판
 태풍이 지난 자리에 비스듬히 매달렸다.

묵은 이끼 문질러 비릿한 해풍 씻고
 쇳가루 벗겨내면 은빛 맨살 보일는지
 엉성한 선박의 잔해 헤집는 갯강구들

만선의 부푼 기억 전설 속에 정박되고
 가슴 뛰던 설렘도 핏대 오른 욕망도
 녹녹히 씻내 풍기며 따스게 삭아지는 걸

아직도 먼 시간 속 헤매는 녹슨 시계
산화된 뱃고동에 무더진 망치 소리로
파도에 밀려 떠나는 바다만 두드린다.





서관호 경주 황남초등학교 교사

나는 만 23년 만에 교단에 복귀했다.

담임을 맡는 소회가 어찌 남다르지 않으랴!

나는 인간을 만들 줄 모른다. 다만 책을 읽혀 현인의 지혜를 새겼으면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내가 읽은 책의 부피가 내가 아는 세상의 넓이입니다. 내가 읽은 책의
무게가 내 영혼의 무게입니다.”

교단1 - 새학년 교실

할미꽃 벌벌 떠는 꽃샘추위 한창인데
새 교실 꽃병에는 버들강아지 움터 오르고
아이들 눈망울을 닦아 개나리도 웃는다.

올해는 한 뼘이나 키도 성큼 자라고
동화책 수십 권이라도 속을 좀 채웠으면...
소박한 어머니 소망 유리창에 어린다.

작년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준 게 없고
후회뿐인 교단에다 제단처럼 비는 것은
대밭에 왕 죽순처럼 한결같이 크기를...

맑고 고운 가슴들을 키워가게 하소서
꽃잎에 맺혀있는 영롱한 이슬처럼
뉘라도 만나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아직은 선생님과 교실이 낯설겠지
시린 발, 움츠린 어깨 창가에 모두 모아
소복이 햇살을 덮어 마음부터 녹이자.





문근식 충북 음성군 지방환경주사

본명 문은 내것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살수없는 본재 우리의 삶
남에의해기름여지고 타들어지는,
그 상천 아물고 또 잘리우고, 우리사는 것 역시 그런것 아닐까
결국 자신이 살던산, 이생각 그리워하면서 모든걸 포기하고 사는게
우리 아닐런지요



시 조

분재

빈 하늘을 보느냐
잘려진
꿈을 꾸느냐
아릿한 옹이마다
깃무른 세월 저 켜

시름에
자라지 못한
삭정이만 무성한데

창 밖을
보았느냐
선잠이 깨었느냐
상처마다 딱정이져
아무는 세월 저 켜

이국 땅
입양아 같은
그리움만 애처롭다

잘리고
잘리어서
반위로 영근 속내
겨울철 한파 속을
꽃으로 피었구나

노을도
서러웠던가
떨어지는 꽃잎하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남적 대표성을 부여받은 나의 인상을
'벼락같은 대추목'으로 새길 수 있다면
만사행통할 터인데...

김영기 (前)제주 남광초등학교 교장

인감을 새기며

매사에 신중하라, 특히 보증서는 일에
 행운의 신비 품은 벼락친 대추목 골라
 인주(印朱)빛 붉은 유흔을 인감에 새깁니다.

오종종 대추 꽃도 복록을 꿈꿀까요
 선업인지 악업인지 벼락맞은 나무에서
 죽어서 이름을 얻고 영생의 꽃 피우는 꿈

막도장 막 굴려서 법 없이 산다더니
 죽마고우 정 때문에 날벼락 파산 맞고
 꺾어진 날개를 접어 동토의 길 가신 당신

저승에서 궁하시면 그 분도 함께 오소서
 이번만은 기필코 대추 목 인감으로
 양다문 인감을 열어 보증 서 드릴게요.





박미영 당진 서정초등학교 교사

저는 야생화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화 하나에 캔커피 하나씩에
챙겨서 약미막한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지요.

풀꽃들의 향연속에 있다면 알고싶어지는게 너무 많아서
그저여 본 글입니다.



이름모를꽃

세상에 이름 없는 생물이 있을까?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생화를 일컬어 ‘이름 없는 꽃’이라 부른다.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고 하여 너무 쉽게 이름 없는 꽃이 되어버린 풀꽃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게 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5년 전쯤 초봄이었다. 가뜩이나 머리 복잡한 일이 영키었는데다가 또한,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싱숭생숭하고 심란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던 차에 지역광고지를 보고 무작정 오른 산행 버스. 전남 순천에 있는 조계산으로 등산을 간적이 있었다. 밤 9시부터 달리기 시작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상념에 붙들려 새벽 4시엔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지루한줄 모르고 머리와 마음을 비워내던 시간들…

워낙 낮가림이 심해 처음 만난 사람들과는 아는 체를 잘 못하던 복병이 있어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일행들에게 가벼운 목례만으로 무시하듯 도착한 목적지. 무슨 실연이라도 당한 여자처럼 알았는지 다 인정한다는 눈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혹여 누군가 치근대거나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거절할까 내심 마음을 즐였는데 다행이었다. 확실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창 밖의 보이지 않는 풍경들을 마음으로 감상하며 밤을 꼬박 새운 여행 아닌 여행.

희끄무러한 새벽쯤에 도착해서 오르기 시작한 조계산. 혹시라도 일행에서 뒤쳐질까봐 선두대장 옆에 바짝 붙어 기를 쓰고 3시간 남짓 올라가니 정상이 나타났다. 그때서야 한숨 돌리고 쳐다본 자연의 장관. 오직 약사람의 발꿈치만 보며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돌이며 풀이며 나무가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내가 산에 온 이유가 뭐였지?’

단지 오르기 위해서 땀 빼려 산을 택해 고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하고 여유 없어진 마음은 주변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게 만들었다.

내심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숨을 돌리는데 눈에 띈 야생화 군락. 처음 보는 풀꽃이 군락지어 피어있었다. 백합 같기도 하고, 흰 원추리 같기도 했던 풀꽃은 정상의 산바람과 어울려 참으로 탄산수 같은 아름다움을 뽐어내고 있었다. 열은 분홍빛의 통꽃으로 긴 줄기 잎을 가진 처연한 자태의 꽃. 떨어져서 한 포기씩 있는 녀석도 있고 여럿이 올망졸망 모여서 있는 녀석들도 있었다. 한 송이 따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앞드려 향기를 맡아보지만 열은 풀냄새만 난다. 보면 볼수록 참 우아하고 기품 있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며 꽃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 꽃 이름이 궁금해 처음으로 일행에게 미소를 띄우며 말문을 열었나보다.

“이 꽃 이름이 뭐지요?”

병어리인줄 알고 아는 체를 못했다면서 친절하게 모른다는 대답을 해주시는 일행들.

‘아… 모른다는 대답도 저렇게 웃으며 해주니까 안다고 하는 설명보다 더 듣기가 좋구나.’

조금씩 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물이며 사탕을

권한다. 어느 인심 좋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그쪽 지역 분들에게 물어
까지 주었으나 한결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래서 혼자서 '바람꽃'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주고 하산하였다. 산
정상 바람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꽃이었으므로...

무엇인가 이름을 붙여줘야만 안심이 되었던 때이기도 했으므로...

집에 도착해서도 피곤함보다는 그 꽃에 대한 이름이 더 궁금하여 짐
을 풀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뒤졌다. 그렇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찾아
지지 않았다. 여기저기 야생화 사진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었지
만 내가 본 '이름모를 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비슷
비슷한 꽃의 생김새와 생소한 이름들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뿐
내가 본 그 꽃 이미지와는 한결같이 다른 느낌일 뿐이었다. 그래서

야생화를 연구하는 모임에 그런 꽃을 보았노라는 후기와 함께
이름을 부탁하는 글도 올려놓았다.

그랬음에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궁금증과 그 꽃을 다시
봐야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그리움을
스스로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왜 그 꽃이 보고 싶은지,
왜 그 꽃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급한 대
로 혼자 근처의 계룡산에 올랐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온통 야생화의 천국이었다. 지천으로
피어있는 보랏빛 현호색과 제비꽃, 노오란 양지꽃, 양증맞
은 하얀 개별꽃등 봄이 물오른 산에는 각양각색의 풀꽃잔
치가 열리고 있었다. 특히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각시붓꽃과
얼레지의 꽃봉오리는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
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그 이름모를 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름이라도 알아야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려면 안타까움만 남긴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하찮은 풀꽃이 왜 일상을 저해하면서까지 궁금했는지 지금도 그 까닭은 모르겠다. 더구나 사람 말고 어떤 다른 대상에 그리움을 느끼기는 처음이어서 더 당혹스러웠다.

사랑이란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라 했던가? 내 기억의 그 꽃은 어느새 상상화가 되고, 상상속의 애인처럼 과장되어 아름다움과 설렘으로 확대 포장되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비익조나 해태, 인어공주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그 존재를 믿는 것에 비하면 그 '바람꽃'은 훨씬 구체적이며 찬란한 집착이었고 색다른 애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먹고살기 위한 일들에 묻혀서 잠시 잊혀질 쯤 아주 반가운 메일을 받게 되었다. '산자고'란다.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 못 견뎠던 꽃 이름이 산자고란다.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바다의 밀물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들어온 것처럼 숨이 막혔다. 아찔한 현기증과 떨림으로 사진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그 감격과 환희……. 이미 헤어진 연인이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런 느낌일까? 아니 첫사랑을 만나면 그런 느낌일까?

그렇게 나의 며칠동안의 속앓이는 꽃의 이름과 사진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름 모를 꽃이 산자고라는 이름을 알게 되면서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단지 이름을 알았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할 것 같다. 첫 눈에 반해서 그토록 알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름뿐이었다는 것 역시 지나고 보니 비밀로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복잡 미묘하고 심란한 감정의 실체를 '사랑'이라 명명하면 그 낱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버

린다. 명명된 형식을 통해서 내용 모두를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다. 한참이나 가슴 저리게 만든 한 사람을 통해서 감정의 실체를 명명하듯 난 이름모를 꽃을 명명함으로써 그 고민과 지끈거림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민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다. 사람사이의 감정의 줄다리기와 집착과 소유욕. 사랑은 멀리서 볼 때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지 모른다. 형식으로 명명해버리면 내용은 덜 소중해지거나 혹은 너무 과대하게 소중해져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꽃 이름 역시 내가 그 이름을 모를 때는 '바람꽃'이었지만 '산자고'라는 이름을 안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 실체까지 아는 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든 이름 지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심리...

김춘수님의 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를 되뇌어 보았다. 그렇게 불러주고 싶었던 사람. 그렇게 불러주고 싶었던 꽃. 그 부름이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이고 '산자고'라는 이름뿐이었을까?!!!!



산자고 :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까치무릇'이라고도 한다.



남궁중 강원도 태백시 지방행정주사

내 유년의 추억 속엔 시골 큰택의 어린 기러기가 아스라하다.

불혹(不惑)의 기억 속엔 나를 닮았던 어린 조카의 모습이
무성영화처럼 오버랩 된다.

봄날 어느 느린 겨울살이로 피어나기 위해 긴 겨울을 견디는 나무들의
인내를 보며 조카와 나의 삶이 사뭇 새로워 보였다.

겨우살이와 가자미

내 눈은 유난히 작다. 특별히 잘난 얼굴도 아니려니와 더불어 눈까지 작으니 사람들로부터 가자미는 혹은 와이셔츠 단추 구멍 같은 비유의 대상이 되곤 한다. 작은 눈처럼 나의 삶은 늘 파란(波瀾)이었다. 내 작은 눈은 바다 속 수십 미터 수압을 견딘 가자미처럼, 내 인생의 징표이며 불혹을 훌쩍 넘긴 내 삶의 애잔한 편린(片鱗)들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춘천 사는 둘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다. 두 살 터울인 형님이다. 없이 살다보니 형제의 왕래가 빈번치 못했던 터다. 그런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수가 세상을 떠나고 형님 또한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실려 갔다는 소식이었다. 사고 수습을 거쳐 거동이 불편한 형님을 병원에 남기고 하나뿐인 조카를 내가 사는 태백으로 데려와야 했다. 조카의 더부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사글세에서 시작했던 나의 결혼생활도 조카의 낯선 더부살이가 시작될 무렵에는 14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직장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던 때이다. 그러나 내 아이 둘을 비롯한 다섯 식구 살기에는 아파트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였다. 궁여지책으로 거실에 커튼을 쳐 조카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 마음 한쪽이 저러왔다. 커튼 뒤에서 숙

제도 하고, 오지 않는 아버지와 가고 없는 엄마를 그려보았을 것이다. 끼니때면 내 아이의 생선 토막이 더 크고 맛나게 보였을 것이다. 눈칫밥에 눈치로 사는 날이 점차 늘어갔을 것이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바람이 제법 포근한 날이었다. 봄이 등성을 넘어 엷고도 노란 잎들을 준비하던 날이었으리라. 야근의 피곤한 몸을 추 스리며 퇴근한 자정너머였다. 식구들의 잠을 깨울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이라고 구분 지어준 커튼 너머, 조카의 방에서 신음처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커튼을 살짝 들춰보니 조카가 울고 있었다. 마치 가자미 같은 눈으로 숨죽여 울고 있었다. 우는 조카의 눈은 나와 같은 가자미눈이었다. 늦은 밤, 식구들이 잠들은 아파트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가자미눈……

나도 가자미처럼 울던 때가 있었다. 오지 않는 아버지와 가고 없는 어머니를 그리며 울던 그때. 다른 식구들의 생선 토막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이던 그때……

나의 더부살이는 밤나무가 많고 산 능선이 육덕스러웠던 시골 큰댁에서였다. 교회당 종소리가 물길 따라 피어나던, 작은 강이 있어 더욱 아름다웠던 마을 흥천.

우리 집은 읍내에서 조그만 포목점을 하였다. 열 살 때 어머니의 운명과 함께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시골 큰집에 나를 맡겼다. 그리고는 일 년에 한두 번 할아버지 제사 같은 때면 다녀가 시곤 하였다. 아버지는 추수 끝난 들녘을 고즈넉이 거닐곤 하셨다. 그리고 곤 가을 하늘 기러기들을 가리키시며 “내년에 기러기 올 때쯤이면 너를 데려 가미” 하고 다짐을 하곤 하셨다. 아버지가 가시는 날이면, 나는 들국화 흐드러진 동산 위에 올랐다. 멀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 안보일

때까지 교회당 울타리에 숨어 기러기란 노래를 가만가만 부르곤 하였다. 가자미 같이 작은 눈으로 가늘게, 가늘게 울곤 하였다. 그렇게 초등 학교 졸업 때까지 가을이 가고 봄이 오기를 네 번.

눈칫밥이란 것이 가자미같이 작은 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도 눈치 하나는 남보다 빠른 편임을 자랑삼는 이유이다. 또 그런 작은 눈으로 지금의 아내를 얻고 아이들과 오순도순 밥술이나 먹으며 살게 됐다고 자족해보는 것도 어쩌면 눈칫밥 덕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흔히 눈 작은 사람을 가리켜 가자미눈이라고 한다. 가자미는 몸이 아주 납작하고, 몸 안쪽에 두 눈이 달려 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또 먹이를 찾기 위하여 눈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에게겐 헛감으로도 널리 알려진 물고기이기도 하다. 몸이 납작하고 눈이 작고 한쪽으로 쏠린 관계로 쉽게 보이지 않아 눈 작은 사람을 가자미로 비유한 듯 하지만, 그런 가자미도 바다에서는 어엿한 물고기요 바다를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양식이 되어주곤 한다. 가자미의 특징 중 하나가 눈을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이고 보면, 눈 작은 사람들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점도 없지 않은 듯하다.

아마 조카도 그런 가자미의 태생을 닮아 다른 아이로부터 눈 작다고 놀림을 받았는지 모를 일이다. 와이셔츠 단추 구멍이니 가자미니 놀려 댈 때면, 내가 고향의 능선 고운 하늘가를 배경으로 기러기란 노래를 나지막이 불렀듯이, 조카도 어머니가신 하늘을 보며 빗깎고운 노래 한 소절 불렀으리라. 그리고는 유난히 눈을 부라리며 밤을 낮 삼아 지냈으리라.

조카는 나와 같이 네 번의 가을을 보내고 살구꽃이 유난스럽던 그해 봄, 아버지의 완쾌와 더불어 조카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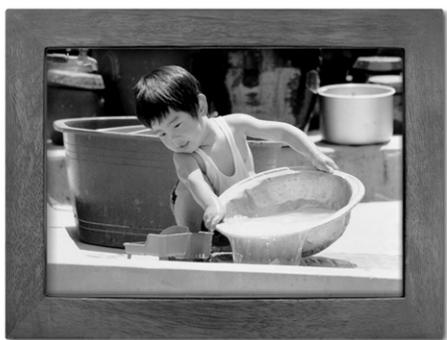
년을 뛰어넘은 더부살이의 인연은 조카의 귀향과 함께 기억 속으로 저물었다.

나는 조카의 더부살이가 그것으로 끝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적잖은 세월 가자미 같이 살아온 나의 모습 속에 당당한 조카의 모습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조카는 참나무나 소나무처럼 하나의 튼실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 자라서 언젠가는 곁가지들을 피워낼 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작은 눈으로 더부살이 하던 경험도, 때로는 쓸모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한다.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등산길에 받는 햇살이 봄을 재촉하는듯하다. 저만큼, 옅고도 노란 잎들을 피워낸 겨우살이의 인내가 사뭇 새롭다. 여느 몸예 의탁하여 살아가는 존재의 희귀함 때문이라.

오늘 보는 저 겨우살이의 옅고도 노란 잎 속에 조카의 메마른 눈물이 간직된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것이다. ⅢⅢ



식구들의 잠을 깨울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이라고 구분 지어준 커튼 너머,
조카의 방에서 신음처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커튼을 살짝 들춰보니 조카가 울고 있었다.
마치 **가자미 같은 눈으로** 숨죽여 울고 있었다.
우는 조카의 눈은 나와 같은 가자미눈이었다.
늦은 밤, 식구들이 잠들은 아파트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가자미눈…
나도 가자미처럼 울던 때가 있었다.
〈중략〉
가자미 같이 작은 눈으로 **가늘게, 가늘게** 울곤 하였다.

- 본문중에서 -



정재학 영암 삼호서중학교 교사

50년 전 죽은 자식을 가슴 속 깊이 묻어놓고, 지금도 '가슴에 피'라고 하는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어머니인 죽은 형님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식은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것. 흔히 아버지의 사랑이란 것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합니다만,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어머니는 가끔씩 가슴을 안고 뒹구는 일이 있었다. '가슴앓이'라고도 하고 '가슴에 피'라고도 하는 급성위경련이었을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가, 집에는 어머니 상비약으로 몰핀주사를 준비해 놓고 있을 정도였다.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이빨을 갈아 부치며 견디시던 어머니가 그 고통만큼은 못 견디셨는가 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겨울날, 한번은 어머니가 발작처럼 뒹구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팔다리를 잡고 눌러도 뿌리치며 고통을 호소하던 어머니. 곁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가슴을 안고 뒹굴던 어머니는 겨우 몰핀을 맞고 한숨을 내쉬며 진땀을 닦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토록 극심한 가슴에 피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를 모르고 자랐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발작이 사라진 뒤부터는 아예 잊고 살았고, 고통으로 뒹굴던 모습은 다만 긴 추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위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와 함께 종적을 감춘 뒤, 찾아온 현상이었다. 신경성 위경련이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불효에 대한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위가 아파왔다. 나는 그 경련 같은 아픔이 올 무렵에야 어머니가 과거 그토록 아파했던 고통에 접근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아파했을까. 무엇이 어머니를 그토록 아프게 했을까. 나중에 부모님 두 분을 찾아 목포로 모시고 오면서, 경제적 실패에 대한 상처가 아물고 다시 행복해질 무렵,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피를 묻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작게 웃으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풍문에 들은 이야기로만 짐작을 했다. 모진 시집살이가 그 원인은 아니었을까? 혹시 소위 출입(出入)한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던 아버님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은 게 아니었을까. 농사일의 고됨이? 아니면 내 불효가? 모두 짐작뿐이었다.

그러기를 오래, 그러나 작년 그러니까 2004년 6월 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피가 내린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작년 우리 학교 아이들과 각 정부 부처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글짓기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 글짓기 지도를 하면서 나도 함께 썼다. 내가 쓰지 않으면 아이들도 쓸 수 없을 것이기에, 함께 쓰면서 시범을 보이곤 했다. 그러다가 학생들 작품을 보내고, 일반부가 있는 공모전에는 내 작품을 보내곤 하였다.

그런데, 작년에는 같은 날 우리 학교 아이와 내가 둘 다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학생도, 가르치는 교사도 동시에 장관상을 받는다는 것은 희귀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상을 받고 어머니께 갔을 때였다.

상을 보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나 곧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니, 가만히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

하던 내 귀에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분명하게 들리는 이름이 있었다.

“……재봉아.”

재봉이?

“재봉아, 재봉아, 네 동생 재학이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단다. 재봉아, 재봉아.??

정재봉. 바로 돌아가신 내 형님이었다. 3살 무렵, 홍어회를 먹고 탈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형님 재봉이. 내가 태어나기 전, 6.25가 끝나던 53년 일이었으니까, 무려 50년이 지난 일이었다.

얼마나 잘 생긴 형님이었던가. 형님 얼굴을 기억하는 집안 어른들께서는 노상 형님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형님의 죽음이 몹시도 안타까웠다는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형님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형님의 이름이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었다.

“재봉아. 재봉아.”

그리고는 어머니는 다시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가슴에 피’가 다시 발작한 것이었다. 깜짝 놀라며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던 나는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아아, 어머님 가슴에 피를 내리게 한 것은 바로 형님이었구나. 어머니를 그토록 괴롭히던 병의 원인,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머님 가슴에 변함없이 남아 괴롭히던 것은 바로 형님의 죽음이었구나.

그랬었구나. 벌써 잊어도 까맣게 잊었을 일이건만 어머님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인지

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식의 슬픈 죽음이 어머니의 가슴을 찢고 이토록 오래 붉은 피를 내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밭을 매다가도 어여쁜 노을이 뜨면 바라보며 꽃 같은 형님을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에도 고개 숙여 생각하였다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가만가만 말씀하셨다. 동생이 좋은 상을 받았는데, 너는 모르고 있겠구나. 그래서 슬프셨다고.

약을 드리고, 어머니가 진정을 하고 잠이 든 것을 보았다. 저승꽃이 피고 주름진 얼굴에 하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자식의 죽음에 서럽지 않을 예미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어머니는 무려 50여년을 가슴에 피를 내리며 담고 있었다. 반세기, 그 무엇도 잊을 수 있는 시간이건만 어머니는 형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 깊은 사랑에 나는 두 손을 모으고 말았다.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내가 보이지 않으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찾아다니셨던 것이었구나. 밥 때가 되면, 새끼 밥 먹이려 밭둑길을 허위허위 정신없이 달려오시고, 도시로 공부하러 가는 자식 버스에 태워놓고 언덕 높은 곳에서 멀리멀리 바라보시던 어머니. 바람이 불면 치마로 감싸 안으며 바람을 막고, 비가 오면 가슴에 품고 비를 가로막으며 살아오시기를 50년. 형님을 잊지 못하는 그 높이, 그 깊이로 나를 또한 사랑하셨구나.

나의 어머니 장분순. 1930년생. 인동 장씨 가문의 키 작은 여인. 6.25 때 큰오라버니를 불갑산 빨치산들에게 잃고, 고모님 가족의 몰사(沒死)에 이어 소중한 자식을 잃고, 뒤이은 시어머니의 병사(病死), 그리고 몇 년을 사이에 두고 줄 이은 시할아버님과 시아버지의 타계(他界).

지독한 6.25 동란 뒤 끝 가뭄과 흉년이 세상을 휩쓸 무렵, 그러나 굴하지 않고 시부모님이 남기고 간 삼형제를 기르며 집안을 이끌어온 자

랑스러운 며느리. 후일 어린 두 시동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분가(分家)할 때까지 돌보고 감싸며 부모 노릇까지 다한 어여쁜 형수(兄嫂). 적물한 집안, 실패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남편을 데리고 가 공장생활을 하며 재기를 약속하던 좋은 아내. 아주 오래 전 죽은 어린 자식을 가슴에 품고 반세기를 살아온 착한 에미.

지금 2005년 10월 14일 시골집 앞. 주말이면, 구부러진 허리로 대문을 향해 걸어 나오시며 이 못난 자식이 목포에서 올 길목. 신작로 저쪽을 바라보고 계실 아름다운 내 어머니. ⅢⅢ

*

약을 드리고, 어머님이 진정을 하고
잠이 든 것을 보았다.
저승꽃이 피고 주름진 얼굴에 **하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자식의 죽음에 서럽지 않을 에미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어머니는 무려 50여년을 가슴에 피를 내리며
담고 있었다.
반세기, 그 무엇도 잊을 수 있는 시간이건만
어머니는 형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 깊은 사랑에 나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본문중에서-

*



내 키도 훌쩍 넘는 한내 개울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여 살며시 눈을 뜬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은빛 비늘을 한 작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움직일 때마다 그 아름다운 은빛 찬란한 물고기들은 은빛 물결을 만들어
 유유자적 개울가에서 수백 마리 씩 떼 지어 다닌다.
 마치 산보를 가거나 소풍을 가듯.
 낮에 개울둑에 앉아 물을 들여다보면 그 은빛 고기들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로 이어진
 여러 가닥의 은줄처럼 보였다.
 그래서 항상 개울물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난다.
 그 예쁜 물고기들은 밤에도 작고 가냘픈 몸매로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달빛에 비치는 그들의 몸은 하늘의 달을 따서 담아놓은 듯 온 개울을 은빛으로 수를 놓았다.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은빛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었는가.

-본문중에서-



어린 시절 은어가 헤엄치던 냇가에서의 기억이
 오래도록 나를 따라 다녔다.
 이제 은어는 더 이상 그 맑았던 냇가로 돌아오지
 않고 개울도 도시화에 밀려 시궁창처럼
 변해버렸지만 그 도도하게 빛나던 은어는 여전히
 내 속에서 화려한 은빛 수를 놓고 있다.

김미광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교사

은어와 춤을

70년대, 남쪽 섬 거제도 고현 동네 사람들이 그때 한내고랑이라 불렀던 개울은 아직도 고현 중심부에 흐르고 있다. 지금은 완전히 하천 정비가 되어졌고 개울 바닥도 세월이 지나 흙이 쌓여 얇아졌지만 그곳은 예전에 온 고현동네 사람들의 공중목욕탕이자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낮에는 고현 동네 꼬마들이 개울에서 놀았고, 밤에는 동네 어른들이 죄다 나와 한낮의 땀을 식히기 위해 등물을 했다.

그 개울은 문동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용산을 거쳐 고현만으로 흘러들어왔는데 밀물 때면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와 물에서 짹짹한 바다 냄새가 났다. 개울 양쪽은 큰 바위 돌로 제방을 만들어 놓아 우리는 목욕을 하고 난 후 검정 고무신을 제방 위에서 말리고 딱히 수건이랄 것도 없던 시절, 햇살에 뜨거워진 바윗돌 위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몸을 말렸다. 수영을 하다 배가 고프면 남자 애들은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아 구워 먹거나 근처 독에서 우리가 피비라고 부르던 풀을 뽑아 먹었다. 아침밥 먹고 집에서 나와서 저녁때가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개울에서 놀면서 놀이와 식사와 간식을 개울에서 해결했다.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한두 집, 냉장고라는 물건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지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여름밤이면 동네 어른들은 밤더위를 피해 개울가로 나왔고 한낮동안 내내 개울에서 놀던 우리들은 어른들을 따라 밤에도 개울가로 왔다. 여름밤만 되면 사람들로 한내 개울가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 밤에 개울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가끔씩 운 좋으면 어머니가 동네 제과점에 들러 팔빙수를 시켜주시고는 했는데 그 맛이 얼마나 달고 황홀하게 맛있던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팔빙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냉장고를 몰랐던 시절에 한 여름에 얼음을 구경한다는 것조차 기막힌 일인데 그 귀한 얼음으로 만든 빙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거제도에서는 특권층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빙수를 먹고 난 다음날에는 동네 애들에게 어제 저녁에 먹었던 빙수의 환상적인 단맛을 과장해서 설명했고 내가 약간은 다른 애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알리고 싶어 했다.

한내 고랑에는 깊은 곳도 있었고 얇은 곳도 있었는데 깊은 곳은 내 키보다 훨씬 깊어 아이들은 수영 금지였지만 나는 수영을 잘해서 주로 물이 깊은 곳에서 놀았다. 놀지 말라는 곳에는 꼭 가서 놀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은 것은 그때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내 키도 훌쩍 넘는 한내 개울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여 살며시 눈을 뜬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은빛 비늘을 한 작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움직일 때마다 그 아름다운 은빛 찬란한 물고기들은 은빛 물결을 만

들며 유유자적 개울가에서 수백 마리 씩 떼 지어 다닌다.

마치 산보를 가거나 소풍을 가듯.

낮에 개울둑에 앉아 물을 들여다보면 그 은빛 고기들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로 이어진 여러 가닥의 은줄처럼 보였다.

그래서 항상 개울물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난다.

그 예쁜 물고기들은 밤에도 작고 가냘픈 몸매로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달빛에 비치는 그들의 몸은 하늘의 달을 따서 담아놓은 듯 온 개울을 은빛으로 수를 놓았다.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은빛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었는가.

나는 그 물고기가 바다 속 어딘가에 있는 용궁에서 온 물고기들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사람이 잡아먹을 수 없는, 잡아서도 안 되는 물고기들이라 생각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무도 그 은빛 나는 물고기를 잡는 애들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열심히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은빛 찬란한 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했다. 바위틈 사이사이에서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들은 개울을 보석상자로 바꾸어 놓은 신비로운 것들이었다.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 그들이 바로 은어(銀魚)였다.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산다는 환경에 몹시 까다로운 물고기 은어. 은어도 연어처럼 회귀를 한다. 바다로 갔다가 다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여리고 착한 물고기. 내가 늘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물고기 애들이 바로 은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은어를 다른 동네에서는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은어 낚시 철이면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은어 잡는 은어 낚시대회까지 연다하니 정말 희한한 일이다. 우리 동네에서 은어는 관상용이었지 잡아먹는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은어에 대해 삼촌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왜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는 은어를 잡아먹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삼촌 왈, 거제도 지천에 널린 것이 바다생선인데 그 쪼만한 애들 잡아먹어서 이빨에 낄 일 있냐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 거제도에서는 발에 밟히는 것이 생선이었고 개도 생선 대가리 물고 다니는 동네인데 그 작고 반짝이는 예쁜 애들은 그 애들끼리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어찌나? 그 작고 반짝이는 작은 것들이 이제는 돌아올 개울이 없어졌으니. 보고 싶어도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는 그 작은 것들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놀던 한내 개울가에는 고층의 아파트와 집들이 들어섰고 자갈과 흙이 매몰되어 얕아졌을 뿐 아니라 개울은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채 쓰레기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다. 한내 개울에는 개울가로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가 누워 몸을 말리던 바윗돌에는 흙먼지와 미끄덩거리는 이끼가 가득하고 물은 색깔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탁해졌다.

그 작고 반짝이던 은빛 은어들은 어느 망망한 바다를 떠돌고 있을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 바다 언저리를 돌며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봉화은어 축제니 섬진강 은어축제를니 은어와 관련된 행사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내 개울의 우리

동네 은어들을 생각한다. 혹시 우리 개울에서 살던 애들이 그리로 갔을까. 여기 너무 살기 힘들어 고향을 떠나 떠나면 곳으로 간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얼마나 고향이 얼마나 그리울까. 그들 뼈 속 깊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천 날 만 날을 행복하고 즐거운 타향살이보다 고향에서의 하루가 더 그리울 텐데 말이다. 지금은 한내 개울에는 은어가 살았다는 흔적은커녕, 우리가 여름밤마다 먹을 감았던 그 청정한 흔적도, 아니 먹을 감았을 것 같은 환경도 전혀 아니지만 우리의 한내 개울에는 한 때 화려한 은빛 비늘을 자랑하던 까탈스럽지만 맑은 은어 녀석들이 살고 있었다.

그 까다로운 녀석들.

그냥 둥글둥글 아무데서나 어울려 살지.

어디를 가나 마음이 힘들 텐데.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강한 적응의 동물이다. 은어가 살 수 없는 물을 마시며 그 오염된 환경에서도 둥글둥글 잘 살고 있으니 말이다. 한내 개울에 악취가 나고 독풀이 무성하게 자라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도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우리 인간은 흥겹게 잘도 살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에 한내 개울에서 은어를 본 이후로 나는 은어 녀석들을 본 적이 없다. 그 애들은 아직도 그 종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까다롭고 아무데서나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데 그 까탈스런 은어 녀석들이 정말로 걱정된다. ⅣⅣ

동그라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죄지은 사람이 몇 시간 혹은 며칠동안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벌을 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그라미 밖을 벗어나지 않아 그 벌이 계속 유지되었으나 어느 순간 동그라미를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동그라미는 별로써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동그라미 대신 높은 담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게 되었고, 담을 넘는 사람들이 나타난 후론 튼튼한 지붕까지 만들게 되었으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날의 교도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우리들 개개인의 양심이며 또한 원칙과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양심의 동그라미를 벗어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에 가두어 놓기 시작하였다. 동그라미의 원칙과 약속이 깨어질 때마다 또 다른 동그라미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동그라미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칙과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는 불신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선생님 존경도가 최하위로 나왔다는 충격적인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용자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은 재수 없게 걸려서 교도소에 온 것이고,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사회에서 버젓이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재수 없이 걸려서 교도소에 왔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원칙적인 얘기를 반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매춘부이다. 다만, 우리는 양지에서 서 있을 뿐이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의 이 말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되살아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5명의 친구가 학교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2명의 친구가 학생부 선생님께 적발되어 학생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 끌려간 2명의 친구는 끝까지 함께 했던 3명의 이름을 대지 않았고 결국 2명의 친구는 정학을 받았다. 며칠 뒤 나머지 3명의 친구 중 한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학생부에 가서 지수를 하였고, 그 친구 역시 이미 처벌을 받은 2명의 친구와 똑같은 처분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속인 2명의 친구는 아무런 일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상황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교감선생님께 편지를 보내 항의하였고

교감선생님은 내 편지를 읽으신 후, 면담을 통해 자수한 친구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한번 내려진 처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만 반복하셨고 자수한 친구에 대한 처분은 철회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곳이든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원칙의 뒤에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되 불가피한 상황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정상 참작이 되어야만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단서조항의 존재이유인 것 같다.

단서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자수를 한 친구는 처음 처벌을 받았던 2명의 친구보다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친구의 마음은 한동안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다.

단서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 편법이 되고 우리사회의 질서는 그만큼 어지러워지고 불신의 늪은 깊어지는 것 같다. 예외라는 단서조항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 힘없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왔다고보다 재수 없이 걸려서 왔다고 주장하는 수용자들처럼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적어도 교도소 안에서 만큼은 원칙과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때가 있다. 예외와 단서조항은 꼭 필요한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때가 있다. 그것이 수용자들 교정교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때가 있었다. 현 세태를 개탄하며 우리 사회의 썩어빠진 부분들, 그중에서도 썩은 세대들을 모조리 다 도려내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던 어느 날, 내 자신도 도려내어야 할 썩은 세대인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

“하나의 잎도 온 나무의 말없는 이해 없이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듯이,
죄를 범하는 자도 우리들 모두의 숨은 뜻 없이는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예언자 칼릴 지브란의 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칼릴 지브란의 이 말은 우리사회가 범죄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예방을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죄지는 자들의 잘못이 죄지는 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며,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사회가 될 때, 죄지는 자들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라는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동그라미 밖을 벗어난 것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예외와 단서조항은, 편법행위를 한 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동그라미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

한 예외적인 상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그라미라는 원칙과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의 잘못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사회는 그만큼 밝아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동그라미를 하나하나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Ⅳ





영화 <하늘과 땅> 포스터 중에서



청소년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던 중
특히 베트남에서 일정이 인상에 남아 당시의
감상을 서술한 것입니다.

강효승 외교통상부 외무관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여성성의 미학

베트남의 여성들

베트남의 자연은 각종 매체들을 통해 어딘가 미화되어 표현돼 왔던 것 같다. 이 ‘아름다운 관광지’ 하롱베이도 실상은 깨끗하지 않은 물과, 구석구석 불결한 보트와, 이 축축한 기분과, 그리고 관광객에게 구걸하는 걸인 가족들이 탄 배들로 특징지워지는데도 말이다. 관광객들이 탄 보트를 향해 아슬아슬한 자세로 열대과일을 내미는 아이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를 태운 낡은 배에 가족의 생계를 건 빈손을 내미는 베트남의 엄마... 베트남에 와서 처음 만나는 이 나라 관광산업의 어두운 단면들이다.

하노이의 거리는 오토바이들로 언제나 북새통이다. 대기오염을 피하고자 마스크를 하고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소음과 먼지의 도시를 그들은 언제 나처럼 무심한 얼굴로 가로지른다. 이 오토바이가 질주를 멈추는 곳은 하노이 곳곳에 위치한 호숫가 벤치. 하노이의 젊은 여인들이 그들의 연인과 함께 잠시 쉬어가거나, 아님 오늘밤 아주 머물러 버릴지도 모르는 이곳, 여기는 물의 도시 하노이다.

속옷이 마르지 않는 습기 찬 호텔방 안에서 나는 오늘밤 웬지 모를 갈증에 시달린다. 오늘 저녁 때 나는 대화가 너무 자극적이었나? 대사관에서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학생 하나가 야한 얘기를 화두로 꺼내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어린 학생이 당돌하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꾸한 나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덥고 습한 이곳 기후 때문인가, 아님 첫날부터 보트관광에 나서서인가. 학생들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다. 이제 일정이 막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어 갈까.

이런저런 걱정 위에 나 자신도 휴가여행을 온 듯한 착각이 잠깐 스쳐 이를 뿌리치려 해 본다. 호수 위에 기둥을 세워 반쳐놓은 호텔에 묵어서일까. 물이 아래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축축하고 더운 나라 베트남으로의 이번 여행은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자꾸만 이 물속으로 나를 끌고 가려 한다.

이 축축한 기분은 '수중인형극'을 보면서 더해진다. 하노이는 이 흙빛 물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곳이 없구나. 논밭도 물로 돼 있고 강이며 바다로 물로 표현되어 있으니, 이곳은 물이 아니면 쇼도 진행되지 않겠구나 싶다.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객들은 죄다 나이든 서양 관광객들.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베트남 여인네들의 구슬픈 목소리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영을 떠올리게 한다.

쇼가 끝나고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이 물 속에 몸을 담근 채 인형을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다리는 또 얼마나 통통 불었을까.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위가 본인에게는 저런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하노이대학 한국어과에는 어쩔 이리 죄다 여학생들만 가득 앉아 있는지. 단체사진을 찍을 때 보니 다들 하나같이 키가 작아서 시골 초등학교 생들을 모아 놓은 것 같다. 한류가 처음 시작된 이곳에서 이 여학생들은 순박한 얼굴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행이 지나간 ‘한재욱’의 노래를 반주도 없이 합창하며 즐거워한다. 우리 학생들 몇이 나가서 노래를 하자 베트남 학생들 반응은 점점 고조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장인 내 노래를 정말이지 간절히 듣기 원한다고 청한다. 순진한 학생들의 요청을 뿌리치려니 맘이 편치 않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주까지 포함해서 한 곡 제대로 준비해 올 걸 그랬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방영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드라마 ‘풀하우스’ 주제를 한 여학생이 테이프 반주에 맞춰 부르려는 찰나 리코더가 끊기는 바람에 청중들의 흥은 사그라들고 말지만, 여학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꺾듯이 무반주로 노래를 마친다.

우리 학생들 중에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있고 과거 이곳에 몇 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한 남학생이 말하기를, 베트남 여성들은 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이 여자들은 너무 나이브하고 순박해서 남자들이 베푸는 약간의 호의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때로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 학생이 그래서 베트남 여자들을 몇 올렸다는 얘긴지, 아님 이 나라 여자들이 유독 순진하고 바보스럽다는 얘긴지... 아무튼 되바라질 대로 되바라져서 이제는 외모도 마음도 거의 서양화된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는 너무 다른 게 사실이리라. 그래서, 우리 농촌 총각들도 한국의 도시 아가씨들보다 베트남 여자들이 그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에 앞

서 겪었을 좌절감과과는 별개로 남의 나라에서 온 이 여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또 얼마나 상처 주고 있는 건지.

오늘 양국 학생간 교류행사의 사회를 맡은 여학생과 돌아오는 길에 합석을 했다. 그녀는 여느 베트남 여성들과는 다소 다른 외모를 하고 있다. 뽀얀 피부에 큰 쌍꺼풀이 진 예쁜 눈. 하지만 몸집은 여느 베트남 학생들처럼 애처로울 만치 조그맣고 마른 모습이다. 그녀는 큰 눈을 반짝이면서 베트남을 방문했던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말한다. 잔뜩 흥분해서는 그들의 노래, 외모, 말투 등에 대해 재잘거린다. 한국에 대한 동경, 가보지 못한 나라, 예쁘고 멋있는 연예인들로 대표되는 나라에 대한 선망이 이 어리고 순박한 여학생의 눈에 가득 담겨 있다. 나는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금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한번 지원해 보지 그랬냐고 물어봤다. 그녀는 자기 가족이 공산당 출신이 아니어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그녀 집안은 기독교를 택하여 교회까지 다닌다며 한숨짓는다. 그녀는 졸업 후 진로,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또 선망하며 예쁜 눈을 글썽인다.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이 이 여학생의 어린 마음을 짓눌러 놓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항상 역사가 활취고 간 생채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풀리처상을 받은 한 기자의 흑백사진 속에서 베트남 여자아이는 별 거벗은 채 포탄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부르짖었다. '미스 사이공'의 베트남 여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만난 미군 병사와의 사랑에 그녀의 운명을 내맡겼다. 가난과 전쟁을 배경으로 하였지만 그 안에서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음식과 예술과 사랑을 그려낸 영화 '그린 파파야 향

기 에서 여주인공은 미천한 하녀의 신분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사랑하는 남자를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 맞이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오늘 이곳 하노이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인들을 본다. 그녀들을 과거로 이끄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저항하듯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나는 희망만을 보진 않는다. 절망과 아픔이 그들이 입을 옷자락 한끝을 잡아 끌고 있고, 이 여자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ㅁㅁㅁ

- 2006.1.17~26 한아세안 청소년교류사업 참가 후기





또아리 : 짐을 일때 머리 위에 얹어서 짐을 끄는 고리 모양의 물건.
지방에 따라 또아리 · 또바리 · 또개미 · 또가리 등의 이
름으로 쓰임



허동욱 강원도 강릉시 지방행정주사보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란 이름은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따리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뿌리고 뉘엿뉘엿 물이 올라 연두색 고은 빛깔이 산하를 뒤덮고, 수양버들 머리 풀고 달려오는 새봄이 오면 항상 '그리운 어머니' 떠오른다. 문득문득 어머니가 이제 계시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자명종만 울리고 있을 때, 어둠이 깔려 집에 돌아와도 침침하기만 한 거실을 바라볼 때, 방에 불을 켜두고 잠이 들어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형광등을 보며 잠이 깰 때, 자주 찾던 동네 아주머니들을 길에서 마주칠 때, 가신지 벌써 6년이 되어도 문득문득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만난다.

나는 몸살에 걸렸다. 집에 들어와 고개만 꾸벅거리고는 곧장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버렸다. 젊은 나이에도 몸살쯤에 끄끙거리며 누워있는 나를 질책하고 있던 내 어두운 방문을 여신 건 당신, 어머니였다. 당신이 8남매를 기르고 그리도 아프셨으면서 그저 하루 이틀이면 나아질 내 이마를 말없이 쓰다듬어주시던 어머니. 잠든 척 그저 어머니의 손을 받기만 하고 있던 난 그날 밤새도록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물마저도 이젠 보여드릴 수 없을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악성 치매에 걸리셨던 걸 한참 후에나 알았다. 그저 이번엔 평소보다 조금 더 그러는 것 뿐 이라며 친구들과 들녘을 쏘다니기만을 좋아했던 나. 언젠가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이제 엄마도 저렇게 가게 되겠구나”하시던 말씀만으로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난 마지막까지도 어머니에겐 그저 응석받이 어린애일 수 밖에 없었다.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한껏 답답해 질 때가 있다. 어머니의 대답이 듣고 싶어서 지갑속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 뒤를 따라 시장에 갈 때면 “좀 펴고 다녀라”시며 등을 치시던 어머니의 손에 다시 맞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조금씩 어머니와 함께 있던 기억들에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나브로 눈물 삼키는 그런 일들이 잦아들고 있는 나를 느끼게 된다.

우리 가족의 8남매를 길러준 어머니에게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파리”이다. 당신 남편의 변변치 못한 농사로 집안이 힘들고 가사가 기울자 어머니가 선택하신 것이 바로 파리이다. 파리에는 어머니의 땀내음과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한(恨)이 빼곡히 배어 있다. 파리에는 어머니의 애잔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지금도 집안 거실에 한 자리를 잡고 있는 파리를 보면 어머니의 단상(斷想)이 오버랩 된다.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한 지붕아래 오순도순 8남매가 사는 우리 집안은 가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함께 논농사도 많이 지

었지만, 어머니는 봄마다 농사 짓을 수 있는 텃밭을 얻어 옥수수를 심고 여름이면 노랗게 물든 옥수수를 가마에 찌 시장에 내다 팔곤 하셨다. 여름 어느 날이었다. 펄펄 찌는 더위 속에 어머니는 잘 삶아진 옥수수만을 골라 광주리에 가득 담고 계셨다. 이윽고 누님들의 도움아래 따리를 머리에 얹고 무거운 광주리를 힘들게 이고 시장에 가셨다. 특히, 머리에는 광주리를 인 채, 양 손에는 더 팔기 위해 옥수수를 봉지에까지 담아 들고 가셨다. 나는 여름방학이라 어머니를 따라 소풍가는 마음으로 길을 동행하였다.

시장은 너무 긴 길이였다. 사천에서 주문진 시장까지는 10리가 넘는 고행이었다. 어머니는 힘든 내색않고 시장에 도착하시자 한 모퉁이를 틀고 하루 내내 웃음을 건네며 옥수수를 팔고 계셨다. 맨땅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따리를 깔고 앉으라며 주신다. 따리는 짚과 왕골순으로 만들어 그런지 푹신푹신한 느낌이 와 닿았다. 옥수수 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무료함을 느낀 나를 달래기도 하였고, 사탕과 과자를 듬뿍 안겨주기도 하였다. 서녘에 지친 해가 작별을 고할 때, 옥수수 파는 일이 마무리되자 시장에서 국거리 장을 보시고 광주리에 담은 일이 일 단락되었다. 내가 따리를 어머니 머리에 얹자 광주리를 이고 짐 없이 '내일 팔 옥수수를 다듬어야 한다' 는 말로 집으로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거리는 밤 무렵 집에 도착하여 간단한 요기로 저녁을 대신하고 또 옥수수 다듬는 일에 매달리신다. "동제야! 동제야!" 어머니 깨우시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아침 해는 벌써 지천에 떴고, 옥수수를 찌는 일도 끝나 준비가 다 된 모양이다. 머리에 또 따리를 얹고 광주리를 이고 계신 어머니가 "동제야, 오늘도 같이 가지구나." 어머니는 눈에 의문부호를 담고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어제의 힘든 기억

을 떠 올리며 머리를 내 저었다. 어머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는 “잘 갔다 오마”며, 말을 건네고 동구밖을 걸어 나서는 순간 뒤틀어진 파리가 갑자기 떨어져 뜨거운 광주리가 정수리에 맞닿아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셨다. 누이들이 뛰쳐나가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 머리를 적셔 주고 얼마동안 안정을 되찾자 떨어진 파리를 다시금 얹고 광주리를 이은 채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떠나가시는 어머니. 한 여름철 작열하는 태양에 데워진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피서객들과 서울사람들에게 옥수수 파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못내 저미어 오고 진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여름철 내내 파리를 얹고 옥수수 파는 일이 끝나면 어머니는 시름에 겨워 몸 저 누우셨다. 늦여름과 초가을이 공존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가을을 재촉하는 장대 빗줄기가 쏟아지던 날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마당에 있던 파리를 매만지며 누나에게 물었다. 큰 누나의 얘기는 어머니가 그렇게 옥수수를 여름철 내내 팔러 다니신 건 20여년이 족히 된다는 것이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세월동안 파리와 광주리는 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물건이 된 셈이다. 아니, 어머니는 아예 주무실 때마다 머리맡에 파리를 놓고 잠을 청하기에 파리가 어머니의 분신인 셈이다. 소작농으로만 8남매 키우기 버거웠기에 어머니는 여름철 옥수수 파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소작농으로 8남매의 식솔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의 몸뚱이뿐이었다. 하나 더 있다면 파리와 광주리일 것이다. 연곡에서 이곳 사천으로 이사와 객지의 지리조차 채

익히기도 전부터 어머니는 돈이 될 만하다 싶으면 무엇이건 떼어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다. 여름 내내 옥수수도 말이다. 당신 몸집의 배쯤은 되어 보이는 무거운 짐들도 파리를 엮고 이어 뒤뚱거리며 걷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리고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후, 입원한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던 나는 무심코 당신의 머리를 매만지다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삼단 갈던 머릿결은 이제 온갖 풍상으로 하얗게 내려앉았는데, 그 듬성듬성한 정수리 부분에는 딱히 파리 크기만 한 함몰자국이 너무도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고 하염없는 눈물로 얼굴이 뒤범벅이 되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머리 흔들리는 증세와 치매 그리고 각종질환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알고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내가 자랄 때 너무 옹고집을 부려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사과를 했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어머니셨으며,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고집센 나머지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들을 전하였다. 그리고 집에 어머니가 아끼고 있던 파리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노라고, 나는 편지에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인생의 완성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그 후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어느날부터인가 어머니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셨다.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내가 찾아가면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종종 이렇게 되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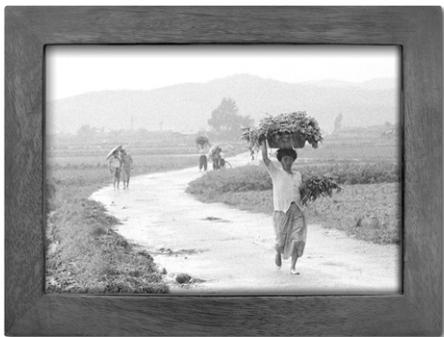
곤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씨의 이름이 뭐요?” 나는 이름이 ‘동제’이며 자랑스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으셨다. 아! 그 특별한 감촉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만질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몇 년 후,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악성치매로 한 많은 이 땅을 떠나신 것이다.

항상, 봄빛 물결이 출렁일 때쯤이면, 정겨운 나의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고, 정신적 기둥이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 싶다. 어머니는 무명과 삼베 뒤에 숨겨진 비단이었고, 무대 뒤에 숨어서 생동하며 숨쉬는 여인이다. 지난 세월의 흔적 속으로 사라져도, 입력된 기억에서 아물거려도 ‘어머니’란 단어는 불혹의 언저리를 걷고 있는 내 기억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다.

파리는 나의 어머니를 대변하는 인격체이다. 그 파리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영혼이 스며있고, 살아온 내력이 들어 있으며,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어느새, 거실에서 파리를 매만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파리도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다. ⅢⅢ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세상이 변하게 마련이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그 시절, 기억속의 어머니가 떠오르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더듬어진다.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가서 찾아보시라. 생각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아들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머니의 작품이고, 어머니의 DNA를 지고 태어났다. 바쁜 일상을 쪼개어 당신이라는 작품을 어머니에게 가끔씩 보여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





엘리베이터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관 주인이었다.
순간 나는 근육이 경직되는 걸 느꼈다.
얼마전 선전포고와 함께 대부대를 이끌고 해일처럼 밀려와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경쟁업체 사장이었다.
특히 백킬로그램에 육박하는 제마누라가 방패 - 실은
방패가 아니라 탱크였지만 - 인양 그뒤에서
온갖 호기를 부린 장본인이었다.
- 본문중에서 -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이, 꼬마야!”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닫히는 찰나였다. 그 틈새를 헤집고 들어오는 달갑지 않은 소리가 있었다. 그 불쾌한 소리에 재빨리 오픈버튼을 눌렀다. 약관인 나에게 누가 꼬마라고 부른단 말인가. 이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날 꼬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가끔 파라다이스 모텔에 가면 배때기나 등쪽에 승천하는 용과 뱀들을 부적처럼 소중히 붙이고 다니는 어깨 형들이 있긴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질리게 붙어 다니는 그 ‘꼬마’ 소리가 꼭 내 작은 키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어깨 형들에게도 호칭을 바꿔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나 말이다. 더구나 여기는 용과 뱀들이 활개치고 다닐만한 장소는 아니지 않은가.

나는 내가 꼬마라는 소리를 동년배로부터 듣게 될 수 있다는 걸 고 3 때 처음 알았다. 나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큰 그 친구 - 나는 나중에 그 친구가 1년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가 나를 1학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 모양이었다. 그 소리는 운동을 포기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나를 또 한 번 죽이는 일이었다. 남들이 1년에 한 뺨 가까이 자랄 때

165센티미터에서 키가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난 작은 키가 결코 아니었다.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였다. 그 시절 나는 육상선수였다. 체육대회 때 400미터 이어달리기를 하면 나는 맡아 놓고 마지막 주자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마지막 주자를 맡은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였다. 내가 속한 팀은 다른 팀들의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400미터 이어달리기만큼은 우승이었다. 앞 주자와 바통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두들 힘들 거라 생각했던 중학교 2학년 체육대회 때조차 폭발적인 주력으로 대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10미터가 넘는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다 이윽고 상대 주자를 추월할 때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전교생 모두가 트랙 가까이 몰려들어 아우성을 질러댔다. 그럴 때면 내 종아리의 시퍼런 힘줄도 물살을 차고 오르는 피라미 떼처럼 덩달아 퍼덕거렸다. 그 날만큼은 전교생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는 날이었다. 그땐 가만히 서 있어도 가슴이 짝 퍼졌고 후일담은 칠판글처럼 무성해져 이웃 여학교의 담을 수도 없이 넘나들 정도였다.

중학교 때의 키를 가보처럼 간직하던 고2 때 나는 앞선 주자의 리더를 지키지 못하고 처음으로 추월을 허용했다. 단거리에서 작은 키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날 견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견제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추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촉망받는 유망주에서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했다. 나는 운동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력이 나를 꼬마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였다.

나는 독사처럼 뿔뿔이 세운 머리로 경솔한 입술의 주인을 살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관 주인이었다. 순간

나는 근육이 경직되는 걸 느꼈다. 얼마 전 선전포고와 함께 대부대를 이끌고 해일처럼 밀려와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경쟁업체 사장이었다. 특히 백 킬로그램에 육박하는 제 마누라가 방패 - 실은 방패가 아니라 탱크였지만 - 인 양 그 뒤에서 온갖 호기를 부린 장본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난 가슴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한 평도 되지 않은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단된공간에 적군과 맞닥뜨린 기분이란 까? 사실이 그랬다. 더구나 이건 격투기 같은 운동경기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전단지 때문이었다. 이 달 초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렸는데 불과 두 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 것이 실종돼 버린 것이었다. 사장은 우리 아파트의 주도권은 당연히 아파트 상가인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한두 장도 아니고 무려 천 장에 달하는 홍보가 도루묵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사장은 두 눈이 핵 뒤집혔다.

“이런 씨팔 것들이 몇 십 장도 아니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여?”

중국관에 연락한 사장은 우리 전단지가 어디로 출장 갔는지 따지는 걸 건너뛰고 다짜고짜 욱부터 쏘아붙였다. 사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우리 것은 사라지고 중국관 것만 버젓이 있는데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저희 메뉴판을 걸어 놓으며 우리 것을 떼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쥐던 손이었고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적장의 돼지 같은 마누라였다. 한참 심한 욕설이 뒤엉키다 결국은 죽일년, 죽일놈까지 갔다. 배달에서 돌아와 사정을 들

은 그쪽 사장은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죽여버린다, 쫓아온다' 고 했다. 사장은 사장대로 지지 않고 '죽여봐라, 하나 안 무섭다' 고 응수했다.

영업을 정리하고 퇴근 후의 여유를 미리 맛보며 소주까지 곁들인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들이닥친 그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조금 의외였다. 당연히 으름장 선에서 끝나라라 생각했던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뭐 낚이 성내는 격이 돼도 한참 되는 상황이었다. 설마 했던 우리는 긴장이 풀어질 대로 풀어진 상태였다. 반면 적장은 마누라의 수모를 양값음하려는 일념으로 마누라와 아들 하나에 딸 둘까지 대동하고 나섰다. 우리는 적장보다 더 덩치가 큰 적장 마누라의 엄청난게 뚱뚱한 몸뚱어리에 압도당해 이미 주눅이 든 상태였다. 하지만 상대는 여자였다.

“어떤 새끼여, 어떤 새끼가 욕했어?”

마누라의 덩치를 등에 업은 적장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밤늦은 시각에 남의 가게에 와서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합니까?”

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내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거구의 여자는 자신의 덩치에 걸맞은 넓테 데한 손으로 내 왼쪽 뺨을 강타해 버렸다. 안경이 벽에 부딪쳐 박살나 버린 건 순식간이었다. 찢어진 입술 안으로 비릿한 피가 금세 고였다. 날아간 안경으로 시야가 급격히 흐려져 모든 게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주먹을 쥐었지만 이내 주먹을 풀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상대는 여자였다. 남자의 체면을 구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난 주먹대신 손바닥으로 여자의 어깨를 힘껏 밀쳤다. 움찔하던 여자가 갑자기 멎되지처럼 돌진해 왔다. 나도 지지 않고 손바닥에 긴장감을 칼날처럼 팽팽히 세운 채 여자의 몸을 막아섰다. 여자의 완력에 밀린 내 몸은 카운터 옆에 있던

난로에 부딪쳤고 그 바람에 난로는 힘없이 쓰러졌다. 나는 기우뚱했던 몸을 다시 일으켜 황산벌의 계백처럼 결연한 각오로 다시 맞섰다. 바닥은 난로가 넘어지며 흘린 기름으로 번들거렸다. 난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맞섰지만 식탁마저 여자의 힘에 밀린 내 몸을 어찌지 못하고 들쭉거렸다. 때문에 식탁 위에 조용히 끓고 있던 명태국도 화산처럼 튀어 올라 명태와 무도 흘린 기름 위에 쏟아졌다. 그야말로 이수라장이 되었다. 정녕 여자가 아니었다.

사장은 사장대로 그쪽 사장과 먹살을 잡고 한참을 씹씩거리며 힘겨루기를 하더니 목덜미가 별경게 상기되었다. 가족잡바도 여러 곳이 찢겨나가 찢어진 사이로 하얀 안감이 드러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몸싸움 가운데 간간이 뒤섞이는 말싸움에 아이들은 심판을 자처하며 편파 시비를 조장하는 응원단에 다름 아니었다. 아이들까지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게 고마울 지경이었다. 금호마트와 크린세탁소에서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방에 깔은 널러 있었고 어느 한쪽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만일 다툼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다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장사 잘 돼?”

그 날 실질적인 승리를 기억하는 중국관 사장은 우리가 당했던 패배감을 기어이 되새기려는 듯 실실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잘 안 된다 왜?”

나도 지지 않고 반말로 응수했다. 순간 적장의 얼굴엔 당혹스런 빛이 역력했다. 그 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급실거릴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꼬마야, 너 몇 살이나 먹었냐?”

나으로 따진다면 중국관 사장이 나보다 스무 살 이상 많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로 실추된 권위를 찾으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니 ‘나이도 어린 자식’ 이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나이는 어떤 실수와 잘못보다 상위의 잣대가 되는 셈이다. 그게 내게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난 꼬마라는 소리에 밀려드는 화를 지그시 누르며 직격탄을 날렸다.

“왜 나이 대접받고 싶냐? 그럼 나이 값을 해!”

“뭐가 어째?”

적장은 별경계 달아오른 낮빛으로 안절부절못하여 금방이라도 나를 갈아몽겔 태세였다. 나도 여차하면 그때의 수모까지 몽뚱그려 맞받아 칠 자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문이 열렸고 나는 적장의 떡살대신 배달통을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적장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뭐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내가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녀석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

처음 배달을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게 미숙했다. 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잡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손가락, 젓가락, 심지어 탕수육 소스마저 빠뜨리기 일쑤였다. 배달통을 짐칸에 싣고 타다보니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날 때면 짜장면은 자연스레 비벼졌다. 랍이 찢겨 짬뽕국물이 배달통을 더럽힌 것도 여러 번이었다. 게다가 짬짜면은 짜장과 짬뽕사이의 경계선을 자주 허물어 서로 하나가 되길 원했고 더불어 손님들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까지 생겼다. 배달통을 한 손으로 쥐고 균형을 잡으며 운전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토바

이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몇 번이나 넘어졌고 배달통 또한 몇 번이나 내동댕이쳐졌다. 세상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적장을 맞닥뜨린 지금처럼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사위가 어두워지며 햇볕에 따사롭던 날씨는 금세 쌀쌀해졌다. 서너 으로부터 달려드는 어두운 구름이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듯 하얀 하늘을 먹빛으로 칠해 가고 있었다. 날씨가 변심한 애인처럼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다. 며칠 날씨가 따뜻하더니 아파트 화단엔 때 아닌 진달래까지 망울을 피워 올리고 있는 참이었다. 철을 모르는 그것들은 기온이 제철을 찾으면 은혜가 그랬던 것처럼 화들짝 놀라 다시 땅속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휴학 중인 은혜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그녀는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상경을 하게 된 모양이었다. 일이 쉽게 풀리는 듯싶었다. 은혜는 곧 강남에 있는 어느 빌딩에 정장 차림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통에 관한 지식을 배웠고 친구는 인생에서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잡았다고 했다. 그들에 따르면 두 명만 자기 밑으로 심으면 피라미드처럼 조직이 뻗쳐 큰돈을 금방 벌 수 있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든 최고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꿈은 멀지 않았다. 학창시절 헤븐(Heaven)이라는 음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한 그녀는 자신이 직접 헤븐(Heaven)이라는 간판으로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 거기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게 소박하나마 그녀의 꿈이었다. 그 빌딩에 출근한 지 6개월쯤 되자 카

드빚이 이천 만원이 넘게 되었고 카드 돌려 막기도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색다른 방향으로 은혜의 꿈이 이루어졌다. 종업원으로 들어간 그곳은 찻잔대신에 술병이 난무했고 기타대신에 탬버린이 은혜의 손에 쥐어졌다는 게 다를 뿐이었다.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단지 배달 독촉하는 전화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름에 한 번 이상 오토바이 센터에 들러야 하는 애물단지 중고 오토바이는 성장이 멈춘 내 키처럼 기껏해야 시속80킬로를 넘지 못했다. 돈이 조금 더 모이면 나는 가장 먼저 내 오토바이를 살 생각이다. 새 오토바이에 은혜를 태우고 시속 130으로 이 거리를 달릴 테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골목길로 접어들 무렵, 맞은편 차선의 택시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신경질적인 ‘뽕’ 소리를 날렸다. 뒤통수에 욕지거리처럼 들러붙는 ‘뽕’ 소리를 팽개치고 현란한 드리블처럼 오토바이로 골목길을 헤집고 다닐 무렵, 허벅지에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나는 음식을 동원빌라에 부리고 그릇을 수거하기 위해 근처의 주박가를 돌았다. 그 와중에도 몇 번의 진동이 계속되었다. 가게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였다.

“이쪽에 몇 개만 더 찾고요.”

그러자 사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그냥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 하마터면 ‘씨발’ 소리가 튀어나올 뻔했다. 내가 또 땡땡이나 까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아홉시가 다 된 마당에 배달이 밀려 있을 리는 없었다. 사장이 뭐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돈만 있으면 까짓것 나도 벌써 사장됐다. 설령 내 밥줄을 쥐고 있는 대단한 사장이라 해도 한두

근데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는 장부정리를 핑계로 영업시간 끝 무렵의 배달을 꼭 내게 미룬다. 그러면 그릇 수거가 늦어지고 퇴근도 늦어지기 마련이다. 그도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뺏속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헤치고 그릇을 찾든지 해야 했다. 냉기가 가득한 아침에 그릇을 찾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퇴근 시간이 넘도록 그릇을 찾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음날 별이 따뜻한 한낮까지 기다리기에 그릇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았다. 특히 보통 그릇보다 몇 배나 비싼 짬짜면 그릇만 귀신처럼 골라서 가져가는 데엔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나대로 잃어버린 그릇을 메우기 위해 다른 가게 그릇을 가져오기도 한다. 결국 서로가 흠치고 다시 흠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사장은 며칠 전 나의 무단결근으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 날 난 몸이 약간 으슬으슬 춥더니 몸살감기 조짐이 있었다. 거기다 은혜가 쉬는 날이어서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갔으면 하는 눈치를 자꾸 주었다. 차마 사장에게 하루 쉬겠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내게 쏜대보다 이제 막 작업의 효과가 나타나려는 은혜를 외면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나는 그 날 휴대폰 배터리를 빼고 은혜와 바람을 쐬러 나갔다. 어차피 전화 와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니 눈 딱 감고 하루 제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음날은 어차피 다음날 운명에 맡기면 되는 거였다. 근데 이상하게도 은혜와 한강변에서 바람을 쐬고 온 후, 몸살감기 기운이 싹 가셨다. 그 때문에 쏜대는 내가 아팠었다는 사실마저도 믿지 않으려 들었다. 열 통이 넘는 전화를 받지 않은 내 잘못이 크지만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건 정말 기분 더러운 일이

다. 그날 배달용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바구니를 떼어내고 거기에 은혜를 태웠다. 한강둔치의 바람은 매서웠지만 태양은 금가루라도 뿌려놓은 듯 한강을 금빛으로 수놓았다. 때때로 강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은빛 피라미가 비늘을 번쩍이며 금빛 파장을 만들곤 했다. 얼굴은 찬바람으로 얼얼했지만 은혜와 함께한 시간들이 마냥 좋았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뺑차였다. 나이트클럽도 아닌 상가 건물 앞에 뺑차가 번쩍거리며 후미진 상가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순간 불길한 조짐이 들었다. 불과 한 시간 전에 배달 나가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한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이었는데 난 결단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단지 나는 급한 배달을 하고 있었고, 하이바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짬새들은 영업용이란 이유로 택시는 검문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였다. 그렇게 따진다면 나도 영업용이지 자가용은 아닌 셈이었다. 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버스와 택시만큼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들이 어디 있던 말인가. 난 뼈따션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검문을 보고 과감히 중앙선으로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왜 자꾸 경찰만 보면 따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장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난 현재 무면허 상태다. 면허증이 없는 게 아니라 쪽팔리게 과태료를 안 냈다고 면허정지 55일을 먹은 것이다.

순간 다시 도망갈까 하고 망설였지만 확실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알고 있다면 내 이름이고 뭐고 신원 조회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할 그들이었다. 전국에 지명 수배라도 내려지면 그것이 더 쪽팔린 일이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은혜가 포상금을 노

리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다는 건 정말 삶이, 세상이 싫어지게 되는 이유다. 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빠가 난폭해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날마다 술병과 블루스를 취했고 알코올에 젖은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깨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서 한 남자가 죽었고 그 남자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엄마였다.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사고를 당한 곳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륜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충분한 상황이었다. 엄마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죽은 남자의 부인이, 남편 머리를 대신해 엄마의 머리채를 풀뿌리에 엉긴 흙덩이 털어 내듯 쥐고 흔들었다. 악다구니를 물고 덤비는 여자의 손에 엄마의 머리칼이 뭉텅이로 빠졌다. 아빠는 그 남자와 함께 죽지 않은 엄마의 머리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버렸다.

나는 은혜를 좋아하지만 은혜는 날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래도 대학물 먹은 년이 대학물은 커녕 고등학교도 못 나온 나와 사귀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또 동갑인 나를 아주 어린애 대하듯 하는 게 나를 남자로 보지 않고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 투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찢러 보긴 찢러 보고 싶다. 먼저 연락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할 짓 같던 그녀가 최근 들어 가끔씩 연락을 하는 걸 보면 분명 내게도 서광이 비칠 징조다. 언젠가 지금 처지로는 대학을 졸업할 것 같지 않다는 은혜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하기가 졸업한다고 뽀

족한 일이 있을 턱이 없고 어찌면 지금 하는 일이 수입 면에서는 나을 테니 이일을 계속하는 것도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근데 미리 당겨쓴 돈 때문에 골칫거리인 모양이었다. 보도방에서는 쉬 줄지 않은혜의 빛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이 있는 듯했다. 2차를 나가지 않고 도 대체 언제 돈을 벌거냐고 보도방 삼촌이 으름장을 놓는다고 했다.

가게 입구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난 아닐 거야, 다른 일이 있어서일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고 나는 그만 낙담해 버렸다. 오토바이 번호로 조회를 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난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 될 것이며 벌금 까지 물게 된 것이다. 어찌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 측정 거부 등 공무 집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될 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월급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머리를 최대한 숙이며 배달통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차라리 수갑만 차지 않고 끌려갈 수 있다면 나를 아는 상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차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체면이었다.

“이영욱…… 씨?”

조그맣고 나이 어린 친구에게 '씨' 자를 붙이는 게 상당히 거북한 듯, 턱이 뾰족한 경찰은 이름과 '씨' 자 사이에 간격을 두고 불렀다.

“네…….” 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크리스마스를 쇠창살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다.

“이 할아버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본 게 언제죠?”

동배가 나온 이파리 세 개짜리가 사진을 내밀었다. 그제야 난 나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을 들여다 본 나는 그만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얼른 웃음을 거두고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진은 기껏해야 50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아주머니도 보였다. 학사모를 쓴 아저씨의 모습으로 보아 아들의 졸업식인 듯 보였다. 중년의 건장한 체격의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모습이 틀림없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 노인은 은혜와 같은 집, 반지하에 세 들어 사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에게 처음 배달 갔을 때가 생각났다. 내가 목청껏 외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노인은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 본 적조차 없다는 듯 한참을 기다리게 했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꼭 참았다. 대어섯 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갔던 저번처럼 내가 무슨 강간범이나 유괴범이라도 되는 듯이 악다구니를 써 대는 아줌마의 모습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찌 그리 예의도 모르고 못 배운 태를 내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짜장면이 퍼지길 1분 넘게 기다릴 수는 없었다. 분을 식이지 못한 예의 많은 아줌마는 다시 가게에 두 번이나 전화해서 종업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게거품을 물었다. 그 아줌마는 다시는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

나는 노인의 반지하방에서 음산하고 퀴퀴한 공기를 느꼈다. 세상의 바람을 얼마나 맞았는지 풍으로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한 할아버지는 발음마저 어눌해 보였다. 거기다 팔이며 다리가 살아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앙상하게 여위어 내용물은 모조리 증발해 버리고 껍

질만 남은 사람 같았다. 만일 할아버지가 은혜의 옥탑방에 산다면 계단을 오르다 겨울바람에 어디든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지 항상 한 그릇이었다. 그다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배달이 늦어질 때가 많았고 배달이 밀릴 때엔 다른 고객에 밀려 짜장면 하나인 할아버지는 자꾸 뒤로 처졌다. 주말에라도 걸릴 때면 한 시간이 다 돼 갔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럼으로 해서 할아버지의 짜장면은 더 늦게 배달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운이 좋게도 은혜 음식과 함께 갈 때가 있긴 했으나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었다.

처음엔 다른 곳과 끼워서 가져가는 노인의 짜장면이 불기라도 할까 걱정됐지만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노인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 조금 멀고 귀찮은 노인은 거의 내 차지였다. 단 하나, 노인이 낮에 음식을 시키면 나는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는 셈이었다. 그 노인이 얼마 전 퇴근 무렵에 주문을 하더니 그 후 음식 주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그릇을 찾으러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도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그 뒤로도 끈대에게 떠밀려 갈 때마다 그릇은 커녕 사람 구경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시골 고향에라도 갔으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할아버지의 고향은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 부쩍 고향 생각이 간절해지는 법이리라.

“한 보름은 됐을 걸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릇도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릇이 문제야, 사람이 죽었는데.”

밥태기 세 개인 동배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경찰 특유의 매서운 눈빛이었다. 순간 섬뜩했다. 나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보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무면허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난 위압적인 분위기가 어색하고 두려워졌다. 경찰은 다시 방안을 확인해 봤느냐, 잠 가져 있지 않았는데 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느냐,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느냐’ 등 시시콜콜한 것들을 물었다.

경찰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긴 했다. 노인은 그 날따라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출정 나가는 군인 같았다. 물론 어색하긴 했지만 비쩍 마른 모습 가운데 조금은 강인해보였다. 노인은 꼭대기 처녀가 주었다고 하며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꼭대기라고 하면 은혜를 말하는 거였다. 노인은 그 처녀가 참 착하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게 물었다. 나는 저녁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대학생이라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대답했다.

“타살이래요? 가족들은요?”

나는 의도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심드렁하게 물었다. 그렇게 물으면서 나는 내 목소리가 지나치게 비굴하다는 걸 깨닫고 재빨리 헛기침을 했다.

“아직 모른대.”

이번엔 끈대가 말했다. 끈대의 어투는 자신이 그 노인에게 배달 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는 듯했다. ‘난 네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용의 선상에 있지 않아’ 라고 그의 표정이 말했다.

아내와는 사별했다고 해도 세 명의 자식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건장한 체격에서 비쩍 마른 몸이 될 때까지 노인의 말년은 어디로 사라진

결까? 내가 그의 죽음에 깊이 관여 돼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침이 나오질 않아 기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해졌다. 꼭 내가 처음 여자의 옷을 벗길 때처럼 침이 말랐다.

그때 내가 여자의 까만 젖꼭지에서 입을 떼고 세 번째 물을 들이켜려 일어섰을 때, 여자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나보다 두어 살 더 먹어 보이는 여자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무례하게도 내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순식간에 나는 그녀의 아랫도리로 제압당했다. 나는 가만히 누워서 덜렁거리는 여자의 젖가슴과 그 아래 도장만한 점만 쳐다보며 비슬거렸다. 입안이 메말랐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불쾌한 몽정으로 아침을 맞은 듯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동정을 잃은 때문이 아니었다. 동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차피 그걸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는 여자도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쾌함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나는 그 찝찝함의 근원이 어디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날은 내가 상경한 첫날이었다.

“오빠 고향 저 아래쪽이지?”

의도적으로 서울말을 쓰려는 내 말투에서 사투리의 흔적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아래쪽이면 어떻게 말인가? 뭔가 알잡아 보는 듯한 말투에 비위가 거슬렸다.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나는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무안해져서 투명스레 내뱉었다.

“오빠도 참 그런 것 좀 알면 안 돼?”

난 그 지랄 같은 오빠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차라리 나이를 묻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대답대신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들여 갈

색 머리의 얼굴에 내뿜었다. 갈색 머리는 손사래를 치며 내게도 담배 연기를 뿜어 대려 얼굴을 가까이 했다. 스무 살 먹은 여자의 얼굴이 외판섬처럼 다가왔다. 화장으로 덕지덕지 바른 오른쪽 입술 꼬리와 이마에 흉터, 콧잔등 옆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뾰루지 등 너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거기다 제법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긴 갈색 머리였는데 갈라진 머리끝을 보니 추레한 느낌마저 들었다. 한 열 살은 더 먹어 보였다. 난 갑자기 이 갈색 머리가 동향 사람일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몇 년 빨리 서울 생활에 적응해서 ‘서울말이건 뭐 건 이젠 제법 적응 했는 걸, 이 촌뜨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덕지덕지 붙은 화장을 후벼 파헤쳐 거친 여자 얼굴을 까발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오빠 침이지?”

갈색 머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집요하게 질문을 해댔다. 난 입을 열면 열수록 약점이 잡힌다는 생각과 지랄 같은 시골 얘기가 튀어나올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갈색 머리는 막무가내였다.

“뭐가?”

난 또 탄청을 피웠다.

“빠구리 말이지 뭐야?”

“그럼 넌 수천 번은 했겠다.”

난 속내를 드러내기 싫어서 짐짓 비아냥거렸다.

“어쩐지 좀 서툴다 했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한 적이 없는데 갈색 머리가 넘겨짚었다.

“수업료라도 받아야겠는 걸.”

“수업료 줄 테니 그럼 넌 슷총각 먹은 값 내놔라.”

난 속으로 ‘이름이나 물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 그만 뒀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니었다. 캔 맥주 하나를 시원스레 털어 넣던 갈색 머리가 내 귓볼을 입술로 간지럽혔다.

“오빠 나, 인심 썼다. 오늘 제대로 수업 한 번 더 해주지.”

여자의 입술이 목선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갔다. 염치없게도 금방 부풀어 오른 아랫도리는 여자의 실직한 엉덩이를 향했다. 여자의 지시에 따라 서투른 몸짓을 하자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드러누운 그녀의 가슴은 더 빈약해졌다. 갈색 머리가 위에서 혼자 다 끝내 버렸을 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여전했다. 갈색 머리는 피곤한지 침대에 드러누웠고 나는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며 나는 왕가슴의 금발 포르노배우를 떠올리며 수음으로 세 번째 사정을 힘겹게 했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갈색 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기다렸지만 갈색 머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성급히 호주머니를 뒤졌다. 불룩했던 호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수업료로 동정을 깬 셈이었다.

“별일 없지?”

다시 연락하겠다는 경찰이 나가자 사장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그 노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 같은 말투였다.

“그럼요.” 난 애써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지하철 4호선에 불을 지르려던 범인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도 지하철 화재에 관한 허술한 방비와 안이한 대책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기자의 보도와 광기에 가까운 노숙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이어서 자동차 백미러를 발로 차서 오십여 대나 파손한 실업자가 경찰에 잡혔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미친놈들, 저런 새끼들 때문에 맘 편히 살 수가 있나? 저런 개새끼들은 아예 다리를 분질러 놔야 한다니까.”

꼰대는 제 차가 파손되기라도 한 듯 핏대를 세우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 골목길에 주차했다가 누군가 전조등을 켜다며 하루 내내 씨팔씨팔 하던 그였다. 그때 난로가 꺼지고 특유의 역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기름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나는 가게 문을 조금 열어 두었다.

노인은 나와 안면이 익게 되자 막힌 줄만 알았던 그 주름진 입을 달싹거리려 소리라는 것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노인이 곰팡이 먹은 서랍 속에서 상사 계급장을 단 공수부대 복장의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난 그가 직업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사진엔 백번 이상 낙하해야 주어지는 공수윙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푸른 제복과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40대 초반의 상사는 탄탄해 보였다. 노인은 지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그때를 회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공수부대 나오셨어요?”

나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여쭙었다.

“그렇게 안 보여? 낙하산도 수없이 탔지. 그때만 해도 몸이 뽕뽕 날았는데 말이야.”

그에게 회상할 만한 것이라곤 오로지 그뿐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일 주말인데 장사 좀 되려나?”

방학 때면 매상이 많이 오르게 되니 주방 보조를 써야 한다던 주방장은 입이 썩 들어가 버렸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담은 현수

막이 북풍에 푸르르 떨며 펄럭거렸다. 건물들이 겨울바람을 막아내기엔 터무니없이 낮아서 북풍들이 포복으로 밀려왔다. 가게의 상권이 확장되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아무리 배달장사가 대부분이라지만 벽이 되어 버틴 용마산 때문에 상권은 한계를 금방 드러냈다. 산이 버틴 가게 뒤 쪽을 포기해야 하다 보니 다른 가게보다 더 멀리 뛰어도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산 이름처럼 용처럼 비상하고 말처럼 휘달린다면 좋겠지만 바로 그 용마산이 걸림돌이었다. 114안내 번호로 중국 음식점을 문의하면 여기 전화번호를 가장 먼저 가르쳐 준다는데 지금껏 상가가 들어선 십이 년 사이에 바뀐 이름만 짜짜루, 일지각, 진짜루, 짜장 일번지, 중국성, 천안문, 북경반점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지금도 창고로 쓰고 있는 방엔 소모되지 못한 메뉴판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차갑게 나뒹군다. 버려진 상호와 함께 무용지물이 된 그것들도 한 때는 어떤 이의 삶에 별빛으로 반짝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제법 큰 교회의 불빛들이 성탄을 알리며 명멸하고 있다. 잿빛으로 변한 하늘로 인해 크리스마스 장식은 더욱 화려하게 빛이 났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닌 게 아니라 거리에는 성탄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남녀들이 구들을 박차고 나왔는지 모두들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팔짱끼고 술집을, 노래방을, 모텔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화려한 거리를 지나서 도로를 건넜다. 경사가 많이 진 이곳은 도로 건너의 화려한 불빛에 반해 태초의 어둠을 간직한 듯한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였다. 이쪽의 분위기는 크리스마스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다. 내 사글세방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교회마저 모두 도로 건너의 화려한 불빛 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예수가 태

어났다면 아마 마구간 같은 이쪽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걸었다. 경사진 골목길을 걷다가 얼어붙은 바닥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였다. 왜 노인이 군복을 입고 죽었을까? 노인에 대한 궁금증이 등을 타고 오르는 불개미처럼 스멀거렸다. 그럴수록 나는 '내가 그 노인을 죽여서 유폐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린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개선행진곡이 흘러나왔다. 은혜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렇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이브라 은혜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녀가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이어서 연락하지 않은 터였다.

은혜는 내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은혜를 데리고 조용히 술집으로 향했다. 술잔을 연거푸 들이켜던 은혜가 나지막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돈은 갚았는지 궁금했지만 꼭 참았다. 그녀가 그 일을 한 지가 이제 8개월 정도 되었다.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애교와는 거리가 먼 아가씨였다. 그녀는 손님들이 만지는 것을 상당히 불쾌해 했다. 남자들이 왜 노래방에 오는지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로였다면 우린 그 여자를 내쫓고 다른 아가씨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같이 온 여자의 애교와 말발이 그것을 막았다. 거기다 그 여자의 노래솜씨 하나만큼은 상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쪽 업계 아가씨들 특유의 거칠고 틀에 박힌 금속성에 가까운 목소리와는 달리 섬세한 느낌이 살아있었다. 내가 2차를 가자고 했었고 여자는 거절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허탕이었다. 자기가 열նե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사창가 여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그녀의 끈질긴 버텨는 나를 지

치게 만들기보다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도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는지 내 끈질긴 치근거림으로 그녀는 머지않아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었다. 그녀의 숙소에 나도 몇 번 배달을 갔고 우린 친구가 되었다. 물론 그때 내 궁극적인 목적은 그녀를 따먹는 것이었음을 부인 못하겠다.

한참의 침묵을 무겁게 견어내고, 그녀가 말했다.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줘.”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싫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노인의 죽음이 몰고 온 정적이나 어두운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정말, 정말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속으로 뜻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즐거워하며 흐르는 캐럴 송에 맞춰 흥얼거렸다.

어쩌면 그때 엄마의 죽음이 아빠에겐 느닷없는 선물이었을까? 술만 먹으면 엄마를 닮달하고 때리는 아빠의 모습에 차라리 난 엄마가 없으면 좀 조용해질 거라는 이상한 믿음 같은 걸 가졌다. 가정 파피의 주범은 어디까지나 엄마였고 난 그때 고3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왜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누군가는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이상하리만치 음습한 그런 분위기엔 엄마도 결국 어찌지 못했다. 엄마가 저수지의 안개에 휩싸여 건져졌을 때, 적어도 우리 가족 중 아빠만은 기뻐하리라 생각했었다.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이때 그녀가 다시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노래방에 가자는 것이었다. 나야 물론 콜이었다. 은혜는 그 생활이 지겹지도 않은지 연거푸 노래를 불러댔다. 은혜의 노래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다. 이번엔 내가 탬버린을 쳐댔다. 지금까지와 달리 오늘만은 내가 도우미였다. 나는 노래는 거의 부르지 않고 옆에서 목을 고르는 그녀를 위해 이따금씩 맥주를 따라주었다. 발라드 곡을 부르던 은혜가 가만히 내손을 잡아끌었다. 나는 은혜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블루스를 함께 추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에 얼굴을 파묻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결에서 샴푸향이 곱게 부서졌다. 그녀의 체취가 폐부 깊숙이 느껴졌다. 성탄의 분위기에 맞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르던 그녀는 허공에 기타를 쥐고 치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울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나를 더 씩씩하게 만들었다. 저 품안에 무언가 안겨있어야 구색이 맞는 일이었다.

진눈깨비가 마사지 하듯 얼굴위로 톡톡도둑 떨어졌다. 언제 왔는지 부재중 전화 두 통이 와 있었다. 끝 번호가 112로 끝나는 게 아무래도 경찰서인 모양이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웬 전화를 해대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시간에 취조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빈방 없어요?”

그때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이천 년 전의 베들레헴처럼 여관은 만원이었다. 몇 군데를 돌았지만 역시 이런 날들엔 모두가 여관으로 향하는지 딱딱 찬 곳뿐이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부동켜안지 않으면 달리 할 일이 없는 모양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옥탑방으로 갔다. 노인이 죽은 그 집에서 자는 게 탐탁지 않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내 고시텔에 데려가기엔 방이 너무 좁았다. 녹이 슨 철제 계단에 울린 발걸음이 바람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울음처럼 흩어졌다. 달갑지

얇은 손님은 가난한 곳에 꼭 먼저 오는 법인지 여름 장맛비가 지하방에 모인다면 겨울바람은 옥탑방에 먼저 부딪쳤다. 술까지 마신 은혜의 구두 굽이 훨씬 더 높게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은혜의 방은 꽤 지저분했다. 나는 혀를 내둘렀으나 이내 두 팔을 걷고 쓰레기를 치우는 데 동참했다. 어수선했던 방들이 아귀가 맞듯 어느새 깔끔하고 반듯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쓰레기는 반쯤 채워져 있던 50리터들이 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빈 봉투 없어?”

“모르겠는데 찾아볼게.”

은혜가 쓰레기봉투를 찾았지만 다 떨어지고 없는 모양이었다. 편의점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가 채워진 봉투를 더 힘껏 밟았다. 너무 힘껏 밟았는지 봉투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다. 지금껏 껌껌 역할만 하던 쓰레기들도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안에서는 내용물이 되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은혜가 금세 스카치테이프를 찾아왔다. 터진 옆구리는 내 날렵한 손놀림으로 곧 봉합되었다. 그렇게 구겨 넣었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넘쳐났다. 종이를 잘게 찢어놓은 것도 많이 보였다. 가만 보니 그것은 편지지였다. 편지를 얼마나 많이 쓰다 말았는지 잘게 찢긴 종이의 양이 아주 많았다.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만 것들인 모양이었다. 언젠가 은혜에게 고향에는 안 내려 가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은혜는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했었다. 모르긴 해도 집에서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챈 모양이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어.”

은혜는 엄지와 중지로 손가락을 통겨 딱 소리를 내며 쓰레기를 주워 들었다.

“어떻게 하려구?”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은혜는 대답대신 해죽 웃어 보이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옥탑방을 흔들더니 이내 문을 꽁 닫아 버렸다. 은혜는 바람을 등지고 옥탑의 끄트머리로 갔다. 4층 높이의 옥탑은 꽤 높았다. 은혜는 손을 꼭 내밀어 쓰레기를 허공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쓰레기는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비닐봉지, 우유팩, 구겨진 화장지, 컵라면 껍질 등 지금까지 내용물을 감싸기만 했던 껍데기들이 날아올랐다.

“나도 할래.”

나도 은혜가 하는 걸 바라보다 재미있어 보여서 쓰레기를 빼앗아 들고는 하늘로 던져 올렸다. 찢긴 편지가 날아올라 진눈깨비만 뿌리다 만 하늘을 온통 하얗게 물들여 날벌레처럼 퍼덕거리며 북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올랐다. 그것들은 온 세상을 하얗게 색칠할 정도로 높고 멀리 날았고 고운 함박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가로등에 뒤채며 떨어지는 그 거대한 눈의 행렬에 새벽하늘은 차갑게 빛났고 우리의 가슴은 따스해졌다. 은혜는 그것들이 소중한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런 은혜를 보자 나도 웬지 그것들이 죽은 노인의 꿈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신의 은혜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지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다음날도 굶은 날씨가 이어졌다. 바람만은 어제 같지 않게 고요했다. 배달하면서도 나는 자꾸 어제 그녀의 허전한 품이 자꾸 생각났다. 노래방에서 은혜가 불렀던 노래처럼 오후가 되자 큼지막한 함박눈이 소복소복 내렸다. 나는 은행에 가서 오토바이를 사려고 모아뒀던 30만 원을 찾아 악기점에 들렀다. 기타를 사고 나니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

다. 오늘은 그녀의 고운 음성과 멋진 기타소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은혜에게 가는 발길을 재촉했다. 눈이 쌓인 철제 계단은 미끄러웠다. 나는 한손으로 기타를 꼭 쥐고 다른 한손으로 난간을 잡으며 옥탑으로 향했다. 옥탑방은 문이 열려 있었다. 가로등에 떨어지는 가는 눈발이 은빛으로 내려앉았다. 방안에 은혜는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이라도 간 모양이었다. 방안에 텔레비전과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보아 멀리 가지 않은 게 분명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은혜는 오지 않았다. 밖에 나와 옥상을 자세히 살피니 몇 명의 남자 발자국과 은혜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거칠게 찍혀 있었다. 나는 방안에 들어가서 기타를 꺼내어 가만히 통겨보았다. 덩딩 덩딩, 텅텅텅. 기타를 그녀에게 선물로 줘야한다. 나는 언제까지고 그녀를 기다릴 것이다. ⅢⅢ

“빈방 없어요?”

그때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이천 년 전의 베들레헴처럼
여관은 만원이었다. 몇 군데를 돌았지만 역시 이런 날들엔 모두가
여관으로 향하는지 짹짹 찬 곳뿐이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부둥켜안지 않으면
달리 할 일이 없는 모양이었다.

- 본문중에서 -



전쟁고아인 K의 비극적인 삶의 궤적을
연장이라는 작업을 통해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지방행정주사

4°C

오후 세시. 대학병원에 부속해 있는 이곳 장례식장의 지하 안치실은 자못 적막하다. 깊디깊은 고요가 사방에 켜켜이 배어있다. 일일 2교대로 아침 7시에 켜진 불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꺼진다. 방금 교대한 K는 의무기록실에서 보낸 사체검안서를 편다.

성별 남. 연령 74세. 사망시각 06시 36분.

K는 사체보관함의 기다란 손잡이를 아래로 젖힌다. 철컥. 달갑잖은 쇠소리를 내며 빗장이 풀린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패널 속에는 오늘 새벽 유명을 달리한 시신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염을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지체하면 사체의 경직으로 인해 입관할 때 애를 먹기 십상이다. 시트를 슬쩍 들춘다. 가늘게 실눈을 뜬 노인의 결막에는 누런 달이 떠있다. K는 서둘러 노인의 눈을 쓸어내린다. 이곳에서의 모든 일은 손이 한다. 손은 때로 눈이 되고, 귀가 되며, 코가 되는가 하면, 혀가 되기도 한다.

“늦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실습생 P의 숨소리가 가쁘다. K가 고개를 들자 안치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문으로 눈동자가 모여든다. 이제 고인이 된 노인의 늙은 아내이거나 혹은 아들과 딸 또는 형제나 누

이의 눈동자들일 것이다. K는 다시 사체검안서에 눈길을 던진다. 사인은 언제나 간명하다.

황달.

K가 염할 준비를 하는 동안 어느 틈에 고무장갑을 챙긴 P가 마스크를 찾는다. P의 깔끔함은 유난스럽다. 가뜩이나 앓던 인상 탓에 여고생으로 오해할만한 P를 이 일로 잔뼈가 굵은 K와 비할 수는 없다.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K는 마스크는 커녕 장갑조차 끼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주검을 느껴야 제대로 염을 할 수 있다고 K는 믿는다. 시신에서 풍겨올 끔찍한 냄새를 미리부터 맡은 걸까. P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마스크 끈을 바짝 조인다. 어찌면 노인의 오랜 와병으로 인해 시신의 어딘가에 씌어 문드러진 욕창의 흔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여하한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염하는 도중에 말을 삼가는 것처럼 실수로라도 시신의 알몸이 드러나선 안 된다. 오직 K의 손만이 느낄 뿐이다.

K는 시트 속으로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노인의 옷을 벗긴다. 수의를 입히려면 먼저 시신부터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손끝에 닿는 노인의 맨살은 서늘하다. 이제 막 공기와 맞닿은 살 속의 수분들은 빠르게 건조해 증발될 것이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노인의 옷을 벗긴 K가 탈지면을 고른다. 사실 애탕수나 향탕수가 시신의 목욕물로는 제격이지만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그런 격식치레는 가타부타 따질 계제가 못된다. 탈지면을 쥐 K의 손이 노인의 발등에서부터 거슬러 오른다. 정강이, 무릎, 허벅지, 배, 가슴을 거쳐 어깨와 팔죽지를 타고 손등으로 미끄러지던 K의 손놀림이 일순 멈춘다.

근 달포나 K를 괴롭혀온 발은기침이 숨을 내쉴 때마다 목젓까지 차오른다. 헛기침을 해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내 식은땀이 활처럼 굽은 K의 등줄기를 탄다.

- 푹. 푹.

잔뜩 굳어있던 P가 노인의 발톱을 수습하고는 오냥에다 넣는다. 다섯 개의 작고 붉은 주머니에는 손발톱과 함께 머리카락이 채워질 것이다. 노인의 두발을 추스른 P가 총이로 귀를 막고, 악수로 손을 싸고, 명목으로 눈을 가리는 동안, K는 장포 위에다 지금을 펴고, 겉옷 속에다 속옷을 미리 끼워 펴놓은 다음 중치막은 심의에다, 흘적삼은 겹으로 된 저고리에 끼워 넣어야 한다. 양쪽 소매와 뒷고대를 잘 맞추어 펜 명주실은 길게 늘어뜨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의를 입히기 한결 수월하다.

“아이고. 이 불쌍한 양반아!”

유리문 밖의 누군가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린다.

송장 만진다고 고거시 다 염쟁이당가. 행상 나갈 적에 만가라도 턱하니 뽑을 줄 알아야 현단 말이지.

K에게 염을 가르쳤던 얼굴뱅이 노인은 이따금 술이 거나해지면 육자배기 같은 토막소리를 구성지게 불러 젖혔다. 특히나 노인의 상엿소리는 너무도 애절하고 구슬퍼 가만 듣고 있노라면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다. 어찌다 노인이 상가의 수변이라도 맡는 날이면, 상여를 뒤따르는 상주와 무복지친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심코 구경나온 마을사람들까지 노인이 혼드는 요령소리에 맞춰 죄다 눈물을 흠지곤 했다. 앞소리 사설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었다. 툼툼이 귀동냥으로 배운 뒷소리를 K가 해볼라치면 그때마다 번번이 야단맞기 일쑤였다.

위메, 이 썩을 놈 좀 보소. 그러코롬 부르면 잘 가던 귀신도 도망가겠다. 이놈아. 상엿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여. 속에서 술허게 끓아 터져분 한이 삭힌 가래 맨쿠로 줄줄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제. 그리고 뒯소리를 그 짝으로 받아치면 앞소리꾼이 위치케 신명이 나갔는가 말이여. 자, 내가 하는 소릴 잘 들어 보드라고. 흠. 흠. 못 오시네, 못 오시네, 한번 가면 못 오시네, 아차 한번 죽어지면, 육진장포 일곱 매를, 상하로 질끈 동여매어, 북망산천을 돌아들 적……

옷이 날개라면 어찌면 수의는 가장 큰 날개다. 시신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수의는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진다. 때문에 어지간한 솜씨가 아니면 옷매무새가 나올 리 만무하다. 하지만 K가 입힌 수의는 매번 하늘로 나을나을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처럼 보인다. P는 빠르게 손을 놀리는 K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여겨본다. 버선을 신기고 난 K가 노인에게 고의를 입히더니 허리춤에 단출하게 조대를 하고, 대담과 행전은 가든하게 친다. 옷깃은 산사람과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고, 고름은 감기만 할 뿐 따로 고를 짓지 않는다. 두 번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이다. K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진다. 소식적부터 외곬으로 엮을 해온 K의 손동작은 남다르다. 섬세하면서도 날렵하고, 날렵하면서도 부드럽다. 흡사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레 들고나는 것 같다. 어느 사이에 새의 깃털을 다 채운 걸까. K의 손끝에서 비로소 우아한 날개가 만들어진다. 이제 입관 철차만이 남아있다. 유리문에는 여전히 눈동자들이 붙박여 있다. 배추흰나비 같던 흰자위에는 실핏줄이 들붙처럼 갈래갈래 번져있다. 아마 저 눈동자들은 남편, 아버지,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인을 오래도록 추억할 것이다. 문득 K의 가슴 한

구석에 담아두었던 스산한 기억이 특하니 물꼬를 튼다. 물푸레나무의 수피처럼 얼룩덜룩한 유년의 들창 밖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 K는 일곱 살 난 아이이다.

*

형과 누나들은 모두 학교에 갔다. 너른 마당에는 올망졸망한 아이들만 남았다. 개중에 제법 머리가 큰 사내애들은 메뚜기나 개구리를 잡으러 일찌감치 들로 나갔다. 같이 가자는 쩌보의 성화에도 K는 선뜻 따라 나서질 못했다. K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구는 울보를 피해 정문 앞 아카시나무에 올라가 숨어버렸다. K와 두 살 터울인 울보는 얼굴에 난 눈물점 때문인지 걸핏하면 울어 종종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하기가 멀쩡한 제 이름 놔두고 별명이 불리는 건 쩌보도 마찬가지였다. 알기살기한 언청이 자국 때문에 형들은 꼭 쩌보라고 불렀다.

고아원과 마주한 철길 너머 드넓은 보리밭으로는 종다리가 날아올랐다. 동지로 돌아갈 적에만 간간이 옆으로 날을 뻗, 종다리는 줄곧 푸르른 보리밭으로 떨어졌다가 이내 하늘 높이 솟구쳤다. 보릿대는 막 이삭이 오르는 참이었고, 벌써 한참을 갔는지 아까까지만 해도 점처럼 희미하던 사내애들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K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따라나서고 싶었다. 그러자면 원장아버지의 외동딸인 영주가 나타나야 했다. 영주가 오면 울보도 굳이 K를 찾지는 않을 것이었다. 무시로 고아원에 드나드는 K의 동갑나기인 영주의 손에는 노상 맛난 군것질 거리가 쥐어져있었다. 난리 통에 시든 벼처럼 얼굴이 누렇게 뜬 아이들에게 영주는 부러움 그 자체였다.

며칠 전 울보는 영주에게 드롭스라는 미제 사탕 한 알을 받았다. K는 그때처럼 울보가 기뻐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대신 울보는 토끼풀

로 만든 시계를 영주에게 바쳐야했다. 울보가 들에서 빨기를 뽑아먹는 동안 K가 공을 들여 만든 것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울보는 곧잘 영주가 찢다버린 껌을 냉큼 주워 오물거리곤 했다. 하기가 허기에서 자유로운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간혹 미군트럭이 와서 구호물자를 잔뜩 부려놓았지만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전달되진 않았다.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채운 창고의 자물통은 원장 아버지에 의해 항시 굳게 닫혀있었다.

아침에 가루우유를 먹어선지 아랫배가 슬슬 아파오던 참이었다. 멀리 보리밭 한쪽 끄트머리로 안개가 슬금슬금 밀려왔고 심술긋은 비바람에 더러 꽃이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알싸한 아가시 꽃향기가 K를 코끝을 몽롱하게 했다. 꿈길처럼 먼 곳에서 기적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K가 걸터앉은 나무 아래로 구호품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영주가 지나갔다. 마당으로 들어선 영주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전부리를 했다. 사탕을 두 알이나 입에 문 영주의 주위를 여자애들이 금세 에워쌌고, 거기에는 어김없이 울보가 끼어있었다.

오늘은 사탕이 하나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한다. 음, 그럼 저기 보리밭에서 이삭 제일 먼저 따오는 애한테 줄까.

다른 애들은 미처 준비도 하기 전이었다. 영주의 입에서 이삭, 이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울보가 뛰기 시작했지만 걸음이 느린 울보는 곧 뒤쳐지고 말았다. 여자애 몇몇이 갑자기 철길 어름에서 달음질을 멈췄지만, 울보는 그 틈을 뚫고 계속 내달렸다. 침묵에 발을 헛디딘 울보가 철길 위로 나동그라지는 순간 한참을 달려온 열차가 지나갔다.

조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군요. 그나저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원장 아버지는 울보의 죽음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

들에게 사고경위를 들은 후에도 영주에게 꾸지람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지서에서 나온 순경도 마찬가지였다. 외려 원장 아버지만을 위로했다. K는 울보를 쓴 허술한 거적이 지계에 실려 바빠 고이원을 빠져 나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울보가 신던 까만 고무신 한 짝이 툭 떨어졌다. K가 울보를 피해 숨던 정문 앞 아카시나무 동치였다.

알지? 우린 한 가족이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

그날 저녁 원장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평소처럼 회초리를 들지도 않았고, 말썽을 피운 짜보를 배식에서 제외시키지도 않았다. 원장 아버지의 새삼스런 말 한마디에 이미 가족인 아이들이 다 시금 가족이 되고 있었다. 더구나 아이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준 초콜릿은 일순 숨까지 멎게 했다. 울보의 소꿉놀이 단짝이었던 송이 말고는, 저녁나절 아이들의 얼굴에 깊게 드리워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다. 밤이 안개가 자욱한 보리밭을 지나 사방에 검은머리를 풀어헤칠 즈음, 산들바람이 알팍한 들창을 살강살강 두드렸다. 바람이 건물 외벽에 들러붙은 담쟁이덩굴을 한차례씩 쓸어내릴 때마다 K의 가슴에 쟁여져있던 슬픔의 파리가 툭, 툭 터졌다. 문득 지난 겨울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군용트럭 짐칸에는 하나같이 헐벗은 전쟁고아들로 가득했다. K에게 궁둥이를 바짝 붙인 채 잠이 든 여자애의 얼굴에는 눈물이 꾸덕꾸덕했다. 트럭을 타기 전에 추위와 허기에 너무 지쳐있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여자애가 바로 그 울보였다. 비포장 길을 한참이나 내달리던 트럭이 멈추자 아이들이 하나하나 부러졌고, 그날부터 자신들의 아버지가 될 강파른 체구의 사내가 파란 눈의 군인들과 악수하는 동안 누군가 간판을 보고 소리쳤다.

야! 희망의 집이다.

*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37살 난 여자의 사인은 심장병이다. 여자는 적어도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흉부외과로 실려 왔을 것이다. 실상 사망진단서와 사체감안서의 차이는 별로 없다. D.O.A. (dead on arrival) 즉, 병원에 도착할 당시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죽음을 인정하는 절차가 다소 달라질 뿐이다. 유리문에는 벌써 눈동자가 촘촘하다. 유난히 우울해 보이는 검은자위가 눈에 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지, 검은자위의 시선은 자꾸만 맥없이 굴러 떨어진다. K는 P를 바라다본다. 이제 어떻게든 P의 손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이곳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대학은 지난해 2년제 학부인 장례지도과를 신설했다. 졸업반 커리큘럼에 있는 <염습실습>은 전공필수라서 학생 전원이 조를 짜서 의무적으로 실습에 참여해야 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까지 실습은 모두 끝났어야 했다. P는 실습기간 내내 단 한구의 시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겨우 시신의 손발톱과 머리카락만을 수습했을 뿐이다. 이번 주도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시신의 맨살에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쥬.

K의 말에 전화를 건 지도교수가 펄쩍 뛰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신을 두려워하면서 장례지도사가 되겠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물론 성실이야 하죠. 학과 성적도 우수한 편이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떻게 한 주만 더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과에서 배출하는 첫 회 졸업생인데 취업 문제도 걸려있고 아무튼 걱정입니다. 아, 저, 그리고...

지도교수가 말끝을 잠시 흐렸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일은 정말이지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날짜에 맞춰 급하게 원고를 넘기느라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이었다. 전통 장례의 연습과정을 사진에 담고 싶다는 지도 교수의 요청을 K는 완곡하게 고사했다. 학생들의 교재로 쓸 거라며 몇 번을 찾아와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K는 마지못해 단서를 달고 응해주었다. 몸동작만 찍는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올봄에 혜준이란 낮간지러운 인사말을 달고서 보내온 책자에는 K의 초상이 보란 듯 들어가 있었다. 마주한 책장에는 칠성판 위에 죽은 듯이 드러누운 젊은 여자도 보였다. 당시 여자 시신의 역할을 맡았던 학생이 바로 P였다.

마지못해 P가 시트 속으로 손을 밀어 넣는다. 여자의 옷을 벗기던 P가 뭔가에 놀란 듯 시트에서 흠칫 손을 빼낸다. P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다. 순간 유리창 너머에 있던 예의 우울한 검은자위가 안치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어선다. 검은자위의 걸음걸이에 맞춰 안치실 안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한다.

“누, 누구시죠?”

“뭐, 누구냐고? 그래. 나 여기 죽은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다. 어쩔래?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주치의란 노무 새끼 어딜 가서 나자빠졌는지 코빼기도 안 내비쳐 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질 않나.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가만히 뒷짐 지고서 사람 죽은 거 구경하러 왔어? 도대체 이 어린 여자애가 뭘 안다고 우리 집사람 시신에 함부로 손을 대냐고.”

“……저희 병원 실습생입니다만.”

“뭐, 실습생? 아,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검은자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K의 멱살을 와락 움켜진다. 유족들 여럿이 몰려와 검은자위를 떼어내 안치실 밖으로 끌고 나간다.

간신히 숨을 고른 K가 시트 속으로 손을 넣는다. 여자의 상의를 벗기던 K는 P가 왜 놀랐는지 금세 이유를 알아낸다. 사망진단서에는 최종 사인만이 기재된다. 고인의 임신 여부 따위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저 살집이 많다고 여겼던 여자의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있다. 여자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의사는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협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을 터였다. 구내전화 소리가 들린다. 전화를 받고난 P가 곤혹스런 얼굴로 K에게 다가선다.

“...저, 유족측에서 아이일 꺼내달라고 했다는데요. 고인이 힘들다면서.”

아마 유족 가운데 누군가 귀동냥으로 들은 바가 있어 그런 부탁을 했을 것이다. 간혹 죽은 임부가 관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후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복강에서 발생한 부패가스의 압력으로 인해 태아가 자연스레 밀려나온 것일 뿐이다.

화장을 하든, 토장을 하든 어차피 아이는 꺼내야 한다. 하나의 관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상례이다. 여자의 질구에서 회음 쪽으로 비스듬히 절개를 한 K가 여자의 질 속 깊숙이 손을 집어넣는다. 가까스로 손끝에 닿았지만 잘 잡히지 않는다. 잡으려고 할 때마다 물에 젖은 비누처럼 미끈거린다. K는 마음을 다잡고 손가락 끝에 힘을 모은다. 아이가 어렵게 산도를 향해 자리를 잡는다. 천천히 아이를 꺼낸다. 마침내 머리와 함께 몸이 빠져나오고 뒤이어 탯줄도 몽툰 팔려 나온다. K의 몸동작을 보면서 물끄러미 서있던 P는 당황했는지 엉겁결에 가위가 아닌 칼을 K에게 건넨다.

K 역시 아주 오래전에 칼을 꺼내든 적이 있다. 칼을 쥔 채 열차의 차창

밖으로 초조하게 시선을 던진 K는 스물한 살의 청년이다.

*

열차를 타고 떠난 길을 열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한사코 동행을 고집한 칠순의 노인은 기력이 달리는지, 열차를 타자마자 눈을 감았다. 얼마 전부터 사랑니가 저릿저릿하게 생살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다. K는 이를 앓다문 채 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차창 밖의 풍경은 서늘했다. 진눈깨비가 만드는 비스러진 빗금만이 내리 창을 채워나갔다. 어제 껌보와의 조우가 없었더라면 다다음달 중순께나 이 열차를 탔을 것이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K보다 먼저 손에 쥔 칼이 긴장했다. 밤사이 슬하계 버린 칼날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학교를 파하고 곧장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없었다. K는 껌보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들판을 뒤지고 다녔다. 여기저기 널린 M1 탄피를 주워다가 엿을 바꿔먹는 일에 마냥 즐거운 비명을 지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껌보가 노다지를 발견했다. 그건 수백 발의 탄피와도 바꿀 수 없는 무거운 쇳덩이였다. 땅에다 반쯤 몸을 묻은 쇳덩이를 파내던 아이들에게 커다란 폭발음이 덮쳤다. 그 사고로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가 나고, 누군가의 손목이 잘려 나갔다. 쇳덩이가 불발탄이었음을 알게 될 즈음 아이들은 다시 조심조심 철길로 나갔다. 점점 줄어들어 찾기가 수월치 않은 탄피 대신 침묵에 박혀있는 쇠붙이를 선택한 것이다. 사고 후에도 여전히 껌보와는 달리 K는 예전처럼 아이들과 어울릴 못했다. 혼자 기차길에 앉아 레일에 대못을 엮고 열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열차바퀴에 납작해진 대못은 영성하게나마 칼이 되었다. 그 칼이 제법 칼다운 형태를 갖추갈 무렵, K는 보선분소 선로원에게 붙잡혔

다. 껌보를 비롯한 몇몇이 멀찍이 줄달음질치고 있었다.

“이 자식이 철로를 죄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놈 봐라. 이젠 거짓말까지 하네.”

선로원의 다그침을 잠자코 듣고 있던 원장 아버지가 갑자기 K를 노려보더니 사정없이 뺨을 후려갈겼다.

“이 호로 새끼!”

원장 아버지의 서슬에 도리어 놀란 선로원은 잡고 있던 K의 멱살을 슬그머니 풀었다. K는 새삼 설움에 겨워 눈물이 났다. 누명을 쓰고 맞았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K를 더 슬프게 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곳에 한시라도 붙어있고 싶지 않아 그날 밤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거리를 떠돌다 허기에 지쳐 쓰러진 K가 낯선 방에서 눈을 뜬 다음 맨 처음 목도한 것은 시상판에 놓인 시신의 두 손을 편 다음 배 위에 모아서 묶고, 두 다리를 곧게 편 후 발바닥을 위로 젖혀 양발의 엄지발가락을 묶은 후 그 끈을 손을 묶은 끈과 연결하여 수시를 하던 얼금뱅이 노인의 모습이었다.

소한이 머지않아선지 어제는 날이 몹시 추웠다. K는 상갓집 일을 일찍 마치고 얼금뱅이 노인과 단골 선술집에 들어가고 있었다.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남루한 행색의 녀마주이는 K를 보자 고개를 외로 틀었다. 녀마주이의 한쪽 손목에는 갈고리가 걸려있었다. 깊게 눌러쓴 털모자 밑으로 드러난 인종의 조잡한 바늘자국을 보고서야 누군지 감이 왔다.

껌, 껌보?

그제야 껌보는 손에 든 집게까지 떨어뜨리며 반색했다.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아냐. 네가 ning말 치울 때, 난 시첵 치운 대구. 솔직히 아깐 네가 날 피하는 것 같아 정말 서운하더라.”

“그래, 그 말은 그만하자.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고아원에 들렀었다며. 참, 송인 잘 있지?”

노인은 국밥 몇 술 뜨더니 일찍 자리를 비켜주었다. 노인이 자리를 뜨자, 재보는 주머니에서 파랑새라는 이름의 담뱃갑을 꺼냈다. 재보가 불을 붙인 파랑새의 연기는 얼마 날아가지도 못한 채 잘금잘금 부서졌고, 술국에다 거푸 마신 대폿술에 지나간 추억도 바닥나고 있었다. 그 재야K는 진즉에 묻고 싶었던 말을 짐짓 건성으로 꺼냈다.

“여태 모르고 있었구나. 개 죽었어. 지난 여름에 목매달고……”

재보의 말에 K가 쥐고 있던 대폿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송이가 다니는 예배당으로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결 같았다. K의 편지는 늘 ‘사랑한다’로 끝을 맺었고, 송이의 편지는 늘 ‘주님 안에서’로 끝을 맺었다. 생각해보니 지난봄 이후로는 송이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 졸업반이 돼서 바쁠 거란 생각에 K 역시 답장을 채근하진 않았지만, 졸업식 때 만나자는 약속이야 이미 오래 전에 해둔 터였다. 누구보다 밝았던 송이가 갑자기 죽을 리 없었다. 자살이라면 더더욱 그러했다.

“왜 죽었는지 짚이는 덴 전혀 없니?”

K의 목소리가 사뭇 떨렸다.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이유를 모르고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난데없는 재보의 말이 K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고아원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택에서 원장네 식모 살다 죽었는데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 난들 어떻게 알겠냐?”

대꾸하기도 지쳤다는 듯 껌보가 되물었다. 송이의 죽음에 대해서 껌보 역시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었다. 그나마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송이가 묻힌 장소 정도였다. K는 원장 아버지의 사택 일을 거들고 있다는 언젠가의 편지글을 어렵지 않게 떠올렸다. K는 주먹이 파르르 떨렸다.

진눈깨비는 시나브로 눈으로 바뀌었다. 관도 없이 알량한 개관 한 짝 달랑 덮은 초라한 무덤은 몇 번의 삽질에 쉽게 제 속을 드러냈다. 삽 끝이 개관에 닿자, K의 손이 떨려 말을 듣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보다 못해 개관을 열어젖혔다.

“위메, 어째 시신이 요로코롬 말짱하다냐.

얼릉 요리 칼이나 내드라고.”

“칼은 뭐 하시게요. 어르신”

“뭇 따시 죽었는지 꼭 알아야 쓰겟답서? 니 삭시 될 뻔한 가시내가 힘들어 한께 속이 쓰라서 그란다.”

“아니, 어르신 망령드셨어요.”

거친 만류에도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K는 눈을 질끈 감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도 다 늙었는 갑다. 인자부터는 니가 염을 해야 쓰겠다.”

노인은 칼을 던져두고 술을 비우기 시작했다. 주저주저하던 K가 바짝 긴장된 얼굴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송이의 자궁 속에는 조막만한 아이가 있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낫 놓고 앉아있던 K에게 노인이 술병을 건넸다. 술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K는 송이의 살에다 구멍을 뚫었다. 비늘 가는 데로 실이 가면서 송이의 배에는 철길과도 같은 촘촘한 자국이 만들어졌다. 그 철길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

다. 송이의 무덤 옆에 도도룩한 애기무덤을 만드는 동안에도 눈발은 조금도 잦아들 줄 몰랐다.

*

“아깐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죄송은 무슨 얼어 죽을……그건 그렇고 사인은?”

“네. 61세 된 여자 분인데,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이에요. 그런데……”

“……”

“여기 보관된 지 벌써 나흘이나……”

보상 문제가 걸린 사고사는 유족들의 요구로 시신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뒤늦게 마무리된 모양이다. 정작 K의 걱정은 다른 데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이라면 P가 수습하긴 아무래도 벽찰 것이다. K는 P가 실습을 받고자 온 첫날을 떠올린다.

당시 K는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끝낸 군인의 시신을 인계받아 수습하고 있었다. 총기사로 사망한 시신의 두부에는 관자놀이를 관통한 구멍이 선명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규명하기 위해 시신의 두개골은 양쪽 귀를 중심으로 반듯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받을 심적인 고통을 고려하여, 유족 대표와 군 관계자를 제외하곤 아무도 입회시키지 않았다. 그때 실습생 중에서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한 P가 노크와 동시에 안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심한 충격을 받은 P는 그날 실습에 참여하지 못했다. 여하튼 문의 잠금 상태를 쟁기지 못한 건 분명 K의 불찰이었다.

P와 함께 다시 안치실로 들어선 K가 사체보관함의 손잡이를 쫓는다.

유리문으로는 그다지 감정의 동요가 없어 보이는 눈동자가 들락거린다. 시트를 슬쩍 걷자, 안치실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여자의 얼굴이 드러난다. 여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함몰되어 있다. 사인이나 시신의 상태로 미루어 여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나도 다 늙었는 갑다.

인자부터는 니가 염을 해야 쓰겠다.”

노인은 칼을 던져두고 술을 비우기 시작했다.

주저주저하던 K가 바짝 긴장된 얼굴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송이의 자궁 속에는 조막만한 아이가 있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녀 놓고 앉아있던

K에게 노인이 술병을 건넸다.

술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K는 송이의 살에다 구멍을 뚫었다.

바늘 가는 대로 실이 가면서 송이의 배에는

철길과도 같은 좁좁한 자국이 만들어졌다.

그 철길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송이의 무덤 옆에 도도룩한 아기 무덤을 만드는 동안에도

눈발은 조금도 잦아들 줄 몰랐다.

- 본문중에서 -

이대로 염을 할 순 없다. 산사람의 살을 기우는 게 의사의 몫이라면, 죽은 자의 살을 깎는 것은 어쨌거나 염장이의 몫이다.

마주보고 있던 P가 시신이 놓인 카트 옆을 돌아와 K에게 바늘을 건넨다. 만일 비좁은 방안이었다면 P는 시신의 종아리를 들고 그 밑으로 바늘을 건넬 것이다. 염할 때 쓰게 되는 가위나 칼 같은 쇠붙이는 절대 망자의 몸 위로 건네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다룸에 있어 소나 돼지 등의 기축을 다루는 것 같은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땀. 한 땀. 상처 부위에 날카로운 바늘을 꽂는다. K의 껌땀질은 신중하면서도 정교하다. 어느 한군데 들성들성 시치거나 호는 법이 없다. 나 이 탓으로 힘에 부치는지 봉합을 끝내고 수의를 입힌 K가 아예 손동작을 멈추자 내심 불안하게 K를 바라보던 P의 손이 드디어 움직인다. P는 시신이 깔고 있던 장포를 일곱 가닥으로 찌고 그 가닥을 다시 찌어 세 가닥씩 낸다. 여자의 머리로 향하던 P의 손이 멈춰선다. K가 손짓으로 여자의 아래 부위를 P에게 가리킨다. 남자는 위에서부터 매고 여자는 아래서부터 매어 올려야 한다. 남자는 가슴을 단단히 매고 여자는 아랫배를 단단히 매어야 한다는 실습교재의 내용을 P는 그제야 떠올린다. 발에서부터 머리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양쪽 가닥을 푹푹 동여매자 매듭은 모두 스물 하나가 된다. 시신의 머리와 발끝이 일직선이 되는지 가만 지켜보던 K의 손이 되살아난다. 중목 세 개를 관 위에다 걸치고, 횡교를 중목 위에 안배한다. 다시 종교를 편 다음 그 위에 여자를 올려 놓기까지 서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걸쳐 있는 중목을 천천히 빼내어 여자를 관속에 넣은 K는 기력을 다했는지 관을 붙잡고는 일어서 질 못한다. 이제 유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일만 남았다. P가 유리문 너머로 눈동자를 찾았지만 합의가 끝난 눈동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퇴근 안하세요?”

“먼저 가게. 난 좀 들를 데가……”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간만에 밝은 표정으로 P가 총총 사라진다. 정각 11시. 지하 안치실에 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든다. K는 시신들의 빈소가 차려진 1층 로비로

향한다. 101, 102, 103…… 늦은 시간인데도 발길들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도 곧 고요가 찾아들 것이다. 장례식장의 규칙으로 인해 유족이 아닌 문상객은 자정이 되면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한다. 상주도 자리에도 없고 번듯한 화환조차 없는 104호의 정경은 유독 쓸쓸하다. 향은 이미 스러지고 촛불만 오도카니 고인의 영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 속의 고인은 교통사고 이전의 온전한 얼굴이다. 고인의 눈동자를 일별한 K가 서둘러 자리를 뜬다.

사물함에 면도기를 꺼내들고 화장실로 간다. K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하루 사이에도 털은 꽤나 웃자라있다. 구레나룻을 밀던 K의 손동작이 멎는다. 기억속의 그날처럼 멎은 자리에서 싸하게 피가 배어난다.

*

그날 눈은 그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눈발은 더욱 굵어졌다. K는 목전주 외등을 등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불빛으로 인해, 상대가 K를 볼 수 없고 K만 상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분노한 K의 손이 한순간 허공을 갈랐다. 한쪽 눈이 칼에 찢린 초로의 남자는 욕,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눈 위에 꼬꾸라졌다. 한때 K가 원장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의 눈에서는 핏물이 줄줄 흘렀다. 평생 고통을 받으라고 한쪽 눈은 남겨두었다.

K는 수소문 끝에 영주가 산다는 도회지 자취방도 찾아냈다. 초급대학 졸업을 목전에 둔 영주는 시퍼런 갈을 든 복면의 K를 전연 알아보지 못했다.

“살, 살려주세요. 저 이제 금방 결혼할 몸이거든요. 돈, 돈이 필요하세요? 돈이라면 여기 있어요. 제발.”

영주의 읍소도 외면한 채 K는 작정한 듯 영주의 몸을 파고들었다. 난생 처음 갖는 관계는 쉽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영주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었다. 영주의 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야 K는 바지춤을 추슬렀다. K는 실성한 듯 없어져 있는 영주의 꼬리뼈 언저리에서 말라붙은 선혈과 함께 가뭇가뭇하게 웅크린 점들을 보았다.

“술로 날밤을 지새우던 K가 경찰서에 지수를 한 건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나서였다.”

‘이 얼굴 맞아? 이 얼굴이 맞냐고? 제발 좀 똑바로 확인해보란 말야. 이 미친놈의 새끼야.’

신랑의 얼굴이 붉어질 때마다, 신부의 얼굴은 파래졌다. K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신부의 완강한 부인으로 강간은 K의 송치서류 죄목에서 빠져있었다.

교도소 안에서 K는 무료한 시간들만 죽이고 있었다. 늘상 똑같은 풍경이었다. 푸른색은 수인이었고, 암회색은 담장이었다. 일상도 단순했다. 늘 똑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취침했다. 교화용으로 배포된 성경을 틈틈이 읽어도 봤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을 낳을 뿐이었다. 단지 K가 여타 재소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출소에 대한 열망 정도였다. 안이나, 밖이나, 희망이 없기는 매 한가지라고 K는 생각했다. 가끔씩 두터운 철문이 열릴 때마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이 들어오곤 했고, 갱생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이 나가곤 했다. 그 들고나는 무리들 중에 재보를 본 건 지루했던 교도소 생활의 끝물이었다.

“어쩌다 여길……”

“쓰리하다 재수 없게 잡혔지 뭐.”

“쓰리?”

“엄마, 넌 그것도 모르냐? 남의 물건, 슬쩍 하는 거.”

“그럼 녀마는?”

“녕마? 아. 그거야 눈속임이지.”

“팔 한쪽 없어도 그게 돼?”

“그러니까 더 잘되지. 상대가 처음부터 의심을 안 하거든.”

“아……”

“그나저나 여긴 너 같은 놈이 들어올 데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냐?”

“……강간”

“뭐, 네가 강간?”

째보는 입이 찢어져라 웃었다. K는 염하는 일 말고는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었다. 말동무가 생기자 지나간 얘기를 툭툭 털어놓는 쪽은 째보였다. 째보는 K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너 영주 잘 알지? 거, 있잖아. 원장 딸. 걀 대학도 나오고 어디 좋은 데로 시집간 줄 알았더니 술집에 나가데. 옛날 같으면 나 같은 놈이 어디 꿈이라도 꿨겠냐? 한탕 할 때마다 갔으니까 한 서너 번 같이 잤나. 언제 배웠는지 그년이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 못 믿겠어? 정 말이라니까. 가만 있자. 이걸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인데 개 엉덩이 밑에 점이 있거든. 몇 개더라. 하나, 두울,…… 셋?”

“……”

그 뒤로 몇 마디 더 나눴을까. 울분을 참지 못한 K가 예리한 갈고리로 째보의 입을 찢어놓았다. K는 그날부로 독방에 이감되었다.

*

K는 104호 여자가 있던 사체보관함 속으로 자신의 몸을 집어넣는다. 문을 닫자 나지막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평소보다 꽤널 속 온도를 더 낮춘 탓인지 냉기가 금세 뺏속까지 파고든다. K는 두 손을 꼭 움켜쥐는다. 어렴풋한 풍경이 주마등처럼 K의 뇌리를 스친다.

우두두둑. 우두두둑. 피난민 행렬을 향해 대대적인 기총소사가 지나간다. 사내의 복부에서 쿵쿵 솟구친 불꽃이 온몸으로 번진다. 사내의 아내도 가슴에 잇달아 붉디붉은 수를 놓는다. 초연이 쓸고 간 푸르른 들판에는 붉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난다. 엄마. 아빠. K는 얼결에 자신의 손을 놓아버린 사내와 사내의 아내를 애타게 부른다. 영문도 모르는 여자애는 제 오빠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자지리지게 울어댄다. 여자애 눈가에 까만 점 하나가 유독 선명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호흡이 가빠진다. 정신도 가물가물하다. 어디선가 어르신들의 상엿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살던 살림 헌신 벗듯 벗어두고, 대궐 같은 집을 빈집 같이 비워두고, 청춘 같은 사람에게 어린 자식 맡겨놓고…’

K는 오래도록 자신의 숨통을 지르고 있던 녹슨 대못 하나를 빼내려 안간힘을 쓴다. K의 손끝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의 꼬리뼈를 만졌던 감촉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04호 여자는 K가 여태 살아오면서 살을 섞은 단 한 명의 여자다. 이제라도 서두른다면 영주를 만날 수 있을까. 외로운 저승길에 길동무가 되어주고 싶다. 자, 어서 눈을 감자. 눈을 감고 날아보자. 바빠 눈을 감고 날아오르려는 K의 발목을 아픈 기억 하나가 끝끝내 붙잡는다.

“그럼 여기서 살만큼 살았네. 출소는?”

“다음 달이 만기야.”

“그나저나 이제 송인 완전히 잊었냐?”

“잊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송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네 눈에서 불이 번쩍이는 것 같아 그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

“.....”

“하긴 다 지난 일이지만. 나도 그만한 일로 목 뭉 줄은 정말 몰랐다.”

“그만한 일, 이라니? 너 뭐, 알고 있구나?”

“아, 아냐. 암 것도.”

“괜찮아. 네 말대로 이젠 다 지나가버린 일인데.”

“그래, 까짓 거. 실은 나하고 애들 몇이서 송이한테 장난 좀 쳤거든.”

“.....장난?”

“거 있잖아. 짜식, 뻘히 다 알면서.”

“.....”

“야, 야, 너 왜 이래?”

*

다음날 오후 세시. P는 한쪽 눈을 뜨고 죽은 시신의 눈동자에서 새를 본다. 검고도 희고, 희고도 검은 눈동자에는 아득한 곳으로 가없이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박혀있다. 마치 숨통이 가슴뼈에 감겨있어 울음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린다는 두루미 같다. K의 눈을 곱게 쓸어내린다. 어릴 적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는 눈은 쉬 감기지도 않는다. 산 사람이 입은 옷보다 더 가지런하고 구김살 없이 수의를 입힌다고 했던가. 먼 길 떠나는 K의 손에 뭔가 꼭 쥐어져 있다. 어렵사리 손을 편다. 너무 오래되어 색까지 바랜 어린아이 고무신 한 짝이다. 천금을 댈기 전에 관에다 함께 넣는다. 발상은 고사하고, 죽음을 슬퍼해 줄 가족조차 없는

K에게 남은 단 하나의 유품이다. 천판을 덮고, 은정을 박은 다음, 장포로 결관을 하자 딱히 영좌에 놓을만한 사진이 없다.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하니 교재에 있는 사진을 쓰라고 한다. P의 실습은 오늘로서 끝이 났다. 안치실 문을 나선다. 아직 시신은 화장 전이라 얼어있지도, 흐물흐물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사체 보관은 4℃가 적온이다. ■■■■



나는 오늘도 방공장 기계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
프린터기가 뱉어내는 종이를 다듬어 묶어낸다.

안성두 울산 울주경찰서 경장

A4와 로즈마리

“앗!”

A4 용지를 뽑아 드는 순간이었다. 흐느적거리며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종이가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씨걱씨걱 춤을 추었다. 하얀 종이 모서리가 긴장에 풀린 정신에 채찍을 했다.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감싸쥐자 서류뭉치가 흩어졌다. 갈라진 피부 틈에서 핏방울이 맺혔다. 채찍질에 대한 보복으로 멀쩡한 종이가 분쇄기에 무참히 살해됐다. 우웅- 자르르- 양갈진 비명을 토해냈다. 오싹해진 팔과 어깨에서 시작된 소름이 겨드랑와 옆구리를 지나 허벅지로 타고 흘렀다. 무슨 험상궂은 일이 생기려는 것일까? 종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미간에서 시작되어 귀 뒤를 스쳤다.

두리번 두리번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포개져 있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엇갈리고 있었다. 시침이 부지런히 다섯 바퀴를 더 돌아야 비로소 자유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시계는 요행을 바라는 철면피 얼굴을 짓궂게 풀무질했다. 밀려오는 새벽잠을 깨우려 잘래잘래 도리질을 쳐보지만 눈꺼풀에 나락 석 섬을 올려놓은 듯 무겁기만 했다. 책상 위에 놓인 로즈마리 화분을 흔들려 진한 향기를 맡아도 무딘 뇌는 상황변화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책상서랍을 열었다. 첫눈에 띄는 것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눈을 부라려 너저분한 서랍 안을 살폈다. 마땅한 게 보이지 않아 깊숙이 손을 밀어 넣어 더듬었다. 서랍 모퉁이에 밀랑밀랑해서 만만하게 여겨지는 물체가 손끝에 닿았다. 뭘까? 호기심에 잠이 달아났다. 촉감이 부드러워 행여 도망이라도 칠까 싶어 껌싸게 잡아챘다. 연두색 치마를 입은 흰머리에 돌돌 말린 때를 틀어냈다. 꺼무튀튀하고 지저분하기만 하던 놈의 엉마를 뜯어내자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칼날이 마모되어 있어 두툼한 A4용지에 푹 꽃아 눌러 끝마디를 잘라냈다. 놈이 두루 멍실한 게 모양새가 없어 보여 예리해진 칼날을 곧추세워 모를 따 육각형으로 성형했다. 볼을 문질러 시꺼먼 때를 벗겨 내던 놈이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볼펜을 눌러 육면체 몸뚱이에 각기 다른 숫자를 뜻하는 표시를 했다. 주사위를 낚다 책상 위에 던졌다. 툭툭 튀며 구르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방정맞아 버릇없어 보였다. 책상 밑에 떨어진 주사위는 네 개의 점을 위로 향한 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차! 괜한 짓을 했다 싶어 주사위를 책상서랍 구석에 처박아 넣은 뒤 자물쇠를 채워 감금했다.

어둠의 끝자락이 새벽을 털며 일어설 즈음이었다. 혼치 않는 도시의 사찰에서 어느 노승이 두드리는 범종 소리와 함께 밀려온 여명이 아이보리색 블라인더에 차단되어 둔탁했다. 죽음을 확인하는 음산하고 섬뜩한 전화 벨소리가 팩스 소리와 함께 내선으로 연결된 여섯 대의 전화기에서 일제히 울려 퍼졌다. 흩어지는 정적, 전화벨 소리만 사무실에 가득했다. 특종이라도 잡은 냥 출입기자의 찰랑찰랑한 목소리가 사뭇 진지했다. 기자의 집요하고 성가신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사무실에 소동이 벌어졌다.

검은색 아스팔트 위의 혈흔은 색깔의 배합이 오묘한 자줏빛에 가깝다. 그러나 노면이 콘크리트이거나 많은 혈흔이 도포 되었을 경우 선홍색이 된다. 전자에 해당된다. 널브러진 망자한테서 혈흔이 빠져나와 낮은 지대로 흐르다가 하수구 쪽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회색 승용차에서 냉각수가 흘러 항불을 피운 것처럼 허연 수증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고 30미터나 더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 정지되어 있었다. 허리가 잘려진 가로수, 비스듬히 곡선을 긋는 타이어자국, 사고 차량의 전면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와 충격 되면서 거미줄처럼 생성된 작은 구멍, 그 구멍에 한 움큼 정도 묻은 반백의 머리카락, 흩어진 유리 조각 등이 당시의 참혹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빠른 신고로 사고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망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운전자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명을 해도 사고경위는 명확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우측 옆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 한 것이었다. 운전자가 발뺌을 해도 사고조사에 이력이 쌓이다 보니 사고 전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졌다. 사고를 당하기 직전 망자의 동선을 따라 커브 길에서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를 따라 사고 지점까지 걸었다.

비틀거리는 몸뚱이는 이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뺨한 눈 치켜 뜨고 휘영청 밝은 달로 새벽 별을 훑었다. 그의 귀에는 부딪치는 술잔 소리가 쟁쟁했다. 눈에는 환각적인 사이키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앞치락뒤치락 아스팔트가 별떡 일어나 사정없이 그의 머리를 쳤다. 노란 잎이 무성한 은행나무 가로수에 얼굴을 붙인 채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시비를 걸다가 샷대질을 해댔다. 인도와 차도 사이 연

석에 걸터앉아 구시렁거리다가 볼라드를 잡고 흔들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의 손에는 아직도 소주병이 쥐어져 있었다. 역광에 비틀거리는 검은 그림자, 그 그림자 속으로 차갑고 육중한 쇳덩어리가 쓴살같이 내리 꽃혔다.

검은 봉지에 든 망자의 옷가지를 꺼내 뒤져봐도 신분을 확인할 만한 종이 조각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보아 혹 남천교 밑 걸인일까 싶어 수소문을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읍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유선방송사에 자막 협조를 요청하지만 이들이 지나도록 유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안실 관리인의 핏기 없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호러영화의 실감나는 조연 연기를 보는 듯 했다. 그가 영안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파란 입술에서 하얀 연기가 몰아쳤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혹 내 손등에 스칠까 싶어 몇 발자국 물러서 따라갔다. 망자를 똑바로 쳐다보기 싫어 일부러 자동카메라에 눈을 바짝 대고 파인더로 앞을 살피고 있었다. 파인더 속 상단에 배터리가 깜빡이는 것으로 보아 플래시가 터질지 의문이었다. 냉장고 칸칸이 망자들의 이름이 써어있었다. 관리인이 허리 정도 높이의 냉장고 문을 열어 사체를 꺼냈다. 영안실 바닥으로 하얀 냉기가 쏟아져 무대위로 뿜어져 나오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자욱하게 깔렸다. 관리인의 발이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출렁이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흰색 거즈에 망자가 덮여져 있었다. 관리인이 빨강계 물든 거즈를 걷어 냈다. 서걱거리는 가위 소리에 망자가 입고 있던 옷이 갈라져 몸에서 분리됐다. 파인더 속의 망자는 멀어 보이고 작아 보여 관찰하기에 한결 수월했다. 한 번 플래시가 터진 후 충전하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됐다. 플래시가 두 번 터진 후 더 이상 카메라 셔터가 작동하

지 않았다. 사진기를 목에 걸고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모든 게 흑백으로 보여 맨눈으로 보는 것 보다 훨씬 편했다. 사체는 사고 충격으로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머리, 얼굴, 가슴, 다리가 잘리거나 찢기거나 꺾여 있어 처참했다. 얼굴의 절반 정도는 형체가 없어서 수배전단을 만들 수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망자의 팔을 잡아끌었지만 뻗뻗하게 굳어있었다. 손가락을 펼쳤으나 이내 오그라들어 펼쳐지지 않았다. 따뜻한 내 손이 차가운 사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온기를 받은 오른손이 일시적으로 핏기가 돌면서 살아나고 있을 때였다. 관리인이 다가와 대뜸 왼쪽 손가락을 강제로 힘껏 펼치자 뿌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놀라지 마소, 연골 부러지는 소리니.”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지문을 채취했다. 선글라스를 벗어 머리에 걸쳐 끼며 망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 시선을 벽으로 돌렸다. 관리인이 이런 것 처음 보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행여나 부정을 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아내는 흰 종이에 왕소금을 약봉지처럼 접어 호주머니에 넣어 두곤 했다. 혹 보아서서는 안될 것을 어쩔 수 없이 보아야할 입장에 처하면 소금이 부정을 막아준다는 터부한 믿음 때문이었다. 관리인이 천장으로 향한 망자의 목을 왼쪽으로 돌리는 듯 해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따라갔다. 망자의 오른쪽 얼굴은 깨끗했다. 망자의 옷매무새나 생김새를 보니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짐작이 갔다. 깡마른 체격에 키가 작고 옷은 누추하며 손톱 사이에 때가 끼어 있었다. 얼굴은 검으나 농사짓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햇볕에 탄 얼굴

이 아닌 술에 찌든 검푸른 얼굴이었다.

그가 살았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연리지로 만든 출입문 테두리가 그럴싸해 보였다.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어스름한 판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찌릿한 구린내가 코를 찔렸다. 부엌이며 주방이 따로 없는 그만의 원룸이었다. 흐트러진 이불과 옷가지들 사이에 빈 그릇이 나뒹굴고 있었다. 먹다 남은 밥공기 주변에 검푸른 곰팡이 포자가 뭉쳐져 있었다. 마땅히 발자국을 놓고 들어설 틈이 없어 조심스레 발끝으로 물건을 요리조리 헤집었다. 조심조심 한발씩 내 디뎠지만 바지가 량이에 스친 포자는 공기를 타고 날아 올랐다. 콧속으로 빨려 들어간 포자가 심한 재채기를 연발시켰다. 연고자를 찾기 위한 무엇인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재도구들을 뒤적였지만 아무런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구석구석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부패된 채 뭉쳐져 있었다. 선반 위에 비닐 종이 같은 물체가 얹혀 있어 손을 더듬었다. 받침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커피 가루가 어깨 위에 흩어졌다. 그러는 동안 이미 코의 점막은 내성이 생겨 향긋한 커피냄새와 구린내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건드리면 사그라질 듯 한 나무기둥과 석가래, 그리고 구멍 뚫린 벽, 그 사이로 석양이 새어 들어왔다.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난한 노동자가 미래의 희망을 예견했을까? 아니면 불행을 예견했을까? 비 한 방울 새어 들어올 리 없는 튼튼한 콘크리트 천장에서 이따금씩 교량 이음새를 밟고 지나가는 둔탁한 대형 화물차량의 엔진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다. 소득 없이 출입문을 밀고 나서려는데 출입문 위 뼈죽 튀어나온 나무 조각에 누런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날름 집어 봉투를 열어보니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 오공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디자인이 조잡하고 누렇게

빛이 바래 20년도 더 되어 보이는 생소한 신분증이었다. 국가가 인정하는 사진과 지문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간첩이나 불순분자로 낙인찍히던 80년대 초반에 발급 받은 것이었다. 그도 그 시절의 불심검문에 세뇌되었는지 신주단지처럼 모셔 두었던 모양이다.

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증 뿐이었다. 전산조회를 통해 오래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과 등본상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행여나 원적지와 본적지에 연고자가 있는지 조사키 위해 해당 면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상처가 깊은 곳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양철니가 든 치아 사진을 첨부한 변사자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도록 끝내 연고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고지 행정관서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행려망자로 처리하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사체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즈음이었다. 행정기관에 사체만 인계하면 종결되는 상황에서 연고지에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오공수의 연고자를 찾아 내려보냈는데 오늘쯤 울산에 도착할 것이라는 연고지 행정관서 공무원의 전화였다.

연고자가 도착하기에 앞서 오공수의 교통사망사고 원인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최종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10센티미터나 되는 두터운 서류철이 어느새 손 때가 묻어 반질거렸다. 교통사고현장 사진과 사체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가해차량이 진행하였던 방향에서 찍은 사진, 횡단보도 위의 혈흔, 아스팔트에 패인 스크래치, 일그러진 오공수의 브로마이드, 승용차 앞 유리에 묻은 머리카락을 확대한 사진들이 빈틈 없이 책상 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 잘 찍힌 것을 골라내어 흰 종이에 붙이고 여백에 설명을 곁들였다. 주위의 시선

은 아랑곳없이 사진을 분석하는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파트너가 어깨 넘어로 다가와 사진을 훑쳐 보다가 싶더니 들고 있던 햄버거를 오공수의 사체 사진 위에 퍽 올려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배고픔을 참고 있었던 터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파트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감사”라는 말만 던지고 햄버거를 주워들었다. 그는 보고서를 주르륵 훑어 뒤적이며 사건 경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가 싶더니 우유를 놓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을 서두르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명함을 내밀며 오공수의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 물어왔다. 그가 다가서는 순간, 비릿한 생선냄새가 물씬 풍겼다. 입을 가려 애써 표정을 감추었지만 알아차렸는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말했다.

“사고로 죽은 오공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공수는 집도 절도 없었는데 본인이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제가 거두어 잘 천도하겠습니다. 저와는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 고용주로서 일체의 사심은 없습니다.”

“절은 없어도 집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그게 집입니까?”

사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진이 붙어 있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혀 있는 오공수의 이력서를 건넸다. 말의 요지는 오공수가 몇 달 전부터 오갈 때 없다며 취업을 부탁해 자신이 운영하는 어묵공장에 일을 하게 했단다. 오공수의 2개월치 갑근세 영수증을 내밀며 사체(死體)를 인수하기를 원했다. 입가에 묻은 게거품을 닦아내며 한참 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어묵공장 사장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땅자를 인수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해 이유를 묻는 차에 그의 옆구리 사이

로 얼굴을 내밀며 오공수의 유족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유족이 열변을 토하는 동안 어묵공장 사장은 슬그머니 콩무늬를 빼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제가 오공수의 칠촌형 오영택입니다.”

“칠촌이먼? 선생님께서 칠촌형이세요? 고인의 자녀분이나 또 다른 가족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동생은 여태 장가도 못든 총각입니다. 처자식도, 부모도, 사촌도 없으니 제가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동생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공수가 자라온 환경과 가출을 하게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성장배경은 30년 전으로 그슬러 올라갔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결혼할 여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렸단다. 줄곧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안 오공수가 가출을 해 지금까지 소식이 두절인 상태라고 했다. 일그러진 오공수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 속에 사람을 흘깃 쳐다보며 왈각 눈물부터 쏟아냈다. 사진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체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틀림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한사코 망자를 고향으로 모셔가기를 원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사체 인계를 일주일 후로 미루었다.

오영택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체를 모셔가야 한다며 하소연을 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조의 언동을 일삼거나 생떼를 부렸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 완강히 보류시켰더니 급기야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말았다. 담당경찰관이 뚜렷한 이유없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진정서와 함께 인

터넷 민원을 제기했다. 상부에 자초지종에 대해 해명하느라 한동안 곤욕을 치러야만했다.

공휴일 늦은 오후, 팩스와 전화벨 소리에 당직 근무자들의 탄식과 한숨이 온 사무실을 돌았다. 종일 시내를 누벼도 교통사고를 목격하기가 드문데 연이은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로 팩스는 새 종이를 연거푸 삼키고 있었다. 마지막 용지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A4 용지를 한 움큼 끼웠다. 사무실은 어느 때처럼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결백을 주장하는 사고차량 운전자들의 언성이 찌렁찌렁 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는 법은 없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팩스 보고서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다다르기 전부터 양방향 차로에 차량이 심하게 정체되어 있었다. 3-4대의 견인차량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하며 갓길을 질주했다. 긴급차량인 경찰차도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견인차량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순찰차 옆을 쓴살같이 지나갔다. 그들이 이판사판 곡예운전을 하는 이유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사고차량을 견인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생존의 법칙은 존재하는 모양이다. 남천교 위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4대의 차량이 서로 뒤엉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있었다. 중앙선을 침범한 엑셀 승용차의 타이어 자국이 아스팔트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운전자는 커브 길을 진행하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핸들이 꺾여 중앙선을 넘었다고 항변했다. 더듬거리는 운전자의 언행으로 보아 허위진술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량이 워낙 남아 있어 그럴 만도 한 일이었다. 현

장조사가 끝나고 대기중인 4대의 견인차량들이 사고차량들을 사이좋게 각 한 대씩 견인해갔다. 차량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여러 가지 문양의 페인트를 복잡하게 그려 넣었다. 사고현장 아스팔트에 새겨진 흰색 페인트는 오랫동안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교육현장이 되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장조사를 마친 뒤 다리 위에 서서 신불산 능선을 따라 지는 노을을 쳐다보며 담배를 물었다. 호주머니 속에 든 라이터를 꺼내다가 실밥에 걸려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리 밑을 내려다보니 라이터는 보이지 않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오공수가 살았던 곳이었다. 다리 밑 흐르는 강물에 오막살이가 반사되고 있었다. 바람에 굴절되어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상기한 오공수의 얼굴이 일렁이는 수면 위로 투영되었다. 수평감각이 마비되는 듯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고 다리 난간에 팔을 고여 중심을 잡았다. 엉성한 오막살이 지붕 사이로 사람 형체의 실루엣이 지나갔다. 노인은 뭔가를 찾는 듯 물건을 들었다 놔다 하며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혹시 오공수의 가족이 찾아왔을까 싶어 단숨에 다리 밑으로 뛰어 갔다. 혈떡이며 출입문을 확 열어젖히자 노인이 놀라 움찔 돌아봤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물건을 뒤지고 있습니까?”

“간 떨어질 뻔했소! 좀 살살 하시오.”

“오공수 씨 가족 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가 높어 내 집을 제집 드나들 듯 하더니만,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들렸소만? 경찰관이 여기에 올 일이 뭐 있소? 이런 누추한 곳을.”

노인은 오공수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의 사망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선 채 정색을 했다. 오공수의 사망 사실을 반복해서 전하자 고개를 잘래잘래 저으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급기야 노인의 움푹 패인 눈 밑에 어두운 다크써클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도 충격도 아닌 서운함 같은 것이 노인의 깊은 이마주름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자지르질 듯 기침을 해댔다. 길게 늘어진 흰 수염에 맺은 가래가 달라 붙자 손으로 훑어내렸다. 그 손으로 반짝거리는 대머리에 몇 가닥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걸인으로서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외모와 행동에 실소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노인은 놓고 있던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끈이 긴 가방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대뜸 다가가 가방 끈을 키에 맞추어 줄여 건넸다.

“마음 변하기 전에 물어 볼 것 있으면 얼른 물어보소.”

“댁은 어디세요?”

“우리 집? 저기 보이는 고속도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다리 밑이지! 우리끼리는 남천내 4번지라고도 부르오만. 한 동안 시내 지하도에 출장을 갔다가 달포만에 돌아와 보니 오가 놈이 보이지 않았는데, 객사를 맞고 말았나보네.”

“오공수 씨한테 가족이 있던가요?”

“꿀에 물건은 좋았던지 가끔 애인이 찾아오더구먼. 허나,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소. 한참이나 젊었을 때 일이지만, 오래 전부터 사귀어 왔던 것은 틀림없어 보이데. 쳇! 오가 놈, 젊었을 때에는 잘 나가는 제비족이었다나. 인제 늙고 힘없으니 그년 코빼기도 보이지 않소!”

오공수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터주대감을 쫓아내고 무단으로 새 집을 지어 입주하였다는 말을 했다. 노인은 계속되는 질문에 성가신 듯 못 들은 척하거나 혀를 걷어차며 구시렁댔다. 미안한 생각에 부탁조로 질문을 던졌지만 고의로 동문서답하며 귀찮아했다. 오공수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안타깝게 생각지 않은 듯 태연하게 돌아섰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의 무게일까? 아니면 고단한 노동자의 세월의 무게일까? 그것도 아니면 등에 얹힌 노을의 무게 때문일까? 좁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리를 맞아 희끗희끗 마른 풀숲을 지나 멀리 고속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누군가가 자꾸만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엑셀을 깊이 밟았다. 연신 룸미러를 힐끗힐끗 쳐다보아도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속도계는 규정 속도보다 40킬로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달리고 있었으나 그다지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 딜레마-존(Dilemma-zone) 부근을 넘을 때 신호기에 황색신호등 켜졌다. 동시에 제동을 할까 가속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 차에 횡단보도에 한 아이가 뛰어 들어왔다. 귀밑머리가 위로 당겨지면서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이 쭈뼛 켜졌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눈을 꼭 감았다. 정지된 차량 앞 상황이 두려워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주변이 조용해 서서히 눈을 뜨자 어린 아이가 범퍼 앞에서 채 한 뼘도 되지 않은 위치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골목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짧은 순간이지만 온 몸에 식은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잔뜩 주눅이 든 속도계는 단 40킬로미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을 들어서자 동료들이 목과 어깨를 타고 흐르는 땀을 보며 한

마디씩 내 뺐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리벉벉하게 코너를 돌면서 책상모서리에 허벅지를 짚고 말았다. 허리를 반쯤 접었다가 의자를 부여잡았다. 절룩거리며 태연한 척 의자에 앉았다. 대기석에 중년의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 작은 거울을 손바닥에 얹어 쳐다보며 입술을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루즈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거울을 핸드백 속으로 스르르 밀어 넣었다. 민망해 못 본 척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한동안 아무 말을 건네지 않았다. 책상 위에 우편물이 놓여져 있어 겹봉을 찢으며 말을 걸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오공수의 사촌 여동생 오한심 이랍니다.”

그녀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를 애써 끄집어내며 오공수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치 준비된 원고를 읽는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음이 섞여 있었고 농염하게 느껴질 만큼 붉은 입술에서 가식적인 언어들 이 쏟아졌다. 나의 무표정한 모습에 머쓱했는지, 제조된 감정에 목이 잠겼는지, 목소리가 푹푹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말이 길어질수록 발음이 흩어지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 넘어에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떡 하니 서서 경청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그녀의 뒤통수에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

“니가 우째 사촌이고! 오촌이지. 경관 님, 지가 진짜 사촌 동생 오공민이라예. 이 여자는 오촌 아인고! 사촌하고 오촌하고 누가 더 가깝습니껴? 오한심, 너 참말로 한심하데이.”

그녀가 놀라 벌떡 일어섰다. 벽이라도 뚫을 것 같은 시선이 교차했다. 프린터기 위에 놓은 로즈마리 화분이 흑 넘어질세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습성이 까다로운 로즈마리에 침이라도 튀거나 담배연기를 쬐

면 이내 시들시들 해지기 십상이었다. 이번이 네 번째 옮겨 심은 로즈마리였다. 로즈마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과잉보호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다. 나중에는 사무실 환경이 그다지 맑지 않아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잎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뿌리는 새까맣게 썩어 있었다. 가끔 누군가로부터 음료수나 담뱃재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녀석은 조금이라도 공기가 탁하거나 물 조절이 잘 못 되면 시들어 버렸다. 늘 별 좋은 명당에 앉혀 두거나 문열린 창가에 두어야 했다.

사체 한 구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인수하겠다고 하는 까닭을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있던 나는 태연한 척 그들의 언동을 살폈다.

“내가 몇 번이나 찾아와 사글세방도 구해 줬고, 용돈도 쥐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불쌍한 우리 오빠, 그 때 내가 고향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모셔가야 합니다.”

“뭐라꼬? 니가 방을 구해 줬따꼬? 미친년이 달래 캐고 있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데이! 내야 말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꼬, 형님한테 용돈도 주고 집으로 댈꼬 올라꼬 얼마나 노력한 줄 아나 말이다!”

“싸우지만 말고 조용히 좀 하세요!”

사무실에 잠시 정적이 돌았다.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멧쩍은 듯 고개를 굽적이고 오한심을 옆으로 밀쳐내며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속시켰습니다.”

그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우편물을 펼쳐 보았다. 오공수의 연고지 행정관서에 보내 온 호적등본과 회신 공문이 들어 있었다. 두터운 호적

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나 온통 한자에다가 가족 관계가 복잡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 이름을 적어 넣었더니 한결 이해가 쉬웠다. 등재된 사람들 모두가 사망하여 큰 셀 안의 이름자에 굵은 사인펜으로 엑스 표시가 되어 있었다. 호적등본 맨 마지막장에서 오공수의 이복 여동생이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영택과 오한심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샷대질을 해가며 다투고 있었다. 한쪽 눈이 따끔해짐을 느낀 뒤 그들의 말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나지막하게 들렸다. 사무실 주변이 온통 생소하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형광등 불빛이 파스텔처럼 희뿌옇게 번졌고 동료들의 움직임이 느릿느릿한 게 사물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보였다. 그들이 서로 부라리는 눈과 함지박만 한 입만이 뻑뻑하고 흐릿한 각막으로 투영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황사주의보와 건조주의보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눈 꼬리에 인공눈물을 떨어뜨렸다. 순간, 마치 고층빌딩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온 몸이 공중에 떠있고 귀가 멍해지는 이명현상을 느꼈다. 차를 몰고 꼬불꼬불 한 산길을 내려올 때면 영락없이 내 귀는 미세한 기압의 차이를 감지해내곤 했다. 그럴 때면 일부러 목을 쪽 빼고 트림을 하거나 입을 다문 채 코를 막고 공기를 힘껏 뱉어내면 이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충고에 다시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다. 입안에 침을 가득 고였다가 몇 번을 삼켜도 별 반응이 없다. 몸을 최대한 늘어뜨려 스스로 피곤한 모드로 전환시켰다. 코를 벌렁거리며 입을 벌려 히품을 하자 한 쪽 귀가 뚫렸다. 고개를 돌려 한 쪽 귀로 그들의 말을 푹푹히 들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하얀 종이 위에 떨어진 콘택트렌즈를 조심스레 오른쪽 약지로 찍어 오른쪽 눈에 끼웠다.

“오공수한테 여동생이 있지요?”

오영택과 오한심은 핏대를 높여 싸우다가 일순간 행동을 멈추며 말문을 닫았다. 예상 못한 변수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둘은 입을 벌린 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알을 굴렸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소 빨라졌다. 동료들의 분주한 구둑발 소리, 민원인들의 떠드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딸깍거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전해졌다.

“오공수 씨의 처남 되세요?”

“네? 오공수가 누구시죠?”

“호적등본을 보니 오공수 씨의 여동생이 오연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연수 씨의 남편 박대 씨 되시죠?”

“그렇습니다만? 아! 집사람한테 배다른 오빠가 있었다는 말은 오래 전에 듣기는 했는데...?”

“오공수 씨가 애석하게도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유족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 같은데 조속히 경찰서로 오셔서 고인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방 차에 보험이 들어 있나요?”

“상대방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신나고 활기차게 들렸다. 사내는 로도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하며 유난히 “감”자에 힘을 주어 말했다. 거의 “캄”자에 가까운 발음이었다. 머리 속이 하얀

백지가 되어 텅 빈 느낌이었다. 멍하니 의자를 뒤로 젖혀 뒤통수를 고였다. 깜빡거리지 않는 눈, 정지된 눈동자, 마치 얼음 속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내게 헤코지라도 할 태세로 다가오는 망자의 성난 얼굴이 온 몸을 훑고 지나갔다.

최종적으로 사체를 인수한 박대를 상대로 조사를 끝냈다.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 관해 오랫동안 동료들 사이에 화젯거리로 남아 회자되었다.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통사망 사고 사건은 종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에게 일상이란 하릴없이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처럼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조사하여 처리하는 일이다. 고민할 가치도 없을 뿐더러 제 잘났다고 아우성치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는 일이다. 수 만 번도 더 짝은 상아도장의 테두리가 절반이나 부러져 나가도록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이다.

공허함이 몰려왔다. 협탁 속에 수북히 쌓인 재활용 이면용지가 부담스러워 죄다 분쇄기에 밀어 넣었다.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비법이다. 비뚤어진 클립, 고장난 스탬플, 빈 풀통, 울이 나간 철근, 파일이 깨어진 디스켓, 마른 인주 통이 눈에 그슬려 서랍을 뒤집어 내용물을 책상 위에 와르르 쏟았다. 진작에 정리했어야 할 사무용 집기들이 태반이다. 어릴 적부터 잡동사니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길을 걷다가도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이 눈에 띄면 모셔와 서랍에 넣어 보관했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방구석이나 책상 서랍 주변에는 늘 잡동사니들로 넘쳐났다. 게다가 눈썰미가 없어 옆에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종일 찾다가 결국 새것으로 구입해서 썼다. 이리저리 휘저어 쓸

만한 것들을 골라냈다. 종이 날을 곳곳이 바다에 붙이고 내게 밭보인
 놈들과 먼지 보푸라기를 손 날로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쏟아 부었다.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던 지우개 주사위가 휩쓸려 들어갔다. 얼른 주
 워다 먼지를 떨어내고 책상 위에 굴렸다. 주사위가 데굴데굴 굴러 바다
 에 떨어졌다. 주사위가 때마침 걸어오는 사내의 검은색 구두 밑에 들어
 갔다. 사내는 주사위를 주워 책상 위에 굴렸다. 다섯 개의 점이 위로 향
 했고 네 개의 점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투박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왔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사내는 박카스가 든 흰 비닐봉지를 던지듯
 이 책상 위에 놓았다. 툭 소리와 함께 병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다소
 엄숙한 듯 입을 굳게 다물며 정색을 했다. 그는 연거푸 헛기침을 삼키
 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긴 한숨을 내 뿔었다. 책상 위에 종지와 로즈마
 리 잎이 바람에 날렸다. 순한 허브 향이 코끝으로 전해졌다. 로즈마리
 는 가만두면 있는 듯 마는 듯 하다가도 흔들리면 더 진한 향을 뿜어냈
 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뇌 깊숙한 곳에 향기를 빨아 넣었다. 사내의 못
 마땅한 행동에 트집을 잡아 무슨 말이라도 내뱉어 일침을 가하려는 차
 였다. 그는 잠긴 목소리의 파열음을 정리하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가를 반복했다.

“아, 사고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무슨 사고 말입니까?”

“오공수 씨, 교통사고 담당자 아니세요?”

“.....?”

“오공수 씨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꼬깃꼬깃 접힌 오공수의 수배전단을 펼쳐보였다.

로즈마리 향이 사그라졌다. ⅢⅢⅢ



김은주 강원도 태백시 지방기능직

우리의 일상의 비극은 반복이다.
직장, 결혼, 일상의 부분들이다. 반복이 만든 질서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때론 일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기대한다.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달콤한 사랑 또한 일상의 파괴자일 수 있다.
살아갈수록 견조해지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 견디기 힘든
무거운 여름처럼 틀어쥐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탈출구,
재즈댄스는 그래서 스펀 연정이다.

재즈댄스

그때는 여름이었다. 비는 오지 않고 햇빛만이 발아하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바람은 나뭇가지 위 검푸른 잎사귀 끝에 잔잔히 머물다가 맥없이 흩어져버릴 뿐이었다. 바람이 머물지 않는 창가 유리창엔 뜨거운 여름햇살만이 타닥타닥 튕겨 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빨려드는 축축한 더운 공기는 어두운 뱃속에 잠겨있는 오장육부를 괴롭혔다. 명료한 것이 죄다 탈진되어 버린 듯 한 의식을 비집고 들어서는 것은 오로지 그 녀석뿐이었다. 그 여름 나는 그 녀석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작년 봄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신입 직원이라며 인사차 들렀던 적이 있었던 그 녀석이 회사내 동호회 모임에 나타났다. 그 녀석의 코스는 정상적이었다. 대학 재학중 군대갔다가 복학해서 졸업하고 취직 시험에 합격한 정상적인 코스. 그 코스대로 그 녀석은 아직 옛되고 풋내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녀석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기 전까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마주 대할 기회도 없었고 어찌다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사실 그 동호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찌다 마주 친다 해도 모르는 얼굴이기가 십상이었다. 업무 익히기에도 바쁠 텐데 동호회에 가입을 딱 하다니 요즘 젊은 신입들은 직장시스템에 무조건 매달리지 않는 탓이겠거

니 생각했으며 오히려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앓던 얼굴위에 걸친 안경 너머 쌍꺼풀이 없는 둥근 눈은 맑아 보였다. 키크고 세련된 감각으로 치장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보통 키에다 평범하면서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모범생 같은 분위기, 연한 갈색의 옷 색깔, 너무 동안이어서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 그 모습이 그 녀석이었다.

“제 닉네임이 ‘fuzzy’입니다. ‘애매모호함’이란 뜻인데 제가 공학도이다 보니 공학이론중 하나인 ‘fuzzy’ 이론에 따른 것인데요, 최초로 인간을 닮은 공학이론이라고 할까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 한 것들을 들어내는 이론이죠.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서로가 모르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을 동시에 느끼며 살죠. 불확실한 것 앞에서 확실한 것들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죠. 사실상 우리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럴수 있다는 이해심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게끔 하는 원동력일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가입축하 파티에서 술 몇잔 털어 놓자 그 녀석이 술술 쏟아내는 말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녀석을 귀엽게 바라보며 재미있다고 부추겨 주는 분위기였으나 붉어진 뺨과 머쓱해하는 표정속 그 녀석은 확실히 어떤 열정에 들떠있었다. 웅골차게 맺어진 정신적 결실들을 후둑둑 후둑둑 털어내는 듯 싶었다. 그 녀석의 말들은 허공속으로 힘없이 흩어져 버리는 가벼움이 아니었다. 그래 단순히 그것은 나만의 발견이었을지 모른다. 왜냐면 그때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었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고 있는 일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어쩌면 흡입력있

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영역으로 침범해 감정순환을 이루어 주길 바랬었다. 가끔씩 나는 통장에 모여있는 돈이 뺨튀기가 되거나 어린 두아가 번개맞아 어른으로 체인지되는 변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해서 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단축된 일상만큼 꿈꾸던 미래가 앞당겨져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결혼전과 결혼후를 대비하여 본 손익대차 대조표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굳이 나누어 보지 않아도 되었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도 갖지 않을 것이다. 늘 행복하지도 늘 불행하지도 않은 교차지대에서 살면서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굳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전부터 나는 직장여성이었고 결혼후에도 변함없이 직장여성이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부턴가 예전의 직장여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직장여성이 되어 살고 있었다. 무게 중심이 필요했다. 어느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느냐가 늘 고민거리가 되었다. 결혼이란 내게 끊임없이 고민거리를 만드는 카테고리였다. 누군가 결혼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솔직히 말할 것이다.

후회한다고.

하지만 후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것이다.

비록 결혼 후 승진에서 밀리고 있을지언정 상실감이란 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이었으므로 남편과 아이들을 내 삶을 갉아먹는 원수같은 존재로 여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 녀석이 말한대로 불확실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석보다 불확실한 세월을 더 살아왔고 그 녀석에게 불확실한 것들은 내겐 이미 확실한 것들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불 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구분할 만큼의 세월을 살아왔다. 그

날 나보다 불 확실한 것들이 더 많은 신입으로서 출발선에 서있는 그녀석의 순수한 열정이 가볍지 않아 보였고 처세술 익히기에 바쁜 신입들에 비해 자신의 생각에 열중해 있는 그녀석이 괜찮아 보였다.

장미, 수국, 다알리아, 사루비아, 백일홍 또 없을까 태양이 뜨겁게 작열할수록 화사하게 살아나고 있는 꽃들. 연일 여름 메마른 대지는 빗줄기 없이 태양을 견디느라 살비듬같은 먼지만을 풀석였다. 그 먼지더미를 뒤집어 쓴다해도 결코 초라하지 않을 윤기나는 붉은 꽃잎으로 포개져 있는 꽃들. 그 꽃들을 고스란히 키우고 있는 어느 꽃집을 지나치다가 나는 발길을 멈추었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늙어가는 느낌이 시간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막연한 씁쓸함 탓이었을까. 더 비싼 화장품. 더 젊어 보이게 하는 옷들.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풀 옵션 프로그램에 자신의 의식을 정지시켜버리는 절대절명의 위기감. 어쩌면 늙어간다는 것을 덜 손해보는것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장치가 가정이란 울타리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엄마니까. 가정이 있는 여자니까. 그 여자는 무지막지한 이쯤마로 늙어간다해도 이 사회에서 마치 치외법권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직장에서 늙어가는 여자는 치외법권이 없다. 오히려 금치산자 취급을 받는다. 성공해야만 했다. 왜냐면 성공해서 얻어낸 자리에서만 늙어가는 것이 인정되었고 초라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름꽃들을 하나 하나 살폈다. 화려하게 늙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가정으로 완전히 돌아가 그 울타리에서 아이들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 늙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래전부터 나는 직장여성이었다. 이제 직장에서 늙어가는 여자로 되어가고 있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고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살아왔었다는 확인서가 되어주면 안되는 것일까 그 확

인서를 공중받아 세상에 내놓는 순간 살아오느라 늙어버린 살결속에 주름지어 있는 그동안의 미움, 증오, 시기, 좌절, 슬픔이 모두 리셋된다면 어떨까 새롭게 리셋된 후 부팅되어질 때 내 몸은 더 깊게 더 넓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느 날 문득 꽃집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울하게 여름꽃을 바라보며 서성이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일까 흔들린다는 건 정상궤도에서 비정상궤도로 옮겨가는 배의 탑승구 앞에서 있을 때 일 것이다. 침몰할지 모르는 배에 오르려 할 때 일 것이다. 하지만 정상궤도와 비정상궤도를 뚜렷하게 구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 정상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갈 뿐 누구나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비정상궤도에 진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나는 정상궤도에 있다고 생각했다. 몇 번 승진리스트에서 탈락되면서 직장에서 늙어가는 여자가 되고 있을 때부터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실감만을 허락했다. 그래서 흔들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한시킬 수 있었다. 용량초과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게 있었다. 그것은 댄스였다.

‘재즈댄스’ 모든 경계를 부셔버리며 빠른 비트와 강한 동작들에 몰입되는 몸. 그 몸속으로 전파되는 해탈을 닮은 최고의 엑스터시에 빠져보는 것. 더덕 더덕 욕망의 이끼가 슬어 있는 내 몸을 순화시키는 재즈댄스. 소리없이 병들어 가는 몸과 깨어진 거울처럼 잃어버린 중심이 살고 있는 마음을 접합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세계, 재즈댄스. 상반기기 획판매 실적평가가 끝나면 적당한 댄스클럽을 알아 볼 작정이었다. 용량초과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 녀석을 만

나게 된 동호회 모임이었다. 그 동호회는 주로 다양한 주제나 이슈를 기획해 와서 발표를 갖는 '다운뱅크'라는 동호회였다. 직장에서 제 때 승진 못하고 늪어가는 여자에게 참신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다운받아 메인뱅크가 되는 길을 찾는 것. 정상궤도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무적 함대 같은 메트로 메인뱅크.

메인뱅크가 된 자리에서 늪어가는 여자이고 싶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나는 직장여성이었다. 결혼 생활에만 점령당한 채 영원한 귀가를 챙기기에는 나는 아직 젊었다. 그런데 용량초과를 준비해 둔 두 개 중 하나에서 흔들림의 진앙지가 발생한 것 같았다. 그 녀석이 동호회에 가입한지 한 달 후 쯤 이었다. 신입 회원들을 위한 첫 행사 점 오랜만에 야외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야외 회장으로 출발하기로 한 그날 아침 일찍부터 회원들은 서둘러 약속 장소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출발 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체되고 있었다. 원인은 바로 그 녀석 때문이었다. 그 녀석이 출발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회장을 통해 전화로 사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그 녀석은 그날 뒷 풀이에서 다음 발표자로 간택되고 말았다. 아직 모임 분위기를 체득하기에도 정신없을 신입에게 좀 가혹하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도착한 죄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 날 주제발표자는 나였다. 나는 '광고의 기술'이란 주제를 선택했고 제목처럼 내용은 광고를 얼마나 잘해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였다. '광고에 따른 기획이야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들로 쌓여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돈을 꺼내게 하는 기술적인 이론들일 뿐인데도 광고에 대한 이론은 엄청나게 과학적이다', '사람들이 벌레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광고처럼 사는 것이다', 가장

멋진 소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루 평균 4,000개의 광고에 접하고 있고 그 광고에 나오는 상품들의 유통기한처럼 '우리들 삶은 유통기한에 의해 정해져 있다.' 라는 발췌된 내용들과 같이 평생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물건을 눈앞에 어른거리게 해서 욕구불만에 시달리게 하는 광고의 기술들, 그것은 '우리회사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판매 할 수 있을까' 하는 대박 콤플렉스 해결사들이었다. 선택의 파라다이스를 보여주는 광고의 범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비의 꿈만 꾸면 되는 것이다. 소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벼락에 감전되기를 바라는 대박의 세계를 꿈꾸면 되는 것이다. 대박 터지는 날은 광고가 승리하는 날이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날인 것이다. 나는 성공을 꿈꾸는 결말로 발표를 끝냈고 그 녀석은 다음 발표자였다. 그 사실이 나와 깊은 인연이 되어 줄 끈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 녀석은 돌아가는 술잔을 마다않고 죄다 받아 마시더니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출발할 때도 기다리게 만들더니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도 그 녀석은 동호회 회원들을 성가시게 했다. 결국 그 녀석은 야유회 장소였던 넓은 풀밭 옆 자락에 줄지어 난립해 있는 팬션 뒷 편 옥수수 밭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술에 취해 있는 회원들 모두를 취중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숨바꼭질 끝에 발견된 그 녀석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옷은 벗겨져 있는 채 옥수수 밭 한가운데 길 잃은 어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지나간 수색작업 끝에 발견된 범인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분노심을 한순간 싹뚝 잘라버리는 적막 속 아련한 연민의 물결을 일으키는 한 장면 이었다. 회원 모두 일제히 연민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되어 그 녀석을 바라보았다. 찾아다니느라 분노에 치를 떨던 회원들이 오히려 그 녀석을 부둥켜 안고 흐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

녀석을 품에 안으려고 다들 전염병이라도 걸린 듯 했다. 그 녀석은 회원들의 손길에 보호받으며 차에 실려졌고 그 날 이후 그 녀석은 오히려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나 또한 그 녀석에게 더욱 친근감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 뿐 이었다. 이해득실에 물들지 않은 그 녀석의 감정과 행동이 단지 풋풋해 보일 뿐이었다. 자신이 늦어서 출발시간을 지연시킨 죄 값을 무엇이든지 치르겠다고 두 무릎 꿇고 미안해하던 그 녀석의 순진함에 회원들은 장난삼아 집중 폭격한 술을 그대로 다 마시다니.

그 녀석은 정말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날이후 어느날이었다. 그 날도 비 소식 없는 여름하늘이 펼쳐지고 있었다. 뭉실뭉실 떠다니는 구름 사이로 태양은 독기를 뿜듯 열을 내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위 스물스물 피어 오르는 지열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뜨거운 사막 모래위를 걷는 표정들이었다. 지나친 에어컨 사용이 과부하를 이르킨다하여 온도조절과 운행시간을 제한한 탓에 사무실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고 8월을 넘기기전에 상반기 판매실적 현황과 분석에 따른 보고서와 하반기 판매전략 기획서까지 준비해야했기 때문에 나는 컴퓨터 하드에 저장해 놓은 수많은 파일을 이리저리 열어보며 도움 될 만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이번 기획에는 광고에 치중하기보다 유통체계 분석을 토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컴퓨터 화면 하단에 정사각형의 작은 창이 하나 떠올랐다. 사내 메신저에서 날아온 쪽지였다. 열어보니 그 녀석이 보낸 것이었다. 그 녀석이 다음 모임때 발표할 준비 때문에 나를 찾아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그 녀석에게 도움 될 만한 자료

도 함께 찾고 있었다. 또 다시 옥수수밭에 웅크리고 떨면서 잠들어 있는 연민스런 장면의 재현 따위는 없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 녀석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제목별로 파일을 만들어 저장시켰고 그 녀석이 오면 그 파일을 담은 씨디를 건네줄 작정이었다. 사내 메일 전송으로 보내 줄 수 있었지만 그 녀석이 직접 찾아 오겠다고 하여 기다리기로 했다. 오후도 한나절을 다 지나고 퇴근 무렵이 되었는데 그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해 볼까도 했지만 그렇게하고 싶지는 않았다. 느닷없이 날아든 그 녀석의 부탁에 과잉친절까지는 베풀고 싶지 않았다. 내 앞에서 정중히 자료를 건네받고 감사하는 인사를 받고 싶었다. 그 녀석이 하필이면 왜 다른 회원을 다 놔두고 나에게 부탁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 녀석이 다음 발표자가 되어버리자 그날 발표자였던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 녀석이 나타나기를 포기하고 퇴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직 여름 태양이 누워있어서 뜨거웠다. 달리는 차속에서 내내 그 녀석을 생각했다. '전화를 해 볼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가방 안에 집어 넣었다. 자신의 이런 행동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그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건가' 꼬리를 물 듯 그 녀석이 떠올랐다.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 녀석을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꼭 바람맞은 여자가 되어 버린 듯 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에도 그 녀석은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그때 이후로 퇴근하는 차안은 늘 가라 앉아 있었다.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아이들의 장난스런 행동들에 짜증섞인 커다란 목소리가 먹구름처럼 덮치곤 했다.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애써 미소지으며 화를 가리앉혔다.

“엄마가 운전 중에는 조심해야 해. 너희들이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하면 자동차가 넘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아프게 되고 너희들과 엄마도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암전어들 앉아 있어야지.”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혼내는 것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또 다시 장난치며 차안을 요란하게 뒤흔들었다.

‘그래, 너희들은 내 의식의 지배자, 욕망의 점령자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꺾을 수가 없겠지… 너희가 나를 지배할수록 나는 너희들을 더 사랑해야 하고 너희들이 나를 더 점령할수록 나는 너희들을 더 이뻐 해야 하니까. 이게 무슨 메조히스트적 인가, 호호호’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요동을 쳤으며 다행히도 자동차는 뒤집히지 않고 집앞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평소보다 더 쾌활하게 집안일에 몰두했다. 아이들과 수다도 많이 떨었다. 드라마 시청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졌다. 남편에게 자꾸 말을 걸었다. 남편이 무엇인가 폭발할 듯한 유머로 자신을 웃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남편에게 먼저 농담을 걸었다. 남편은 살짝 미소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잠깐 나를 바라 보았다.

“당신말이야, 매력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내 마음 알고 알고 있지?”

남편이 나를 향해 던지는 유머스런 애정 표현이었다. 무뚝뚝한 남편의 성격으로서 그 표현은 최상의 것이었다.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모호한 표현이 재미있기는 했으나 가리앉은 기분을 띄워 주지는 못했다.

“고마워, 당신도 아직 멋진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알고 있지마 나도 잘 모르니까.”

남편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끔씩 비정상 궤도에 맴돌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텔레비전에만 눈길을 두었다.

드디어 그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그날은 여름 더위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듯이 온도가 절정을 이룬 날이었다. 에어컨이 오히려 성가셨다. 높은 온도와 정비례하여 상승하고 있는 불쾌지수, 그 지수도 최고조에 달했다. 서로가 말하기를 피하고 있었다. 사소한 시비가 화를 불러 올지도 모르는 극점에 몰려있었다. 그런 하루를 겨우 잘 버티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녀석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저 민지섭인데요, 제가 부탁한거 지금 가지러 가도 되는지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녀석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민지섭씨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야, 언제 부탁한 것을 지금 가지러 온다는 거야!!”

나는 숫제 반말로 돌변했다. 그리고 기속속에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열이 목구멍을 막아버리자 중간 중간 말을 더듬거리며 열을 올렸다.

“찾으러 올려면 제 때에 와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며칠이 지난거야. 그리고 왜 전화를 이제 하는 거지. 두 번 다시 나에게 부탁하지도 말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파일은 사내에서 이용하는 메일로 보내겠어. 알았어.”

그렇게 폭발하듯 퍼부어 놓은 후 바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녀석이 무언가 변명을 해서 내가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명료하

게 해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다. 전화기에서는 전혀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민지섭, 지금 나에게 해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석의 말끝은 분명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억지로 참느라 요동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그녀석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발이 접착제에 붙어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왜 울기까지 하는 것이야. 나는 갑자기 미안한 감정이 일었다. 사실 그녀석이 눈물을 흘릴 만큼 잘못된 것은 없었다. 그녀석이 가지러 오든 가지러 오지 않든 그냥 그녀석이 필요로 할 때 내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근데 나는 그녀석에게 무턱대고 화부터 내었다. 그것은 내가 내내 그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미궁으로 빠져들게 했다. 단지 죄송합니다. 곧 가지러 가겠습니다. 나중에 밥 한 번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울기까지 하다니 그녀석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석은 좀 진정이 된 듯 싶었다.

“민지섭 너, 지금 우는 거니?”

“아닙니다. 감기 때문에.”

“너 우는 거 맞지. 민지섭 울긴 왜 울어, 그냥 해명하면 되지, 내가 그러면 민지섭 너에게 미안하지않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얘기하죠.”

그녀석은 전화를 끊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변함없이

요동치는 아이들의 장난과 터져 나오는 함성 속에서 나는 민지섭 그녀석을 생각했다. 그때부터 민지섭은 내게서 그 녀석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여자는 남자의 눈물에 약한 것 그것이 맞다면 나는 한없이 그 녀석에게 약해지고 있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나와 일상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과 때로는 충돌하면서 살고 있지만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때론 언성높여 싸우면서 감정을 다치게 하는 말들이 오고 갔어도 눈물 흘린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 녀석에게 무슨 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나와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은가 야유회 때 그 녀석이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려보았다. 그 녀석은 말이 없는 남자였고 늘 상대방을 위주로 움직여 주면서 배려하는 모습이 남달랐다. 약삭빠른 행동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는 분위기가 틀린 녀석이었다. 나는 말이 없는 남자가 행동하는 한 끝 한 끝은 남다른 메시지가 꼭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다. 바로 그 녀석이 그런 타입이었다. 나이답지 않게 깊은 우물 속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우물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몇 남자들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우물은 나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녀석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까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눈물이란 감정의 표현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눈물로 표현 하는 감정에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상대방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엄청났다. 나는 그 녀석에게 느껴지는 깊은 우물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녀석의 눈물에는 다소 흔들림을 느꼈으며 소통이 필요한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예.”

“회사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예.”

약속하기까지 그 녀석은 딱 두 마디만 했다. 그러나 대답하는 목소리는 밝았다. 눈물을 흘리던 그때 민지섭이 아니었다. 그때 만해도 나는 직장 선배로써 동호회 선배로써 감정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녀석의 눈물을 분석하는데 위로와 격려라는 두 가지 기능만 사용하기로 했다.

“울긴 왜 우니... 내가 미안하잖아”

그 녀석과 마주앉게 되자 쓴살같이 뱉어낸 말이었다. 그 녀석은 계속 표정없이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전화연락을 못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잘못된거죠. 부탁을 먼저 해놓고 전화도 미처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성급했어. 나도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 녀석이 눈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도 물을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 볼 용기도 없었다. 단지 그 녀석의 우물 속에 던져진 돌이 내가 던진 돌이라면, 그 파문이 부메랑이 되어 내게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런 가정법에 충실한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삭제하려 애썼다. 그래서 나한테 말 못 할 다른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돌렸다. 그 녀석을 힘들게 했던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그 감정의 도화선에 불을 붙힌 것이 나일뿐이라고.

그 여름 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여름비 대신에 그 녀석의 눈물을 맞았다. 전화기를 통해 들었던 애써 눈물을 감추려 하던 목소리. 그러나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녀석은 분명 내가 그 녀석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를 준 것은 사실이었으며 어떤 감정에서건 그 녀석에게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음가는 대로 행동해라. 그것은 단순한 공식 같지만 복잡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녀석에게 향하는 감정을 단순화시켜라.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최대의 전술이었다. 직장 후배에게 인간적으로 베풀어 주기. 그래 그 녀석에게 그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발표 자료를 건네 준 고마움으로 저녁을 사겠다는 그 녀석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처음느낌 그대로 순수해 보이는 신입직원에 대한 감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요즘 신입들은 눈물작전으로 직장상사에게 전략으로 써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그 녀석의 직속 상사는 아니었지만 동호회에서는 특별회원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 녀석에게는 눈물전략을 실천해도 손해날 대상은 아니었다. 그 녀석이 충분히 눈물로 위기 모면을 하려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까지 미치자 눈물에 약해졌던 그간의 그 녀석과 얽힌 스토리는 한 차례 소동으로 되어버렸다. 소동은 빨리 진압하는 게 최선이겠지. 나는 그 녀석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을 얻어먹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 녀석과 만나기로 한 약속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나기로 약속한 하루 전이 되었는데 나는 그 녀석에게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다음날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는 나갔다.

그 녀석은 더욱 활기차진 모습이었다. 시설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그

녀석은 양복을 입는 날 보다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입는 날이 더 많았다. 연두색 가는 체크무늬의 남방과 연 베이지색의 면바지에 갈색 가죽 신발을 신은 모습이 동인인 얼굴을 더 젊어보이게 했다.

“눈물은 쉽게 흘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넌 너무 쉽게 눈물 흘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 쉽게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닙니다. 오산은 이 대리님이 하시고 계신거죠.”

“그럼 네가 오산을 정산으로 돌려봐.”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죠. 그땐 이 대리님이 정말 화나신 것 같았어요. 무조건 몰아붙이는데 당황하기도 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한테 창피하기도 했고, 단지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이 필요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녀석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그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소통이 이루어졌다. 우린 그때 무척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즐거워 했다. 그 녀석은 나를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이 더 많았던 그 시절 그때 나는 확실한 것들에 맹목적으로 휩쓸려 불확실해 보이는 것들에는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 녀석은 불확실한 것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는 방법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 그 녀석의 모습은 내가 이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그 녀석이 과묵하다는 것은 거짓 같았다. 그 녀석은 농담에는 농담대로 충고에는 충고대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편안하게 늘어놓았다. 그 녀석은 학생 때 모범생이었다.

전략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집중하는 성실형의 인물이었다. 친구가 데리고 온 애인이랑 함께 놀아주었던 얘기며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에게 끝내 말을 못하고 버스를 태워 보낸 뒤 비를 맞고 돌아왔다던 얘기를 했다. 그 녀석은 내게 자신이 연애 한 번 못해보았다는 얘기를 하려 했던것 같았다. 그 녀석은 그날 내게 다정하기까지 했다. 음식이 나오면 내 앞에 챙겨주고 길을 건널 때면 나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주었고 차를 탈 때도 앞서 가서 문을 열어 주었다. 그날 그녀석의 우물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 우물에 돌을 던진 건 나였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정상궤도에 남아있었다. 여전히 뜨거운 여름 태양이 내리 쬐고 있었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었다. 실적은 작년보다 못했지만 상반기 판매기획 평가보고서 준비도 예정대로 되어갔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정한 엄마였으며 남편과도 무난했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이 있었다. 텅비어있던 메세지함에 그 녀석의 메시지가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고 가방 안에서 소리내지 못하고 있던 핸드폰이 손과 가까운 곳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 녀석을 재미있게 해 주고 싶어 유머사이트를 자주 서핑하게 되었다. 눈가의 주름을 치명적 바이러스라도 걸린 듯 원망스러워 하곤 했다. 마치 연애라도 하듯 매일 매일의 스케줄에 그 녀석이 끼어있었다. 마지막 만남이후 만날 약속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늘 그 녀석과의 재회가 의식 속에서 펄렁거렸다. 갑자기 낭만적 로맨스의 딜레마에 빠진 여자처럼 현실 속에 담그고 있는 발과 비현실속에 빠져 있는 발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하고 있었다. 금지된 사랑을 꿈꾸는 여자가 된 듯 싶었다. 금지된 사랑일수록 불같이

타오르지 않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 녀석과 무채색의 웃음을 터트리며 한없이 단순해지는 가벼운 감정들로 살아가는데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 욕망이나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비밀스러운 감정이 비정상궤도로의 진입을 알리는 징후들이라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어떤 때는 자연치유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가는대로 하지 못했다. 단지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그 녀석을 허락하고 있을 뿐 마음가는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간간히 오고가던 메시지가 끊긴 이후 텅텅하던 나는 마음가는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전화를 걸었다. 그 녀석이 받았다.

“민지섭, 발표 준비는 잘되어 가나.” 마음과는 다른 질문이 튀어 나왔다.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바빠서요. 지금도 출장중입니다. 여기 일본이거든요. 돌아가면 제가 연락드릴 게요.”

그 녀석은 공장시설관리의 전자시스템구축계획팀으로 일본과의 기술 조인을 위해 그곳에 출장중이었다. 나는 순간 곤혹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격려의 말로 치장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그 녀석을 발견했다. 회색 양복에 연보라빛 사선체크 넥타이를 하고 앞머리를 뒤로 넘긴 머리는 내가 그 녀석을 마지막 만났을 때 보다 짧아 있었다. 그 녀석은 서류가방을 들고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설명해가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일본에서 온 방문 팀인 것 같았다. 나는 자동차를 세워 놓고 그 녀석이 내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바라보았다. 처음 그 녀석을 보았을 때가 떠올랐다. 차분하지만 열정에 들떠 있던 모습. 술에 취해 옥수수 밭에서 잠자던 모습. 그리고 흐느끼던 목

소리. 그 녀석은 많이 변해 있었다. 유난히 동안이었던 그 얼굴은 사라졌다기 보다 더 성숙해진 분위기에 용해되고 있었다.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뿌리 내리기 시작해 가는 그 녀석의 모습이 여름 햇살아래에서 멋지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 녀석을 그렇게 보게 된 후 며칠이 흘렀다. 일요일이라 집에서 그동안 밀려 있던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여름이 끝나가기 전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탓이었는지 여름비가 내렸다. 굵은 장대비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베란다로 나가서 유리창에 탁탁 부딪히며 쏟아지는 비를 한참 바라보았다. 여름 꽃들은 이 비가 그치면 시들 것이다. 화려했던 붉은 꽃잎들은 점점이 허무한 솜털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도록 내버려두었던 그 녀석도 사라져갈 것이다. 그 녀석은 늘 정상궤도였을까 나처럼 비정상궤도에서 비밀스럽게 있으면서 정상궤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았을까. 나는 그 녀석에게 그것을 묻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녀석을 본 모습을 떠올리면 그 녀석은 늘 정상궤도였다. 그 녀석은 시설관리부서의 중심인 총괄기획팀에 발탁되어 있었다. 그 녀석은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었다. 그 녀석은 경쟁 구도 속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있었다. 비는 저녁 늦게 그쳤다.

다음날 나는 출근해서 이번 승진을 위한 점수에도 반영이 되어줄 상반기 판매실적보고서와 하반기 판매기획보고서 마무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야근을 했다. 그리고 재즈댄스를 배울 수 있는 클럽을 알아보았다. 용량초과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던 재즈댄스. 그 세계로 몰입할 때쯤이면 여름은 이미 가버렸을 것이다. 그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견디기 힘들었던 계절이었다고 추억될 그 여름은 가버렸을 것이다. ㅁㅁㅁ



...대학을 졸업한 그해, 나는 B교도소에서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한 재소자를 만났다.
그를 통해 나는 내안의 휴머니즘과 이상을
꿈꾸게 되었고, 낮은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인규 국방부 해군군수사령부 제보급창 행정군무주사보

비상(飛上)

여름 장마가 일주일 쯤 계속되는 휴일 날 아침이었다. 어제 밤부터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아등그러져 있더니, 오늘 아침에야 소나기를 한차례 뿌리는 것이었다. 베란다에 있는 진분홍색 채송화가 쏟아지는 비를 향해 길게 목을 빼고 있었다. 비는 처마 끝에서 한 번 멈춰선 후, 물보라를 내며 베란다 밖 창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누워 어제 늦게 걸려 온 장모님의 전화를 기억해 내었다. 어렵사리 꺼낸 그녀의 얘기는 큰치남에 관한 일이었다. 면회를 가 달라는 거였다. 큰치남은 부산에서 제법 큰 규모의 여행사를 운영했었다. 한동안은 동기간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되었었는데, 두 달 전에 부도가 나 구치소에서 김해에 있는 B교도소에 이감되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긴 결과였다.

나는 근근히 몸을 일으켜 탁자 위에 있는 물을 마셨다. 몸이 좋지 않은지 한 모금을 들이키자, 내 목에서는 사례들린 기침이 나오는 것이었다. 어제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고 담배를 많이 피운 게 화근이었다.

B교도소는 내가 십 년 전에 근무하던 곳이었다.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을 봐서 한 번쯤 가야하겠지만 난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리가 만무했고, 나올 때 한바탕 소란을 피운것도 불현
듯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 나와
시선이 마주친 아내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난 가야할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사무실에 조퇴를 했다. 어제 종일 내렸던 비가 오늘 아
침에 그치자 다시 폭염은 시작되었다. 차안의 에어컨을 삼단으로 켜 놓
았으나 내 이마에는 연신 땀이 배어났다. 아내는 동네 근처 약국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분홍빛 원피스 위에 검정색 망사로 된 겹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약국 앞에 차를 세워 그녀를 타게 하고, 옆에 있는 가게에
서 콜라를 한 병 샀다. 차는 이제 진해시에서 웅천, 웅동을 거쳐 용원으
로 내 달고 있었다. 명지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셋길을 택했는데 그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였다. 아내는 가는 내내 긴장해 있었
다. 하긴 친오빠가 그리되었으니 얼마나 애가 터지는가, 싶었다.

마침내 우리는 평강에서 좌측 오백 미터라는 B교도소의 간판을 보았
다. 아내는 재차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고, 나는 약간의 설렘과 옛 기
억의 두려움으로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정면 위병소 앞엔 낫날이 오뚝하고 키가 늘씬한 경비교도대원이 M-
16소총을 옆구리에 찬 채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의 둥그런 반 쪽
짜리 철모는 햇빛을 받아 내 시선을 따갑게 했다. 그의 옆에는 철제로
된 바리케이드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현재와 과거를 차단시키는 경계
선 인양 내 앞을 막고 있었다. 나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꺼내 아내에
게 면회신청을 부탁하고 공중전화박스로 갔다. 어제 밤 수소문 끝에 옛
날 같이 일했던 동기생 박형과 이미 연락이 되어 있었다.

“보안과 을부의 박대식입니다.”

어제 밤의 킁킁한 목소리는 아니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여전히 탁한 음을 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에 면회실로 오겠다고 했다. 나는 아내가 부산하게 면회신청서에 기록을 하고 큰처남에게 줄 옷가지 등을 챙기고 있을 때, 잠시 면회실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분류심사과 사무실의 화단에서 있었다. 여기는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잎은 어긋나고 활촉처럼 긴 삼각형의 줄기를 가진, 나팔꽃 모양의 메꽃과 갈색 꽃받침으로 네 개의 꽃을 피운 창질경이가 키가 작은 개망초와 톱풀 사이에서 서로 시샘하지 않고 피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구부려 그것들의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 때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면회가 아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6호실의 좁은 방에서 창살을 사이에 두고 큰처남과 우리는 마주했다. 큰처남은 결혼 후 특별히 잘해주지 못한 처와 나에게 이런 꼴을 보인다고 미안해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이 일이 자신의 일인양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보다 이 곳이 너무 답답한 사실에 짜증이 났다. 천장에 찌그러진 선풍기가 하나 있었으나 그것마저 더운 바람을 내뿜고 있는 것이었다. 이윽고 별다른 얘기없이 안부 정도만 묻고 있을 때 면회가 끝나는 벨이 울렸다. 십 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서둘러 큰처남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혹시나 먼저 나와 있을 박형을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

“준석아, 여기다. 이기 얼마 만이고?”

교도관 정복이 썩 잘 어울려 보이는 박형이었다. 하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이젠 노련할 때가 되기도 했다. 자세히 보니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보였고 모자 옆으로 빠져 나온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은빛이었

다. 나는 재판기에 있는 콜라를 빼어 들고 와 그에게 아내를 소개시켰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이야기 해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큰처남은 자신이 보살펴 줄 테니 안심해라, 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아는 교도관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다. 더군다나 박형은 그 당시 나와 썩 가까웠던 내 동기생이었다. 아내는 안심이 되는지 내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 주며 자신은 먼저 갈 터이니, 둘이 술이나 한 잔 하라고 했다.

아내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주고 나는 박형과 잠시 후에 만날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곳은 교도소 정문에서 오 백 미터만 걸어가면 되는 허름한 막걸리 집이었다. 박형과 같이 근무할 때 우리가 자주 갔던 집이었다. 나무 탁자도 그대로였다. 누군가가 연필 칼로 그어 놓았는지 가로세로 모양의 자국이 선명했다. 그건 추측컨대 출소한 재소자가 아 마 화집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화풀이를 한 것 같았다.

대략 막걸리 한 주전자에 비워갈 때, 박형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머리에 무스를 발라 윤기가 흐르는 게 아까 정복차림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 우리는 십 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박형은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날 물끄러미 보는 것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내가 한 동안 잊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준석아, 그 때 7동 하에 있었던 재소자 중에 강신재 라고 기억나지? 네가 외래진료 나가서 잠시 풀어준, 왜 자네가 그 친구 때문에 사표 쓰고 나갔잖아.”

그는 내가 오랜 기간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내 마음 속 깊이 접어둔 기억의 한

자락이 마치 우물에서 펌프질하면 솟구치는 물처럼 떠올랐다.

“기억나지. 그 친구. 요새 말썽 안 부리고 잘 지내지?”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말을 했으나, 실은 가슴이 떨려왔고 목이 말랐다. 그도 이런 내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레 입을 여는 것이었다.

“그 친구, 삼 개 월 전에 출감했어. 얼마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와서 자네 소식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나도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른다 했더니 혹 연락되면 자기 전화번호로 꼭 전화를 달라며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가만 있자. 아마 내 수첩에 적혀 있을 텐데.”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창바지 뒤 호주머니에 있는 검정색 지갑을 빼 들어 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수첩의 그 면을 단번에 찢어 내게 건네주었다.

해거름인데도 도로 가의 버스 정류소에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있었다. 길가의 플라타너스는 종일 더위에 시달리다 이제 한 숨을 돌렸는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배웅해주겠다는 그를 택시에 태워 보내버리고, 플라타너스 밑에 나무로 된 간이 의자에 잠시 앉았다. 멀리서 빈 택시가 오고 있었다.

‘강신재, 재소자 번호 2154.’

나는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주고 뒷좌석에 몸을 기대었다. 그제야 술이 달아올랐고, 내 기억은 십 년 전 그와 같이 호흡했던 사각형의 완벽한 요새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날은 아침부터 일이 뒤틀려는지 배치부장이 아직 신입에 불과한 날 9동상에 근무를 집어넣는 것이었다. 겨울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법 포근하던 날씨가 오늘아침 출근 때는 온 몸이 시

리도록 매서웠다. 나는 서둘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제 1정문에 들어서다, 그만 얼어붙은 땅위로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었던 것이었다.

9동상은 국가보안사범 십 여 명이 수감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까다로운 곳이었다. 고참 부장들도 가능한 이곳 근무를 꺼려 자주 담당이 바뀌는, 요즘 말로 물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물론 배치부장은 이곳 고 정담당이던 김 부장이 친척 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날 넣었다고 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 라는 게 기분이 나쁜 것이었다.

내가 이곳 근무를 싫어하는 건 이유가 있었다. 나는 일전에 김 부장이 아파서 하루 결근을 했을 때, 하루를 꼬박 여기에서 근무를 썼었다. 그 동안 나는 이곳의 재소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 이를테면 신문구독 시에 정치관련 기사의 가위질 중단 같은 것들 이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구호를 외쳤다. 확실히 타동의 여느 재소자들하고는 달랐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스물 네 시간만 견디면 되었지만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었다.

전날 야간 근무자와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는 천천히 9동상을 순찰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재소자들은 모두 방안에서 이불을 두르고 책을 보던지, 누워있던지 하였다. 그 중에는 내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자 여기 불 좀 때 줘, 하며 너스레를 떠는 자도 있었다. 내가 7실까지 확인을 하고 연탄난로가 있는 내 자리에 돌아 올 즈음에 난데없이 비상벨이 울렸다. 그러나 저번에도 이 놈의 벨이 오작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은 아닌 것 같았다. 따다닥, 하며 아래층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9

동 하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교도대원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담당님! 목공장에서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오시래요.”

난동이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벌렁거렸고 하체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열쇠꾸러미를 던져주고 냅다 목공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벌써 내 앞에는 무장한 경비교도대원들과 권총을 휴대한 보안과장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뛰어가고 있었다. 나는 뛰어가면서 오늘 일진이 더럽게 안 좋다고 생각했다. 목공장 앞에는 이미 직원들과 경비교도대원들이 웅성대고 있었고 그 안 쪽에서는 어떤 재소자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 자는 죽는다.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모두 죽을 줄 알아!”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며, 또한 교도관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직원들의 틈 사이로 인질로 잡혀있는 교도관을 보았다. 그 사람은 평소에 온순하기는 하나, 우리들 사이에서 고지식하기로 소문난 갑부의 금주임이었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작년에 간부 시험을 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었다. 그는 벌써 재소자가 찌른 흉기에 어깨 죽지가 찢려 그 부분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거기에서 스크램을 짜고 있던 경비교도대원들 뒤에선 구경 나온 재소자들의 거센 함성이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다.

“요구사항이 뭐야?”

그 때 경비교도대원들 앞으로 당당히 나선 보안과장의 호통이었다. 아랫배가 툭 튀어나와 외관상 아주 풍채가 좋아 보이는 그는 재소자들

에게 호랑이라 불리고 있었다. 이 틈을 타서 박형이 주변에 몰려 있는 재소자들에게 작업장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일단의 경비교도대원들이 허리에 차고 있던 봉을 휘두르자 그들은 우, 하는 함성을 지르며 해산했다. 주변이 조금 진정되자 이 번에 소장이 직접 나섰다. 소장은 보안과장과는 달리 그 재소자에게 회유와 설득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재소자는 김 주임의 목을 더욱 강하게 죄었고, 양측 간에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씨팔, 누구 마음대로 날 이감시킨단 말이야? 난 가지 않겠어.”

마침내 김 주임을 인질로 잡고 있던 재소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에는 시퍼런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2154번! 네가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이감문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우선 인질을 풀어 줘!”

다시 한 번 보안과장이 나섰다. 그러나 이미 그 재소자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별경계 충혈되어 있었다. 보안과장은 소장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하더니 경비교도대 중대장을 불렀다. 드디어 보안과장이 물리적인 진압지시를 한 모양이었다.

“작전 개시!”

순식간이었다. 중대장이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진압 명령을 하자, 날렵한 대원들이 우, 하는 함성과 함께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곤봉으로 재소자를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단 몇 초만에 상황은 그렇게 끝나 버렸다.

“저 도둑놈의 새끼, 저거 목공장 소지 아냐? 직원들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주임을 인질로 잡고 행패야.”

박형이 어느새 내 등뒤에 와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손수건 있냐고 물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나 역시 처

음 당하는 일이라 아직도 가슴이 뛰었다.

그 날 오후, 우리는 담 밖에 있는 소장의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저번 달 신규직원 사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보안과장은 차제에 직원들 기강확립과 재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또, 이 일이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키가 조그맣고 머리가 벗겨진 소장의 질책이었다. 맨 앞에 있던 보안과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몇 주일 동안 계속될 보안과장의 훈시를 생각하며 몸을 움츠렸다. 보나마나 비번 때에 폭동진압 훈련도 강화될 것이었다.

“니기미, 뻑하면 신규직원 사건을 들추네. 그제 언제 적 얘기라고?”

소장의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박형이 불평을 털어놓았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가슴에 바윗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

소장이 말하는 신규직원 사건이란 동기생인 을부의 김영규가 주동이 되어 교도소 내 직원 복지향상과 민주화 보장이란 유인물을 돌려 한바탕 시끄러웠던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작년에 서울에서 재소자들이 호송 중이던 교도관을 폭행하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그 교도관 두 명은 인력이 부족해 야간 근무를 하고서도 호송에 투입되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해 신규직원을 대거 뽑았다. 당연히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고 직원들의 복지향상도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그 해 채용된 우리들이 막상 투입되고 나니 상황은 달랐다. 근무 형식이 완전한 3교대가 아니었고 2교대와 절충한 형태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틀에 한 번은 야간 근무를 해야했다. 11월에 접어들자

야간 근무 시 사방 복도에는 연탄 난로가 지급되었다. 교도소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화재위험 때문에 방에는 불을 때지 않았다. 재소자들이 추워서 이불을 몇 겹 씩 덮고 자는 동안 우리는 싸늘한 복도에서 연탄 난로 하나에 의지해 근무를 선 것이었다. 어떤 직원들은 추위와 졸음을 못 견디고 연탄난로를 끌어안고 졸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작 화가 난 것은 야간 당직 근무 때에 꼬박 세 끼를 직원 식당에서 해결하는 고통이었다. 식당은 영양사도 없이 출소를 몇 달 앞 둔 재소자들이 맡아서 했다. 식단표에는 그럴듯한 메뉴가 적혀 있었으나 늘 우리가 먹는 것은 멸진 국 하나에 군대보다 못한 부식이었다. 참다못한 우리 동기생들은 회의 시간에 이 점을 건의했으나 간부들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교도소 내 선배들에 비해 우리 동기생들은 거의가 고학력 출신이었다. 위에서 자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결국 대학시절 총학생회 간부였던 김영규가 나섰다. 그는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계획한 날에 신문사 기자를 부르고 교도소 내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기로 했다. 나는 유인물 제작을 맡았다. 인쇄소를 알아보고 적당한 문구를 찾기 위해 내가 다녔던 학교에도 갔다 왔다. 우리의 정당한 거사는 성공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작은 노력은 사전에 검사를 알아차려 버린 보안과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누군가의 밀고가 분명했다. 결국 우리는 D-day를 하루 앞두고 법무 교정국 수사관들의 소환을 받았다. 그들은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사용하며 이 번 일의 주동자를 꼬집어냈다. 주동자인 김영규는 직위해제되고 옷을 바꿔 입었고 나머지는 절대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어떤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사람들 대하기가 두려웠다. 수사관들의 강압적 말투와 잠을 재우지 않는 수법은 나를 평상시의 나와는 다른, 소심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정신적인 후유증은 늘 내 곁에 머물렀다.

그 후, 교도소 측에서는 사동에 떨 근무자 용 난로에 연탄 두 어장을 추가해 주었고 식당에는 반찬 몇 가지를 얹혀주었다. 동기생들 중에 몇몇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 곳을 아예 그만두었다.

B교도소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사각형의 요새였다. 네 곳의 망루에는 순찰을 휴대한 경비교도대원들이 밤낮으로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새가 아닌 이상 재소자든, 교도관이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소장과 보안과장의 눈총을 받고 있던 우리들은 이 사각형의 테두리에 싸여 점점 작아 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사동 야간 근무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내복을 겹겹이 끼입고 있어도 벌판에서 복도의 찢겨진 비닐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복도 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연탄 난로 하나로는 도저히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출기는 재소자들도 마찬가지로. 각 방마다 겹옷을 끼입고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내가 순찰을 돌다보면 사람들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러다 봄은 왔고,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다. 나는 교도소 내 규정에 따라 7동 하의 고정담당을 맡았다. 이곳에서 나는 작년 인질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강신재를 만난 것이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그의 소원대로 이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혹독한 징벌방에서 육 개월을 살았다. 그리고 오 개월 가량을 의무반 소지로

있다, 내가 오기 전 일주일 전에 7동 하로 온 것이었다.

7동 하에 첫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었다.

배치부장이 날 별도로 부르더니 그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를 잊고 있었다. 단지 배치부장의 안면을 봐서 나는 건성으로 그렇게 하겠다며 일지를 챙겨 7동 하로 향했다. 7동은 보안과 사무실에서 중문을 네 개를 거쳐야 나오는 곳이었다.

상하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만 육 십 여명이었다. 특히 하에 있는 재소자들은 거의가 전과 3범 이상이었다. 나는 강신재는 별 문제시 하지 않았고 그 곳의 반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다. 전임자는 이 사동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있으려면 그들을 조심하라고 내게 당부를 했다. 내가 막 출입문을 따고 김부장과 교대를 할 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큰소리로 “갱생(更生)하며 경례를 붙여왔다. 난 단지 이 사동의 소지겠지 생각했는데 김부장이 나가면서 “저자가 강신재야” 했다. 그는 이제 막 복도 청소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언뜻 보기엔 그 때 김주임을 인질로 잡고 소란을 피우던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 흉악스럽지도 않았고 그저 밖에서 보던 평범한, 선한 얼굴인 것이었다.

7동 하의 모든 방들은 밤 아홉 시가 넘어서야 조용해 졌다. 나는 복도 한 가운데 에 있는 의자에 기대어 지난 일 년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무렵에 피워 놓은 연탄이 훗훗 타올라 내 옆구리가 따뜻해 오는 것이었다. 멋모르고 시작한 교도관이었지만 우리는 법무부 연수원에서 받던 교정교육을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존의 선배들과 간부들은 신입이던 우리와는 사고가 달랐다. 현장에서 제일

처음 보안과장에게 배웠던 것은 절대 도둑놈들을 믿지 말라는 거였다. 오로지 그들을 제압하고 기를 죽여, 절대 이 안에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 했다. 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연수원에서는 우리의 임무를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 교화라고 가르쳤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형태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것마저도 솔직히 어려웠다. 일 년 사이에 입사 동기생들의 절반이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말았다. 나 역시 이 곳에서 근근히 버텨 나가는 실정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창밖에는 찬바람이 뽀뽀거렸고 방에는 갓 없는 전등불이 재소자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바깥의 거리에는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구세군의 종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연말 분위기로 한층 이끌고 있었다. 변화가의 대형백화점은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기쁜 몸살을 앓았고, 유흥가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곳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달뜬 분위기가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B시의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수감됨에 따라 신입 재소자들이 사방마다 넘쳐나고 있었다. 내가 관리하던 7동 하에도 신입 열 두어 명이 할당되었다. 나는 가능한 신입에 관한 일들은 반장대신에 강신재에게 위임을 하였다. 그러면 기존의 수감자들과 신입들이 마찰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방을 정할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신입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각 방으로 배치했다.

나는 서서히 그를 신입하고 있었다. 매사에 정확하고 소지 일도 잘했으며 동료 재소자들과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도 죄를 짓고 동료 직원을 인질로 삼아 난동을 부린 재소자라는 기억이 내 기억에 꼼꼼히 박혀 있었는데 나의 선입견을 바꾼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 날은 내가 새벽 한 시부터 일곱 시까지 후 근무를 섰던 일요일 아침이었다. 모처럼 창문에 박아 놓은 쇠창살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빗살 무늬 모양으로 사방을 비추어 온기가 느껴지던 날이었다. 한 무리의 배식조가 6동을 거쳐 우리 동으로 와서 큰 양은그릇에 있는 국과 밥을 소지인 강신재에게 떠줄 때였다. 갑자기 6동 반장이 나타나 가지고 온 바가지로 따로 담아 놓은 반찬을 가득 퍼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반찬이라 해봐야 고춧가루가 조금 버무려진 깍두기와 콩나물무침정도 였지만 여기서 그리 넉넉하게 배식되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들 이 상황에서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강신재는 빠른 걸음으로 6동 반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6동 반장이 쥐고 있던 반찬 바가지를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순간 주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하고 삼켰다.

6동 반장은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다. 그는 서면 일대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을 하다 지난 해 수감되어 온 무지막지하고 흉측한 인물이었다.

“아이, 씹새야! 거기 서!”

그러나 강신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와 우리동의 재소자들은 숨을 죽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를 일 이었다. “이런 싸가지 없는” 하며 6동 반장이 거대한 몸짓으로 다가오더니 강신재의 뒷덜미를 주먹으로 내리 치는 것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신재는 몸을 숙였다. 뒤이어 6동 반장이 오른 발을 번쩍 들어 강신재의 등을 찍는 순간, 그는 왼쪽

으로 몸을 살짝 피해버렸다. 중심이 헝클어진 6동 반장이 멈칫하는 사이에 강신재는 그의 안면을 오른 발로 강타해버렸다. “악”하는 6동 반장의 비명이 복도 전체에 울리더니 그는 앞으로 쓰러졌다. 승부는 짧게 끝나버렸다. 강신재는 옆질러진 반찬을 주워 담아 유유히 우리동으로 들어 왔다. 우리 동의 재소자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재소자들 사이에 반장이란 야전군의 중대장 같은 존재였다.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을 강신재. 나는 솔직히 그가 부럽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하였다. 내가 그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나라면 거대한 폭력 앞에 대항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은 못할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야간 근무 때마다 그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확실히 그는 여느 재소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판수감자들이 모두 잠든 밤에 홀로 깨어 있을 때가 많았다. 희미한 전등 밑에서 책을 본다든지 혹은 벽을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조용히 생각하는 모습이 자주 내 시선에 잡혔다. 나는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검방시간에 그의 사물함을 펼쳐 보았는데, 거의가 문학, 인문학, 철학에 관한 책들이었다. 그 중에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건 대학시절 나도 한 번은 읽어 본적이 있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였다. 당시 기억으로 나는 그 책의 내용이 어려워 철학과에 다니는 동아리 후배에게 자문을 구한 것 같다. 나는 점점 강신재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졌다.

며칠 뒤, 나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담 밖에 있는 분류심사과에 있는 동기생에게 전화를 걸어 강신재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다.

아침나절 보송보송한 솜 털 같은 눈꽃들이 바람에 사선으로 내리나

싶더니 이내 그쳐 버리고, 하늘은 희뿌연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눈이 그친 땅 위에는 표독한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덕분에 앙상한 가지들을 가진 나무들은 허리가 휘어지지 않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분류심사과의 동기생을 만나기 위해 담 밖으로 나왔다. 마침 주간에 내가 맡고 있는 작업장의 재소자들이 목욕을 하러 간 자투리 시간이었다.

나는 면회실 부근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들었다. 날씨가 추워서 인지 면회객들은 두어 명뿐이었다. 나는 입김을 불어 가며 커피를 마시다 문득 두어 명중에 안절부절 하는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정복을 입은 날 보더니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저기요, 면회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되나요?”

가까이서 보니 긴 머리에 얼굴이 하얀 무척 단아한 차림새였다.

“꼭 주민증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백에서 하얀 행정봉투를 하나 꺼내 펼쳐 보였다.

“제가 주민증을 잃어 버렸거든요. 대신에 여기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사진이 없는 초본이나 등본은 본인 여부가 확인이 안 되어 규정상 신청이 불가능했다. 면회 올 때 도장과 신분증은 필수였다. 가끔 첫 면회 오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걸 깜박 잊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어렵다고 하자, 그녀는 풀이 죽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돌아 갔다. 그런데 그녀의 걸음걸이가 이상해 자세히 보니 오른 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저런 몸으로 이 추운 날 면회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녀를 보니 참으로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많이 기다렸어? 나오려 하는데 과장이 일을 시켜서.”

그 새 동기생 녀석이 나타나 내가 마시던 커피를 빼앗아 그의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는 동기생들 중 유일하게 전산학과를 졸업해 일반 공무원처럼 일근만 하는 운 좋은 친구였다.

“어때? 보안과 있을 때보다 훨씬 좋지? 야근을 안 하니 말이야.”

그는 대담대신 싱긋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내 말에 인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동기생들에 비해 자신은 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보안과 동기생들은 오전이든 오후든 퇴근시간만 되면 삼삼오오 모여 술도 같이 하고 상사 욕도 하는 데 비해 그는 늘 혼자였던 것이었다. 이 곳의 또래집단에서 비켜 난 따돌림을 그는 정시출퇴근이라는 편안함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

“자네가 부탁한 것, 여기 있어. 보안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보고 적당히 없애 버리라구.”

그는 누런 봉투를 내게 건네 주면서 사무실로 종종걸음을 쳤다.

나는 그 날 밤, 연탄 난로가 있는 7동 하의 책상에 앉아 강신재의 대략적인 기록을 알게 되었다.

그의 본적과 주소지는 경남 양산, 나이 28세, 부산 D대학 국문과 2년 중퇴, 수감 전 직장 양산시 소재 한일기계 선반부, 죄명은 살인, 가족은 홀어머니 한 사람. 분류등급 최하 D. 특이사항 재판에서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항소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

이것이 그의 수감 전 기록이었다. 나는 그가 하필이면 살인죄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항소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수록 그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만 갔다. 나는 머리를 식히려 냉기가 흐르는 복도를 순찰하다 그가 있는 방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오늘도 벽을 마주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멀리 김해평야로 붉은 해가 특 하고 떨어지고 구포역 앞의 간이의자에는 땅거미가 스멀스멀 지고 있었다. 나는 한 뿔도 채 안 남은 양지를 찾아 역 안으로 불 일을 보러 간 박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보안과 직원들의 연말 회식이었다. 여느 직장과는 달리 이곳의 회식은 야간 근무를 끝낸 아침에 하는 것이 관례였다. 벌써 몇 집을 전전해서 집에 가야 했으나, 나는 끝내 마지막 한 잔을 제의하는 박형에게 붙들린 것이었다.

박형은 구포역에서 왼쪽으로 허수구레한 골목집으로 날 데려 갔다. 그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을 보자 술이 깨는지 허름한 방을 하나 잡았다. 침침하지만 빨간 조명이 잘 어울리는 방이었다. 박형은 자리에 앉자마자 느닷없이 내게 강신재의 근황을 물었다. 나는 잘 있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갑자기 그건 왜, 하고 물었다.

“내가 말이야, 어제 그 친구 면회기록을 했거든. 약혼녀라는 여자가 근 일 년 만에 처음 왔었는데 둘이 말은 하지 않고 어찌나 평평 우는지. 내가 기록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약혼녀 말이야 다리를 좀 절어서 그렇지. 참하고 정말 미인이던데 참 안됐어.”

나는 박형이 말하는 강신재의 약혼녀가 혹 며칠 전 내가 분류심사와의 동기생을 기다릴 때 만난 그 여자가 아닌가 싶었다. 뚜렷한 확증은 없으나 왠지 감이 잡히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그 날 힘없이 걸어가는 그녀와 밤마다 감방에서 벽을 바라보던 그가 오버랩 되는 것이었다.

내가 강신재와 관구실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한 것은 박형과 그 집에서 술자리를 끝나고 사흘이 지나서였다. 나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은 꼭 풀고 싶었다. 사방 안은 기온이 푹 떨어져 연탄 난로 하나로는 좀처럼 견디기 어려운 추운 날씨였다. 나는 일찌감치

그에게 각 방의 시건 장치들을 잠그게 하고 재소자들이 잠든 후에 그를 관구실로 불러내었다.

그는 내 앞에서 마치 초등학교생이 교무실에 불러 와 선생님의 지시를 받는 모양으로 어색하게 서있었다. 나는 최대한 그의 경계심을 풀 요량으로 규칙에 어긋나지만 담배를 한 개피 주었다. 그는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나의 권유에 마지못해 의자에 앉더니 맛있게 담배를 피는 것이었다. 나는 불편해 하는 그의 시선을 피해 엇그제 면회 온 여자와 작년에 있었던 인질 사건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난처해하며 “담당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했다. 그는 담배를 필터 앞까지 피우고 있었다. 적막한 시간이 자꾸 흘러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여기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제 약혼자입니다.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지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몸져누우신 후, 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인문계를 나왔고 국문학과 중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요. 다행히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한일 기계에 입사했습니다. 난 그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던 중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그 회사의 경리담당이었지요. 첫 인상이 참으로 맑은, 느낌이 좋은 여자라 생각되어 제가 적극적으로 덤벼졌지요. 시간이 지나자 그녀도 날 사랑하게 되었지요. 신체적 불구는 전혀 걱정이 안되었습니다. 난 의심없이 그녀가 내 아내가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배다른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백수전달에 다 전과도 여러 개 있더군요. 그녀는 그 오빠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

고 있었어요. 매달 월급 때만 되면 귀가하는 그녀에게 막대한 금액을 뜯어갔고,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그녀를 폭행했지요.

그 날도 그녀의 월급 날 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시내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바래다주려는 참이었지요. 그녀 집 근처의 골목길에 이르자 오빠라는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겁에 질린 그녀가 지갑을 꺼내 돈을 찾는데, 금액이 적었는지 내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리고 구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차례 제지를 해 보았지만, 오히려 그는 날더러 공돌이 새끼가 왜 참견하냐고 날 밀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 더 이상 이런 인간에게 그녀가 고통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난 넘어진 상태에서 뽀족한 돌 하나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떡 일어 나 그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그 다음은 아무 것도 생각이...”

그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그는 가볍게 머리를 쥐었다. 나는 그에게 주전자에 있던 물을 따라 주었다. 나는 온 몸이 서늘했다. ‘평범했던 청년이 어쩔 수 없는 가혹한 환경에 몰려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살인자가 되는구나’ 생각하니 사람 사는 게 무엇인가 싶었다. 그는 추운지 물을 마신 후에 몸을 떨었다. 그제야 나는 관구실에 난로가 없다는 걸 알았다.

“항소는 왜 안 했죠? 내가 보기에는 그건 정당방위였는데.”

나는 잠시 화제를 바꿔 그의 우울한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어쨌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 값은 받아야지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때 그의 쓸쓸한 웃음을 읽고 담배를 한 대 더 권했다. 이번엔 그가 순순히 담배를 받는 것이었다. 속이 많이 타는 모양이었다.

“시골에 계신다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데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는 겁니까?”

“.....”

그러나 내 물음에 그는 한 동안 말이 없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그는 괴로운 듯 몇 번이나 고개를 가로젓더니,

“제가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병이 더 악화되었답니다. 걸음을 못 걸으십니다. 약혼녀가 면회오기 전에 다녀왔다는데 말이 아닙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다하더군요. 다 저 때문이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만이라도 봐야 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괜한 걸 물었나 싶었다.

여전히 창 밖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관구실의 백열전구는 축이 나갔는지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가 봄에 이 감을 가지 않으려 필사적인 난동을 부린 이유를 알았다. 그건 혹시나 찾아올지 모르는 약혼녀와 몸이 불편한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다.

말을 마친 그는 내게 꾸벅 절을 하고는 찬 기운이 감도는 방으로 초라하게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지금 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 해 우울했던 겨울은 지나가고 B교도소에도 봄이 왔다.

각 동의 건물 뒤편에 있는 화단에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복수초가 얼굴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 붉은 빛이 강한 자주색을 띤 진달래와 노란 색의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모두 햇살이 따사로운 양지쪽에 몸을 조아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보다도 길가에 나지막하게

피어 있는 민들레에 시선이 갔다. 별로 햇볕도 잘 들지 않은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가지 않은 척박한 땅 위에 핀 민들레는 강신재를 연상하게 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완연한 봄이 오자, 교도소 측에서는 수요일마다 재소자들의 종교활동 시간을 재개했다. 나와 박형은 오늘 낮 근무라 교회에 지원근무를 나갔다. 재소자들은 질서정연하게 모여들었고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님은 그들에게 눈물의 설교를 시작하였다. 모처럼 침울하고 딱딱했던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었다.

예배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새로 부임한 갑부의 강주임이 날 밖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갑을 병 3부의 주임 중에서 재소자들의 전출, 전입을 관장하는 주무 주임이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말을 꺼냈다. 내가 관리하는 7동 하의 수감자 중에 두 명을 안양교도소로 보낼 거니까 다음 주 안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 두 명중의 한 명은 강신재였다.

강주임의 말로는 사고 재발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들을 가급적 연구지와 멀리 보내는 것이라 했다. 그렇지만 나는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이 조직이 군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담당인 나에게 한 마디 상의없이 이런 민감한 사항을 결정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강주임에게 이게 누구의 결정인가를 따지듯 물었다. 그는 이런 날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날 퇴근 무렵에 보안과장을 찾아가서 강신재의 이감을 유보시켜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그에게 강신재의 성실함과 이감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보안과장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는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내게 분

명히 했다. 그에게 더 이상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난 포기해야 했다. 그 때 보안과장은 돌아서서 나오는 내 등뒤로 일침을 가했다.

“왜 이 교도가 나서서 일 개 재소자를 변호하는 거야? 그 새끼에게 뭘 받았어?”

그 날 밤, 나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날 발견했다. 쇠사슬도, 동아줄도 아니었다. 그건 비상을 꿈꾸는 나비의 애벌레가 자신을 움아매고 있는 고치가 너무나 견고하여 도저히 헤쳐 나올 수 없다는 나약한 생각의 실타래였다. 나는 그 실타래를 단번에 풀고 나오고 싶었다. 그게 안 된다면 한 올 한 올 풀어서라도 어서 헤쳐 나와 세상을 날고 싶어졌다.

다음 날 나는 강신재에게 왜래 진료를 제안했다. 그가 이전부터 위 어금니가 썩어 의무실에서 몇 알 받은 진통제로 며칠을 버티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의견에 펍 반기는 눈치였으나 영치금이 얼마 없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내가 대신 내주고 후에 그의 약혼녀에게 반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생각의 굴곡이 회오리바람처럼 깊게 소용돌이 쳤다. 내가 왜 이리도 그에게 이런 강한 집착을 보이는지.

나는 즉시 보안과 서무에게 그의 치과 진료를 신청했다. 보안과장이 결재를 망설이는 눈치였으나 내가 워낙에 강하게 나가자 그는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바로 면회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 그의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당부사항을 알려주고 침착해야 된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현명한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신제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되기 하루 전에 보안과에서 치과 진료 지시가 떨어졌다. 나는 조마조마하던 기스를 쓸어 내렸다. 그의 호송은 을부의 고참부장과 나왔다. 서둘러 그를 불러 보안과 사무실에서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어 호송 차에 태웠다. H병원엔 차로 가면 십여 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다.

넓은 김해평야에는 사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농부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곧 차는 밑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밟으며 구포대 교를 벗어나나 싶더니, 곧 H병원 앞에 도착했다. 고참부장이 원무과에서 진료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그에게 시간을 아낀다는 핑계를 대고 그를 앞세워 치과가 있는 이 층으로 올라갔다.

내 머리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지러웠고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해야 했다. 이 층으로 올라서자마자 나는 그를 낚아채어 화장실로 데려 갔다.

“2154번! 잘 들어.”

그는 갑작스런 명령 투의 말에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보고싶어했지? 내가 단 하루동안 휴가를 줄게. 가서 만나고 와. 단 내 일 아침 8시까지 들어와야 해. 이 약속은 꼭 지켜 줘.”

나는 입술이 바짝 타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담당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씀?”

“긴 말 할 것 없어. 이 쪽으로 쪽 가면 후문이 나와. 계단으로 나가면 당신 약혼자가 갈아입을 옷과 승용차를 준비해 놓았을 거야.”

나는 서둘러 그의 손과 몸을 옥죄고 있는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 주었

다. 그는 여전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지 담당님, 하며 날 불러냈다.

“당신은 내일 안양교도소로 이감결정이 났어. 이 번엔 제발 난동부리지 말고 순순히 가라구.”

그제야 사태가 파악되는지 그는 빨리 날 보는 것이었다. 언뜻 보니 그의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날 한 대 세계 쳐줘. 어서 시간이 없어.”

“그렇게는 못합니다. 담당님!”

그러나 나는 가능한 냉혹하고 차가운 말투로 그에게 명령했다.

“빨리! 밑에 직원이 곧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날 도와주는 거야.”

그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내가 지꾸 재촉하자, 단 한 번에 끝내려는 듯 내게 강한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안경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게 보였다. 이어 보안과장의 질책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내가 사표를 던지는 모습이 중복되어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직장에 매여 그를 한동안 잊고 지냈다. 아내는 그 때 나와 같이 B교도소에 다녀온 후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듯했다. 아마 그건 나의 옛 동료이던 박형이 큰처남을 잘 보살펴 주리라는 한 가닥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중 무더웠던 여름이 별 생각없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즈음, 나는 문득 내 양복 호주머니에 있던 그의 전화번호를 떠올렸다.

토요일 오후, 나는 진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으로 가는 직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전 날 나는 그의 가게에 전화를 걸어 대충 위치를 알아두었다. 어제 나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목소리가 가녀린 여자였는데, 그녀가 그 때의 약혼녀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를 일이었다. 창 밖

의 시골 풍경은 단조롭다 못해 한가했다. 신작로를 따라 코스모스가 가을 바람에 가느다란 몸을 하늘거리며 언덕배기에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이어 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몸을 비틀던 해바라기, 들국화, 봉선화가 언덕배기에 다투어 웃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버스 맨 뒷좌석에 기대어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으나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어렴풋한 모습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십 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짧게 느껴졌다. 그 때 나는 완전한 비상을 한 줄로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민물 거북이가 자신의 등을 말리기 위해 잠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곳을 나와서도 나는 여전히 조직의 획일과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려는 허튼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재차 행정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구청에 다닐 때에도 그때처럼 적응을 못하고 그만 두었다. 그들이 긴 세월 동안 구축해 놓은 기득권의 강력한 벽을 넘지 못한 것이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직장을 전전하면서 몇 년을 생존문제로 고뇌하며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갔다.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졌다. 가족이 생기니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했다. 이제는 올바른 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란 것이 내겐 사치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내가 그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내 생활이 지리멸렬하여 혼자 술을 마실 때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생각될 때면 어김없이 그가 생각이 났다. 내 기억 속의 그는 재소자였지만 불의에 저항할 줄 알고 부당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연산동 지하철역에서 내려 충렬사 방면 출구로 나가, 오른쪽으로 백

여 미터쯤 걸어가니 아크릴 간판에 '연화 도장' 이라고 씌어 진 가게가 있었다. 연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이름은 당시 그의 약혼녀의 것이었다. 결국 그 약혼녀는 그를 기다린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가슴이 떨려왔고 콧불이 발갱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삼 십대 후반의 남자가 머리를 숙인 채로 열심히 목도장을 파고 있었다. 옆에는 가녀리고 함초롱한 얼굴을 가진, 이젠 그의 아내가 되었을 약혼녀가 함박꽃을 피우며 웃고 있었다.

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얼굴은 변함없이 여전히 선량하고 단정했다. 순간 나는 주저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려 진해에서 한 걸음으로 달려 왔지만 그를 본 순간,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이렇게라도 먼 발치에서 그를 보았고, 그의 단란한 가정이 옛 기억 속의 나로 인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그의 가게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언제보다도 더 맑아지고, 뿌듯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제야 연산동 지하철역에서 바라 본 밤 별들이 손전등처럼 내게 환하게 비쳐왔다. 갑자기 내 걸음이 바빠졌고 문득 아내와 이제 네 살 된 아이가 보고 싶어졌다. ⅢⅢ



한 번쯤 사람들은 생의 굴레를 벗고
새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기를 간절히 꿈꾼다.
그것이 이상이든 추락이든.

임종훈 대구 성산중학교 교사

새야, 새야

“형님, 정말 안 내려가실 겁니까?”

“미안하네만 자네가 한 번 더 애비 노릇을 해주게나.”

차를 세워놓은 도로를 향해 좁은 길을 내려가면서 내내 다리가 휘청거렸다. 늦여름 오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는 한여름인 듯 이글거려 그리 오래 걸은 것 같지 않은데도 온몸이 마치 목욕이라도 한 것 마냥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러나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보다 형님의 완고한 고집을 끝내 꺾지 못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더 나를 힘들게 했다. 실 새 없이 흘러내리는 땀도 식히고 잠시 생각도 정리할 겸 발길을 돌려 계곡쪽으로 난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빼곡했을 계곡에는 흐르는 물소리와 반석(盤石)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이 이따금 부는 바람에 검은 물결인 듯 일렁덜 뿐 참으로 적요(寂寥)했다. 앉기에 적당한 물가의 바위를 골라 신발과 양말, 그리고 셔츠를 차례로 벗어 올려놓고는 급하다 싶게 화끈거리다 못해 벌게졌을 얼굴을 씻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시리도록 차가운 물의 세례가 잠깐이나마 속의 불길조차 끄기라도 한 것인지 한결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바지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

굴을 닦고 그것을 빨아서는 팜투성이인 가슴팍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생각같아서는 몸에 걸친 것을 마저 훌훌 벗어버리고 알몸인 채로 물에 첨병 뛰어들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고 허리띠만 느슨하게 푼 채 발을 물에 담그고 그늘이 드리워진 바위에 앉았다.

“형님, 이번 명옥이의 결혼식은 저번 명국이의 그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네만 이제 아이들도 가정을 이룰 만큼 다 컸으니 이 애비의 심정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있네.”

“그러면 영 내려오지 않을 작정이십니까?”

“.....”

“연세 많으신 어머니도 생각하셔야지요.”

“....., 다 내가 못한 탓이네. 부디 이해하게나.”

어디선가 갈색 몸통의 작은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건너편 나뭇가지에 앉았다. 문득 새에게도 슬픔이나 허무같은 느낌들이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무애(無碍)한 허공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는 저 것에 게는 걸림이나 경계 따위가 없어 그런 것들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 세상의 온갖 감정들의 고저(高低)나 기복(起伏) 따위도 없을 듯싶었다. 저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기라도 했는지 새가 훌쩍 날아오르자 서슬에 빈 가지가 가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형님도 저처럼 새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

형님이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놓고 지금 거처하고 있는 암자(庵子)로 잠적한 것은 사 년 전쯤의 어느 봄날이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고 이른 아침부터 누굴까

의아해 하기도 전에 다소 울먹이는 듯한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즈음 형님 내외와 같이 사시지는 않았지만 형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향 옛 집에 어머님이 큰 수술 후 자리를 보전하고 계셨던 터라 혹, 어머니의 병이 더 악화된 것인가 싶어 잠시 긴장을 했지만 뜻밖에도 형수가 전한 것은 형님의 가출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들었는가 싶어 재차 형수께 되물었지만 형님이 적어놓고 간 편지의 내용인즉슨 집을 떠난 것이 분명한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전하는 형수도 그렇겠지만 듣고 있는 내게도 황당한 일이지는 마찬가지여서 일단 형수를 진정시키고 회사 일이 바빠 바로 갈 수는 없고 퇴근 후 곧장 댁에 들러 자초지종을 듣겠노라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가출이라니? 철없는 중, 고생도 아니고 오십이 넘는 형님이? 형수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 바에야 형님이 단순히 아침운동이나 긴한 볼 일 때문에 말없이 일찍 출타한 것을 두고 아침 댓바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을 리 만무한 일일 것임으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이고 보면 무엇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저런 의문들로 회사에서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을 얼마 앞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역시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도 형수께 연락을 받고 놀라고만 있을 뿐 달리 아는 것이 없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어차피 형님 댁에 들러 형님이 남겨 놓았다는 편지에서 그 이유나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인 듯했다. 잠시 아내에게 연락해서 같이 갈까하다가 이내 혼자 가기로 했다. 회사 근처의 톨게이트를 두고 집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렇지만 먼저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았고 좋은 소식도 아닌데다가 내 쪽의 일이라 일단은 감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소읍(小邑)인 고향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 길어지기는 했지만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있는 해를 보다가 문득, 형님의 가출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계획된 일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득해졌다.

형님은 흔히 말하는 수재(秀才)였다. 비록 소읍의 학교이기는 했지만 초, 중학교 때 전교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인근의 대도시로 진학한 고교에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었다. 지나치게 말이 없는 것이 흠이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 그런 것이라며 오히려 미화되었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형님은 소위 개천에서 난 용(龍)과 같은 존재로 그것은 이루기조차 난 적이 없는 작은 동네의 자랑거리이자 빛나는 장래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희망이었다. 더군다나 그즈음 우리 동네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동네에서 처음으로 사범고시 합격자를 배출해서 한바탕 떠들썩했던 뒤끝이라 형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다 못해 열망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린 듯했다. 훗날, 형님과 어느 술자리에서 당시의 형님에 대한 그런 성급한 기대가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심적 부담이 되어 삼학년이 되고서부터는 공부를 하다가도 가끔씩 어딘가로 숨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형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입시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단 일초가 아깝던 막바지쯤의 어느 일요일에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말하고 집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산사(山寺)까지 걸어가서는 하루 종일을 그냥 법당(法堂)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역시 걸어서 밤이 이슬해서야 돌아온 적도 있었다는 것이

다. 아울러 그 때, 고등학교 입시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던 내가 제 몫의 인절미를 먹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내밀어 가슴이 몽클했노라는 기억을 되살려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나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랬다면 어린 마음에도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형님이 몹시도 존경스러워 그를 포한 것이었거나 약소하지만 모쪼록 잘 먹고 기운을 내서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나름대로의 격려였을 것이다. 그 날, 술이 약한 집안 내력에도 불구하고 형님과 나는, 당시는 알 수 없었던 형님의 힘들었던 속내를 뒤늦게나마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명목으로 밤늦도록 술잔을 주고받다 그때껏 처음으로 몹시도 취했었다.

기대대로 형님은 대학입시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 소재의 S대에 무난히 합격했다. 법대(法大)가 아닌 상대(商大)여서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소읍 전체에서도 드물었던 일이었으므로 마을 입구에는 합격(合格)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우리집 마당에서는 당시의 가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무리를 한 것이었지만 한껏 우쭐해지신 아버님의 호기로 여간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면 좀처럼 잡지 않던 큰 돼지가 한 마리 통째로 잡혀 백적지근한 동네잔치가 벌어졌다. 다소 추웠던 날이었음에도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평소 교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인근의 친지들까지 대거 찾아와 형님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장도(壯途)를 위한 덕담(德談)들을 건넸다. 그런 분위기에도 고무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마음고생을 말끔히 털어낸 뒤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말이 없던 형님이 다소 수다스러워진 것을 보고 내 형님곁으로 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는데 순간, 머쓱해진 형님의 표정을 보고는 속

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런 형님에 묻혀 완전히 빛을 바래고 말았지만 그 때 나 또한, 읍 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는 사립고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있었다. 형님처럼 인근 대도시의 고교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님의 학업을 위해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의 만류나 강권(強勸)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소위, 내 스스로 알아서 가는 차원이었다. 내 아래로 중학교 일학년인 남동생이 있었고 그 아래로 비교적 터울이 많이 지는 초등학교 일학년 여동생이 있어 당시 지역 능금조합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아버님의 박봉(薄俸)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며 사남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내 나름대로의 계산과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형님은 늘 나와 아우들에게 마음의 부채를 지고 있었던 듯 틈만 나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었다. 그러나 장자(長子)를 우선하는 고루한 의식에서 형님이 아우들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서였기 때문에 나나 아우들은 그때도 나중에도 형님에 대해 일체의 원망이나 섭섭한 감정 따위는 가지지 않았었다. 한바탕 떠들썩한 동네잔치 이후 오래지 않아 형님은 서울로 올라갔고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거나 방학을 맞아 잠시 집에 다니러 올 때에는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

“형수님은 형님에게서 어떤 이상한 낌새 같은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까?”

형님의 일로 가장 당혹스러울 사람이 형수일 것이니 위로의 말을 건네야 했지만 형수에게 건네는 내 물음에는 다소 쌀쌀한 기운이 묻어있었다.

“오빠도 참, 언넌들 딱 부러지게 이거다 싶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형님택에 와 있던 여동생이 형수를 대신해서 변명하듯 말했다. 동생은 태어나서부터 줄곧 고향에 살고 있는 토박이었다.

“아니, 형님 내외가 다투시기라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는 거지. 중, 고등학생도 아닌 형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냐, 흥서방은?”

형수대신 끼어든 동생을 힐책이라도 하듯 다소 언성을 높여 말해 놓고는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쩍 화제를 바꾸었다. 동생도 나 못지 않게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이겠지만 형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형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이니 형수로부터의 직접적인 대답에서 단서를 찾았으면 싶었는데 동생이 끼어들어 나도 모르게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네,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좀 늦는다고 하네요. 마치는 대로 여기로 올 거예요.”

내 기분을 눈치라도 챌 것인지 동생이 다소 풀죽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서방님, 솔직히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부사이의 이런 저런 다툼이야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으로 형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에 어느 남자가 집에 붙어 있겠어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형수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인즉슨 옳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내 말 속에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그간 내가 보고 들었던 형님의 결혼생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함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님의 느닷 없는 가출을 야기한 한 원인은 될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짐작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형님과 형수의 결혼생활은 신혼(新婚)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그렇게 된 자세한 내막이야 형님 내외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지만 그간 내 듣고 본 여러 가지 불화(不和)의 근거들을 퍼즐을 맞추듯 맞추어 보면 어느 정도는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삼류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인데 가난하지만 두뇌명석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와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집안의 딸과의 그 통속적인 결합에 형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형님의 말을 빌리자면 중매를 통해 만나 그리 길지 않은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했다고 하는데 결혼이후 한참 뒤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고 한다. 형수의 어머니와 큰 오빠가 형님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형님의 마음고생이 몹시도 심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묵하기는 했지만 자존심 강했던 형님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 또한 한참 뒤에 형님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다.

어느 해 추석, 형님이 형수와 어린 조카들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내려온 적이 있었다. 사전에 형님 혼자 내려온다는 말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올 것이라 여기고 있다가 형님 혼자 나타나자 모여 있던 가족들은 한결같이 의아해 했다. 더군다나 지금과는 달리 집안 행사의 중심으로 만머느리의 역할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생각지도 못한 형수의 부재(不在)로 졸지에 명절을 맞은 집 같지 않게 영 썰렁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형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며 몇 번이고 묻는 어머니께 형님은 처가 쪽으로 긴한 일이 있어 부득불 같이 오지 못했다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고 말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형님의 표정이 몹시도 흔들리고 어두워 보여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끝낸 후 처가에는 언제쯤 갈 예정이냐며 형님이 내게 넌지시 물어왔다. 오후 느지막하게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잘 됐다며 그러면 잠시 자기하고 어디를 좀 가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서인지 속이 더부룩하여 산책이라도 할까 하는 차였기 때문에 두말없이 형님의 뒤를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 딱히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형님은 앞장서서 집 뒤편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나 또한, 형님의 복잡한 심정을 짐작하고 있는 터라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목적지가 가까워져서야 형님이 가고자 했던 곳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창건된 지 오래된 작은 절이 있고 약수터가 있는, 어릴 적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또래의 아이들이 주된 놀이터로 삼던 곳이었다. 법당에 들어가 참배를 마치고 나와서는 약수터로 가 맑은 물로 입을 헹구고 형님과 나는 가까운 바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형님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당시 결혼한 지 일 년 남짓 지난 내게 신희재미가 어떠한 말을 서두로 하여 형님은 평소답지 않게 많은 말을 쏟아냈다. 형수의 불참이 며칠 전에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다툼의 이유인즉슨 형수의 말에 의하면 시택이 금전적으로 손을 너무 벌린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친정이 부유하다는 것을 기회로 아예 봉이라도 잡은 듯이 특하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작심하고 말을 해대는 형수와는 달리 형님은 말없이 듣기만 했는데 그 침묵을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한 형수의 입에서 급기야 '거지같은 집안'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격분한 형님이 결혼이후 처음으로 뺨을 때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직후 이혼이라는 말까지 입에 울리며 펄펄 뛰던 형수는 조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오래지 않아 전후사정은 생각지 않고 오직 손찌검을 한 형님의 행위만을 신랄하게

비난해대며 당장 와서 형수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다시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장모와 고분고분해도 뭇한테 손찌검이 웬 말이나며 흥분해대는 처남들의 전화질에 집에 내려오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것이었다. 내 비록 형님의 말을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지만 가슴 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서글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그 무엇이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이든 해서 형님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온통 백지장으로 변해버린 것인지 도무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다못해 형님의 그 잘난 처가를 상대로 한바탕 욕설이라도 퍼부었으면 시원할 것도 같았지만 한낱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져 꺾눌러 참았다. 형님의 참담하고 외로웠을 심정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다. 그러나 형수의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천박해서 그렇지 내용상에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니었다.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취직을 한 이후 받은 월급은 용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집으로 보내졌고 그 돈은 아버님의 박봉만으로는 부족한 나와 아우들의 학비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형님의 결혼 이후에도 비록 이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계속되었다. 더군다나 형님이 결혼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평소 혈압이 높았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자리보전을 하고 만 탓에 어머니가 인근의 잠사공장에 나가 벌어오는 약간의 수입과 그즈음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 인근의 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갓 취직한 내가 보내주는 약간의 돈이 소득의 전부였으므로 그것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랐고 당시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두 동생의 학비며 아버님의 약값을 위해서는 형님이 보내주는 돈은 정말 요긴할 수밖에 없었다. 사는 것이 막막해지면 염치조차 없어지고 마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런 송금으로 하여 행여 형님이 사돈댁에 미운 털이라도 박히지나 않을까 조

심스러워하던 어머니가 송금 날짜가 사나흘 정도 늦어지면 전화로 은근히 독촉을 하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매달 송금되던 돈 말고도 이런저런 집안 대소사(大小事)의 목돈 중 상당 부분을 또한, 형님에 의존했었다. 그것이 가난한 집안의 말이로서 그리고, 아우들에 대한 부채의식의 깊음으로서 형님이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내가 생각하기에도 실로 과중한 부담이었다. 추측컨대 그로 인해 모자라는 형님의 생활비는 형수가 친절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충당했을 것이니 형수의 '거지같은 집안'이라는 도발적인 말 속에는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편이 있음에도 친정에 손을 벌려야 하는 형수의 무너진 자존심과 그로 인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때, 형님은 다른 곳도 아닌 왜 그 곳으로 갔었던 것일까? 비록 가난했지만 즐거웠던 유년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는 그 곳에서 사람에게 게서 위로받지 못한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싶었던 것일까? 내려오기 직전 형님은, 어쩌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르고 백을 했다. 결혼하기 전 마음에 두고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으나 그녀 또한,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끝내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그리하여 자존심을 팽개치며 했던 형수와의 결혼이 가난한 집안과 아우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신(立身)과 허욕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 날, 다소 슬픔이 깃든 듯한 형님의 그 말이 어쩐지 내게는 고백(告白)이 아니라 고해(告解)처럼 들렸다. 이후, 형님과 형수의 화해는 형님의 일방적인 백기 투항으로 이루어졌을 공산이 컸지만 그것은 짐작일 뿐이고 다만, 가끔의 만남이기는 했지만 형수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이전보다 한층 더 데면데면해졌다.

“그러시면 영 짚이는 것이 없으십니까?”

마치 취조를 하고 있는 형사가 된 느낌이었다. 형님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형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형수에게 가지고 있던 내 오랜 유감의 앙금 때문일 것이다.

“짚이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조를 잘못한 저 때문이겠지요.”

깊은 한숨 끝에 매달아 던지는 형수의 말에서 가시처럼 예리한 그 무엇이 느껴져 순간, 움찔했다.

“형수님,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형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형님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형님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작정한 행한 일이 아닐 것이고 보면 그 이유를 알아야 조금이나마 형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남들이 이 일을 알면 제가 형님을 오죽 들볶았으면 집을 다 나갔겠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

“서방님이 예전부터 저를 그리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두 형제분이 만나서 나는 이야기들 중에 필시 저와 제 친정이 형님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 하자면 제게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와서 새삼 이렇고 저렇고를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실 그랬다. 형님과 형수, 그리고 나도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나이고 보면 지난날들의 묵은 미움이나 섭섭함

따위에 연연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좀 더 삶을 깊고 넓게 보는 마음이 필요했다. 과거를 들추어 상처주고 상처받는 것은 보다 젊었던 시절의 치기어린 만용 같은 것이었다.

“오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편지를 한 번 읽어보세요.”

침묵을 깨려는 듯 동생이 제 뒤의 탁자에 놓여있던 편지를 집어 내게 건넸다. 흔한 A4 용지나 일반 편지가 아닌 사찰의 이름과 연꽃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편지였다. 이 년 전 갑작스런 명예퇴직 후부터 부쩍 불교에 심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싶었다. 눈에 익은 형님의 필체로 한 장 가득 씌어진 편지를 두서너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동생의 말대로 가출의 뚜렷한 이유나 구체적인 행선지를 추측할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다. 형수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는 것과 그간의 삶에 대한 형님의 심경을 담담하게 밝히는 내용,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연락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전부였다. 다만, 심경을 밝힌 부분 중 살았으되 눈앞의 삶에만 급급했음으로 알게 모르게 자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그리하여 참회하는 심정으로 비록 늦었지만 ‘마음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 어떤 암시(暗示)처럼 마음에 와 닿았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광대무변(廣大無邊)의 우주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은 형님이 일으킨 빅뱅을 제각각 이해해야만 했다.

“조만간 연락하신다니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군요.”

편지를 다시 동생에게 건네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는 투로 내가 말했다. 처음 형수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년 전, 아직 오 년여는 족

히 남아있는 직장, 그것도 고위직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많다는 대기업의 요직을 느닷없이 그만 둔 것이나 이후 바로 고향인 소읍으로의 낙향(落鄕), 심지어 그 몇 해 전에 겪은 아우의 예기치 못한 사고사(事故死) 등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의 불길한 예감에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년 이맘때쯤인가부터 형님의 눈치가 이상하긴 했어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내 말이 결론처럼 들려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을 듯한 분위기를 반전이라도 시키려는 듯한 형수의 말에 나와 동생은 동시에 형수를 쳐다보았다.

“자기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승려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우스개 소리를 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이미 반은 머리카락이 없어 반만 깎으면 될 테니 다른 사람보다는 쉬울 것 같지 않느냐는 식의 농담도 다 하더군요.”

.....

“서방님이나 고모도 알다시피 형님이야 반은 스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쪽으로 열심인 사람 아니에요. 회사에 다닐 때도 그 바쁜 와중에 틈만 나면 절을 찾아다녔고 어떤 때는 모처럼의 휴가조차 암자에 들어다 보내고 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좀 전 편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암시(暗示)가 형수의 말과 합쳐져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라 나도 모르게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설마,와 어쩌면,이라는 확실치 않은 사실에 기인한 부정과 긍정이 순간적으로 맞서 밀고 당기는 통에 머릿속이 혼란해졌다.

“언니, 그러면 큰 오빠가 가출(家出)이 아니라 출가(出家)라도 하셨단

말이에요?”

각자의 심사는 어떻게 몰라도 겉으로는 느슨하던 방 안 공기가 놀란 듯 눈까지 크게 뜨고 말하는 동생으로 하여 일시에 팽팽해졌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사람을 나무라는 듯한 표정으로 형수와 나는 동생을 쳐다보았다.

“저도 설마 큰 오빠가 그 나이에, 그리고 아쉬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참, 방정맞기는. 형수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는 않고… 출가라는 것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이나.”

눈을 부릅뜨고 동생을 쳐다보며 말은 했지만 내 스스로 듣기에도 힘이 없는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서방님. 차라리 후련하네요. 아침에 서방님께 전화를 한 후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봤는데 고모가 말한 것과 같은 결론밖에 달리 떠오르지를 았더군요. 잠시 어디를 다녀올 요량이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을 테니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실체도 없이 뿌영게 흐려보이다가 선명해지는 듯했는데 그 자체가 다시 안개 속으로 서서히 숨어드는 느낌에 입안이 바짝 말라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 아닌 누군가가 끊임없이 무슨 말인가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맞은 편 거실 벽면에 걸린 ‘반야심경(般若心經)’ 액자만 흡사 낫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적당히 취기 오른 얼굴의 매제(妹弟)가 들어오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방안의 무거운 공기에 입을 다물었다.

아직은 이른 봄이라 그런지 한밤의 강가는 제법 쌀쌀했다. 매제가 들

어은 후 세 시간여를 형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열두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섰다. 원래는 형님 댁에 들렀다가 자주 찾아뵙기는 했지만 이왕 온 김에 어머니를 뵙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공연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 바로 돌아가기로 했다. 늦었으니 제 집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바로 직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동생 내외의 권유를 마다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다가 문득, 이대로는 집에 가도 쉬이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편의점에 들러 석 달 가까이 끊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사서는 이곳을 찾은 것이다. 상류에 댄이 생긴 이후부터 유량(流量)이 대폭 줄어 강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지만 내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맑고 깊은 강이 유장(悠長)하게 흘러 형님과 나, 그리고 또래의 친구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아 하루 종일을 천둥벌거숭이로 먹을 감거나 모래톱에서 씨름을 하며 놀았었다. 그 때, 우리의 유년(幼年)을 세례(洗禮)하며 흘러던 강물이 넓디넓은 바다를 이루었다면 그만큼의 세월이 흘러 초로(初老)의 나이에 이른 형님과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 나는 청맹과니처럼 한 치 앞의 생도 보지 못한 채 다만, 버거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형님은 대체 무엇을 보고 또한, 그것을 부동켜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모처럼 피운 담배 탓인지 머릿속이 어질어질하여 마치 한 마리 거대한 검은 뱀이 기어가는 듯 흐르는 강과 마주보이는 어둔 산 속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 심지어 한밤의 강가에 앉아있는 나 자신조차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졌다.

‘형님이 무척이나 힘들어했던 것은 작은 서방님의 갑작스런 죽음과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형님이 맡아야 했던 악역으로 인한 죄책감이에요.’

방금 전에 들었던 형수의 말이 귓전을 땀똥다가는 아득히 멀어지고 다시 메아리로 되돌아와 현실이 아닌, 마치 꿈 속 저편에서 들리는 말인 것만 같았다.

아우의 불행한 사고와 그리고 죽음, 그것은 제각각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가고 있던 가족에게 불어 닥친 한 줄기 광풍(狂風) 같은 것이었으며 오래 전 오십대 초반의 나이에 숙환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별세 이후 다시 맛봐야 했던 커다란 슬픔이자 상실(喪失)이었다. 친구를 만나고 밤늦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우는 지름길이라고 택한 산복도로에서 그날 저녁부터 내린 비로 미끄러워진 도로의 커브를 돌다 그대로 미끄러져 허술한 가드레일을 부수고는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뒤따라오던 차가 급하게 연락을 취해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고 도착 직후만 해도 영망으로 찌그러진 차체에 끼여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던 아우는 어렵사리 구조를 해서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채 도착하기도 전에 앰블런스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아우는 사십 대 중반의 나이였고 늦은 결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다니고 있던 남매의 아버지였다. 그 때 소식을 듣고 인근 고향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고령(高齡)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다 못해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러 행여 줄초상이라도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을 만큼 온 가족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 그런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그 날 이후 형수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형님의 슬픔이 유독 컸었다. 제수씨를 위로하다가가는 줄지에 아버지를 여윈 어린 조카들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수의 말에 의하면 새벽에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려오려 했으나 형님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회사 일이 있어 그러지 못했는데 내려오는 기차에서 내내 눈시울을 붉

혀 위로하느라 형수가 애를 먹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공원묘지에서의 장례식을 마치고 오후 느지막이 바쁜 회사 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형님 내외를 내 차로 역까지 배웅했었는데 달리는 차안에서 형님은, 자신도 신경을 쓸 터이니 가까이에는 내가 제수씨와 조카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거듭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침울하게 내다보고 있던 형님은, 산다는 것이 참 허망하다는 것과 아우의 죽음조차 변변히 애도(哀悼)하지 못하고 쫓기듯 허둥지둥 올라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역 대합실에서 차를 기다리며 사고 뒷수습과 향후 제수씨와 조카들의 생활에 관한 이런저런 말들을 두서없이 나누던 중 형님은, 아우의 죽음이 자신의 죄만 같다는 말을 했다. 그 때는 다 마찬가지로 지었지만 나 또한, 경황이 별로 없었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하는 장자(長子)로서의 가부장적(家父長的) 의무감에서 나온 형님의 의례적인 말로 흘러들었다. 그러나 조금 전 형수의 말에서 그것이 형님에게는 얼마나 깊은 자책의 말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우는 죽기 몇 해 전만 해도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비교적 건실한 중소기업의 중견 간부였다. 형님과 나와는 달리 아우는 사교적이고 활달해서 주위에 친구가 많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IMF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곧 구조조정 의 회오리가 몰아쳤고 그 와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회사에서는 아우를 잡아두려 했으나 동료들이 줄줄이 그만두는 마당에 도저히 더 있을 수 없다며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나와 버렸다고 했다. 그 일로 내게 철부지도 아니고 처자가 딸린 가장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질책을 당했으나 그저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며 웃기만 했었다. 사정을

잘 몰랐던 형님이 형님 회사의 하청업체에 자리를 알아봐주마 했으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회사 생활도 해볼 만큼 해봤으니 더 늦
 기 전에 작더라도 제 일을 한 번 해보겠다며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후
 의 일들은 아우의 생각대로 풀리지를 않았다. 그간 저축한 돈과 퇴직금
 조로 받은 돈으로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일 년 반 만에 손을 털고
 말았다. 다시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으로 소규모 외식 사업을 벌였
 으나 은행 이자를 약간 상회하는 수입밖에 얻을 수 없어 생활비를 충당
 하기에는 어렵도 없었다. 당시 이따금 만날 때마다 까칠해진 아우의 모
 습을 보는 일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으나 나 자신도 그리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고 다만, 그 때 그 때
 약간의 돈을 융통해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형수에게 듣기 전까지 나는
 까맣게 몰랐지만 그 때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것은 형님이었다.
 아우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실패도 긍정적으
 로 생각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일 수 있으니 그를 교훈 삼
 아 다시 시작해보라며 그간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비교적 많은 액수
 의 돈을 아우에게 선뜻 건넸고 외식 사업이 고전을 하고 있을 때도 적
 지 않은 돈을 생활비조로 보태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형님에게 비상금
 은 보통의 남자들의 경우처럼 자신만의 은밀한 용돈나 유흥비를 충당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쪽으로 영 쟁병이기
 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매월 드리는 어머니의 용돈 외에 더 필요한 부분
 들, 이를테면 거주하고 계시는 오래된 고향집의 수리에 만만찮게 드는
 비용이나 각종 의료비, 그리고 가족 행사시에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하
 는 부분 외의 추가적인 부분 등등을 형수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
 서 충당하기 위한 형님 나름대로의 교육지책(苦肉之策) 같은 것이었다.

물론 그 대부분은 눈치 빠른 형수께 이미 간파당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형님에게 이제 아우들도 제각각 일가를 이루어 안정이 되었고 어머니 모시는 일이야 형제들이 분담을 하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닐 터이니 팬스레 형수께 책잡힐 일은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형님은 대답 대신 윙크하듯 그저 한쪽 눈만 찡긋하고 말던 것이었다. 그 모습이 내게는 어찌 그리도 처연하게 느껴지던 것인지 형님을 생각하면 늘 그 모습이 겹쳐져 떠오르곤 했다. 그런 알토란같은 돈을 지원했지만 아우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죽기 열흘 전쯤 아우는, 소득 없는 외식 사업을 그만 두고 그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생각한 사업을 해보고자한다는 전화를 형님께 했다는 것이었다. 직접적으로 돈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형수가 느끼기에도 도움을 청하는 내용 같았는데 당시의 형님으로서는 형수와 의논하지 않고서는 많은 적든 더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을 것임으로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전화를 끊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아우의 불행한 죽음을 겪게 되었고 나중에 제수씨의 말에 의하면 그 날 저녁, 비가 내리고 있어 위험하니 내일 가라는 제수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우가 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은 다소나마 돈을 융통해주겠다는 친구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급히 만나야 한다며 나갔다는 것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형님의 마음은 더 참담했을 것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마련해줬다면 아우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두고두고 형님을 괴롭혔을 것이다.

“사실 그 때 저희 집 사정도 그리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명국 이와 명옥이 둘 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형님 월급으로는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모자라는 것

은 내가 친정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받은 돈으로 충당했구요.”

그랬을 것이다. 나 또한, 제수씨의 말을 들었을 때 죄책감 비슷한 것이 들기는 했지만 설령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아우의 사업에 선뜻 돈을 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당시 형님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퇴근해서는 아예 휴대폰을 꺼두었고 한밤에조차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어떤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을 맞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내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도 그런 분위기로 뒤숭숭했었다. 그러나 그리 인원이 많은 회사도 아니었고 사장의 방침인즉슨 퇴직하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자연스런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던 터라 그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던 친구는 차마 못할 짓이라 아주 죽을 맛이라는 심경을 만날 때마다 토로하곤 했었다. 어떤 때는 퇴직대상자로부터 친구의 집으로 밤늦게 전화가 와서는 그러고도 발 뺀고 사는지 두고 보자며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퍼부어대 이러다가 노이로제에 걸려 명대로 못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었다. 피 묻은 손, 친구의 입에서 비명(悲鳴)처럼 터져 나왔던 그 말이 형님이 처한 당시의 변민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었을 것이다. 결코 형님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했었을 그 악역(惡役)이 아우의 죽음과 더불어 상승작용을 일으켜 견디기 힘든 천근만근의 무게로 형님을 짓눌렀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형님을 회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간(世間)조차 떠나게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발밑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담배꽂초들로 시간이 꽤 흘렀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순간에는 시간도, 삶도 무의미(無意味)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이따금 구름을 벗어난 달이 교묘한 빛을 흩뿌릴 때마다 고기비늘처럼 반짝거리며 흐르는 강물과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거대한 무덤처럼 버티고 선 산이 유한(有限)한 존재에게 던지는 무한(無限)의 물음으로 가슴을 파고들어 까닭 모르게 목이 메어왔다. 그리 길지 않은 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은 살아있음으로 감내(堪耐)해야 할 저마다의 몫 같은 것일 터이지만 때로는 그 몫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 걸어온 길 위에 깊게 패인 발자국들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시간도, 생(生)도 찾지 못하는 그 어딘가로 흔적도 없이 잠적하고 싶은 것이다.

형님의 행방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밝혀졌다. 형님 말대로 기다린 지 이십 여일쯤이 지나 스스로 떠났던 것처럼 스스로 강원도의 한 암자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가족의 만류에 오랜 결심이 흔들릴까봐 도망치듯 떠났지만 그로 하여 자신의 뜻을 알았을 터이니 가족들, 특히 어머니와 형수로부터 이해나 용서를 구하고 훌가분하게 떠나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 날 저녁 무렵,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둘러 아내와 함께 어머니 댁을 찾았는데 분위기가 침울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차분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방안으로 들어서는 나를 보고 형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 또한, 말없이 눈으로 답했다. 밤이 이슬해서 여동생 내외가 돌아가고 아내와 형수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형님과 나는 바깥으로 나와 완연한 봄밤의 강둑을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짐작대로 형님은 이전부터 떠날 준비를 치밀하게 했었다. 형님이 없으면 안 될 여러가지 세속적인 일들, 이를테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진즉에 해지시켰고 이런저런 채권채무 관계를 말끔히 정리했었다.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님은 회사를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 이외의 명퇴금과 전별금의 일부를 떼어 만든 비교적 많은 액수의 돈을 나누어 떠나기 며칠 전에 절대 비밀로 하라며 어머니와 제수씨에게 건네기도 했었다. 어릴 적 형님과 내가 즐겨 찾았던 강의 한 지점에 이르러 잠시 선 채로 말없이 내려보다가 불쑥 “그곳이 무릉(武陵)입디까?”라고 내 입을 떼었는데 느닷없는 물음에 허를 찔린 듯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던 형님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으며 손바닥으로 내 등을 툭툭 두드렸다. 아직까지도 그 때 형님이 내 등을 두드린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백 마디 말로써 구구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함의(含意)를 지니고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 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태도였다. 형님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며칠도 되지 않아 형수로부터 들은 어머니는 전생(前生)에 당신이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기에 한 아들은 가슴에 다 묻어야 하고 또, 한 아들은 온다간다 말도 없이 행방을 감추는 것이냐며 가뜩이나 온전치 못한 심신으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시다 끝내 탈진하고 마셨는데 정작 형님을 앞에 두고는 오히려 담담하셨다. 당신은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조금도 염려치 말고 그간 당신과 아우들로 인해 어깨며 등에 바리바리 짊어지고 살았을 짐들이 참으로 무거웠을 터이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형님 뜻하는 대로 한 번 살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형수는, 얼마 있지 않음

면 귀국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 반 낙담 반으로 말했지만 어머니는 다 장성한 아이들이니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며 저희들이 공부하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떠났듯이 제 애비도 못다 한 공부하러 떠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아니냐며 형수를 달래셨다. 추측컨대 어머니의 그런 초연함은 체념이 아니라 평소 가볍게 행동하지 않던 자식의 신중한 성격이나 태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형님의 심중(心中)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 본 후에 내린 현답(賢答)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내린 결론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 형님은 만 하루 동안의 하산(下山)을 끝내고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챙겨 다시 훌쩍 떠났다. 이후 사년 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님은 단 한 차례도 집에 다녀가지를 않았다. 그간 여러 차례 형수가 조카들을 대동하고 암자로 형님을 찾아갔었고 나 또한 여러 차례 이유가 있어서 혹은, 이유 없이 형님을 찾아갔었다. 형수는 조카의 혼사(婚事)나 어머니의 병환을 빌미로 내려올 것을 권유하기 위함이었고 나는 그런 형수에게 등 떠밀리거나 그곳에 형님이 있어서라는 막연한 명분으로였다. 언젠가 내 그곳에 들렀을 때 형님과 함께 기거하고 있던 젊은 학승(學僧)에게 농담 비슷하게 불문(佛門)에 귀의한 정식 스님도 아닌 형님이 해탈(解脫)은 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건넸더니 머리만 깎지 않았다 뿐이지 오히려 젊은 자신보다 경전 공부나 참선 수행이 더 돈독하여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정색을 한 대답이 돌아왔다. 문득,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나이가 더 들고 산중생활이 힘들어지면 형님 스스로 다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미련 같은 것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더위를 식히려 찾아 든 것인데 혼자만의 골똥한 생각에 빠져 알지 못하는 사이 제법 시간이 흐른 듯했다. 깜빡 든 잠에서 퍼뜩 깬 듯한 눈으로 계곡 주위를 빙 둘러보자 적요한 것은 매한가지였으나 들 때보다 숲의 빛깔이 좀 더 짙어지고 그늘이 깊어져 있었다. 불현듯 사는 일이 남가일몽(南柯一夢)만 여겨지면서 근원(根源)을 알 수 없는 내 안 어딘가로부터 까닭모를 아릿함이 일어나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내게 그런 느낌은 생(生)의 모든 것이 잠깐 동안의 꿈일 것이라는, 그리하여 허무(虛無)에 기인한 텅없음이나 부질없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유한(有限)한 존재가 가끔 그 사실을 잊고 무한(無限)한 존재인 것처럼 살다가 다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의 막막함이나 애뜻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눈을 들어 형님이 머무르고 있는 암자 쪽을 대충 가늠하여 쳐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울울한 푸른 숲과 그것이 이따금 부는 바람에 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뿐이었다. 다시 형님을 찾아가 같이 내려갈 것을 권유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단념했다. 그것은 권유의 문제가 아니라 형님의 의지나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설령 형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 이보다 더한 첩첩산중(疊疊山中)이거나 절해고도(絕海孤島)였다 할 것이라도 세간과의 연을 아주 끊고 살 작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면 지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나마 집을 다녀가거나 하다못해 연락이라도 취했을 것이다. 내가 찾기 며칠 전에도 이미 형수나 조카가 같은 이유로 형님을 찾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굳이 조카딸의 결혼식 운운했던 것은 나름대로 형님의 마음이나 의지의 정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형님의 단단한 마음만 확인하고 만 것이 되었지만 그에 대해 처음에 품었던 것과 같은 의문을 다시 되새기거나 시

비(是非)를 따지지 않을 것이다. 형님이 초로(初老)의 나이에 스스로를 산중에 위리안치시킨 까닭이 그 무엇이든 그것은 온전히 형님의 선택 이었고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생의 몫이기 때문이었다. 각자의 얼굴이나 성격이 다르듯 단 한 번 주어진 삶의 행로도 각자가 다를 것이며 그것을 영위해 가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형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렇듯 허위허위 산중을 찾은 것이나 기어이 생각을 꺾지 않고 산중에 머물고자 하는 형님의 의지는 다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視線)의 차이일 뿐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찾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내려가는 내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과 그를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일었을 같등이나 번민을 애써 누르고 아우를 그냥 내려 보내야 하는 형님의 심정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간에서 우리가 쉬이 범하던 우(愚)가 타인의 생을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고 마는 것이거니와 형님의 은둔이 현실의 도피든 혐오든 아니면, 스스로의 내면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뒤늦은 성찰(省察)의 몸부림 같은 것이든 그것은 타인에 의해, 심지어 오래 형님을 지켜본 아우인 나조차도 쉬이 말할 수 없는 오직 형님 내면의 그 무엇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불가(佛家)에서 이르기를 깨달음을 얻는 곳에 있어 산중과 세간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였으니 형님이 외롭고 쓸쓸한 산중에서 생의 그 무엇을 붙들고 치열하게 의문을 던질 때 나는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그것의 답을 찾으려 들 것이다.

좁 전의 그 새였을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계곡 아래쪽에서 포르르 날아와 내 머리 위로 드리워진 나뭇가지에 앉아 잠시 맑은 소리로 지저귀다 이내 암자가 있는 산중턱을 향해 날아간다. 가되, 허공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저 새.

이제 내려가야 한다. 가서 슬픔에 겨워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형수와 조카들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해주어야 한다.

형님은 한 마리 새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길 없는 길을 고요히 날아가는 그런.

IIII

내가 형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렇듯 허위허위 산중을 찾은 것이나
기어이 생각을 꺾지 않고 산중에 머물고자 하는 형님의 의지는
다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視線)의 차이일 뿐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종락〉

불가(佛家)에서 이르기를 깨달음을 얻는 곳에 있어
산중과 세간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였으니
형님이 외롭고 쓸쓸한 산중에서 생의 그 무엇을 붙들고
치열하게 의문을 던질 때 나는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그것의 답을 찾으려 들 것이다.

좀 전의 그 새였을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계곡 아래쪽에서 포르르 날아와
내 머리 위로 드리워진 나뭇가지에 앉아 잠시 맑은 소리로 지저귀다
이내 암자가 있는 산중턱을 향해 날아간다.
가되,
허공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저 새.

- 본문중에서 -



버스종점을 배경으로 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그 속에서 어린 희범이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신체적 고통, 엄마와 기수아저씨의
비밀, 아버지의 외도 등을 겪고 극복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심옥주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 교사

종점

1.

“이 놈에, 개새끼.”

나는 연탄집게를 번쩍 들었다. 가히 위협적인 태세로 그것을 그놈에게 들이댔다. 그러나 이 망할 놈의 개는 나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 조금 뒤로 물러설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리에 어찌나 힘을 주고 서 있는지 흠바닥에 오선지 같은 줄이 여기저기 그어졌다. 몽이만이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나는 그의 앞다리를 잽싸게 찼다. 연탄집게의 창살이 앞다리에 가 닿기도 전에 깨깁하고 앞발을 들어올리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이 고소하기만 했다. 왼쪽 앞다리에 털이 떨어져나가고 그 자리는 까맣고 지저분한 딱지가 앉아, 그렇지 않아도 꺼림칙한 물골이 더 형편없어 보였다. 그랬다. 땡칠이는 이미 나에게 단단히 응징을 당한 터였다. 일주일 전쯤에 우리 집 마당까지 기어들어와 몽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하교하고 돌아온 나에게 덜컥 잡히고 만 것이다. 아직 발깡게 열기가 남은 연탄집게로 그의 앞다리를 정통으로 찼는데 살이 꿰이기 무섭게 손살 같이 도망가 버렸었다. 그날은 연탄집게를 들고 한바탕 기분 좋게 웃었는데 몽이는 제집에 들어가 저녁 늦게까지 밥도 굶고 나에게 안기려 들지도 않았다.

사실, 몽이는 땡칠이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몽이가 땡칠이와 노는 것이 싫었다. 늙은 떠돌이 수캐 주제에, 하얗고 보송보송한 털에 ‘말티즈’라는 꽤 귀찮은 품종의 몽이와 회색과 누런색이 마구 섞여 그 품종조차 알 수 없는 땡칠이는 무엇하나 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별한 우정을 과시하곤 했다. 몽이는 사료의 양이 적든 많든 꼭 반쯤 남겼는데 그것이 땡칠이 몫이었다. 몽이의 밥그릇에 입을 쳐 넣고 허겁지겁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땡칠이를 여러 번 목격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발길질을 해대며 그 놈을 쫓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내 발길질은 언제나 허공에서 헛돌 뿐, 그놈의 엉덩짝 한 번 치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를 쫓아내기에 안성맞춤인 연탄집게를 발견했고, 그 후로는 그놈과의 싸움에 항상 연탄집게를 휘두르게 되었다.

“너네 집에 썩 못가!”

일부러 상처 난 자리를 노려서 찌르는 시늉을 했다. 위협만 주려고 했는데 같은 자리를 또 가격하고 말았다. 땡칠이는 창살에 딱지가 뜯겨 나가 거무죽죽하게 끓은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연탄집게를 냅다 집어던졌다. 눈알을 부라리며 발부리로 흠을 그놈에게 사정없이 튀겼다. 그러나 나는 곧 이 신경전에 지쳐버렸다. 작전을 바꾸어야 했다. 이길 수 없을 때 최선의 방법은 후퇴하는 것이다. 후퇴, 몽이를 품에 안고 집에 들어와 버렸다. 마당에 덩그러니 남은 땡칠이는 연신 쿵쿵거리다가 꼬리를 내리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솔직히 내게 땡칠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늙고 병든 떠돌이 수캐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처음 이 동네에 땡칠이가 나타났을 때 -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의 출현을 알아챈 것도 나였다. 나는 등하교할 때 버스 종점을 지나가야하는 데 그 높은 겁 없이 거기를 거처로 정한 것 같았다. 땡칠이는 하루에도 수차례 아저씨들한테 발로 걷어차이거나, 세차장 호스로 물세례를 받는데도 질기게 버티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다. 처음엔 재미로 몇 번 훑려주다가, 것도 시들해진 모양인지 시간이 좀 지나서는 더 이상 그 개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일하는 분식점으로 가는 길에 땡칠이가 페타이어 밑에서 엎드려 있는 것을 길수 아저씨가 한동안 안쓰럽게 바라보다 집으로 데려가는 걸 보게 되었다. 길수 아저씨가 데려가기 전에 나도 두어 번 그 녀석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했었다. 그런데 은혜도 모르다니.

큰 도로 끝 버스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뒷골목으로 집이 들어선 이 동네에서 내 또래라고는 나와 학교 친구인 경호가 전부였다. 엄마 등에 업힌 아기도 몇 되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관심 밖이었다. 버스 종점이라서 출구에는 언제나 버스들이 기차처럼 늘어서 있고, 페타이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서 밤이 되면 그 주위는 음산하고 사위스러웠다. 게다가 버스 기사 아저씨들의 거칠고 사나운 욕설들 때문에 나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유 없이 주눅이 들곤 했다.

“난 커서 버스 기사가 될 거야.”

경호는 아직도 코를 흘리는 코짙짙인데, 그의 장래희망은 버스 기사였다. 정말이지 소박한 꿈이었다. 코나 좀 닦고 다녀, 버스 기사는 세피아로 미웠다가 마지막에 정말 할 게 없을 때 해도 돼. 바보, 꿈이라는 건 내가 될 수 없는 걸로 정하는 거야.

“될 수도 없는 걸 왜 장래희망으로 정하는 건데?”

콧물이 줄줄 흐르자, 소매로 스윽 닦는 경호의 머리에 꿀밤 놓는 시늉을 하며 나는 말했다. 될 수 없으니까, 꿈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꿈이라고 하는 거야. 달나라에 토끼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 게 꿈이야. 알겠니?

뒤통수를 굵적이며 아직도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경호는 뺨질뻔할 소매로 다시 코를 훔쳤다. 달나라 토끼, 달나라 토끼를 중얼거리며 경호는 페타이어로 경계만 지어놓은 버스 출구를 텔레텔레 지나갔다. 나와 달리 경호는 버스 출구를 참 잘 건너갔다. 나는 출구를 건널 때마다 다리를 최대한으로 벌려 뿔박질하듯이 건너는데 아무리 최대한으로 벌려도 오십 발자국이 넘었다. 나는 반쯤 건너다 말고 경호에게 등을 돌려 큰길가로 나왔다. 버스 정류소 앞까지 걸어왔다. 건너편에 허름한 분식점이 보였다. 엄마는 긴 꼬챙이에 어묵을 꿰고 있었다. 미닫이 유리문에는 엄마가 아침에 집에서 써간 종이가 붙어 있었다. 김, 밥, 한, 줄, 팜, 니, 다 라는 일곱 글자가 세로로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 하는 받아쓰기에 반타작짜리 맞춤법 실력이지만 '팜니다'가 틀렸다는 것쯤은 나도 알았다. 교복을 입은 여중생 둘이 지나가면서 지네들끼리 킁킁거리며 웃었다. 그들이 유리문에 붙은 문구를 보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심장이 딱딱해져 왔다. 엄마가 부끄럽다는 생각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 자신, 그리고 엄마의 서툰 문장을 보며 수도 없이 지나갔을 행인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오는 느낌이였다.

길수 아저씨는 오늘도 어묵 한 개와 핫도그 한 개를 먹고는 천 원을 내고 이백 원을 거슬러 받고 있다. 엄마의 손이 아저씨의 손바닥에 잠시 스쳤다가 지나갈 때마다 붉어지는 아저씨의 귓볼과 달작거리는 엄

마의 입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돌맹이를 집어 분식점을 향해 던져보지만, 중앙선도 넘지 못하고 도로에 떨어졌다. 내 앞에 선 운전 자아저씨 하나가 창문을 열고는 그런 나를 향해 고래고래 고향을 쳤다. 엄마와 길수 아저씨의 눈이, 동공이 확장된 눈이 나에게 와서 멎었다. 되바라지게 악을 쓰고 다시 종점을 향해 뛰었다. 사실, 내가 땡칠이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길수 아저씨가 거두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길수 아저씨는 123번 버스 운전기사였다. 길수 아저씨는 땅 팔보에 마흔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들지 못한, 소위 어른들의 말로 솟기 라고는 전혀 없는 위인이지만 정이 많고 바지런한 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오입질로 가산을 전부 탕진하였다는 것을 이 동네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었다. 배다른 누이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집안 내력에 간질도 있고, 한센병도 있어서 장가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가 장가들지 못한 것은 그의 성격 탓인 것 같았다. 수줍음 또한 많이 타서, 별명이 '새색시' 였는데, 우리도 그를 새색시라고 골려 부르곤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어른들처럼 성내는 법도 없이 조막만한 우리들의 놀림에도 수줍게 웃어넘기곤 했다. 특히 나의 버르장머리 없는 - 땡칠이를 못살게 군다든가, 그를 새색시라고 부른다든가, 그의 버스에 돌맹이를 던진다든가 하는 - 행동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의 그런 태도들은 나로 하여금 그를 더 얹잡아보게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나에게 새색시 길수 아저씨는 경호와 동급으로 분류되어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 로 여겨졌다.

게다가 이 동네에서 새색시 길수 아저씨가 우리 엄마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분식점 주인아줌마는 걸핏하면 엄마와 길수 아저씨 이름을 입에 올렸다. 동네 사람들은 길수 아저

씨가 엄마를 짝사랑한다고 했다. 땅딸보 길수 아저씨와 아직 곱다는 말을 즐기치게 듣는 엄마와는 서로 뭘 것도 없는 것이었다.

“희범이 엄마, 정말 알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님 정말 모르는 거야?”

“뭘요?”

“어휴, 보는 사람만 답답하지. 박길수 씨 말야.”

“희범이 들으면 어찌려고 그래요, 목소리 낮추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엄마는 왜 나만 모르길 바라는 걸까. 무엇이 무서워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그렇다, 아버지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없듯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다.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 아버지는 도배공으로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트로트를 잘 부르고 엄마보다 나이가 열 살이나 많았다 -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할 만큼은 벌어들인 것 같다. 엄마가 지금처럼 분식점에 일 나가지 않고도 밥 세끼 거르지 않고 때때로 매장에 세일기간이 돌아오면 나와 엄마에게 옷 한 벌씩은 사주었으니 말이다. 고급 식당은 아니지만, 이따금 고기뷔페에서 외식이라는 것도 했었다. 그렇게 부르지도 고프지도 않은 생활을 유지하던 어느 날, 갑작같이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다.

실종이나 가출이었다면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을 것이고, 도배공을 먼 곳에서 부를 턱도 없으니 출장 같은 것도 아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아버지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엄마는 행동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 때문에 엄마가 오히려 냉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술은 알코올 성분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 술이 과해서 알코올처럼

아버지도 증발해버린 것은 아닐까, 턱을 괴고 나만의 공상에 빠져 있는데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문득 바깥을 내다보았다. 남자아이 셋이 땅을 파고 똥기를 묻으려고 하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이 일어 교실에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뛰어났다. 세 명의 남자 아이 중에 경호도 끼여 있었다.

“뭐해?”

신문지로 돌돌 말아 공처럼 뭉친 것을 막 땅에 놓으려던 경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응, 강아지. 어제 우리 강순이가 새끼를 일곱 마리나 낳았는데, 글썄 이게 병신이잖아. 다리 하나가 없어. 그래서 물어버리려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 경호 뒤로 서 있던 남자 아이 둘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리고 나는 한 손으로 경호의 멱살을 부여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신문지 뭉치를 빼앗았다. 따뜻하고 물결한 촉감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달되어 왔다. 평소에 경호를 놀리긴 했었지만,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었다. 신문지에 싸인 따뜻하고 물결한 생명체를 품에 안고 경호의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다. 아야,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된 거야? 눈물을 찔끔거리며 어안이 병병해져버린 경호를 운동장에 확 밀어버리고는 책가방도 버려둔 채 교문을 빠져나왔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던 말인가. 그것은 어쭙잖은 자각 지심 때문이었으리라. 병신, 손바닥을 활짝 펼쳤다. 조금 더 커서는 아직 덜 자라서 그렇다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을 믿고 새끼손가락이 어서어서 자라기를 기다렸던 내 자신이 더 바보스럽게 여

겨졌다. 내 새끼손가락은 남들보다 마디가 하나 작았다. 그것은 손가락 길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마디 하나를 더 갖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다. 손가락이 병신이라서, 군에도 못가겠네. 쫓쫓. 요새 세상에 군에 안 가면 더 좋지 뭘, 그래. 험한 꼴도 안 보고, 언젠가 집에 놀러온 고모할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내 새끼손가락이 병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문지를 펼쳤다. 하나, 둘, 셋. 경호의 말대로 다리는 세 개밖에 없었다. 하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경호네 강순이가 낳은 새끼들 중에서 도태된 녀석이었다. 어차피 경호가 묻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젖도 제대로 빨지 못해 결국엔 죽었을 것이다. 나와 몽이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몽이는 용케 죽지 않고 살았다. 살이 오르고, 몸집이 커지더니 처음 한 동안은 발육이 부진했던 다리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다리들은 더 빠른 속도로 자랐고,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 예상대로 몽이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한 달 후에 종점 출구에서 아버지와 곧잘 포커를 치고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늘 함께 하던 뽕사리 아저씨를 만났다. 130번 뽕사리 아저씨는 - 노래할 때마다 뽕사리가 났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 학교 마치고 집에 가던 나를 불러 세웠다.

“아버지 소식 들었나?”

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뽕사리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궁금하지? 하지만 쉽게 가르쳐줄 순 없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어디 간 줄 아세요?”

“알다 말다.”

그때 세차장에서 뽁사리 아저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 금방 갈게. 난 그만 가봐야겠다. 담에 또 보자.”

가르쳐 주고 가세요, 네.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그렁그렁 맺혔다. 만약에 아버지의 죽음을 듣게 되더라도 남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다.

“모르는 게 약일 듯 싶구나. 어이, 가봐라.”

뽁사리 아저씨는 내 뒤통수를 한 번 쓰다듬고는 가버렸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단정 지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뒤따라오던 경호가 헐레벌떡 뛰어와 내 앞에 섰다. 경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싫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는 맥없이 경호에게 말했다. 그러나 경호는 나를 빤히 쳐다볼 뿐 이렇다할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경호였지만, 정작 그가 나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넌 친구도 아냐, 임마.”

“저기.”

경호는 입술만 움짱달짝하며 땀을 들이더니 코가 줄줄 흐르는 그 면상을 내 앞에 들이대는 것이다. 초점이 불분명한 그의 눈이 평소와 달리 반짝거렸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니, 이 동네 사람은 죄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퍼뜨린 것도 아니고.”

화들짝 놀라며 횡설수설하는 그의 서설에 무서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 가슴이 쿵쿵거렸다. 어서, 어서 말해봐. 나는 경호를 재촉했다.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말해줬다고 하면 안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무슨 말인데?”

“너희 아버지 바람났대. 숲 다방 미스 최랑 밤에 도망간 거래. 너희 엄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한거래.”

나는 눈앞에 하얘졌다. 상상도 못한 반전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것이 고작 그런 시시하고 지저분한 연애 때문이라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의 그 기분은 맨 처음으로 동경했던 여배우의 추잡한 연애 기사를 읽었을 때의 기분과 똑같다. 처음엔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 다음에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허탈함이, 또 그 다음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차례대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뒤범벅이 되어서 한동안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함께 따라오곤 했다.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 번덕이 심해지고, 이렇다할 이유 없이 반항하게 된 것도 이때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하였으리라.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그 다음날부터 분식점에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말수가 적고 남과 말 섞는 것에 서툰 엄마가 언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구한 것인지 의문스러웠는데, 우연히 길수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태가 곱다는 말을 종종 듣던 엄마였다. 엄마는 길수 아저씨에게 분에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길수 아저씨가 엄마를 짝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혐오스러웠다. 어찌면 아버지는 엄마와 길수 아저씨를 오해해서 화김에 미스 최와 떠나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마담도 아니고 일개 레지 나이 서른다섯이면 많아도 한참 많은 축에 드는데 미스 최는 단골 아니면 불러주는 사

람도 없었다. 나도 몇 번인가 미스 최를 본 적이 있다. 비가 오는 날에 도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공치는 날이면 으레 비번인 버스 기사 아저씨들과 종점 사무실에 모여서 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포커를 쳤다.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더 많은 사람은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밑천이 바닥나면 숲 다방에 전화를 걸어 미스 최에게 커피 배달을 시켰다. 미스 최는 아버지에게만 특별히 외상으로 커피를 날라다 주었다. 숲 다방 말고도 다방은 세 군데나 더 있었는데 미스 최는 거기서도 제일 나이 많은 레지였다. 더 나이 어리고 싱그러운 레지를 불렀으면 하는 바람을 다른 아저씨들은 가지고 있었을 터이지만 공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잠자코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 심부름으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종점 사무실을 기웃거리곤 했다. 커피는 이미 바닥나고 정해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미스 최는 다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커 치는 걸 구경하거나, 소재용 가위로 손톱을 다듬곤 했다. 아마도 어린 레지들처럼 찾는 곳이 별루 없어서 오래도록 앉아서 그들과 질퍽한 농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다. 포커 구경도 슬슬 지겨워질 때쯤이면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주병에 손가락을 꽂고는 '갈대의 순정', '마포종점',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을 구성지게 불렀다. 목소리까지 떨어가며 감탄사를 터뜨리는 미스 최는 아버지의 열렬한 팬이었다. 미스 최는 미인과는 거리가 먼 축에 들었다. 말머리처럼 길쭉한 얼굴에 턱은 뾰족하게 찌를 듯하고 코는 매부리코였다. 게다가 짙은 화장에도 불구하고 굵기도 제각각이고 실밥 자국도 선명하게 남은 쌍꺼풀이 영 눈에 거슬렸다. 무허가 미용실에서 싼값에 시술받아서 실패한 거라고 미스 김이 뻥사리 아저씨에게 소곤거리는 걸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드름이 까맣게 죽어 거뭇거뭇했는데 아무리 화

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거뭇한 피부는 미스 최를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했다. 그런 미스 최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 또한 아버지뿐이었다. 팬 서비스 치고는 꽤 후한 것이었다. 고운 마누라랑 살면서, 어떻게 미스 최에게 예쁘다는 말이 나오지? 아저씨 하나가 핀잔을 주자 나머지 사람들은 와하하하, 하고 웃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미스 최뿐이었다.

하필이면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왜 하필이면 미스 최와 도망갔을까, 아버지는. 레지들 중에서 젊고 몸매 좋은 레지들도 많은데.

나는 김밥을 말고 있는 엄마를 훑쳐보다가 돌아섰다. 조금 후면 길수 아저씨가 올 것이다. 십 분 전에 123번 버스가 종점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삼십 분 후면 여기로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와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타이밍을 잘못 계산한 것인지 종점 입구 페타이어 터미에서 길수 아저씨와 땡칠이와 마주쳤다. 길수 아저씨는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쓰라린지 땡칠이는 고개를 연신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약을 발라주는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종점 입구를 천천히 지나갔다. 땡칠이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발밑에서 돌 하나를 주어 들었다. 땡칠이를 향해 던질 생각은 없었다. 땡칠이가 머리를 아래로 흐느적거리며 늘어뜨리는 게 이상했던지 길수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희범아, 학교 갔다 오는 길이니?”

그 특유의 기늘고 여린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러나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갈 셈이었다. 어림없어요, 당신 주제에 어딜 넘봐요. 목구멍에서 가래가 들끓어 올랐다. 목에서 가래를 끌어올려 바닥에

탁 뻗으며 말했다.

“상관 말아요.”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땡칠이에게 그 돌을 집어던졌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돌은 그의 발 앞에서 투박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말 못하는 짐승도 다 느끼는 법인데, 그렇게 하면 못써. 아파하고 있다구.”

“아버지 돌아오면, 전부다 이를 거예요. 각오해요.”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동요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땡칠이는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렸다. 길수아저씨의 핀셋 든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내게서 거두고 조심스럽게 땡칠이 다리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땡칠이는 쓰라린지 가늘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앞을 지나갈 때 나는 그가 혀를 내밀어 입술을 적시는 걸 보았다. 입술은 축축하게 젖어 윤이 났다. 그는 내게 무슨 말인가 더 하고 싶은 듯 했다. 그러나 움짱달짝하던 입술은 더 이상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입을 꼭 다물고 말았다. 내가 이긴 것이다. 나는 씩씩하게 그들 앞을 지나갔다. 승자처럼.

2.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혼자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미스 최의 행방이 궁금한 모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선뜻 물어볼 엄두는 못내는 것 같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는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잠은 내방에 건너와 잤다. 분식점에 일도 계속 나갔다. 엄마가 아버지

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처음엔 안방의 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더니, 얼마 후에는 저녁이 되어도 안방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바깥출입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소주 두 병만 계속해서 비웠다. 엄마는 아침마다 빈 소주병을 대문 앞에 내다놓았다. 숨 막히는 시간들이 연일 계속되었다.

“어때?”

“뉘가?”

“너희 아버지 말이야, 용서해주기로 한 거니?”

“몰라. 묻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미스 최 병 걸려서 너희 아버지 버리고 혼자 돌아온 거래.”

경호는 콧물을 들숨과 함께 들이마셨다. 가려운지 까만 떼가 낀 손톱으로 목덜미를 긁으며 말했다. 이 동네에서 나보다 더 불쌍한 아이는 경호였다. 경호엄마는 언제나 동네 소문의 중심에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경호엄마는 배가 만산만큼 불러 큰 옷가방 하나만 들고서는 혼자서 몸으로 이 동네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경호엄마는 열 달도 못 채우고 경호를 낳았고, 산후조리 없이 그 다음날부터 동네 미용실에서 비밀하며 눈대중으로 미용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도매상에서 파마 약, 중화제, 염색약, 파마너트 등을 사서 구색을 갖춘 다음 소위 지금의 출장 미용사가 되었다. 물론 자격증도 없었지만, 시골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의 머리를 싼 가격에 해주는 일이다보니 자격증이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수입은 꽤 괜찮은 모양이었지만, 초창기 때 어느 시골 미용실 주인여자에게 털미가 잡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는데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안 돌아 원형탈모증 환자처럼 보

였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는지 그 것을 영
 응답처럼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러나 영구머리를 연상하게 하는 그 땀
 뺨을 볼 때마다 나는 웃음이 났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이 동네 모든 사
 람들이 그러했다. 게다가 요즘에는 과일상회 김씨 아저씨와 정분이 났
 는데 김씨가 경호를 눈엣가시처럼 싫어한다는 말을 김씨 아저씨를 단
 골로 둔 미스 김이 미스 최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동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경호뿐이었다. 경호는 세상에서 엄
 마를 가장 좋아했고, 바보같이 엄마 말이라면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시
 키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아이였다. 그러나 경호 엄마는 경호를 그
 령게 귀애하지 않은 탓인지 - 아님, 김씨가 경호를 싫어해서 정말 구박
 이라도 하는 건지 - 소매가 뻘질뻘질하다 못해 윤이 나도 손수건 한 장
 챙겨주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의 중심에 우리 식구가 놓이다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경호가 손톱의 때를 빼내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참에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경호는 무방비 상태로 뒤로 밀려났다. 도로로
 밀려난 경호는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종잇장처럼 흔들렸는데 그
 때 막 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경호는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
 앉았다. 나는 번갯불을 맞은 것처럼 두 눈이 번쩍 뜨였다. 경호의 팔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었지만 팔은 허공에서 뻗뻗하게 굳을 따름이었다.
 온몸이 굳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이마와 등에 식은땀이 흘
 렸다. 무서웠다.

“경, 경호야.”

입에서 말은 뱀돌 뿐이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몰려
 들었다. 바지 가랑이를 타고 노랗고 짙짙한 물줄기가 양말과 운동화를

적셨다.

버스가 경호를 덮치기 직전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영원히 눈 뜨지 않기를,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절망감을 느꼈다.

“조심해야지.”

암흑 속에서 낮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누군까. 누군가가 나의 팔을 잡았다. 이대로 끌려가는 것일까.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일까. 천천히 눈을 떴다.

“도로가에서 장난치면 안 돼. 위험하잖아. 근데 바지가 왜 그래?”

나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은 경호의 것이었다. 경호는 코를 들이 마시며 수박씨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낮익은 음성은 경호가 아닌 길수 아저씨였다. 길수 아저씨는 버스 차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몸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뛰었다. 경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그들이 보이지 않은 거리만큼 한달음에 뛰어가서는 주저앉았다. 그리고 멈췄던 숨을 한꺼번에 내뿔었다.

때문에 들어섰다. 빈집처럼 조용했지만, 아버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방에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었다. 그것들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부엌에서 까만 비닐 봉투를 꺼내 바지와 속옷, 양말을 푹푹 뭉쳐서 집어 넣고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방문 앞에 빈 소주병이 나와 있었다. 나는 노크도 없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뭉가를 쓰고 있었는데 열없는 말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척하고 켈한 얼굴에 눈빛만 살아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 품에 달려들어 안기고 싶은 욕망이 일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말이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아버지, 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스스로가 놀랄 만큼 냉정하고 차분하게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었다.

“정말 우리 버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또 다시 그 여자한테 갈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아버지의 태도에 심한 적개심이 일었다. 나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쉬고 싶었으며 따뜻한 위안이 절실히 필요했다.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네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진실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를 이해해주렴.”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문을 쿵 닫고는 내방으로 돌아왔다.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 몽이가 내 이불 속에서 꿈지락거리다가 바깥으로 머리를 밀고 나왔다. 나는 몽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죽여 울었다. 내가 오늘 경호에게 한 짓은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다. 내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내일 경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나는 몽이를 더 꼭 껴안으며 그렇게 다짐했다. 몽이는 나의 슬픔을 아는지 내 손등을 조금씩 훔어주었다. 며칠째 몽이는 내 방에서 나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땡칠이와 몽이를 떼어 놓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땡칠이는

빈 마당을 배회하다가 돌아가더니 더 이상 우리 집에 출입하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을 찾지 않았다. 내가 한바탕 난리를 부린 탓인 것 같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이 밤은 깊어가고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경호를 피해 일찍 등교하였다. 그러나 경호는 오후가 되어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몸이 아파 결석했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내 마음이 불편해져왔다.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허전하였다. 그러고 보니, 항상 경호와 함께 있었다. 경호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을 꿈에도 몰랐다. 날씨는 야속하게도 맑았다. 스웨터를 벗어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 보니 삼월 말. 봄이 오고 있었다. 가로수마다 연한 잎들이 돌아나고, 페타이어로 만든 울타리에 거무죽죽하게 서 있던 목련나무는 이미 꽃들을 하얗게 피우기 시작했다. 세차장 고무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도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전선에 앉아 수다를 떨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나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것이었다. 지금 나는 겨울보다 더 춥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따름이었다.

멀리서 넘적한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을 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유리문에 붙은 종이에는 <김밥 한 줄 팝니다>라고 바르게 고쳐져 있었다. 노란 색 유치원 유니폼을 입은 한 떼의 아이들이 병아리처럼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손가락 빨던 아이 하나가 입에서 손가락을 빼고는 떡볶이를 가리켰다. 병긋병긋하는 입모양을 보니, 맛있겠다는 말을 한 모양이었다. 엄마는 오랜만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해토처럼 풀리었다.

경호는 집에 없었다. 엉성한 담벼락에는 철쭉이 핏빛을 뿜으며 피어 있었다. 까맣게 썩어든 나무 대문을 닫고 우편함에 유리구슬 다섯 알을 집어넣고 돌아왔다. 얼마간 마음이 홀가분해짐을 느꼈다.

아버지뿐인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지만, 경호 없이는 딱히 갈 곳도 없었다. 외도 끝에 돌아온 아버지는 몰래 숨어든 쥐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는 그렇게 엄마와 나의 신경을 잡고 있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밖에 뱉은 마당에 아버지와 마주하기도 거북스러워 인사 없이 내 방에 들어와 이부자리에 드러누웠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설핏 잠이 들고 말았다.

어디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나는 눈을 떴다. 그러나 몸은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도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경호가 우편함에서 유리구슬을 꺼내고 있었다. 다섯 알의 유리구슬을 차례대로 삼켰다. 구슬은 까놓은 포도 알처럼 열은 풀색이었는데 경호의 손바닥에서 하나씩 사라져 갔다. 나는 경호를 말리려 했지만, 그때처럼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유리구슬을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아.”

경호가 나를 보며 말했다. 경호의 코에서는 더 이상 콧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때 마당에서 땡칠이가 뛰어나와 경호 옆에 붙어 섰다. 이상한 일이었다. 땡칠이 다리의 상처는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경호와 땡칠이를 번갈아 보며, 다시 아랫도리에 따뜻한 기운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몸이 뻗뻗해졌다. 마려운 것도 아닌데 짙짙 나오다니. 나는 몸을 돌려 집으로 뛰어갔다.

눈을 떴다. 손을 바지에 넣어 확인했지만, 속옷은 젖어 있지 않았다. 다행이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불이 땀에 젖어 있었다. 눅눅해진 이불을 걷고 자리에 일어섰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버지의 구두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나가신 걸까. 운동화를 꿰고 마당에 나서는데 몽이가 불안하게 눈알을 굴리며 매어놓은 염소처럼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바깥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소란스러웠다.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경호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석에 붙은 듯이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경호의 집을 향해 움직였다.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길수 아저씨도 땀칠이를 옆에 두고 서 있었다. 그러나 정작 경호와 경호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윗도리를 잡아당겼다. 엄마는 몸을 숙여 나를 끌어안았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슬픈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는 뉘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손을 뺀어 우편함에 집어 넣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졌다. 유리구슬은 처음 내가 놓아둔 그대로 있었다.

조금 후, 들것이 나왔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으나, 그것이 경호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엄마의 말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엄,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탄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들것이 휘청하더니 축쳐진 팔 하나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사람들은 또 한 번 저마다 안타까움이 깃든 감탄사를 터뜨렸다. 어른 손 하나가 나의 눈을 가렸다.

순간 내 시야는 그 끔찍한 광경에서 차단되었다. 그 손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손가락들 사이로 들것 뒤로 경호 엄마가 보였다. 은빛 팔찌가 반짝거렸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진짜 수갑이었다. 그때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들것 뒤로 따라가는 경호 엄마를 향해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졌다. 그녀의 땀뻘난 자리에 날아가 정통으로 맞혔다. 몇 개의 돌멩이가 더 날아왔다. 경찰들은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경호 엄마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경호 엄마는 경찰차에 밀어 넣어졌고, 경호를 실은 구급차보다 먼저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씨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변소에서 건졌는지? 저, 땀칠이가 변소 앞에서 계속 짓었다. 옆집 건희 엄마가 하도 이상해서 가봤는지 뭐야?”

“왜 그런 거래?”

“김씨하고 정분난 거지, 뭐.”

“그렇다고, 애를 죽여?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거 봤지? 경호 엄마 그렇게 독할 줄 누가 알았어? 참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도 나는 한참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경호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갖고 싶어 할 때 유리구슬을 나눠주는 건데, 코 닦는 손수건 하나 사줬다면 이렇게 안타깝고 사무치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까마득한 어둠을 품고 있는 경호네 집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했다. 겁이 많아서 한밤중에 화장실도 못 가는 나였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꼬챙이를 하나 주워 땅바닥을 후벼 팠

다. 그리고 유리구슬을 땅에 묻었다. 나를 병신이라고 놀리지 않은 유일한 친구 하나를 잃고 말았다.

3.

경호의 죽음은 나를 암전한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 더 이상 몽이와 땡칠이 사이를 휘방 놓지도 않았다. 처음엔 나만 보면 질겁하고 도망가던 땡칠이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에게 멀찍이 떨어져 가끔 꼬리를 흔들며 반기기까지 하였다.

몽이가 똥똥해지고, 식탐이 많아진다고 느꼈더니 몽이가 임신한 것 같다고 엄마가 콧뜸해 주었다. 자세히 보니, 정말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유독 올 여름엔 바람이 많이 분다고 엄마는 빨래를 널며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분식점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도배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전처럼 술도 마시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책상 밑에 앉아 똥기를 긁적거리는 일이 많아졌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몰래 봤는데 연과 행이 나뉘져 있는 걸로 보아서 시 같았다. 꽃잎은 요요히 떨어지는데 인생은 낙엽처럼 밝히니, 나에게 아버지 시는 어려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척척 적어내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그리고 연습장을 꺼내 죽음에 관하여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죽음, 끝, 경호, 하늘나라, 저승사자, 귀신, 부활.

선생님이 들려준 말이 기억났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고 했다. 다시 태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했다. 경호는 다시 태어났을까?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을까, 이번에 다시 태어나서 버스기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웃지 않으리라. 나는 경호

가 그리워졌다.

“너희 집 강아지니?”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대문에 들어서려 하는 데 담벼락 옆에서 한 여자아이를 서 있었다. 여자아이의 품에는 몽이가 안겨져 있었다. 나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예쁘다. 참 예쁜 강아지네. 나, 어제 이 동네에 이사 왔어. 너 이집에 살지?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난 숙희라고 해, 김숙희”

“난 박희범. 그리고 앤 몽이.”

“몽이. 이름도 예쁘다.”

“새끼 낳으면 한 마리 줄게.”

“정말? 언제 낳는데?”

조만간 낳을 거야, 나는 새끼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손을 내밀어 몽이를 받아 안았다. 숙희가 종점에 새로 지은 주유소 외동딸이라는 것은 다음날 학교 가서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살다 와서, 학기가 맞지 않아 내년엔 새 학년으로 입학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몽이로 인하여 나와 숙희는 친구가 되었다.

땡칠이와 교배하였으리라는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몽이가 나는 강아지는 모두 다섯 마리였는데, 흰색, 회색, 누런색이 골고루 섞인 녀석들이었다. 숙희는 다섯 마리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미미를 골랐다. 다섯 마리의 이름도 전부 숙희가 지어주었다. 연이, 실비, 단지, 세리, 미미. 나는 암만 들여다봐도 고놈이 고놈 같은데 숙희는 구별해서 이름까지 불러주었다.

엄마 젖을 더 먹고 건강해지면 데리고 갈 거야. 누구 주면 안 돼. 숙희는 매번 새끼손가락을 보이며 약속했지만, 나는 숙희의 새끼손가락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지 못했다. 숙희에게 새끼손가락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것을 목격했다. 한달음에 뛰어가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낮익은 얼굴이 보였다. 다름 아닌, 길수 아저씨였다.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우리에게 킹콩이라고 불리던 아저씨가 길수 아저씨의 떡살을 잡아 흔들고 있었다.

“이 새끼야, 네가 뭘 안다고 나불나불 거려?”

글쎄, 길수 저 양반이, 박씨 비위를 건드렸지 뭐야. 물론 술 먹고 운전한 박씨도 잘못이지만, 이십 년 무사고 경력에 오점을 남겼으니 그걸 고자질한 길수도 잘못했지, 뭐. 이번에 박씨가 안전운전 표창장 받을 차례였다지. 딱하게 됐어, 둘 다.

길수 아저씨는 킹콩에게 심하게 맞았고, 말릴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구경꾼 중에 나이 지긋한 남자가 중재에 나섰다. 싸움이라기보다 그건 길수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었다. 입가와 코에 피를 줄줄 흘리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길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 있었다.

“위험하니까.”

구경꾼들은 그의 고지식하고 순박한 성품에 혀를 내두르고는 자리를 떴다. 길수 아저씨의 아버지는 음주로 버스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이 모두 죽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피해 다녔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를 피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땡칠이만이 그 자리에 남아 그를 지켜주었다.

숙희는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미미를 데리

러 오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다. 나는 숙희에게 내 새끼손가락을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애와의 이별보다 더 컸던 모양인지 한동안은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미의 한쪽 다리가 몽이처럼 짧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숙희의 사촌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숙희가 미국으로 간 사연을 듣게 되었다. 거기 왜, 종점에 주유소 있잖아. 거기 사는 내 사촌이라는 애. 개 다시 미국에 갔어. 심장이 약해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건데 성공할 확률이 십 퍼센트도 안 된대. 친척들 전부 개가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작별 인사 하러 갔는데, 글썄 개가 강아지랑 같이 보내달라고 숙모한테 떼를 엄청 썼나봐. 미국 가면 더 예쁜 강아지도 많을 텐데 왜 굳이 데려간다고 그러는지. 것두 다리가 하나 짧은 병신에 잡종이래. 숙모가 개 때문에 엄청 울었어.

그 날 저녁 나는 열이 40도나 올랐다. 병원에서는 해열제를 처방해주며 감기 몸살이니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엄마는 온종일 내 옆을 지켜주었다. 아버지도 도배일이 없는 날이면, 바깥출입도 하지 않고 손수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나는 꿈속에서 경호와 숙희를 번갈아가며 만났다. 약에 취해서 고통스럽게 잠이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경호와 숙희가 서로 친 구하기로 했다며 함께 나오기도 했다.

“미스 최가 위암말기 진단받고는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둘 수가 없었소. 왜냐하면, 내 노래를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게 들어준 팬이었거든. 길수와 당신이 이복남매라는 것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연민과 동정, 그런 거와 비슷할 거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스 최를 고향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보았소. 그리고 문득 뭉가가 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요.”

엄마는 내 머리에서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길수 오라버니는 참으로 고지식한 사람예요, 내가 집안 내력 때문에 불행하게 살까봐 전전긍긍 해해요. 숨긴다고 어디 숨겨지나요. 전 희범이 가졌을 때 혹시 병을 갖고 태어날까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 없는 것쯤이야. 엄마는 내 손을 꺼내 마디 하나 부족한 새끼손가락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나는 열에 들뜬 채로 실낱같이 눈을 떴다. 형광등 불빛에 도로 눈을 감았다. 바깥에서는 가을비 내리는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저 가을비가 내 몸의 열들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ⅢⅢ

나는 까마득한 어둠을 품고 있는 경호네 집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했다.
겉이 많아서 한밤중에 화장실도 못 가는 나였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꼬챙이를 하나 주워 땅바닥을 후벼 판다.
그리고 유리구슬을 땅에 묻었다.
나를 병신이라고 놀리지 않은 유일한
친구 하나를 잃고 말았다.

- 본문중에서 -



작년 한해 동안 동시를 열심히 써 보았다.
동시를 쓰고자 할 때에는 어릴 때를 되돌아 보게 된다.
소름 물고 가면 송아지가 따라오고 시냇물,
들판이 따라온다.
자연이 어우러져 함께 가는 것이다.

전세중 서울소방방재본부 지방소방령

시골아이

소가 앞에서 걸어간다
내가 뒤따라간다.

음매음매 송아지
줄랑줄랑 따라간다.

파란 들판이 줄레줄레 따라온다.
하얀 시냇물이 줄레줄레 따라온다.

우리 다섯은 동무다.



내 안에 살고 있는 피터팬,
바쁜 일상에서도 문득 문득 나타나 자꾸만 장난을
걸어온다. 그 녀석과 나는 천진한 얘기들,
동심을 잃고, 쓰고, 말하며 살고 싶다.
오래도 좋...

남정숙 영주 부석초등학교 교사

엄마의 사랑 찾기

빨랫줄에 널린
옷만 봐도 알 수 있다.
가지런한 양말
새하얀 속 옷.

소풍날
도시락 뚜껑 열어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입에 쓱 들어갈
알맞은 크기의 오색 김밥.

피병 섞어 살짝 아파본다면
더욱 확실해 진다.
쉽 없이 이마를 짚어 보는 손
걱정스런 낫빛.
늘 보이는 데 있어도
철없는 술래는 알지 못한다.



배순아 여수 시전초등학교 보건교사

학교 운동장가의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따다.
함께 거뜰어준다고 수선을 피우는 아이들은
모과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환호성부러 날렸다.
아이들 손에 들려진 울퉁불퉁 못 생겼지만
향기롭고 노랑게 익은 모과를 보고 동시에 표현해봤다.

상처가 많을수록
많이 아플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만들어내나 봐...

못생긴 모과

털썩

내 앞에 모과가 떨어졌어.

햇살 자국, 바람 자국, 비 자국에

울퉁불퉁 온통 상처투성이네.

여기저기 흑처럼 툭툭 불거진 걸 보니

많이도 아팠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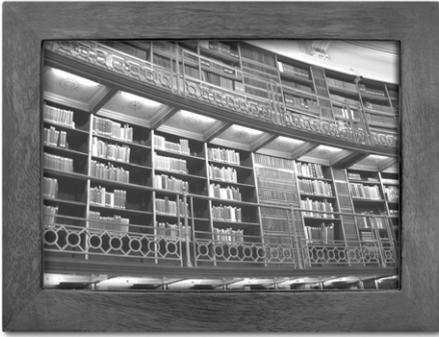
상처가 많을수록

많이 아플수록

햇살 냄새, 바람 냄새, 비 냄새가

더욱 진한 향기를 만들어내나 봐.

가을 내내 노랗게 노랗게.



오늘날의 참다운 태학은 도서관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책, 그 책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는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한 곳,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향기로운 꽃밭이 되기를 바란다.

송명숙 울산 동백초등학교 교사



동 시

도서관

책의 집 도서관은
엄마의 품속

가지런히 꽃힌 책꽂이에서
나를 따라 나온
책 한권을 펴면

냄새만 맡아도 따뜻해지는
엄마의 향기가
햇살처럼 피어난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 곁에 있는 듯
포근한 책의 집에선
내 마음 속에서 햇살이 핀다.

책의 고향 도서관은
향기 가득한 꽃밭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소곤소곤 들려오는 소리에
따뜻해진 내 마음은
새싹을 키우는 꽃밭이 된다.





올봄 내 눈에 비친 사월의 밤은 활짝 핀 벚꽃들로
유난히 환했다.

그리고, 예고도 어이 찬아운 반가운 손님처럼
마음에 성큼 들어왔다.

류선경 구미 형남초등학교 교사

사월의 밤

사월의 밤은

가로등이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햇빛으로 목욕한

벚꽃이 하얗게 불을 밝히니까요.

가끔씩,

때늦은 목련이 벚꽃을 대신하려하지만

의욕만 앞서지, 밝지는 않아요.

무리 지은 개네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하얗게 분칠을 한 경극 배우들처럼

지치지도 않고 낮처럼 환하니

사월의 밤은

밤샘공연 보기 위해

복적이든 사람들로 무지 시끄러워요.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타지 않는 것이 이상했는지 자꾸만
나를 쳐다보았어요.
나는 형을 잡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것도
형 때문이었거든요...

- 본문중에서 -



이수배 서울 한국우진학교 교사

장애인 가정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비장애아 형제가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다시 찾은 형'에서는 비장애 형제인 동생 때문에 장애아 형을 장애인
수용시설로 보내 수밖에 없었고, 동생이 철이 들면서 형제의 소중한
깨우치게 되는 계기를 동화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다시 찾은 형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2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거든요. 형은 얼마나 변했을까? 형과 헤어질 때는 내가 형보다 컸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형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3월에 선생님께서는 일 년 동안 동전을 모아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일 년 동안 열심히 모았고, 오늘 큰 돼지 저금통 3개를 뜯었어요. 모두 사십육만 칠천 원이었어요. 우리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학급회의를 열었어요. 어떤 친구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넣자고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양로원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서울 근교의 성지원이란 곳에 가서 장애인 친구들에게 멋진 성탄 파티를 해주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두 선생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뜻에 따라주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모으긴 했지만, 파티비용으로 써버리면 이웃돕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들이 모은 돈은 후원금으로 내고,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모듬별로 필요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씩 준비하면 어떨까?”

“좋아요.”

“24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 정성껏 준비하자. 파티를 하려면 케이크도 필요한데, 그건 선생님이 준비할게.”

“선생님, 제가 사올게요.”

“성민이가?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학급회의를 마쳤어요. 케이크를 준비하겠다고 했던 것은 내가 반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지원은 우리 형이 있는 곳이에요. 성지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가끔씩 형을 만나러 그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위해 성탄 케이크는 내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께 보육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성지원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케이크는 내가 사기로 했다는 이야기와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어디를 가는지 묻지도 않고 듣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당장 백화점에 가서 털모자와 목도리 세트를 사오셨어요.

내일은 성지원에 가는 날이에요. 과자도 사고, 초콜릿과 카라멜도 샀어요. 물론 탕탱볼도 가방에 챙겨두었고요. 형이 카라멜을 좋아했던 것과 탕탱볼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우리 형이 지금도 공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성민아, 내일이 보육원 가는 날인데 준비할거 없어?”

“파티할 과자는 제 용돈으로 샀어요. 케이크는 엄마가 준비해 주실거죠?”

“당연하지. 주문해놓고 내일 아침에 찾아서 가져.”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2년 전 형하고 헤어질 때, 내가 열 살이었고 형이 열세 살이었어요. 형은 엄마와 함께 아빠 차에 타면서 마냥 좋아했어요.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타지 않는 것이 이상했었는지 자꾸만 나를 쳐다보았어요. 나는 형을 잡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것도 형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형이 없어진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조차 형을 지워버리려고 애썼어요.

형은 나를 참 좋아했어요. 내가 형인 것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밥을 먹을 때도 내 옆에 앉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내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대거나 다리를 베고 눕기도 했어요. 그런데 형이랑 함께 나가면 자꾸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창피하고 싫었어요. 작은 키에 이상하게 생긴 눈. 형은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길에서도 춤을 추었어요. 사람들은 형을 보고 웃고, 나는 형과 함께 마치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형제인데도 우리는 닮지 않았어요. 형의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은 특수학교에 다녔어요. 등교할 때는 학교버스가 우리집 앞 큰길까지 와서 태워가고, 하교할 때도 같은 자리까지 데려다주었어요. 정해진 장소에 내려주면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 가듯 정확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혹시나 형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염려해 마중을 나갔어요. 엄마가 계시지 않거나 바쁠 때는 내가 대신 나가기도 했어요.

그날도 내가 마중을 나갔어요. 학교버스가 도착하자 형은 가방을 메고 작은 나무 막대기를 흔들며 내렸어요. 형 손에는 항상 나무젓가락 같은 막대기가 쥐어져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었어요. 나무 막대기

를 빼앗고 싶었지만 그냥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형은 나를 놓칠까봐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때 맞은편에서 우리반 친구 두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못 본척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 ‘성민이 형은 애자래요.’라고 하면서 놀렸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형 때문이었기 때문에 형도 싫었어요. 그 일이 있는 얼마 후에 형은 장애인시설로 보내졌어요.

오늘 형을 만나게 된다면,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성민아, 서둘러야지.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도 찾아서 가야하는데.”

많이 변했을 형의 모습을 상상하며 뒤적이다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서둘러 깨웠어요. 아침을 먹고 탕탕볼을 넣어 불룩해진 가방을 메고 나섰어요. 엄마는 제과점에서는 제일 큰 케이크와 여러 가지 빵을 종이 가방에 가득 채겨주셨어요.

“성민아, 즐겁게 놀다 와.”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만 하셨어요. 어쩌면 형 잘 만나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과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성민아,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

“어머니가 케이크하고 빵을 사주셨어요.”

“성민이 때문에 파티가 풍성해 지겠는데.”

친구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지원으로 출발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미리 확인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성지원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한적한 시골길을 조금 걸어 들어가자 2층집이 나왔어요. 꽤 넓은 마당에는 놀이기구들이 몇 개 있었고, 대문 옆 작은 측백나무에는 성탄 트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위 환경이 매우 평화로워보였어요.

선생님이 앞장서고 우리가 시끌벅적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들어서자, 수녀님 한 분과 이주머니 두 분이 뛰어나오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선생님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관계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바깥 소란이 안에까지 들렸는지, 창문으로 내다보던 몇몇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선생님께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벌써 신발을 신고 뛰어나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끌다시피 했고, 우리들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받아주었어요. 조금은 어색하고 두려웠어요.

장애인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그 속에서 형이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었지만, 형을 만나고 싶었어요.

“성민아, 들어가자.”

“.....”

“야,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있어? 장애인 친구들과 만나는 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온다고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으면서 왜 그래. 빨리 들어가자.”

“어? 그래.”

준호도 지영이도 지민이도 처음 만날 때의 굳었던 표정이 많이 풀어졌어요. 나도 형이 아니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을 텐데, 형을 만나는 속

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도착해서 30분이 지났는데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장애인 친구들이 다른 방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제일 큰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한쪽 벽에 미리 준비해간 '우리는 친구' 라는 글자를 붙였고, 풍선을 불어 파티장을 꾸몄어요. 방 한가운데는 상을 세 개 붙여놓고 케이크와 각자 조금씩 준비해간 과자를 그릇에 담았어요. 수녀님이 음료수와 과일을 준비해서 들어오자 파티 준비가 끝났어요.

파티 준비가 끝나고 장애인 친구들과 짝이 되어 만나는 차례예요. 장애인 친구들이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들어오는데, 위의 큰 글씨는 우리들 이름이고 아래의 작은 글씨는 장애인 친구들 이름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친구가 내 짝이 되고, 내가 준비한 털모자와 목도리 세트를 성탄선물로 주는 거예요.

넓은 방 양쪽 벽면으로 한 줄로 서서, 장애인 친구들이 한명씩 들어오면 짝이 만들어지고 선물을 주었어요.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짝을 찾았는데, 내 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내 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혹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짝도 형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성민아, 네 짝 나왔잖아.”

“어?”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내 짝이 나타났어요. 그렇게도 찾았던 형이 짝이 되어 나타난 것이예요. 검정색 바지와 역시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셔츠를 입고 나타났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엄마는 저 바지와 셔츠를 사오셨어요.

내 옷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누구에게 줄 선물이라며 상자 속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형이 입고 나온 거예요.

조금은 무표정하게 형 손을 잡았어요. 형은 여전히 나보다 키가 작았어요. 친구들이 눈치 채지 않을까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친구들의 소음에 섞여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형’ 하고 불러보았어요. 말은 못하지만 형도 무척 반가워했어요. 이름표에는 박성민, 박정민이 위 아래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 준호 녀석이 외쳤어요.

“어, 박성민, 박정민 이름도 비슷하네. 성민아, 형제하면 되겠다.”

“.....”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너무도 놀랐어요. 준호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준호도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한 얘기였고, 다른 친구들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어요. 나는 엄마가 준비해 주신 선물을 뜯어 모자도 씌어주고 목도리도 돌려주었어요. 옷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때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민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성민이가 형이라 부르면 되겠구나.” 옆에 계시던 선생님도 웃으셨어요.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잘랐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모금한 것에 돈을 보태어 오십 만원을 후원금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준비해 간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마술을 잘하는 휘찬이의 마술 공연도 보여주고, 지영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크리스마스 캐롤도 흥겹게 불렀어요. 파티가 끝나자 짝궁과 함께 종이접기도 하고 그림그리기, 컴퓨터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형은 내 옆에 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함께 살 때

처럼 어깨에 얼굴을 기대기도 하고 다리를 베고 눕기도 했어요. 나는 형 손을 끌고 구석으로 갔어요.

“형, 나 생각나? 형 보고 싶었어.”

“.....”

대답은 없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탕탕볼을 꺼내 주었어요. 지금도 공을 좋아하는지 궁금했는데, 공을 받아서 던져보며 좋아했어요. 초콜릿과 카라멜도 주었는데, 형은 초콜릿 하나를 내밀며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초콜릿 한 조각을 내가 먹고 형 입에 한 조각 넣어 주었어요. 형이 너무 좋아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먹으라고 가방에 넣어 주었어요.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지원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또 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나도 형과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나누었어요.

“형, 잘 있어. 다음에 엄마랑 같이 올게.”

“.....”

형은 탕탕볼을 만지며 행복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쉽지만 형 손을 한 번 잡아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나오자 몇몇 성지원 친구들은 밖으로 따라 나왔고, 다른 친구들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배웅해 주었어요. 형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형을 보지 못했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형과 눈이 마주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성민아, 재미있었어?”

“예,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 보일까? 장애인 친구들을 보니 마

음이 아팠구나?”

“그게 아니라……”

“성지원 친구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 아이들 표정을 좀 봐. 얼마나 해맑고 행복해 보이니. 건강한 우리들이 지켜주어야 할 아이들이지는 하지만 결코 불행한 아이들은 아니야. 선생님은 한 달에 두 번씩 그 친구들과 만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내가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돼.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성민이도 선생님이라 같이 올까?”

“……”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형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한테 만큼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형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 재미있었니?”

“네, 엄마.”

엄마는 아침에 출발할 때처럼 어디에 갔었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보였어요.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물으시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지갑을 들고 나가셨어요.

참 피곤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인지 갈증이 났어요. 주방에 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식탁위에 가계부가 있었어요. 무심코 펼쳐 보았는데 엄마의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했어요. 가계부를 덮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17일. 정민이 선물(모자, 목도리) 32,000원’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엄마는 내가 성지원에 가는 것도, 그리고 그 선물이 형한테 갈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하고 짝이 된 것도, 수녀님의

말씀도 이미 준비된 것이란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형을 만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어요.

엄마의 가계부 12월 25일에는 빨간 글씨로 성지원이라고 적혀 있었
어요. 성당에서봉사활동 가는 곳이 성지원이었던 것이예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낮에 만나고 온 형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 눈을 감고 자는척했어요.
엄마는 내 방문을 열더니 ‘녀석, 힘들었나 보네.’ 라고 하시며 밖으로 나
가셨어요.

나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엄마는 만들
어 놓았던 만두를 큰 통에 가득 담아서 봉사활동을 다녀오겠다며 나가
셨어요. 형이랑 헤어질 때, ‘다음에 엄마랑 같이 올게’ 라고 약속했었는
데, 따라 나설 수가 없었어요. 어찌면 엄마와 만날 때 나를 찾는지도
모르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엄마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어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
어오시더니 주머니에서 카라멜 한통을 주셨어요.

“엄마, 웬 카라멜이예요?”

“글쎄, 성탄절이라고 누가 엄마한테 선물을 하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형 가방에 넣어
주고 온 카라멜이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얼른 자리를 피해 내
방으로 왔어요. 한참 정신을 놓고 앉아 있다가 편지지를 꺼내놓았어요.

‘엄마, 형을 만나고 왔어요. 형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요.
형 데리고 와요. 저 때문에 형을 성지원으로 보낸 거 알고 있어요. 예전
처럼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겁도 나지만,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 새해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아요.

형을 정말 사랑해요.’

자리에 누웠어요. 새해 우리집에서 펼쳐질 풍경들을 생각하며… ⅥⅥⅥ

“

나는 형 손을 끌고 구석으로 갔어요.
“형, 나 생각해나? 형 보고 싶었어.”

“.....”

대답은 없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태화보통을 꺼내 주었어요.

지금도 공을 좋아하는지 궁금했는데,
공을 받아서 던져보며 좋아했어요.
초콜릿과 카라멜도 주었는데,

형은 초콜릿 하나를 내밀며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초콜릿 한 조각을 내가 먹고 형 입에 한 조각 넣어 주었어요.

형이 너무 좋아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먹으라고 가방에 넣어 주었어요.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종료>

다른 친구들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배웅해 주었어요.

형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형을 보지 못했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



“할아버지는 소금 안 내신다고 하시디?”

“예.”

“정말 큰일이다. 요즈음 소금 값이 금값인데
언제 내려고 그러시구나.
니 아빠 때문에 다 고생이다.”

-본문중에서-



땅끝 가는 길에 들렸던 옛날 풍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다그레질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와
해상에 반짝거리던 하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주며
맛보라던 아이들의 정겨움까지.

김경희 전남 해남동초등학교 교사

소금밭 아이들

“집에 가자.”

“싫어.”

성수는 집에 가기 싫다는 기수를 억지로 잡아끌었습니다. 기수는 마을 아이들과 소금 창고 앞에 있는 갯고랑에서 게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소금밭은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소금밭에서 놀다가 소금밭에서 밥도 먹고 소금밭에서 낮잠도 잡니다.

대창 옆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을은 어제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통 잔치 분위기입니다. 집집마다 하얀 깃발이 펄럭입니다. 오늘 소금을 내는 집들입니다. 여름동안 모아둔 소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힘을 모아 소금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소금을 자루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떡이며 과일에 삼겹살 파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는 집에 더욱 가지 않으려 합니다.

“성수야, 성수야.”

마을 이장 아저씨가 성수를 부릅니다. 기수 손을 잡아끌고 실랑이를 하고 있던 성수는 아저씨를 쳐다봅니다.

“할아버지는 소금 안 내신다고 하시디?”

“예.”

“정말 큰일이다. 요즈음 소금 값이 금값인데 언제 내려고 그러시꼬 나. 니 아빠 때문에 다 고생이다.”

성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니다. 또 저 소리. 이장 아저씨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성수와 기수만 보면 꼭 한 마디씩 했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다 고생이라고.

며칠 전에 성수는 친구들과 싸움도 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여름 방학을 하기 전에 급식비가 밀린 사람은 모두 내라고 하셨습니다.

“야, 니그 아빠 언제 오시냐?”

“맞아, 우리 엄마도 그러는디 니그 아빠가 와야 돈이 있다더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교회 앞을 막 지나가는데 마을 친구들이 성수를 흘려보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곧 싸움이라도 할 것처럼 소리 지른 놈은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 도형이입니다.

“동네 소금 다 가지고 도망가서 오지도 않고, 꼴좋다.”

“뭐?”

주먹을 불끈 쥐고 성수가 달려들자 아이들은 눈을 부릅뜨며 모두 도형이 옆으로 붙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갇아줄 거야.”

“언제, 언제 오는데? 순 사기꾼이야.”

성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주먹으로 도형이 얼굴을 한 대 갈겼습니다.

“야, 너 때렸어.”

도형이는 갑자기 한방 얻어맞자 억울한 모양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

고 소리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우리 아빠 욕하지 마.”

“뭘, 사기꾼보고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무슨 욕?”

도형이가 달려들어 성수 옆구리를 사정없이 발로 찼습니다.

“와!”

친구들은 모두 도형이 편입니다. 성수는 너무 억울해서 온 몸이 떨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모두 소리 지르며 야유를 하자 더 이상 덤비지 못하고 힘없이 주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친구들과도 서먹해져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냅니다.

목욕을 하고 나도 소금기가 남아 있는지 살갓이 따끔거립니다. 성수는 동생 기수와 선풍기를 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기수는 속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잠을 자려고 합니다.

“기수야, 옷 입고 자.”

성수는 기수 몸을 흔들며 잠을 깨웁니다. 선풍기 바람에 짠 내가 묻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원한 바람에도 몸이 고실고실하지 않고 여전히 끈적거립니다.

“형, 배에 소금이 남아 있어.”

“깨끗이 씻으면 되지, 2학년이나 된 것이.”

성수는 괜히 심술이 납니다. 겨우 두 살 차이인데, 기수가 어리광을 피우면 알밋기도 하고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몸을 씻어 주었지만 성수는 동생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소금발에 뛰어 놀아 짠내가 베어 있는 몸을 찬물로 씻어도 모른 척 합니다.

“근디 형! 아이들이 나를 싫어 해.”

“나도 그래. 나만 보면 아빠 왔냐고 물어 봐.”

아빠 말이 나오자 성수는 가슴이 벌렁거려 머리가 또 아픕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아빠를 찾는지, 기수와 성수를 보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볕 쨍쨍한 더운 여름 소금을 내는 날, 그날 아빠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쿨럭 쿨럭”

옆방에서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만 드시더니 기침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여름이 끝나 가는데 언제 까지 아빠를 기다려야 될까. 저렇게 술만 드시고.’

할아버지 속을 모르겠습니다. 성수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옵니다.

“개굴개굴. 찌러 찌르르.”

여기저기 개구리 울음 소리와 풀벌레들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름 밤은 깊어 가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를 써보지만 자꾸만 아빠 엄마 생각만 납니다. 할아버지 기침 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아마 잠을 못 드시는 게 분명합니다.

몇 년 전, 엄마가 소금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짠내가 나는 염전에서 살기 싫으니 제발 이사를 가자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생해서 일귀 놓으신 소금밭을 버리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아빠는 떠날 수가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하고

싸움만 실컷 하다가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성수는 엄마가 정말 의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수와 기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집을 나갔으니 나쁜 엄마입니다.

지난 봄, 아빠도 성수와 기수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트럭을 몇 대 가지고 와서 소금을 가득 싣고 떠났습니다. 소금을 비싼 값에 팔아 오겠다고 약속하고 마을 소금을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성수, 기수만 더 힘들어 졌습니다. 모두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성수는 아빠, 엄마 생각에 뒤척이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방문 여는 소리. 말소리도 들립니다. 울먹거리는 소리에 성수는 설핏 잠이 들려다 말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누구일까?’

가만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한 눈에 보아도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다!’

성수는 반가운 마음에 아빠를 큰소리로 부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처 부르기도 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왔는데 누구 만날까 봐 하루 종일 산에 있었네요. 밤이 되니 춥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 남들 못살게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제.”

“다들 소금을 내던디. 우리 집은 언제 내시려고 이려고 계신다요.”

“이놈아! 니 기다렸제.”

할아버지 말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성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해 깜깜한 밤중에 오시다니.’
성수는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아서 온 몸에 힘이 빠지고 화도 났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성수만 보면 혀를 차고 눈치를 주던 일,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시비만 걸었던 일, 동생 기수까지 따돌림을 받고 울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씨, 아빠만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도둑놈 같이 숨어서 오시다니.’

눈물이 핑 돌니다.

“도대체 그 많은 소금을 가져가 다 어쨌냐?”

할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반은 도매로 넘겼는데 사기를 당하고, 남은 것은 자들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팔아 썼네요.”

“정신없는 놈, 자들 에미는 왜 찾아? 저 불쌍한 자식들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나간 사람을. 휴-우.”

한숨을 푹푹 쉬시는 할아버지.

“그래 이제 어쩔래.”

“소금밭을 팔아 주면 그 돈으로 장사나 했으면 하ندی요.”

“그건 안 된다. 빛도 못 갚고 하나 남은 밭마저 팔아 주라니. 그런 소리 할라거든 가거라.”

“아버지가, 한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평생을 소금만 만들고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만든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땀새, 허튼 생각 한번 안하고 살아왔어. 니 힘으로 빛 갚고 돌아오니라. 나는 모르겠다.”

“성수, 기수 얼굴이라도 보고 갈라요.”

“뭘 낫으로, 아이들도 마음 고생이 말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빠는 방문 앞에 한참동안 서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아무 기척을 내지 않자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산속은 추울 텐데….

아빠! 성수는 달려가서 아빠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합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기수를 보니 더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침입니다.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벌써 일어나신 모양입니다. 전기밥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혹시 소금밭에?’

성수는 소금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아 소금이 많이 왔구나. 오늘은 우리도 소금 내자.”

할아버지는 소금을 긁어모으고 계셨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끽끔거리시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손에 힘을 주고 부지런히 다그레질만 합니다.

아침 햇살에 소금밭은 하얀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습니다. 성수는 소금밭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낮은 지붕을 이고 있는 함수 속에 소금 물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물을 모아두었다가 내 보내는 곳이지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는 작은 수문이 달려 있습니다. 풍차를 돌려 바닷물을 끌어 모으는 곳입니다. 성수 아빠가 계실 때는 그 일을 맡아 했었습니다. 기계를 아주 잘 다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

두 그 일을 맡겼습니다.

“성수야, 소금밭에 바닷물을 그득하니 담아 놓으면 물이 마르면서 점점 찌뭇물이 된다. 찌뭇물은 짝끔씩 아래 칸으로 내려가제. 마지막엔 하얀 보석이 되니라. 니도 염도를 읽어 봐라.”

아빠는 성수에게 염도계 읽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또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 우리나라 소금이지. 그 것도 우리 마을 소금이제.”

눈을 감으니 아빠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성수는 하얀 소금밭이 하얀 도화지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팔을 걷고 땀을 흘리며 소금을 걷어내던 아빠의 힘찬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침 해가 소금밭을 환하게 비춥니다. 할아버지는 소금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 햇살이 비치자 소금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소금을 자루에 담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빠져 눅눅하지 않고 잘 마른 소금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할아버지 기 올릴까요?”

성수가 묻습니다.

“아니다. 우리끼리 천천히 하자. 이번 소금이 참 좋다. 고소하니 단맛이 난다.”

소금자루 속으로 소금들이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소금자루에 도장을 찍어 표시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소금은 언제나 일등품이었습니다.

“성수야! 성수야!”

이장 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어르신 기를 올리시지 왜 혼자 이러십니까?”

“면목 없어 그러네, 귀찮게만 허고.”

“어르신 염려 마시지요. 참, 수문에 달린 풍차가 고장 나서 애를 먹었
는디 고쳐졌더군요, 성수 아빠 솜씨 같던디 언제 다녀갔어요?”

“어찌녁에 왔다 갔네. 나도 오늘 소금을 내고 나면 소금밭을 팔 것이
네. 자네들 돈부터 갚아야지.”

“밭을 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안 그러도 염전이 줄고 중국산까지
들어와서 판을 치는디 어르신까지 이러시면 안 되지요. 어디서 이런 소
금 맛을 볼 수 있답니까. 이렇게 구수하고 단맛이 나는 소금은 절대 못
만들 것이구만요.”

“그래도 미안해서 그러네. 다른 방법이 없네.”

“어르신, 우리들이 좀 참지라. 소금 값은 걱정 마시고 성수 아빠보고
오라고 하시지요. 그 친구도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찌다
그렇게 되었는데 안타깝네요.”

“고맙네. 하지만…….”

이장 아저씨가 눈이 붉어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어른들 모습
을 보고 있던 성수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성수야 기 올려라.”

이장 아저씨 말씀에 성수는 밖으로 나가 깃발을 높이 올립니다. 하얀
깃발은 성수네 소금 창고 지붕에서 펄럭입니다. 뒷산에서 아빠가 마을
을 쳐다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깃발을 본다면 한 걸음에 달려올 것
입니다. ⅢⅢ



출근길 아침.
비를 맞고 서 있는 강아지 어미를 보게 되었다.
땅에 닿을 것 같은 정곡지로 보아 분명 강아지는
아니었다. 귀여운 새끼도, 사랑했던 주인도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

문제술 부천 고강초등학교 교감

강아지 어미

“왜, 비를 맞고 서 있노? 길에서…… 나처럼 자식이 없나? 네 주인이 길에다 널 버려두고 갔나? 젖꼭지를 봐서는 새끼를 낳어도 몇 배를 낳겠구먼. 쫓-쫓!”

“…….”

할머니는 혀를 차시며 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요 나는 작지만 강아지 어미랍니다. 예쁜 강아지를 그것도 여러 번 낳았으니 ‘강아지 어미’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 새끼 낳았을 때,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는 표정으로.

“아니,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았네.”

“정말 이 작은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두 마리나?”

강아지도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이 작은 강아지’ 였습니다. 그래도 난 사람들이 ‘강아지 어미’ 라고 부르는 게 듣기 좋았어요. 예쁜 강아지 그 속에는 귀엽고 예쁘다는 말뜻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귀여운 손자나 예쁜 손녀를 부를 때,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하잖아요?

강아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강아지 어미’ 라고 놀렸지만 정작 내 이름은 따로 있어요.

내가 처음 은희 아빠의 품에 안겨 집으로 오던 날, 이 집의 두 딸들은 나를 보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짓기 위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은희, 금희는 이집 딸 자매예요. 샘이 많은 막내 금희는 엄마, 아빠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언니의 물건이 맘에 들면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늘 양보하는 은희 언니는 마음도 얼굴처럼 예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희보다 금희 얼굴이 더 예쁘다고 말하지만 은희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지를 모르는 걸 보면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내 이름을 짓는 가족회의에서 생각해 놓았던 귀엽고 예쁜 이름들이 여럿 나왔어요. 나리, 핑클, 쫘이, 세라……, 금희와 은희가 좋아했어요. 잠자코 계시던 아빠가 양쪽 모두 갈색 얼룩무늬가 있는 내 귀를 만지시며 ‘바둑이’가 어떠냐고 하자 두 자매는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머리를 가웃거리며 생각하고 계시던 엄마가.

“이 강아지 품종이 뭐라고 했죠?”

사 오신 아빠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츄!, 시-츄!”

두 자매가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시-츄? 그럼 우리 강아지 이름을 시-츄라고 부르면 어때요?”

“그래, 시-츄! 그 이름 괜찮은데, 시-츄 부르기도 좋고,”

엄마, 아빠의 의견에 은희, 금희 두 자매도 손뼉을 치며 동의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시-츄’가 되었어요. 동생 금희는 학교에서 돌아 오기만 하면 아예 나를 끼고 살았어요.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하고, 털을 빗어 올려 머리꼭지에 리본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어요. 은희 언니는 먹이를 챙겨 주는 일, 목욕을 시켜주는 일, 드라이로 젖은 털을 말려주

는 일, 내가 실례를 했을 때 말끔하게 치워주는 일까지 은희 언니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동생 금희였습니다.

내가 어미로 자라자 금희는 금세 또 어린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투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새끼를 낳으면 될 일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해,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처음 새끼를 낳았습니다. 딱 두 마리였습니다. 금희와 은희는 집안에 경사가 난 것처럼 반겼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도 잘 가누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게, 그래도 짹꼭지는 찾아 입에 물었습니다. 나는 눈을 빨리 뜨게 하려고 강아지 얼굴을 번갈아 훑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차츰 보드라운 털이 돋아나고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이 강아지 좀 봐, 고깃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것처럼 귀엽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이, 강아지들이 내 품에서 맛있게 젓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 볼 때, 그 때가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덧 강아지들은 젓을 뿔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가져가겠다고 미리부터 야단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젓을 떼자마자, 한 마리는 고모네, 또 한 마리는 작은 집에서 가져갔습니다. 금희가 그 중 한 마리를 키우겠다는 것을 엄마는 새끼는 또 낳으면 된다고 겨우 달랬습니다. 두 번째 낳았을 때, 그중 제일 예쁜 것으로 한 마리를 골라 금희 뒤편으로 키웠습니다. 나머지 강아지도 너무 예뻐 사가겠다는 사람이 서로 나서는 바람에 좋은 값을 내고 가져갔습니다.

그 때까지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끼들은 자라면서 나보다 더 털이 윤

기가 나고 복슬복슬했습니다. 물론 금희의 관심은 차츰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은희 언니만은 여전히 나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 새끼를 낳았을 때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면서도 선뜻 나서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젖을 땔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강아지들은 젖을 먹으려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마리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빠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를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내가 이 집에 올 때에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복슬복슬하던 털은 윤기도 없이 착 가라앉고 거기다 어느 사이 젖꼭지는 땅에 닿을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금희는 누가 손 텔세라 나를 품에 안고 끄찍이도 예뻐했지만 지금은 내가 옆에서 귀여운 척을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애, 시-츄 년, 저리가. 젖꼭지는 축 늘어져 가지고…….”

더구나 은희 언니가 먼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은희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현관으로 달려 나갔을 때, 유난히 술이 많이 취하신 듯, 나를 발로 툭 밀쳐내며.

“저리가! 귀찮아. 강아지 집인지, 사람 집인지 이거 원!”

나는 지금껏 그렇게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나를 그처럼 예뻐하던 금희는.

“시-츄, 년 할머니야. 엄마! 이제 그만 누구한테 가져가라고 하세요.”

기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귀여움을 받기는커녕 이 집에서 미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당에 노랗게 물들어 있던 은행잎이 그 날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

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희 언니가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챙겨 준 먹이를 달게 먹고, 나는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내가 집을 나올 때, 막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따라오지 못하게 겁을 주었습니다.

막상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벌써부터 발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허둥지둥 달려간 곳이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출기까지 했습니다.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괴물로 변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벤치 밑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서움에 떨다가 얼핏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속에서 가물가물 은희 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 둘러 보았지만, 은희 언니는 보이지 않고 바람이 낙엽 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를 찾아 줄 사람은 은희 언니밖에 없지만 만약 은희 언니가 나를 애타게 찾고 있다 해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더 먼 곳으로 자꾸만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있으라고 붙잡아주는 사람도, 그렇다고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 내 딛는 발이 기운도 없이 자꾸만 헛 딛고 있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저쪽 맞은편에서 힘들 게 손수레를 끌고 오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종이 박스가 조금 얹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내다놓은 종이박스를 모아 파시는 꾸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다. 할머니는 끝던 손수레를 멈추고 물끄러미 나를 한 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몸을 굽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들은 다 어디 두고 혼자 비를 맞고 있노?”

내 물기 어린 까만 눈을 뻥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나를 수레 위에 앉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친 손자에게 하듯, 따뜻한 물에 비 맞은 나를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일 나가시는 할머니를 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할머니 일하시는 것을 도우려고, 작은 종이 상자를 입에 물어 오기도하고, 상자를 끌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참, 신통하기도하다.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상자를 물어다 놓을 생각을 다하고,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리 안 해도 우리 두 식구 먹고 산다.”

봄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화창한 날씨에다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평소 안 가던 먼 곳까지 가셨습니다. 빈 수레 위에 나를 태워 막 여학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시-츄! 시-츄!”

어디서 나를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었을 때, 잊혀진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 바로 은희 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문 앞,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속에서 은희 언니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손수레에서 뛰어내려 은희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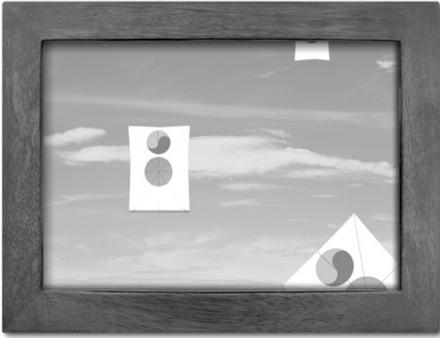
“윙! 윙!”

은희 언니가 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은희 언니는 반가움으로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우리 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ⅣⅣⅣ



무뚝뚝한 자신의 이빠보다,
자상한 보람이의 이빠를 부러워하던 지원이가
보람이 이빠의 죽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람이가 이빠와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과 이빠를
잃고 아파하는 모습을 방편연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정재형 전북 김제시 지방기능직

보람이의 방패연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원이가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며 큰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당 한쪽에서 즐고 있던 누렁이가 “멍! 멍!” 하며 지원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지원이는 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이사를 온 모양인지 옆집 대문 앞에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옆집은 여러 사람들이 이사 짐을 옮기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트럭에서 여자아이가 내리더니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이 참으로 뽀얗고 깨끗했습니다. 지원이는 여태 그렇게 뽀얀 피부를 갖은 예쁜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지원아~ 개울가에 송사리 잡으러 가자.”

성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습니다.

“음……. 그래!”

성필이와 개울로 향하려는데 그 소녀가 집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지원이와 그 소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들짝 놀란 지원이

는 얼른 고개를 돌렸고 염치가 없어 괜히 성필이를 재촉했습니다.

“성필아! 뭐해? 빨리 가자!”

어찌된 영문인지 개울가에서도 그 소녀의 얼굴이 자주 생각났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소녀는 하늘색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렸고 커다랗고 까만 눈이 참 예뻐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조화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누군가 선생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원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온 그 소녀가 지원이네 반으로 전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를 할 친구예요. 보람이 친구들에게 인사 해야지?”

“김보람이야! 잘 부탁해!”

“안녕!”

“안녕!”

“보람이가 새로 전학을 와서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서먹서먹할 텐데 보람이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친구 없나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의 말씀에 지원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번쩍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히히히... 호호호... 킁킁... ㅋㅋㅋ...”

다른 아이들이 모두 웃었고 지원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요. 지원이가 보람이를 도와주세요.”

보람이와 짝이 된 지원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보람이네 집에 놀러갔습니다. 대문이 열려있기에 문을 밀치고 들어가 보니 보람이 아빠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지원이구나? 어서 와라.”

“어서와 지원아!”

보람이도 지원이를 반겨줬습니다.

아저씨는 마당에서 대나무를 얇게 자르고 계셨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응. 연을 만들고 있단다.”

지원이가 아저씨가 하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연 만드는 선수야!”

보람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원이의 아빠는 매일 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찌다가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잠만 주무셨습니다. 지원이가 같이 놀아달라고 떼를 쓰면

“미안하구나. 눈에 할 일이 많다. 친구랑 놀아라!”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보람이네가 이사 온 후 일만하시는 아빠보다 보람이네 아빠가 더 좋았습니다.

보람이는 여러 가지 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그런 보람

이가 부러웠습니다. 지원이는 시간 날 때마다 아저씨를 도와드리며 연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가 만드는 연은 하늘을 제대로 날지 못하고 번번이 땅바닥에 곤두박질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웃으 시던 아저씨가 어느 날 연을 한 개 만들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원이도 멋진 방패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이는 아저씨에게 수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하하... 녀석...”

아저씨는 일요일마다 보람이와 뒷동산에 올라 연을 날렸습니다. 아저씨는 보람이를 많이 사랑하셨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지원이도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차츰 연 날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원이 연 날리는 솜씨가 많이 늘었는걸!”

“이게 다 사부님 덕택입니다. 백골난망이옵니다.”

“응? 사부님?”

“네 사부님! 이제 그만 하산할까요?”

“뭐?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세 사람은 연을 날리다가 한참동안을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고 겨울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주최로 보람이네 반 아이들 모두 함께 연날리기 시합을 하기로 약속한 이틀 전

아저씨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연날리기 행사는 취소되었고 아저씨의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는 날, 보람이네 반 아이들 모두가 아저씨에게 선물 받은 방패연을 들고 나와 하늘에 연을 띄우며 아저씨의 가시는 길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저씨가 하늘로 가시는 길 양쪽에 수 십 개의 방패연이 아름답게 수놓아졌습니다. 보람이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아 고맙다.”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보람이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고 밖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지원이는 연 하나가 마당에 둥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 저게 뭐지?”

지원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동안 보람이네 집 위에 떠있던 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연을 집어 들었습니다. 보람이의 연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연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써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방학숙제에 아빠 얼굴 그리라고 해서 나 많이 울었어요.

엄마랑 앞으로는 울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했지만
아빠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도 나 안볼 때 혼자서 많이 울어요.

아빠...

나랑 엄마가 이제 그만 울게 도와주세요.

울지 않는다고 아빠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리고 요즘 엄마가 많이 아파요.

설마 나 혼자 세상에 남겨두고 엄마를 데려갈 마음은 아니죠?

아빠... 정말 보고 싶다.

지원이는 연에 적혀있는 편지를 보고 보람이가 요즘 아빠가 보고 싶어
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덧 봄이 와서 5학년이 되었고 지원이와 보람이는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보람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보람이는 여전히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가끔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보람이의 울음 소리가 지원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보람이가 지원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원아!”

“응?”

“나 내일 이사가...”

“이사?”

“응. 그래서 너에게 부탁할게 있어서 왔어.”

“뭔데?”

“엄마랑 내가 이사 간 집을 우리 아빠가 못 찾아오실 까 걱정이야?”

보람이는 손에 들고 있던 방패연을 지원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방패연을 우리아빠 제사 일주일 전부터 하늘에 띄워 줘.”

연을 보니 그곳에는 보람이가 이사 가는 집의 약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다음날 지원이는 이상한 소리에 아침 일찍 잠이 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히 들어보니 뒷동산에서 보람이가 아빠를 부르며 우는소리 같았습니다. 지원이는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보람이가 아빠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람이는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지원이의 눈에서도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가는 보람이와 보람이 엄마의 우는 모습에 동네사람들 모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보람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약도가 그려있는 방패연을 하늘 높이 띄웠습니다.

“지원이 연 날리는 솜씨가 제법인데?” 하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원이도 낮은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게 다 사부님 덕택입니다. 백골난망이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밤하늘이 너무 캄캄해서 연에 그려놓은 약도를 아저씨가 못 볼까 불안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를 기다리는 보람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는 보람이가 이사 간 집의 약도를 도화지에 그려 골목입구에 붙여놓았습니다.

보람이가 이사 간 방향으로 별뿔별이 흘러갑니다. 아마 보람이 아빠가 보람이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는 두 손을 입에 모으고 큰소리로 보람이를 불러보았습니다.

“보람아~ 아빠 만났니?”

멀리서 보람이의 대답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까만 밤하늘엔 보람이의 방패연이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코를 골며 주무시고 있는 아빠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지원이는 아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꼬~옥 잡아 자신의 볼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ⅢⅢ



보람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약속도가 그려있는 방과후연결
하늘 높이 띄웠습니다.

.....
"보람아~ 오빠 만났니?"

멀리서 보람이의 대답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지우아! 고마워!"

가만 밤하늘엔
보람이의 방과후연결이
노이 날고 있습니다.





“스케치북 내가 들어줄까?”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현우는 빠르게 말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도왔거든!”

강아지처럼 질질 끌려오던

스케치북을 나는 얼른 가슴에 안았다.

눈을 옆으로 치켜뜨며 현우를 흘려주었다.

그때 난 보았다. 내 눈과 마주친 현우의 맑은 눈.

순간 또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작은 키로 인해 친구들은 날 아래층이라고 부르지요.

위층에 대한 갈망으로 내 마음을 항상 해질녘의 어둡한 자락 내려놓지 못했어요. 현우는 내 마음의 키를 짚어주어 준 친구예요. 어느새 내 마음은 공계 물이 들었어요. 채송화의 꽃물이

김정숙 광주고등법원 기능직

채송화의 꽃물결

집으로 가는 길. 오늘도 나는 혼자이다.

혼자 걷는 날들이 많지만 쓸쓸하거나 외롭지만은 않다. 난 이미 혼자
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친구가
꽤 있다. 보도블록 사이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민들레의 노란
미소와 만세를 부르며 반겨주는 이름모를 풀들의 합성, 이마에 송글송
글 맺혀 있는 땀방울을 식혀주는 서늘한 바람은 내 오랜 친구들이다.
또 아이들이 먹고 버린 아이스크림 껍질에 엉겨 붙은 시커먼 개미행렬
을 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그 작
은 것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도 있다.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가슴
이 답답해져 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
들. 바람과 함께 아우성치고 있는 초록의 무성한 잎들을 보노라면 내
마음은 탁 트이는 것 같다. 난 그렇게 한번씩 심호흡을 한다.

꽃노래를 흥얼거리려 본다. 왼손에 들린 스케치북이 자꾸 바닥에 끌린
다.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았다. 빼딱한 내 모습이 우습다. 몸을 바
로 하고 이내 노래에 박자를 맞춘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앞 뒤 모

서리를 바닥에 탁탁 내리쳤다. ‘깊은 산 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
요…….’ 혼자 부르는 노래지만 박자를 맞추니 제법 흥이 나는 것 같다.

“야, 아래층 공기가 제법 좋은가 보다!”

맑은 목소리가 박자를 똑 끊어 놓는다. 스케치북이 다시 질질 끌린다.

“위층 공기가 탁하면 너도 내려와.”

내뱉는 말이 제법 시비조가 되었다. 우리 반 끝번인 현우다. 나는 1번
이다.

“아니, 기분이 좋아 보여서 하는 말이야.”

현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멧쩍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위층에 사는 너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

난 밥을 먹다 돌을 씹은 기분이다.

내 별명은 아래층이다.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놀려대도 이제 아무렇
지도 않다. 땅꼬마, 영원한 1학년, 내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늘 불려
졌다. 5학년에 올라오자 누가 먼저 불렀는지도 모르게 난 아래층이 되
었다. 불리는 별명이 다를 뿐 의미는 똑 같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아파트에 살면 아래층을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알아? 위층에서 방방
뛰면 아래층 주인 뛰어 올라간다. 조심해!”

난 태연하게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들였다. 속상해 해 보았자 나만 손
해라는 걸 많은 시간이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동정어린 눈으로 쳐다보
는 아이들도 있었다. 막무가내로 놀려대던 아이들도 당연히 있었다. 뭐
어떻게 대하든 난 기 죽지 않았다. 그 애들 앞에서 난 당당했다. 아니 태
연한 척 하기 위해 애썼다. 키가 조금 작다는 이유로 내 가슴이 오그라
든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나를 이
젠 아이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별명을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부르

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울 정도다. 그렇다고 내 이름이 강아래층은 아니다. 나에게도 엄연히 이름이 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빛나는 이름. 강 빛나. 아래층에 밀려 빛을 잃어버린 이름이지만 내 물건들에게 꼬박꼬박 써 넣는 이름은 강빛나이다. 이름을 써 놓고 보면 은빛 물결 출렁이며 속살대는 강물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그러나 어쩔 땐 강빛나는 내가 아니고 내 책들이, 공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면 난 한 번 씨익 웃어준다. 이름에게. 너의 주인은 나야. 하고.

현우. 그리고 보니 현우는 날 아래층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없다. 물론 빛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 또한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럴 만도 하다. 난 맨 앞줄, 현우는 맨 뒷줄. 짐짓 태연한 나였지만 교실에서는 되도록 내 자리를 지킨다. 앞은키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앞에까지 나와 설쳐대는 현우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현우가 나를 아래층이라고 불렀을 때 나의 대답이 대뜸 투명스러워진 것이……. 가끔 현우의 큰 키를 보며 나한테 조금만 나눠 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 큰 키에 대한 동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현우와 눈이 마주치면 내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속사포처럼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

현우는 내 곁에서 걷고 있다. 나의 걸음걸이에 속도를 맞추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스케치북 내가 들어줄까?”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현우는 빠르게 말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됐거든!”

강아지처럼 질질 끌려오던 스케치북을 나는 얼른 가슴에 안았다. 눈을

옆으로 치켜뜨며 현우를 흘려주었다. 그때 난 보았다. 내 눈과 마주친 현우의 맑은 눈. 순간 또 들려오는 말발굽소리. 스케치북을 안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달리던 말이 가슴속에서 튀어 나올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난 우유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너무도 익숙한 생활이다. 엄마는 키 작은 나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신다. 키를 크게 하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반찬도 빼어 좋다는 멸치, 콩자반, 두부 등은 필수 메뉴이다. 또 밤 열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재촉하신다. 오늘처럼 잠이 오지 않는 날도 별 수 없다. 들릴 듯 말 듯한 엄마의 소리가 나의 잠을 방해한다. 엄마는 통화를 빨리 끝낸 적이 별로 없다. 엄마의 오래된 습관이다. 언뜻 내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같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

“우리 빛나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친구들이 놀러댈 텐데도 마냥 밝은 걸 보면. 그게 너무 고맙지만 어쩔 땐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프다니까.”

엄만 내가 이미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너무도 선명하게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내 눈이 더 말뚱말뚱해진다. 시커먼 천장에서 현우가 날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 획 외면하며 모로 누웠다. 내려다보는 시선이 싫다. 난 항상 올려다봐야 하니까.

“성장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성장기까지 한 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성장호르몬제를 맞아야 한단다. 그렇다고 성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래. 돈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아니지. 돈이 문제가 아냐. 우리 빛나가 다른 아이들처럼 자랄 수만 있다면 난 아까울 게 하나

도 없어. 어찌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니? 천사처럼 착한 우리 빛나한테 말야……”

엄마의 한숨소리가 어둠을 부채질했다. 뜨거운 눈물이 눈 꼬리를 타고 내려가 베개를 적신다. 성장호르몬. 내가 흘리는 눈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을까? 눈물을 흘리는 만큼 키가 커진다면 난 이 밤을 꼬박 새울 수도 있을 텐데. 아니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울 자신이 있다. 가슴이 들썩거렸다. 울음보는 자꾸만 소란스럽게 풀어헤쳐지려고 했다. 골짜기 침을 삼켰다. 내 옆에서 잠들지 못한 어둠 한 움큼이 따라 들어가려다 목올대에 걸린 듯 잔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아침. 엄마는 나에게 두유가 담긴 컵을 내민다.

“싫어요. 먹어도 소용없잖아.”

엄마를 지나쳐 식탁에 앉았다. 한 손에 컵을 든 채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빛나, 너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부지런히 먹어야 키가 크지.”

엄마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신다. 전에 없던 나의 행동에 엄마는 당황해 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엄마를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에 앉은 난 손가락질을 몇 번 하다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로 인사를 했다. 커다란 가방을 짊어진 내 모습이 현관 옆에 있는 거울에 비쳤다. 마치 커다란 등짝지를 짊어진 거북이 같다. 자꾸 신경질이 났다. 이런 내 모습이 평생의 내 모습일 거라 생각하니 거울을 확 깨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신발 뒤축이 얼른 떼어지지 않는다. 괜히 신발에게 화풀이를 했다. 발뒤꿈치를 바닥에

탕탕 쳤다.

“강빛나, 너 도대체 왜 그러는지 엄마한테 말해 봐. 무슨 일 있었어? 왜 안하던 행동을 하는 거지?”

엄마의 목소리가 똑똑 마디를 꺾는다. 나의 왼팔을 힘주어 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마음속의 말들을 다 할 수도 없다. 아랫입술을 앙당 물었다.

“너 그렇게 가면 엄마 마음 안 편해. 무슨 일 있거든 엄마한테 다 말해 봐.”

엄마는 다시 사정하는 투가 되었다. 이번엔 신발의 앞코를 바닥에 콕 콕 찡어댔다. 엄마의 시선을 외면한 채.

“엄마가 내 맘 알아? 엄마는 나처럼 작아보지 않았잖아! 엄마는 나처럼 아래층이라고 놀림을 받지도 않았잖아! 혼자 놀기가 얼마나 지겨운지 엄마는 알기나 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말들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재빨리 현관을 빠져 나왔다.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옷소매로 문질러 닦았다.

저만치 현우의 뒷모습이 보인다. 학교 담벼락 밑으로 키가 큰 현우가 성큼성큼 교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난 더 천천히 걸었다. 눈가를 손등으로 꼭꼭 눌렀다. 눈물자국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엄마에게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된다. 엄마 또 그렇게 나보다 더 울고 있을 텐데. 걱정이 된다.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보았다.

‘이렇게 깨금발을 하면 내 키가 조금 커 보이지 않을까? 그래. 이만큼만 커도 좋을 텐데.’

뭣 발자국 걸으니 발가락이 힘들어했다. 그렇지만 참았다. 이보다 더한 아픔이 있다 해도 참을 수 있다. 키만 클 수 있다면…….

깨금발을 던고 걷느라 나는 아이들과 한참 멀어져 있다. 그리고 보니 난 제일 뒤에 쳐져 있다. 그때 갑자기 내 몸이 휘청거렸다. 어지러웠다. 다리의 힘이 풀리는 듯 하더니 슈웅- 뭉가 쭈욱 늘어난 느낌이 들었다. 내려다보니 내 다리가 길어 보인다. 도깨비에 흘린 기분이다. 정말 내 키가 커진 것일까?

달렸다. 금세 아이들을 따라 잡을 수 있었다. 짧은 다리로 종종걸음을 치던 옛날의 내가 아니었다. 교문을 막 지나니 화단 옆에 현우가 엉거주춤 앉아 있다. 헐레벌떡 현우 옆에 다가섰다.

“흠, 흠…….”

인기척에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너 넌, 누구야? 어떻게 된 거지?”

현우의 맑은 눈이 놀라고 있다. 그래 정말 내가 큰 거야. 난 더 이상 아래층이 아니라고.

“거기서 뭐하는 거야?”

내 가슴 속의 말이 또 달리기를 시작했다. 말발굽소리가 거친 숨소리를 타고 흘러나왔다. 심호흡을 크게 했다. 말을 진정시키기 위해.

“으 응. 이 키 작은 채송화가 너무 예쁘지 않냐?”

기분이 상했다. 작다는 얘기만 나오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아무래도 유쾌하지 않다. 태연함 속에 감추어진 나의 오래된 상처이다.

“난 키 큰 해바라기가 더 좋아.”

길어진 다리를 까닥이며 난 투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래? 난 채송화가 제일 좋아. 꽃들은 알까?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곱고 예쁘다는 걸 말야.”

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의 눈이 웃고 있다. 채송화를 보고,

“키가 작은 꽃들은 너무나 고운 색을 지녔어. 작아서 누군가 잘 보아 주지 않아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빛나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현우는 혼잣말인 듯 조용히 속삭였다.

작은 풀과 작은 꽃들은 나만의 친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저렇게 키가 큰 현우도 그들의 친구였다니……. 그리고 현우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분명 빛나라고 부른 것이다. 내 얼굴에 꽃물이 오르는 것만 같다. 진분홍 채송화의 꽃물이.

그때 아침조회를 알리는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린 서둘러 교실을 향해 뛰었다. 제일 뒷자리에 현우가 먼저 앉았다. 후다닥 앞으로 달려가 난 내 자리에 앉았다. 교탁 바로 앞의 자리.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대각선 끝자리에 앉은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현우의 눈이 웃고 있다. 나를 보고, 얼른 시선을 돌렸다. 내 마음을 들킬까 봐 시치미를 뚝 떴었다. 창밖 화단에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채송화들이 햇살과 땀뿤기를 하고 있다. 가느다란 바람줄기가 꽃들의 이마를 쓸어 넘긴다. 현우의 말대로 꽃물결이다. 운동장까지 환했다.

내 발가락이 자꾸만 옥신거린다. ⅢⅢ



“키가 작은 꽃들은
너무나 고운 색을 지녔어.
작아서 누군가 잘 보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빛나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현우는 혼잣말인 듯 조용히 속삭였다.
작은 풀과 작은 꽃들은 나만의 친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저렇게 키가 큰 현우도 그들의 친구였다나...
그리고 현우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분명 빛나라고 부른 것이다.
내 얼굴에 꽃물이 오르는 것만 같다.
진분홍 채송화의 꽃물이.



제 글은
원래 제가 썼던 동화를 희곡으로 다시 각색한
것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아동용 희극입니다.
제가 아이 엄마거든요.

이윤정 성남 대원여자중학교 교사

파브르 2세의 하룻밤

등장인물

고충 : 인간

매들 : 수컷 매미

매순 : 암컷 매미

매식 : 수컷 매미 2

장풍 : 수컷 장수풍뎅이

사순 : 암컷 사슴벌레

왕쇠똥구리 애벌레 1

왕쇠똥구리 애벌레 2

왕쇠똥구리 애벌레 3

왕쇠똥구리 애벌레 4

왕쇠똥구리 애벌레 5

충이가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다. 침대 쪽에만 조명 비춘다. 매들과 장풍과 사순 날아 들어와 침대 뒤쪽에 나란히 앉는다. 곤충들의 울음소리, 날개짓 소리, 초록색 조명.

조명 매들 쪽으로 비추어 매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말하는 순서에 따라 조명 따라간다.

매돌 : (더듬이로 가리키며, 씩씩하게) 여기 이 녀석이 고 층이라는 녀석
이야. (인상을 쓰며 화난 목소리) 아주 나쁜 녀석이지. 어제 우리
매순이를 잡아 다리를 묶어 가지고 놀아서, 아직도 매순이가 다
리를 절고 있어. 골절에 타박상이야.

사순 : (고개를 끄덕이고 더듬이로 맞장구치며 속상하다는 듯) 그래. 매
순이가 아픈 바람에 같이 나들이 가려는 것도 못가게 되었어. 게
다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동화책 읽어 달라고 졸라서 계속 읽
어 주느라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매돌 : (더욱 분노에 차서) 그뿐이 아니야. 며칠 전에는 막 애벌레에서
매미로 탈바꿈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오르기 시작하던 내 동생 매
식이를 잡아서 날개를 떼어 버렸어. 매식이는 나올 수도 없어.
(호소하듯) 곤충에게 날개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다들 알지? 다
시 자라지도 않잖아. (울먹이며)

노래 (울먹이며 슬프게) -

매식이는 이제 울지도 못해, 짹짹도 못해.

매일 매일... 아직도 나무에 오르는 중이지.

나무에 올라가 세상 한 번 보고 싶다며

오늘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 오늘도 조금씩.

내일도 조금씩. 언제쯤 끝날지 기약도 없어.

너희도 알 거야. 우리의 기다림.

어른 매미가 되기 위한 오랫동안 기다림을...

장풍 : (동의하며) 그럼... 알지 매돌아. 너희가 어른 매미가 되기 위해서
땅 속에서 애벌레로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거... 친구인 우리가

왜 모르겠니.

매들 : (나서며) 애벌레 기간이 짧은 봄매미는 1년, 참매미나 말매미는 6-7년, 멀리 미국에 사는 주기매미는 17년씩 애벌레로 기다려서 어른 매미로는 겨우 10-20일을 살 뿐이야.

장풍 : (괴로운 표정) 그 정도 인지는 몰랐다. 게다가 그 껍질 벗기의 고통은... 그 껍질 벗기 만큼은 우리도 해 봐서 알지. 하지만 우리 처럼 일년만 사는 벌레들은 너희 매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지겨움을 잘 알지는 못해. 그래도 너희들의 고통을 이해 할 수는 있어. (말투 바꾸어 기운을 북돋우며) 자, 기운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와 준 거 아니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녀석에게 한 수 가르쳐 주자.

사순 : (차분하나 단호하게) 그래, 인간들이 우리 곤충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깨달아야 해. (조금 망설이며) 하지만 꼭 충이만 그런 것도 아닌데, 충이만 혼내주어야 한다니 조금 불쌍 하기도 하다.

매들 : (더듬이를 맞잡으며) 충이부터 시작인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인간들에게도 가르쳐 주자. (다시 오라는 손짓하며) 자 빨리 시작 하자. 이리로 모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건 뭔가를 보여 주라는 하늘의 뜻이야.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

매들, 장풍, 사순 더듬이를 모아 힘을 합하면 다양한 빛이 발산되며 암전된다. 대형 수건 모양 깔려 있다. 그 위에 충이와 매들, 장풍, 사순이 있다. 충이는 아직도 잠 못 차림으로 자고 있다. 한 쪽 구석에 사람보다 훨씬 큰 로봇 서 있다.

매돌 : (충이를 발로 툭툭 차며) 야, 일어나. 야, 일어나란 말야.
 사순 : (매돌을 말리며) 에이, 발로 치는 건 너무해. (충이를 흔들며) 야,
 일어나라고. 무슨 잠을 이렇게 깊게 자냐?
 충 : (일어나며 졸린 목소리로) 뭐야...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곤충들
 을 둘러본다) 어? 뭐... 뭐야... 너네 뭐야? 어? 매미가 왜 이렇게
 커?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는 어디야? 이게 뭐지?
 매돌 : (비웃으며) 네가 매일 쓰는 수건도 모르냐?
 충 : (놀라며) 내 수건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뽕튀기 기계에 넣고 튀긴
 거야? 아빠가 이런 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신이 나서) 되나 보구
 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 저기 있는 내 로봇(로
 봇 쪽을 바라보며), 크게 만들어서 타고 다녀... (로봇의 크기에 놀란
 다) 어? 내 로봇도 커진 거야? 야! 너희들 재주가 좋구나.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알려줘. 너희들도 커졌네?
 장풍 : (비웃으며) 바보냐? 너? 수건이랑 로봇이 커진 게 아니라 니가
 작아진 거야. (한심하다는 듯)

노래 (빠르고 흥겹게) - 곤충들 다 같이.

왜 인간들은 자신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 상상도 안하지?

항상 자기들은 빼고 다른 것들만 변한다고 생각해.

맘이 편한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자만심이 넘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해. 정말 바보들 같
 다니까.

충 : (충격받고) 내가… 작아졌다고? 내가 너희들처럼 곤충만 해졌다고?

장풍 : (고소하다는 듯) 왜. 아직도 못민겠냐? 그럼. 우리도 너만큼 커진 것 같냐? 우리 모두와 네 주위의 물건들은 다 그대로야. 너만 작아진 거라고. 알겠냐?

충 : (주저 않으며) 내가… 너희들만 해졌다고? 왜? 왜?

매돌 : (쓰늘하게 쳐다보며) 어제와 며칠 전에 네가 곤충들에게 한 짓을 생각해 봐.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충 : (모르겠다는 듯) 뭐? 무슨 일?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곤충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매돌 :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노래(강하고 따지는 딱딱 끊어지는 어투, 매돌 혼자 혹은 다 같이)

죽이지는 않았다고? 죽이지는 않았다고?

죽이지만 않으면 다야? 죽이지만 않으면 다야?

매순이 다리는 어찌고? 매식이 날개는 어찌고?

너한테는 재미였어도 우리에게는 심각해.

죽이지는 않았다고? 죽이지는 않았다고?

죽이지만 않으면 다야? 죽이지만 않으면 다야?

충 :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아직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매식? 매순? 누구데? 곤충도 이름이 있어?

매돌 : (충에게 더욱 다가서며) 그래. 우리도 이름 있다. 인간들에게만 이름이 있고 친구가 있고 소중함이 있는 줄 알았지? 우리도 소중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충 : (조금 숙연해져서) 그으래... 알겠어.

매돌 : (매순이는 네가 묶었던 다리를 아직도 못쓰고 누워 있어. 골절에 타박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8주 진단이야. 인간 세상에서는 고소라는 것이 가능하다지? 게다가 우리 매식은... 이제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짝짓기도 못하고... (울먹이며) 그런데... 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죽이지만 않으면 넌 죄가 없다고 생각해? (충이를 끌어당겨 일으키며) 일어나.

충 : (무서워하며) 왜애...(주저하며)왜?

매돌 : (더욱 세계 끌어 당기며)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네가 한 짓을 가서 직접 보라는 거야. 직접 보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면 넌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충 : (놀라서 주저 앉으며) 날 죽인다고요? 엄마야... (손을 모으고) 살려주세요. 전 아직 어리단 말예요. 전 아직... 아직... 꽃님이한테 장가도 못갔단 말예요.

사순 : (끼어들어 충이를 쓰다듬으며) 아니야. 놀라지마. 그럴 건 아니야. 우리는 누구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아. 우리는 서로 사이 좋게 사는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람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거든.

충 : (안심하며) 휴우... 난 또 날 죽인다는 말인 줄 알았잖아.

사순 : (생각하며) 음... 매돌이의 말은 ... 네가 생각하기에는 별 일 아니지만 우리 곤충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사실을 다른 인간들에게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설득하듯) 우리는 네가 그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널 선택한 거야. 좋게 보면... 널 우리의 생각을 인간세계에 전달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서 선택된 비교적(고개를 가우퐁) 덜
나쁜 인간인 거야.

충 : (고개를 가우퐁) 덜 나쁜 인간이라는 게 뭐야?

사순 : (애매하게 망설이며) 음...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말이야. 그러니
까 조금 나쁘다는 거지.

충 : (여전히 이해가 안감) 엄마랑 아빠가 난 착한 애라고 하셨는데... 선
생님도 그러셨어.

매식 : (훈갓말) 바보 맞네... 그러니까 내가 애는 아니라고 했잖아.

장풍 : (앞으로 나서며) 됐어.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만 있을 거야? 어서
가자. 이러다 오늘밤 다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해 줘
봐야 소용없어. 이 녀석은 자기가 저지른 짓을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어.

매돌 : (동의하며) 그래. 가자. 자 (더듬이를 내밀며) 다들 모여.

다들 더듬이를 모은다. 사순이 충이의 손을 잡아 매들의 더듬이와 맞잡게 한다.

사순 : (충이를 보며) 자, 너도 가는 거야.

충 : (손을 빼며) 뭐? 나도? 난... 난...

매돌 : (충이의 손을 뿌리치며 짜려본다) 뭐? 싫다는 거야? 우리가 아니
면 널 다시 커질 수도 없어. 우리가 힘을 합해야 널 다시 인간세
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널 원래대
로 돌려 놓는 일, (단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충 : (놀라며) 뭐?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럼 엄마랑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고? 내 친구 꽃님이라도 못 보는 거야? (울먹이며) 부

탁이야. 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줘. 제발……

사순 : (다독이며) 걱정하지마. 잠깐만 우리와 같이 여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를 인간 세상에 전해 주면 돼. 우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찌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함께 가 보자. 우리를 이해하도록 너도 노력해봐.

충 : (고개를 끄덕이며) 난 어차피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가 보자. 나도 너희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어.

사순이가 친구들을 다시 모으고 충이와 매돌이의 손을 다시 잡게 하나 매돌이 충이의 손을 놓는다. 사순이 충이의 손을 잡는다. 날아간다.

커다란 나무가 무대 중앙에 있고 주변에는 꽃들과 바위들 널려 있다. 꽃잎 위에 매순이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비스듬히 누워 자고 나무 줄기의 중간쯤에 날개 없는 매식이가 매달려 기어 오르는 중이다.

충 : (나무를 올려보며) 우와 무지하게 크다. 나무가 이렇게 큰 지 몰랐어. 내가 곤충만 해지니까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것들이 이렇게 커 보이는구나. (매순 발견 후 사순을 보며) 재는 어디가 아픈 거야? 다리가 아픈가 보네?

매돌 : (충이를 끌고 가 매순 앞에 주저 앉히며) 몰라? 네가 어제 다리 묶어서 가지고 놀던 그 매미잖아. 네가 묶어 놓은 실을 풀어 내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충 : (쭈뻐거리며) 미안해.

매돌 : (언성을 높이며) 우리 곤충들은 다리가 여럿인 대신에 너희 인간

들처럼 두껍고 튼튼하지 않단 말이야. 너 같은 짓을 하면 우리
곤충들의 다리는 금방 부러지고 만다고! 매순이는 다리가 부러
져서 저렇게 누워만 있어야 해. 이 짧은 여름날을 위해 매순이는
5년을 땅 속에서 애벌레로 기다렸었는데… 그 오랫동안의 고통
을 이 여름날의 짧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참았던 건데… (울
분을 참으며) 그런데… 넌! (충이를 노려본다.)

충 : (피하며) … 난… 난… 모르고…

사순 : (사이에 끼어들어 매들을 위로하며) 매돌아, 우리가 충이를 여기
에 데려온 건 혼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

장풍 : (동의하며 손 올리며) 그래!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이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해 줄 거라 생각하
고 데려 온 거잖아.

매돌 : (화내며) 장풍, 너는 사순이 말만 따라 하나? 너희는 모르면 가만
있어. 너희가 당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침착한가 본데…

사순 : (우울하게) 매돌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람들에게 잃었잖
아. 기억안나? 사람들이 밤에 빛으로 유인해 잡아갔던 거. 그때
내가 애벌레여서 엄마 아빠를 놓치는 바람에 나만 이렇게 남은
거잖아. (쓸쓸하게) 내가 왜 몰라.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
롭게 사는 지 너도 알잖아.

매돌 : (멋적게) 미안해. 네가 당한 일을 잠시 잊었어. 그리고 보면 우리
들은 다 인간들에게 한 번씩은 당했구나. (화내며) 그런데, 어떻
게 참자는 거야? 오히려 네가 더 화를 내고 혼을 내 줘야지.

사순 : (타이르듯) 지금 충이를 혼내 준다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갑자기
좋아진다가나 매순이가 낫는다가나 하는 게 아니잖아.

장풍 : (동의하며 손 올리며) 그래! (잠깐 매돌 보며 멧쩍게 웃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가 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충이를 보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매돌 : (수궁하며) 그래…… 알았어.

사순 : (다독이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이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봐. 충이는 아직 어리고 밝아서 우리 이야기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잖아. 충이는 그래도.. 충이 말대로 우리를 죽인 적은 없잖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 왔니?

충 :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동의한다. 작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시켜 주면 잘 할 수 있는데……

장풍 : (옆에 있다가 듣고 쳐다보며) 너, 정말이야? 잘 할 수 있어?

충 :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한 번 시켜줘 봐. 너희들의 말을 잘 듣고 나도 뭔가 해 볼게. 내가 (매순과 매식을 보며) 저렇게 만들었다 니…… 정말 미안해.

사순 : (끄덕이며) 그럼. 일단 곤충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사는 곳을 보여 줄게.

장풍 : (동의하며 손 올리며) 그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를 이해하는데 제일 도움이 될 거 같아. 자, 가자. 사순이와 내가 안내할게.

매식 : (장풍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넌 사순이 쫄병이냐? 맨날, 그래…… 그래…… 하여간. 어쨌든 난 매순이랑 매식이를 돌보야 하니깐 니들에게 부탁할게. 이 녀석(충이 가리키며)에게 잘 보여줘. 우

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왕쇠똥구리의 알집이 4-5개 있다. 표주박 모양의 단면을 보여주며, 안에는 단계 별 애벌레의 성장을 보여주는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애벌레는 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말하거나 소리만 들리는 방식. 사순, 장풍, 충 등장.

사순 : (왕쇠똥구리를 가리키며) 왕쇠똥구리야. 쇠똥이나 노루똥이나 말똥같은 것을 먹이삼아 살지. 정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초식 동물(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의 똥을 모아서 알을 키우기 위한 알집으로 써.

충 : (신기한 듯 둘러본다) 와, 정말이네?

장풍 : 그리고 그 똥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자라는 거야. 애벌레가 다 자라면 (끝에 있는 알집을 가리키며) 저렇게 똥의 한 쪽면을 뚫고 나오는 거지.

충 : (가까이 다가가 보며) 와. 거의 다 나왔다. 조금만 더 나오면 되겠네. 쇠똥구리 애벌레야, 힘내!

애벌레 1 : (깡깡 안간힘을 쓰며) 그래. 지금 힘쓰고 있어. 그런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어. (계속 나오려 노력한다)

충 :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똥을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도와줄까? (손으로 부수려 한다.)

사순 : (말린다) 안돼. 충야. 애벌레는 혼자 힘으로 해야 해. 저것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상에 나와도 살아갈 수가 없어. 건강하게 태어나도 여러 가지 천적들이 애벌레를 얼마나 많이 노리는 데. 기억 안나? 너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힘들었을 거야.

충 : (가우똥) 글썸. 난 생각 안 나. 하나도……. 엄마가 날 낳으실 때 힘

들었다고 하시던데.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쉽다.

사순 : 어미가 새끼를 낳는 것보다 새끼가 태어나는데 훨씬 힘이 많이 든
대. 곤충들은 대개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될 때나 애벌레에서
어른 벌레가 될 때 정말 힘이 들지. 나도 애벌레에서 껍질을 벗고
나올 때 너무 아파서 그만 포기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 그
때 엄마를 생각했어. 내가 포기하면 엄마가 슬퍼하실 거라는 생
각. 어디에 계시든 내 걱정을 하실 것 같았거든. 그래서 기를 쓰고
힘을 썼더니, 되더라. 저 애벌레도 자기 힘으로 나와야 해. 그래야
어른 쇠똥구리가 될 수 있어. (조용하게) 우리 지켜봐 주자.

애벌레 2 : (옆의 형을 보며) 형 힘내! 형이 잘 해내야 우리들도 형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지. 나도 내일이나 모래면 다 자라게 될 거야.

애벌레 3 : (형을 보며 조금 어린 목소리) 큰 형 힘내. 형은 좋겠다. 바깥
으로 나가서…… 난 벌써 이 똥더미가 답답해. 나가면 빨리
움직여서 잡아 먹히지 말고 우리 기다려 줘야해?

애벌레 4 : (형을 보며 조금 더 어린 목소리) 큰 형 힘내.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잖아.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엄마랑 아빠가 형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우리도 큰 형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애벌레 5 : (형을 보며 아주 어린 목소리) 큰 형 힘내. 난 아직 멀었지만
형들이 먼저 나가서 날 기다려 준다면 기운이 날 것 같아. 웬
지 더 빨리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애벌레1-5 다같이 노래하고 춤 (귀엽고 밝게)

큰 형이 자랑스러워. 세상에 알리고 싶어.

똥이 부족해 애벌레되기 힘들었어도

똥구슬 모으고 또 모아서 왕쇠똥구리되고 말 거야.
 세상에 똥들이 없어져 살아가기 힘들어도
 우리 형제들은 서로 도와 똥을 모을 거야.
 우리에게 똥을 돌려 줘. 우리에게 똥을 돌려 줘.
 우리에게 똥이 필요해. 우리에게 똥이 필요해

애벌레 1 : (계속 노력하며) 그래. 다들 고마워. 이제 (힘주며) 거의 다 됐어. 그런데 다섯째야. 너 똥은 충분하니? 너무 적은 거 아냐? 엄마, 아빠가 네 알집의 똥이 적어서 영양분이 적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장풍 : (걱정스럽게) 요즘은 숲에 초식동물들이 많지 않아서 똥도 많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쇠똥구리들도 필요한 똥을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쇠똥구리도 점점 숲에서 사라지고 있어.

충 : (걱정스럽게) 그래? 개똥도 필요하면 없다고 우리 엄마가 자주 말 씀하시고는 했는데. 똥도 다 그렇게 쓸모가 있구나. 그런데 그 똥이 없어서 쇠똥구리들이 살 수가 없다고? 정말 환경파괴가 많은 동물들을 못살게 하는구나.

애벌레 1 : (알집 밖으로 거의 다 나오며) 애들아, 나 나간다. 어... 어.....

평 소리와 함께 애벌레 1 알집 밖으로 나오며 잠전

한 쪽에 나무뿔 있다. (나무 모양으로 가운데가 비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고무 줄 같은 것으로 팽팽하게 막혀 있음. 바퀴가 달려 있거나 가벼운 소재로 움직이기 쉬운 것이 좋음) 사순과 장풍과 충이 등장.

사순 : (우울하게) 사람들이 우리 곤충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 인터넷에 보면 곤충을 파는 쇼핑몰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거야.

충 : (놀라며) 몰랐어.

장풍 : (분노를 삭이며) 그뿐이 아니야. 우리 곤충들을 잡는 방법까지 소개해 주면서 청정지역에서 사육한 거라 깨끗하다고 선전하면서 팔아. 애벌레 한 쌍에 얼마... 성충 한 쌍에 얼마... 그렇게 팔아.

충 :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키우면 좋을 수도 있잖아.

사순 : (짜늘하게) 그래. 사람들은 그러겠지. 오히려 굶지 않으니 고마워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먹이는 숲에 오면 온통 깔려 있어. (주위를 둘러보며) 숲에서 산다면 특별히 먹이 걱정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고.

노래 - (조용히 독백처럼)

우리는 원래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축이 아니잖아.

개나 소는 원래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왔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숲속에서 우리끼리 살아가던 무리야.

(주변의 나무나 풀을 쓰다듬으며)

우리는 나무나 풀, 땅과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 곤충이라구.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두고 사료를 주면서 살아가라는 건 인간들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야.

장풍 : (자조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우리 장수풍뎡이와 시슴벌레래. (비웃으며) 일본에서는 곤충 기르기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 이유는 좁은 집에서 기르기가 좋고 지저분하지 않고 키우기가 쉬워서라나? 그리고 다른 애완동물들에 비해 가격이 싸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좋다고 선전한다.

충 : (설득하는 어조)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 하지만 자연이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꽃이나 동물을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아파트나 뭐 이런데서 살면 큰 동물은 또 기를 수가 없거든. 다른 집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너희같이 작고 기르기 쉬운 곤충을 기르는 지도 몰라.

장풍 : (화를 내며) 말도 안돼. 인간들은 뭐든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구 해도 된다는 거야? 네가 재미로 내 친구들을 못살게 군것처럼?

시순 : (장풍을 말리며) 그러지 마. 충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잖아. 충이도 반성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말하면 충이가 맘이 상할 거 아냐? 너도 같은 일로 엄마께 자꾸 꾸중 듣는 거 싫다며.

장풍 : (건방지게) 알았어. 알았다구. 하여간 넌 맨날…… 옳은 말만 해. (웃으며) 그래서 내가 널 친구로 삼아주는 거야.

시순 : (웃으며) 내가 널 친구 삼는 이유는 내가 잔소리해도 항상 그렇게 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착한 네 마음씨 때문이야.

충 : (부럽게 바라보며) 너희들은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서로 잘 맞고 서로 나쁜 점도 좋게 봐주는 친구가 있어서…… 어찌면 사람들은 너희들처럼 그런 친구가 없어서 동물을 키우는 지도 몰라. 마음씨 좋은 너희가 이해해라……

시순 :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노래 - (장풍과 같이. 호소하듯)
 외로우니까 동물을 키운다는 생각은 말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해.
 사람들은 도시에서 편리한 생활을 좋아하면서
 환경을 망가뜨리고 동물도 나무도 죽이면서.
 자연과 동물도 집에서 보고 싶다는 건
 사람들의 너무 큰 이기심이 아닐까.
 자연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지 않아도
 집밖에만 나오면 동물들이 있을 거야.

충 : (긍정하며)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풀이 죽으며) 우리 집만 해도 산이나 들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은 가야 하는 걸. 그리고 지금은 산이나 들을 다시 도시 안에 만들 수도 없잖아. 벌써 땅들은 다른 건물과 도로로 가득 찼는 걸.

사순 : (충이를 북돋우며)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생각만 있다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리같은 작은 곤충들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장풍 : (동의하며 손 올리며) 그래! 망쳐버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는 것이 진정한 용기야. 편하다고 마구 버리고 써버리고 하지 말고 내가 버리는 것이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나 한번쯤 생각해 보면 버리는 일이 그렇게 쉽

지만은 아닐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쯤 뒤에는 숲과 나무
가 남지 않을 거야.

시순: (동의하며) 물도 먹는 것도 아끼고, 자동차도 조금만 타라고 네가
사람들에게 좀 전해줘.

충: (자신없게) 그래……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난 어리고
힘도 없는데……

시순: (용기있게) 그래. 넌 아직 어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될 거잖아.
주변의 어른이 될 친구들에게 우리의 말을 전해주면 되잖아. 너
희는 어른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환경을 지키는 일들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널 데려온 거야.

장풍: (코를 킁킁거리며) 애들아 뭔가 좋은 냄새가 나지 않니? 내가 좋
아하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걸. 이 근처에 꽃이 있나? (고개를 두
리번거리다가 나무뿔 발견) 어? 저기서 나는 냄새 같은데? 개미
가 단즙을 흘리고 갔나보다. 가봐야겠다.

시순: (붙잡으며) 가지마. 인간들이 놓은 함정일지도 몰라.

장풍: (다가가며) 아니야. 저건 나무잖아. 그냥 부러진 나무야. 분명 개
미가 단즙을 흘린 거야.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살펴
보고 올게. 너도 갖다 줄게.

장풍이 나무 끌고 무대 가운데로 온다. 들여다본다.

시순: (더 말리며) 장풍아 그러지 마. 너희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
셨잖아. 뭔가 이상해. 좀 더 살펴보자.

장풍: (대수롭지 않게) 아니라니까. 내가 보고 온다니까.

장풍 나무 안으로 들어간다.

장풍 : (나무 안에서 소리치며) 야, 정말 맛있는 단즙이 있어. 정말 맛있는데…… 사순아 너도 가져다 줄게.

사순 :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그래. 얼른 나와.

장풍 : (부스럭거리는 소리, 소리치며) 나가는 중이야. (잠시 후) 어? 어?

사순 : (놀라서 다가가며) 왜 그래?

장풍 : (다리 하나 불쑥 내밀며) 나갈 수가 없어. (다른 다리 하나 또 내밀고) 안돼. (나왔던 다리 집어넣고 다른 다리 내밀며) 계속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

사순 : (안타까워하며 장풍의 다리를 잡아끈다.) 어떻게 좀 해 봐. 빨리…

장풍 : (다리를 도로 집어 넣으며) 아, 아, 아파. 잡아당기지 마. 다리 찢어 지겠어.

천둥처럼 사람들 서넛의 말소리 멀리서부터 들린다. 점점 가까워진다.

“뺨에 곤충들이 걸렸나 가보자. 어서 서둘러. 이러다 날 새겠어. 오늘은 영 수확이 별로네. 왜 이렇게 안 걸리지? 기름값도 안 나오겠어. 여기 거라도 걸려야 하는데. 벌써 예약 손님들이 몇이나 있는지 몰라. 이번 주말까지 구해 준다고 했는데……” 사순과 장풍과 충이가 움직이는 동안 사냥꾼들의 대화 내용 계속 들리며 긴박감 준다.

사순 : (사색이 되어) 빨리… 빨리…… 사람들 소리가 들려.

충 : (나서며) 내가 해 볼게. (막 사이를 벌리며) 자, 이쪽으로 나와 봐. 그래 머리부터 나와. (하나씩 차례로 이끌어 낸다.) 다음엔 첫 번째 다리. 그렇지. (더욱 힘주며) 다음엔 두 번째 다리. 잘했어.

장풍의 몸이 반쯤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발소리 가까이에서 들린다. 사순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충은 더욱 힘주어 장풍을 꺼낸다.

충 : (더욱 막 사이를 벌리며) 자 기운 내. 장풍아. 조금만 더 나오면 돼. 조금만 더……

장풍 : (힘주어 나오다가) 안되겠어. 아무래도 안되겠어. 이리다가 너희들까지 잡히겠어. 미안해. 사순아. 네가 말렸을 때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충아 고마워. 날 위해서 이렇게 힘써줘서…… 어서 너희들이나 먼저 가.

충 : (더욱 힘주며) 그런 소리 마. 같이 갈 수 있어. 말은 그만 하고 어서 나오는 데나 힘 줘. 말해서 기운 빠지 말고. 어서.

사순 : (장풍을 잡아끌며) 그래. 어서 나와. 우리는 잡혀도 그만이지만, 충이는 잡히면 안되잖아. 사람들이 잡아서 이상한데 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기운 내.

장풍 : (힘주며) 알았어.

장풍의 몸이 거의 다 빠져 나오자 사람들 소리 압박해진다. “여기 어디지? 이 나무 밑에 숨겨 뒀던 거 같은데.”

사순과 충이 힘을 합해 잡아당긴다. 그 때 찢기는 소리 나며 장풍의 더듬이 하나가 잘려져서 막 사이에 걸린다.

장풍 : (아파하며) 으으우……

충과 사순 어쩔 줄 몰라 한다.

장풍 : (몸을 세우며) 가자. 어서. (충과 사순을 보며) 어서 가자구. 시간 없어.

무대 가운데 나뭇가지 6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매순과 매들, 사순과 장풍, 총이와 매식이 각각 같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사순 : (장풍의 더듬이에 붕대를 감아주고 있다.) 어떻게 해? 이렇게 다 쳐서…… 당분간 못 움직이겠네?

장풍 : (어깨를 펴며) 무슨 소리를? 끄떡없어. 너, 나 몰라? (일어서며) 괜찮아. 조금 앞을 보는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어.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아. 다들 조금씩 불편해 해도 잘 살잖아. 나도 견딜 수 있어.

사순 : (안타깝게) 그래도 넌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너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장풍 : (조금 숙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저기 마구 쭈시고 다녀서…… 교혼을 얻은 셈이지. 혼장이라고 생각하지 뭐. 앞으로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을 때마다 이 더듬이 때문에 답답해서라도 생각이 날 거야. 그러면 위험한 곳에도 가지 않겠지.

총 : (장풍을 미안하게 바라보며) 미안해. 사람들의 욕심이 널 이렇게 만듦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대표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일 못하도록 내가 나서서 막아 볼게.

장풍 : (총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한 일도 아닌데 뭐. 그래. 네 말대로 앞으로 네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준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너무 큰 부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총 : (결연하게) 아니야. 네 부탁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들이 잘 살아야 우리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어. (결심을 한 듯) 나, 곤충학자가 될 생각이

야. 너희들의 삶을 관찰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고 너희
들을 아낄 수 있도록 곤충학자가 될 거야.

장풍 : (밝게) 이야! 그럼, 파브르 2세가 나오는 거야? 파브르 선생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이제 충이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
달해 주겠구나. (말투 바꾸어 부드럽게) 충아. 이제는 매식이와
이야기를 해야할 시간인 것 같은데...

장풍과 충이, 매식이 있는 나뭇가지로 날아간다.

충 : (매식을 바로 보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다가간다)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이렇게 네가 고통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
고.....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내 장난이 널 이렇게 망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 내 생각만 했어. 너희들에게도 너희들
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 이제는 깨달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욕심만 채기고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기적 인간이었어. 미안해.

매식 : (희미하게 웃는다) 글썸..... 네 덕분에 기어다니는 매미가 되기
는 했지만, 나름대로 그것도 배울만한 것들이 있는 기회였어. 비
록 매미로서 울 수 없어서, 나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고 그래서
짜릿기도 못하게 되기는 했지만, 울지 못하는 덕분에 매미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알게 됐어. 왜 사람들이 여름이면 우리
소리를 시끄럽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니까. (조금 더 웃으며)
널 용서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건 하기 싫어.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 날개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난 나에게

날개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죄책
감에 그럴 건 없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충 : (애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매식 : (바라보며) 곤충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 우리가 너에게 앞으로
곤충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초능력을 줄게. 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

충 : (주저하며) 내게 그런..... 능력을 준다고?

매식 : (부드럽게) 왜 싫어?

충 : (강하게)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망설이며) 나보다 더 훌륭
한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매식 : (강하게) 아냐. 너보다 더 적당한 사람은 없어. 또 누군가 다른 사
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여 줄만큼 시간이 많지도 않고.
우리 주변의 자연도 점점 오염돼 가고 있어. 네가 봤듯이 덩치가
큰 동물들은 이제 숲에 없어. 곤충들만 남았는데, 우리 곤충들도
이제 점점 힘이 들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자연 속
에서 우리가 살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야.

충 : (결심이 선 듯)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해 볼게.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훌륭한 곤충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자연과 곤
충들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매식 : (매돌 쪽을 보며) 형, 충이가 결심이 섰나봐. 이제 우리가 나설 차
려야.

매돌이가 나무 줄기 가운데로 가서 신기하게 생긴 돌맹이를 가져온다. 그사이
각자 나뭇가지 하나에 한명씩 앉는다. 매돌과 충의 자리가 무대 가운데 위치

매돌 : (돌을 들어올리며 충이를 보고) 충아, 준비해. 우리가 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 동안 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도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갖을 수 있을 거야. (목소리 높여) 다들 준비 됐지?

매순 : (충을 보며) 충아, 우리를 잊지마.

충 : (매순 보며) 미안해. 그리고 항상 기억할게. 내 잘못했던 일과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을……

시순 : (충을 보며) 혹시 갖혀서 사는 시슴벌레 한 쌍을 보거든 우리 엄마 아빠인지 물어보고 내 소식 전해줘.

충 : (시순 보며 애절하게) 내게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충고해 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너희들과 친해지는데, 더 어려웠을 거야. 정말 고마워. 부모님 만나면 꼭 네 안부 전해줄게. 그리고 부모님 찾아서 숲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장풍 : (충을 보며) 구해줘서 고마워.

충 : (장풍 보며) 더듬이 더욱 조심해.

매식 : (충을 보며) 믿을게

충 : (매식 보며) 항상 널 기억하며 나쁜 짓 안하려고 노력할게.

매돌 : (충을 보며) 그동안 화내서 미안해.

충 : (매돌 보며)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앞으로 잘 할게.

매식 돌을 높이 치켜든다. 다들 더듬이를 모은다. 다같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자연을 위하여'라는 소리 외친다. 온갖 조명 번쩍인다. 그러다 평온해진다. 아무런 변화 없다.

매식 : (놀라며)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충이가 여기 있는 거야.

장풍 :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게) 내 더듬이가 문제인가 봐. 하나밖에 없어서…… 어찌지?

사순 : (곰곰이 생각하며) 글썄…… 그것만은 아닐 거야.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충이에게 갈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충이 보며) 충아, 혹시 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 아냐?

충 : (놀라며) 어? 내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꼭 생각해야 해?

매식 : (끄덕이며)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해.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넌 어디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 : (가우뚱) 이곳. 어떻게 하면 이곳을 예전처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매순 : (웃으며)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지금은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아침이 되려고 하잖아. 우리에게는 하룻밤만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넌 지금 돌아가야 해.

푸른 빛이 무대 한쪽에서 비친다.

매식 : (서두르며) 자, 다시 하자. 다들 집중해.

다시 더듬이 모여며 주문 외운다. 빛이 번쩍이고 충이 날아간다.

충의 방. 충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다. 옆에 첫 장면의 수건 떨어져 있고 나뭇잎 몇 개도 떨어져 있다. 무대 뒤쪽에 곤충 박제 부착되어 있다.

충 : (두리번거리며) 꿈이었나? (더 두리번거리며 멀리 떨어진 곳을 보

다가) 어? 뭐지? (다가간다) 시순아, 장풍아. 매돌아, 매순아, 매식아. 어떻게 된 거야? 왜 너희들이 이렇게 박제가 된 거야?

노래 : (곤충들 모두, 소리만)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짧다네.

숲의 미래 위해 우리를 바쳤지.

요술 돌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다네.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 걸.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인 걸.

충아. 부탁해. 우리의 미래를.

충 : (무릎 꿇고 앉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너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뒤돌아보며) 항상 내 곁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줘. 그럼…… 잘 가. ㅁㅁㅁ



심사 총평

동시·동화·희곡까지 최우수상 나와 - 대통령상엔 권지현의 시 ‘龍隱別墅를 지나며’ 뽑혀

‘공무원문예대전’은 기초 예술계 행사로는 빛나는 문화 상품이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어느 기초 예술 홍보 이벤트보다도 우수한 예술 상품으로 든갑했다. 이 우수한 문화 건설 사업을 이땅에서는 대표적인 한국 문인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된 것이다. 부문별 최우수 작품은 문예지 최고 부수의 39년 전통을 자랑하는 文協 기관지 ‘月刊文學’ 당선자 예우로, 게재와 동시 등단 및 회원 입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땅에서 문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도 심사위원을 최고 수준급의 추천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에 李姓教 申世薰/ 시조에 한분순 김남환/ 수필에 鄭木日 강석호/ 소설에 전상국 유재용/ 동시에 문삼석 박종현/ 동화에 송명호 이창수/ 희곡에 전옥주 고성주 제씨가 본선 심사 위원이다. 올해부터는 시와 소설·수필 분량이 워낙 많아 예심위원을 따로 두기로 했다. 시 예심엔 具順姬(文協 편집국 차장) 吳賢庭(文協 감사)/ 소설 예심엔 李光靛(文協 사무 처장 대우) 金善珠(‘自由文學’ 주간)/ 수필 예심엔 박미경(‘月刊文學 東里賞’ 수상) 이옥자(‘현대 수필’ 전 편집장) 제씨가 맡았다.

1차 심사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 정부 중앙 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2차 본심은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 역시 1차 심사 회의 장소에서 가졌다. 총 응모자 1천 3백 21명의 작품 4천 5백 5편

중 대상(대통령상) 1명(권지현), 최우수상(총리상) 6명(이우식 김영식 유소영 안영선 장영옥 조영석), 우수상(행자부 장관상) 13명(박일만 손현승 이종백 정영화 이명식 김덕준 정승윤 조영석 홍길선 배산영 김현옥 권영품 김대조), 장려상(행자부 장관상) 37명(김홍엽 外)을 골랐다. 이 중 직업은 교사가 제일 많았다. 시부 최우수상에 오른 龍隱別墅를 지나며(권지현)는 대통령상인 대상으로 뽑혔다. 시부 본심에 오른 11편 중 ‘최치원과 마에 금석문 때문에 고전적인 내용과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이미지를 도출시키는 솜씨가 노련했다.’는 장점 때문에 전체에서 1명만 뽑는 영예로운 대상에 오른 것이다.

시조는 ‘작품 수준의 차이가 컸다.’ “최우수상 ‘어편 孤島(이우식)는 기성 시조 시인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보여준 작품이다.’ ‘뼈대가 단단한 작품이다.’는 심사위원의 견해로 뽑혔다.

수필은 본심에 오른 30편 중 입선작 선정 기준은 ‘감동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게 심사위원의 견해다. 최우수작은 ‘아름다운 원시(김영식)였다. ‘삶의 깨달음을 끌어낸 데 대해 신뢰가 간다.’(심사위원)고 했다.

단편 소설은 ‘문예지 신인상이나 신문 신춘 문예 심사에 임하는 느낌이었다.’ ‘신주연에 대한 추억(유소영)은 ‘매우 리드미컬하게 서술’(심사평)되어 최우수상으로 낙점됐다.

동시는 ‘성인적 발상이나 압축되지 못한 설명적 진술 등의 함정에 빠진 응모작들이 적지않았다.’ 그런 중에도 안영선 님의 동시



‘수태골에서’는 ‘매우 간결하고 명징하게 형상화해낸 솜씨가 단연 발군이었다.’고 심사 위원들은 칭찬했다. 동화 역시 ‘기성 작가 버금가는 우수한 수준의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많’ (심사평)은 가운데도 뛰어난 동화 ‘눈사람 만들기’ (장영옥)를 최우수상으로 올렸다.

희곡 부문은 응모 편수가 적어도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 상례다. 4편 응모작 중에 2편은 아주 우수했다. 이 중 조영석 씨의 ‘선’을 ‘최우수’로 하고, 나머지는 ‘장려’로 합의했다. 희곡 ‘선’은 ‘긴박감이 극 진행에 흥미를 유발하는 우수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정말 제9회 공무원 문예 대전 응모 작품도 예년과 같이 수준이 높았다. 올해는 특별히 작년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아동 문학 부문을 동시부·동화부로 나눠 보고, 희곡 부문도 설정(신설)했으나, 역시 좋은 작품들이 뽑혀 기성 문인 대우에 전혀 손색이 없어 기쁘다.

제9회 공무원 문예대전 심사위원장 申世薰



시부문 심사평

최우수인 '용은별서를 지나며'를 대통령상으로 밀며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 한다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문예작품 현상모집은 이미 널리 알려진 행사다.

이번 쇄도한 작품도 너무 많아 심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11편 이었다
몇 번 모여 의논한 끝에 몇 가지 기준을 정했다.
그 첫째가 주제에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 둘째 시어의 정제와 표현,
셋째 구성의 묘미 등을 고려 하였다.

이런 기준으로 권지현의 '용은별서(龍隱別墅)를 지나며'를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따라서 박일만의 '모퉁이에서 피다 지다' 손현승의 '날아라
붕어떼' 이종백의 '씨레질'을 우수작으로 하고 김동선, 하상만,
김홍엽, 김영식, 김정임, 임정운의 작품을 장려상으로 했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용은별서(龍隱別墅)를 지나며'는 전체적으로
눈에 확 띄었고, 하나 하나의 표현이 새로워서 큰 감동을 주었다.
최치원과 마애금석문 때문에 고전적인 내음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아주 소박하고 간결하면서 한 이미지를
도출시키는 솜씨가 노련했다.

그 한 예가 1연의 끝 물 뱀 한마리 저 혼자 꼬리 흔들며
나아간다라든가 작품끝에 바람에 실린 짙레향만 두팔
가득하였다가 높은 경지를 말해주고 있다.
당선한 그 마음을 다시 눌러 끝까지 신인으로 작품을 성실하게
써서 대성하길 빈다.

이성교 · 신세훈





시조부문 심사평

많은 응모작을 정독하면서 느낀점은 작품수준의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고른 수준을 보이는 작품이 있는 반면, 기본 시조형식조차 모르고 쓴 작품도 있어 아쉬웠다.

최소한의 시조 기본틀을 익힌 후 작품창작에 임했으면 한다.

최우수상 ‘어떤 고도(孤島)’는 기성 시조시인에 못지 않은 높은 수준을 보여 준 작품이다.

언어를 다듬어 내는 솜씨가 만만치 않으며 기초가 잘 다져진 뼈대가 단단한 작품이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지문을 통해 자아의 원초적인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수상 ‘콩나물을 다듬으며’는 생전의 어머니를 회억하는 아픔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자식을 위해 고생으로 점철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되새기는 자식의 애통함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거미’는 거미가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삶의 모습을 거미줄에 비유해 섬세하게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장려상 수상작품들은 우수당선작권에 들만큼 우수한 작품들이었으나 당선권에서 밀려나 아쉬웠다. 장려상 수상자들이 한가지 기억해 둘 점은 압축과 요약에 좀 더 힘써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더욱 정진바란다.

한분순 · 김남환



수필부문 심사평

수필부분 총 응모작이 718편에 달했다. 예심에서 본심에 올라온 작품이 30편이었다. 30편의 작품을 심사위원이 각자 정독하여 15씩을 골라낸 다음, 합평을 통한 토의 과정을 거쳐서 최우수 1, 우수 2, 장려 7편 등 입상작품을 선정하였다.

체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상징성을 통해 의미부여와 깨달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입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주제의 통일성, 소재의 참신성, 구성의 효율성, 정확한 문장등이 심사의 기준이 되었으며 감동성을 염두에 두었다.

수필에 있어서 문장은 단순히 표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인생 경지와 표정을 보여준다. 입상작품들은 인생을 보는 안목과 인생경지가 깨달음의 꽃으로 피워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최우수작은 선정한 ‘아름다운 원시’는 노안으로 시력이 나빠진 것에 대한 인생적 성찰과 함께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삶의 깨달음을 끌어낸데 대해 신뢰가 간다.

우수작으로 선정한 ‘아버지의 도장’은 아버지의 일생을 ‘도장’을 통해 감동적으로 형상화한 능력이 인정된다.

‘마루의 미학’은 마루의 공간과 미학을 작자 특유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수필이 자칫 신변잡기로 흐르기 쉬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발견을 통해 작자의 인생해석을 형상화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느낀다. 입상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낙선자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단편소설부문 심사평

공무원 문예대전에 응모하는 작품의 수준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심사에 임하고서 잘못된 정보가 아님을 확인할수가 있었다.

문예지 신인상이나 신문 신춘문예 심사에 임하는 느낌이었다.

130편의 응모작가운데 20편이 예심을 통과해 본심에 올라왔다.

본심에 오른 20편을 심사위원 두사람이 정독하고 진지한 토의 끝에 10편을 가려냈다.

<신주연에 대한 추억> <엘빈토플러 권력이동

82쪽> <필살기> < A4와 로즈마리 > <4℃> <재즈댄스>

<종점> <새야새야> <비상> <화이트크리스마스>

위의 10편은 상당한 문학수업을 통해 일정한 수준에 달한 작품들이다.

물론 각기 장점과 단점을 지녔다. 심사위원 두사람은 토의를 거쳐 3편을 엄선해냈다.

<필살기> <엘빈토플러 권력이동 82쪽> <신주연에 대한 추억>이다.

<필살기>는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모르는 형과 다른 성격과 나를 잘 대비해서 그려낸 작품, 잘읽히는 문장에 사물포착과 그표현 방법이 매우 인상적이다.

<엘빈토플러 권력이동 82쪽>은 죽은 영혼이 이승에서의 일들을 회상형식으로 확인해 나가는 이야기로 발상이 좋다. 문장도 좋고, 포토이야기를 곁들인 것도 좋다. <신주연에 대한 추억>은 폭식증을 가진 여자 신주연의 죽은뒤에 그녀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매우 리드미컬하게 서술된다.

화자의 담담하면서도 소박한 캐릭터와 폭식증을 가진 여자의 캐릭터가 잘 설정되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신주연에 대한 추억>을 최우수상으로

<엘빈토폴러 권력이동 82쪽>과 <필살기>를 우수상으로 정했다.

소설은 창작인 동시에 노동이라고 한다.

그만큼 집필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따라서 낙선이 좌절감을 심하게 안겨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수업은 마라톤 경주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는 불굴의 노력에 달려있다.

입선한 분도 골인 한것이 아니라 하나의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전상국 · 유재용



동시부문 심사평

동심적 발상과 간결성의 조화

동시란 동심에 바탕을 둔 시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의 한 갈래에 속하지만 그 속성이나 양태가 일반 시와는 상당히 유별되는 양식이기도 하다.

발상의 동심성과 표현의 단순, 간명성은 동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적 발상이나 압축되지 못한 설명적 진술 등의 함정에 빠진 응모작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아래의 작품들은 선자들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1. '수태골에서' (2500010)는 요즈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다. 동심적 발상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구구한 설명적 진술이 없이 체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매우 간결하고 명징하게 형상화해낸 솜씨가 단연 발군이였다.

※ 참고

- 날도래 ... 겉모양이 나방과 비슷. 몸 길이 2.1~6.1cm, 편 날개 길이 5.2~6.2cm, 유충은 '물여우' 라 하여 물 속에 살. 봄과 여름에 완전변태를 하고 등불에 날아듦. '물여우나비'
- 강도래 ... 매추리강도래, 민강도래 따위를 이르는 말. 몸 길이 14~18mm. 몸빛은 흑갈색, 머리는 황갈색, 촉각은 앞부분이 흑갈색, 뒷부분이 황색. 6~7월에 성충이 되며 유충은 시냇물의



돌틈에 사는데 낚시의 미끼로 쓰임

- 각다귀 ... 몸 길이 5~6.3mm, 모기와 비슷. 몸빛은 대체로 회색, 유충은 '머루'라 하는데 크기와 모양이 구더기와 비슷. 벼, 보리의 뿌리를 잘라먹는 해충.
- 갈다구(갈따구) 길앞잡이... 길앞잡잇과에 속하는 곤충. 몸 길이 11mm, 머리는 흑색, 날개는 흑갈색, 중앙의 긴 무늬와 날개 끝의 물방울 무늬는 황백색. 안쪽의 긴 타원형 무늬는 적갈색.
- 갈다구(갈따구) 하늘소... 몸 길이 20~32mm, 몸빛은 흑갈색에 회황색 털이 덮이고 전배판의 양쪽에 큰 가시 끝은 돌기가 있음. 유충은 상수리나무의 썩은 곳에 기생함.

2. '계단을 오르며' (2500038)는 계단 오르기의 속성을 통해 도전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역시 굳어지지 않는 깔끔한 표현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사유의 공간을 넓게 남겨둔 기법이 우수하다.
3. '새벽에 다녀간 마법사' (1500004)는 새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인과를 동심다운 호기심으로 유추하면서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발상이 재미있고 상황 설정 또한 매우 흥미롭다.
4. '시골 아이' (1500007)는 자연과 하나 되어 티 없이 살아가는 시골 아이의 삶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얼핏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으나 동봉된 ‘걸어오길 잘했지’ 에서 보여 준 한 섬세한 감수성이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5. ‘엄마의 사랑 찾기’ (2500052)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엄마 사랑의 지극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예리하고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이나 성인투의 발상이 생기발달함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있다.
6. ‘못생긴 모과’ (2500036)는 모과의 형태에 착안하여 많은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짙은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교훈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주제의식이 강하고 견고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역시 성인적 발상이 다소 아쉽다.
7. ‘도서관’ (1500005)은 도서관을 향기로운 엄마의 품이나 향기 가득한 꽃밭에 비유하면서 책의 가치나 독서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비교적 무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평범성을 벗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8. ‘사월의 밤’ (1500016)은 벚꽃으로 환해진 밤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다. 그러나 벚꽃의 인상을 ‘경극 배우’ 로 비유한 점에서 보이듯이 동심과는 다소 유리된 발상이 아쉬운 점 이었다.



○ 후보작

- ‘동그라미’ (1500016)는 네모와 함께 동그라미도 그려 넣어 동글동글 동그랴게 나아가자는 진술을 통해 부드러운 삶을 염원하고 있는 작의는 잘 감지되고 있으나, 관념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감동의 차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폭포’ (2500047)는 폭포의 속성에 주목하여 넓고 큰 도량으로 더불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정의 삶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으나 너무 장황한 진술에 의존하여 간결성을 잃고 있음이 아쉽게 느껴졌다.

박종현 · 문삼석



동화부문 심사평

예심에 오른 작품 중 입상 작품을 고르자니 어려움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기성 작가 버금가는 우수한 수준의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눈사람 만들기>는 어린이의 심경 묘사와 우정을

깊이있게 그려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새싹 도둑>은 숙제를 낸 선생님이나 숙제를 해 간 어린이의 기지를

잘 나타냈으며, <딱새가 누고 간 똥>은 동화를 통해 나비의

한살이를 그린 점이 돋보여 우수상으로 올렸다.

<다시 찾은 형>은 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 장애인 형이 부끄러워

숨겨오다 성탄절 위문때 다시 만나 형제간에 나눈, 마음에 비친

우의가 깊은 감동적이었고, 나머지 작품 <채송화 꽃물결>, <소금밭

아이들>, <강아지 어미>, <보람이의 방패연>도 어린이의 마음과

생활상을 비춘 수준급 작품이라 생각되어 장려상으로 올렸다.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이창수 · 송명호



희곡부문 심사평

우선 희곡을 쓰려면 연극을 알아야하고 희곡 쓰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이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트 구성이 극중에 흐르는 테마나 사건전개 과정이 제한된다는 점과 대사와 사건의 유기성이 수반되어야하고 인물의 성격과 연령에 따라 각기 개성을 담은 어법을 사용하여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종선까지 올라온 작품이 <선>과<파브르 2세의 하룻밤>이다.

<선>

저자가 연극과 희곡에 많은 관심을 가진듯 극적 구성에 안정감이 있고 인물 성격의 알맞는 대사 그리고 긴박감이 극 진행에 흥미를 유발하는 우수작품이다.

종결부분에 기자와 카메라맨이 특종에 집착하는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 한마디를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지만 최우수상으로 손색없는 우수한 작품임.

<파브르 2세의 하룻밤>

자연 친화적인 면에 관심을 보인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작품으로 발상도 좋고 전체적 흐름도 무난하다.

다만 희곡 작품으로서의 구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파브르에 대한 설명부족이 아쉬움이 있지만 장려작품으로는 충분함.

고성주 · 전옥주

용이굴별서 (龍隱別墅) *글지나무

두 돌을 쌓아 마을도 돌리듯 다 함쳐 지간
의뢰과 용이굴이 나고 본디

물범만한 마리, 저 혼자 모리 흔들며 나아간다

천 년 흐른 바위벽에 (雙磯, 楓嶽) 새겨진 글씨 남아
, 崔孤雲書, 손글씨로 풀이며 따라간다

천년 흐른 바위벽에

사방이 돌소리

돌이 노면 속 속 구드디디디디다 신명 환보라 빛

이름 아늘의 용이굴별서 (龍隱別墅) 지고은가한 최치원

편편향향이 바람의 신명 환보라 빛

용이굴별서인 투박한 보라 빛 간자본기

추추도의 호미질로에서 내내 피어있고

사색이 돌이 굴의 벽

용이굴별서인 투박한 보라 빛

바위굴로, 나, 이갈래 없었기, 의서서

마의 굴이, 바위굴의 벽

바람의 신명 편편향향이 만두 팔가득 하였으니

